



# 한인교육연구

Journal of Korean- American Education

2016년 교육 연구 주제: 한국어 교육의 현지와 및 차세대 교육

한국어 교육 연구

한국 역사 연구

한국 문화 연구

권말부록: 창립 35주년 기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35년 연혁

##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 한 인 교 육 연 구



재미동포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을 실현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www.naks.org](http://www.naks.org)

한인교육연구 통권 제 31호

발행인: 최미영

편집인: 황정숙

발행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발행일: 2016년 7월 13일

인쇄: 베이종합인쇄 [www.bayprinter.com](http://www.bayprinter.com)

Copyright ©2016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Inc. All rights reserved.

재미동포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을 실현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www.naks.org](http://www.naks.org)

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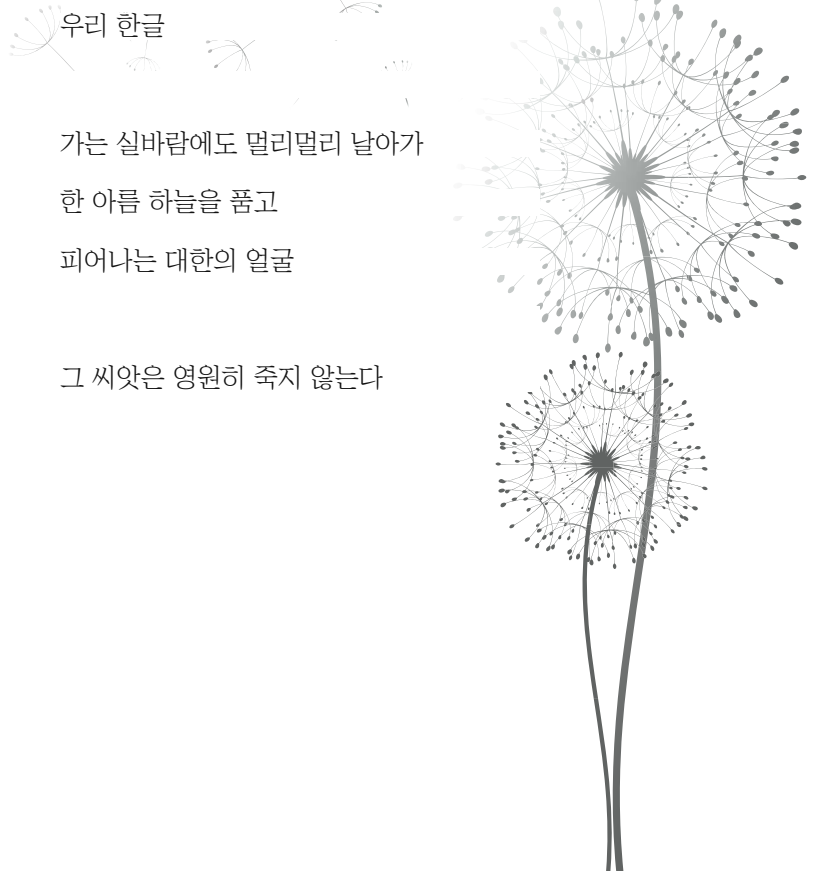
## 미국에 날아 온 민들레 사랑

김송희

시인, 재미한국학교동북부지역협의회 고문

먼 나라 낮 선 땅  
바다 건너  
산 너머  
꽃바람에 날아 온  
민들레 한 톨  
한글이라는 우리 얼 담긴  
자손에게 남겨 준 세종대왕의  
귀중한 유산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대 이름 부르며  
대한민국이라 부르고  
순아  
영아 철아  
소리 나는 대로 부르고 쓰는  
우리 한글  
  
세계 곳곳에  
미국 중국 일본 세계친구들과  
나란히 앉아  
우리 문화 역사  
아름다운 정서가 담긴 우리 예술  
빛나게 하고

세계 곳곳에 자리 잡은  
한국식당에 가면  
불고기 비빔밥 김치를 먹고  
자랑스럽게 빛나는  
우리 이민 자손들  
  
아스팔트 사이에도  
푸른 잔디 곳곳에도  
밟아도 살아나는 노오란 민들레  
36년동안 일본은 우리 한글 죽였다 한들  
다시 살아 난 민들레  
우리 한글  
  
가는 실바람에도 멀리멀리 날아가  
한 아름 하늘을 품고  
피어나는 대한의 얼굴  
  
그 씨앗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05

**축시**

미국에 날아온 민들레 사랑  
김송희

08

**낙스의 설립 및 목적**

**교육 연구 주제:**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 및 차세대 교육**

**한국 역사 문화 교육 연구:**

10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과 한민족 발전 기여의식과 관련된 요인  
김경준

18

재미한인 디아스포라와 정치력 신장  
김재기

22

한국건축에 대한 새로운 이해  
김종현

**한국어 교육 연구:**

27

한글의 특성과 전통시대 한글교육  
송철의

37

외국어 학습 표준에 따른 프로젝트 기반 교수법의 활용  
조혜원

47

재외동포아동을위한학습자중심한국어교재개발  
이해영, 이정란

**53**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교실의 수업 대화 분석  
박기선

**63**

국립국어원 개발 한국어 교육 자료 현황과 활용법  
황용주

**73**

한국어 교육과정의 이해  
방성원

**78**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황정숙

**권말부록:**

**93**

재미한국학교협의회 35년 연혁  
이광호

**143**

NAKS 조직도

**144**

NAKS 및 14 지역협의회 창립 연혁

**145**

역대 이사회 임원

**146**

역대 협의회 임원진

**147**

역대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지

**149**

편집후기  
황정숙

# NAKS의 설립 및 목적/Mission Statement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미주에 있는 1,000여 주립 한국학교의 연합체이다. 한국어, 한국문화 및 역사 교육의 개발과 육성, 한국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한 긍지 함양, 교육 정책에 대한 건의와 협조 추구 등 한인 차세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과 긍지를 심어주는 종합 한인 교육 기관으로서 1981년에 창립된 이래 현재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단체(501(c)(3) EIN #52-1596204)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1,000여 개의 회원 학교들이 함께 2세들의 미래 교육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미국의 전 지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전국 협의회 산하 14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협의회는 소속 한국학교의 발전과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 향상 그리고 2세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자체 행사를 하고 있으며 전국 협의회와 교육 행사 및 교사 연수 그리고 교육 정보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고 있다.

산하 14개 지역 협의회로는 남서부 지역 (휴스턴), 뉴잉글랜드 지역 (보스턴), 동남부 지역 (애틀랜타), 동북부 지역 (뉴욕), 동중부지역 (필라델피아), 미시간 지역 (디트로이트), 북가주 지역 (샌프란시스코), 서북미 지역 (시애틀), 워싱턴 지역 (D.C.), 중남부 지역 (인디애나폴리스), 중서부 지역 (시카고), 콜로라도 지역 (덴버), 플로리다 지역 (마이애미), 그리고 하와이 지역 (호놀룰루) 등이 있다.

## Mission Statement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 cultivates the development of strong bonds of friendship among Korean Schools and instruction in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It is an organization operating with the goal of nurturing and educating Korean-American in the U.S. Its objective is to instill pride in Korean-American through a pro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 and of its culture, history, and language. Its other objective is to examine and influence the educational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n the U.S. to benefit Korean-American.

## Structure and Operation

NAKS was established in 1981 in Washington, D.C. and is currently spread across the fifty states of the U.S. NAKS unites over one thousand Korean schools and is recogniz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s a non-profit educational organization(501C-3, EIN #52-1596204). The association is composed of a general assembly, a meeting of officers, a board of directors, and a council of presidents representing NAKS' fourteen regional chapters that collaborate to achieve its stated objectives. While maintain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body, each region implements activities to continually improve and aim for excellence in the education its local Korean schools provide.

## NAKS' Goal

- Young Korean-American Education Serve regional chapters, local Korean schools, and Korean-American societies
- Training of Teachers both first generation Equip them with necessary Korean language, history & culture education
- Nurture & Training for the 1.5 and 2nd Generation Teachers

Help them to recognize their heritage and identity as Korean-American and to network with others Korean school teachers: Equip them for other 2nd generation Korean-American Students

## NAKS' Events & Activities

- Intensive Teacher Training Program
- Annual Conference and General Assembly
- Publish a Journal of Research in Korean Education for teachers
- Support NAKS Member Schools- More than 1,000 Regional Korean schools in the U.S.
- Sending the qualified instructors to each regional chapter's own conference (14 Regional Chapters)
- Support for Regional Chapter's Teacher Conference
- Develop & Publish Teaching Materials and Assessment/Measurement System
- Annual SAT Korean Pilot Test

- Develop & Publish Hangeul Textbooks (7 books total so far)
- Develop & Publish books for Korean History and Culture
- Develop & Publish SAT Korean Workbook
- Education of 2nd Generation of Korean-American
- Educational Curriculum Contest for Korean Schools
- Speech Contest for the Korean-American Students
- Writing Contest for the Korean-American Students
- Publish Annual White Paper

## ORGANIZATION

NAKS is an organization of weekend Korean schools covering 50 states and Samoa. About 1000 schools are organized under 14 regional chapters.

## REGIONAL CHAPTERS

New England Chapter: MA, NH, VT, RI, ME

Northeast Chapter: NY, NJ

Mid-Atlantic Chapter: PA

Washington D.C. Chapter: Washington, D.C., MD, VA

South East Chapter: GA, NC, SC, AL, TN

Florida Chapter: FL

Michigan Chapter: MI, Northwest Ohio

Midwest Chapter: IL, WI, MN, IA, MO, KS, NE, ND, SD

Midsouth Chapter: IN, OH, KY

Colorado Chapter: CO, WY

Southwest Chapter: TX, OK, AR, MS, LA

Northwest Chapter: WA, OR, ID, MT, AK

Northern California Chapter: Northern CA

Hawaii Chapter: HI, Samoa

## NAKS Present & Future

- Develop Textbooks of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 Develop Teaching & Training Material for Teachers
- Install the Pride as the 2nd Generation of Korean-American through Pro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 and its Culture, History and Hangul, the Korean Language.
- Promot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mong 1,000 Korean Schools in United States.

## Membership Qualifications

- Institutional Member: Must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 and pay the school membership fee to local chapter. Can participate and vote in the General Assembly.
- Individual/Private Member: Must have represented a Korean School for three years, or must have taught in a Korean School for five years, or must have contributed service as an officer in NAKS for two years, or must have devoted himself or herself to Korean education research and Korean studies.

## Benefits for Member

- Free subscription of NAKS' Journal of Research in Korean Education
- Free subscription of annual NAKS Report
- Discount on Korean language textbook series created and published by NAKS
- Discount on registration fees for attending NAKS' annual conference Subsidized lodging when attending NAKS' annual conference
- Access to a network of experts in the field of Korean-American education

#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과 한민족 발전 기여의식과 관련된 요인<sup>1</sup>

김경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민족 공동체체의 소속감 혹은 동일시 등을 의미하는 한민족정체성은 그동안 많은 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다(정영훈, 2010; 이석인, 임영언, 2011; 임영언, 김태영, 2008). 한민족 재외동포들의 이민의 역사가 깊어짐에 따라 1세대, 1.5세대, 2세대, 3세대 등 세대별로 변화하는 민족정체성은 모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어 왔다. 민족정체성을 측정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비롯하여(성경률 외, 1999; 윤인진 외, 2007),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민족정체성의 정도에 따른 재외동포청소년들에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연구에서는 연령, 한국식 성명 명칭 사용, 부모의 영향, 한국어능력 등이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석인, 임영언, 2011: 538~539), 또한 민족정체성은 한국에 대한 관심도, 한국이미지, 네트워크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황혜경, 2015: 301; 이석인, 임영언, 2011: 540).

한편, 화교네트워크, 유대인네트워크, 인교네트워크 등 지구화와 함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글로벌 민족네트워크의 사례는 한민족 발전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에 대한 실태 점검과 향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 영향을 주어 왔다(성경률 외, 1999; 김인영, 1999; 전형권, 2004a; 전형권, 2004b). 특히, 재외동포청소년의 네트워크 형성의 문제는 최근 차세대 재외동포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래 동포사회 주역으로서의 차세대 재외동포청소년들을 한민족을 이끌어갈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모국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재외동포청소년 자신의 발전은 물론 미래 한반도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다(이진영, 박우, 2013; 윤인진, 2013; 윤인진, 2005). 실제로 정부에서는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유능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재외동포재단, 2014a: 23~33). 이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과 한민족 발전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고, 또한 어떠한 요인들이 이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 및 동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 2. 조사방법

이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과 한국사회 발전 기여에 대한 기대 의식 등을 조사하였다. 2015년 7월 14일에서 2015년 8월 4일 사이에 재외동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사업<sup>1</sup>을 통해서 국내로 입국한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중·고·대학생) 85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회수·분석된 설문지는 575부였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한민족에 대한 의식, 재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와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 기대 등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해당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자료는 재외동포청소년의 기본적인 정보 파악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집단 간 차이 분석<sup>2</sup>을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의 민족정체성 형성과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주요 조사결과

### 1) 설문 응답자의 특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은 출신지역 국가별로는 중국이 3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 및 CIS(26.3%), 북미(14.8%), 기타 지역(9.2%), 남미(7.1%), 유럽(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에는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동포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일본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 재일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소수만이 참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별도로 분석하지 못하고 기타

1 2015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고유과제로 수행한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2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집단 평균을 비교하였다.

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37.4%, 여자 청소년이 62.6%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두 배 정도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4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생(36.0%), 중학생(15.5%)의 순이었다. 학교유형별로는 거주국 학교가 7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제학교(12.3%), 한국학교(3.7%) 등으로 나타났다.

표1 응답자의 특성

|          |           | 빈도(N) | 비율(%) |
|----------|-----------|-------|-------|
| 전체       |           | 575   | 100   |
| 출신 지역 국가 | 중국        | 208   | 36.2  |
|          | 북미        | 86    | 14.8  |
|          | 남미        | 40    | 7.1   |
|          | 유럽        | 33    | 5.6   |
|          | 러시아 및 CIS | 149   | 26.3  |
|          | 기타        | 54    | 9.2   |
|          | 무응답       | 5     | 0.9   |
| 성별       | 남자        | 215   | 37.4  |
|          | 여자        | 360   | 62.6  |
| 학교급      | 중학생       | 89    | 15.5  |
|          | 고등학생      | 274   | 47.7  |
|          | 대학생       | 207   | 36.0  |
|          | 무응답       | 5     | 0.9   |
| 학교유형     | 거주국 학교    | 415   | 72.2  |
|          | 한국학교      | 21    | 3.7   |
|          | 국제학교      | 71    | 12.3  |
|          | 기타        | 41    | 7.1   |
|          | 무응답       | 27    | 4.7   |

## 2) 한민족 정체성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을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 동포사회의 배경,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재외동포청소년들은 한민족의 후손임과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동포사회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한민족 사건이나 문제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역별로는 남미지역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인식 이외의 모든 정체성 영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중국지역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민족의 후손임과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민족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남미지역(4.5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럽(4.52), 기타지역(4.41), 러시아 및 CIS(4.35), 북미(4.27), 중국(4.19) 순이었다.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은 남미지역(4.30)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지역(4.28), 유럽(4.15), 러시아 및 CIS(4.12), 북미(4.09), 중국(3.89) 등의 순이었다.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남미지역(4.5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 및 CIS(4.29), 기타지역(4.19), 북미(4.16)와 유럽(4.16), 중국(4.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 한민족 정체성

(단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전체             | 중국             | 북미             | 남미             | 유럽             | 러시아<br>및 CIS   | 기타             | F값      |
|-----------------------------|----------------|----------------|----------------|----------------|----------------|----------------|----------------|---------|
| 한민족의 후손임이 자랑스럽다             | 4.31<br>(.89)  | 4.19<br>(.96)  | 4.27<br>(.97)  | 4.55<br>(.81)  | 4.52<br>(.71)  | 4.35<br>(.79)  | 4.41<br>(.81)  | 1.74    |
|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           | 4.07<br>(.55)  | 3.89<br>(1.09) | 4.09<br>(.92)  | 4.30<br>(1.02) | 4.15<br>(.87)  | 4.12<br>(.81)  | 4.28<br>(.88)  | 2.33*   |
|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4.18<br>(.92)  | 4.04<br>(1.03) | 4.16<br>(.90)  | 4.54<br>(.71)  | 4.16<br>(.85)  | 4.29<br>(.80)  | 4.19<br>(.98)  | 2.21*   |
| 다른 사람에게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한다.  | 3.69<br>(1.03) | 3.71<br>(1.15) | 3.42<br>(1.19) | 3.98<br>(1.23) | 3.55<br>(1.12) | 3.69<br>(1.03) | 3.87<br>(1.10) | 1.66    |
| 나의 동포사회의 배경에 대해 잘 안다.       | 3.60<br>(1.06) | 3.72<br>(1.03) | 3.82<br>(1.08) | 3.95<br>(1.30) | 3.66<br>(1.00) | 3.16<br>(.93)  | 3.74<br>(1.04) | 6.72*** |
|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로 느껴진다.   | 3.62<br>(1.07) | 3.64<br>(1.02) | 3.55<br>(1.09) | 3.73<br>(1.30) | 3.97<br>(.78)  | 3.42<br>(.99)  | 3.89<br>(.91)  | 2.22*   |

한민족과 관련한 대화는 남미지역(3.98), 기타지역(3.87), 중국(3.71), 러시아 및 CIS(3.69), 북미(3.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포사회의 배경에 대한 인식은 남미지역(3.95)과 북미지역(3.82)의 청소년들이 가장 높으나 러시아 및 CIS지역의 청소년들(3.16)이 가장 낮았으며,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3.97), 기타 지역(3.89), 남미지역(3.73)의 청소년들의 인식이 높고 러시아 및 CIS지역 청소년들(3.42)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한국사회 및 동포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인식

미래 동포사회의 주역이 될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사회 및 동포에 대한 인식은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동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거주국에서의 성공을 통한 동포사회의 발전, 동포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동포사회의 단합,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가교 역할을 통한 남북통일への 기여 등으로 조사하였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은 동포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동포사회의 단합에 대한 역할(3.60)을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생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남북통일への 기여(3.51), 동포사회 발전에의 기여(3.40)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3 재외동포 청소년에 기대하는 역할

(단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전체             | 중국             | 북미             | 남미             | 유럽             | 러시아<br>및<br>CIS | 기타             | F값     |
|--------------------------------------------|----------------|----------------|----------------|----------------|----------------|-----------------|----------------|--------|
|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서 성공해서 동포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 3.40<br>(1.14) | 3.98<br>(1.01) | 3.73<br>(1.02) | 3.51<br>(1.36) | 3.75<br>(.65)  | 3.70<br>(.80)   | 3.36<br>(1.11) | 3.76** |
|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다.                | 3.77<br>(.98)  | 3.87<br>(1.05) | 3.53<br>(.98)  | 4.03<br>(1.05) | 3.85<br>(1.00) | 3.72<br>(.83)   | 3.60<br>(.92)  | 1.81   |
| 다른 동포사회와 교류하여 동포사회를 단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3.60<br>(1.02) | 3.91<br>(1.05) | 3.64<br>(1.01) | 3.73<br>(1.16) | 3.81<br>(.86)  | 3.43<br>(.94)   | 3.71<br>(.93)  | 3.45*  |
|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경제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3.66<br>(1.02) | 3.78<br>(1.05) | 3.56<br>(.98)  | 3.75<br>(1.34) | 3.55<br>(.91)  | 3.54<br>(.96)   | 3.67<br>(.95)  | 1.14   |
| 국제사회에서 가교 역할을 통해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 3.51<br>(1.02) | 3.69<br>(1.17) | 3.24<br>(1.16) | 3.78<br>(1.19) | 3.13<br>(1.07) | 3.49<br>(.78)   | 3.38<br>(1.06) | 3.04*  |

국가지역별로는 동포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중국(3.98), 유럽(3.75), 북미(3.73), 러시아 및 CIS (3.70), 남미(3.51), 기타 (3.36) 등의 순으로 자신들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동포사회의 단합에 대해서는 중국(3.91), 유럽(3.81), 남미 (3.73), 기타(3.71), 북미(3.64), 러시아 및 CIS(3.43) 등의 순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남북통일예의 기여에 대해서는 남미(3.78), 중국(3.69), 러시아 및 CIS(3.49), 기타(3.38), 북미(3.24), 유럽(3.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포사회 발전, 동포사회 단합, 남북통일예의 기여 등 중국 동포청소년들의 동포사회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남미지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남북통일예의 기여에 대한 역할 인식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과 북미지역의 동포청소년들은 동포사회의 발전과 동포사회 단합에서의 역할 인식은 비교적 높았으나 남북통일예의 기여에 대한 역할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아 및 CIS지역 동포청소년들은 동포사회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는 비교적 높았으나 동포사회 단합예의 역할 기대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 지역별로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향후 국가지역별 재외동포청소년 개발 방향에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 4) 가정에서의 한국 관련 활동 및 부모의 기대

가정에서 부모의 한국어 사용 등 한국과 관련한 활동 등은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서 가정에서의 한국 관련 활동 및 부모의 기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즉, 가정에서 부모의 한국어 사용,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 드라마, 뉴스 시청 및 노래 청취, 한국 관련 직업 희망, 한국 사람과의 결혼 희망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거주 국가지역별로 볼 때,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은 전체적으로 한국 음식 만들기(4.12)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드라마, 뉴스 시청 및 노래 청취(3.58), 한국어 사용(3.26) 등이었으며, 한국과 관련한 직업 희망(2.93)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역별로 볼 때,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과 한국 음식 만들기 등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상당수 부모들이 자녀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희망하였으나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이에 비해 남미지역의 부모들은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이나 한국음식 만들기 활동, 한국 드라마 시청 등은 가장 적게 하고 있었으나 자녀의 한국과 관련한 직업에 대한 희망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지역의 부모들은 드라마, 뉴스 등의 시청은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나 자녀의 한국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희망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및 CIS지역 부모들은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과 음식만들기 등은 가장 적게 하고 있으나 자녀의 한국 관련 직업이나 한국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희망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

(단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체             | 중국             | 북미             | 남미             | 유럽             | 러시아<br>및<br>CIS | 기타             | F값       |
|----------------|------------------------------------------|----------------|----------------|----------------|----------------|----------------|-----------------|----------------|----------|
| 한국<br>관련<br>활동 |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 3.26<br>(1.44) | 3.49<br>(1.22) | 4.04<br>(1.16) | 2.66<br>(1.84) | 4.19<br>(1.36) | 2.07<br>(.89)   | 2.80<br>(.99)  | 46.22*** |
|                |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즐겨 만들어 먹는다.               | 4.12<br>(1.03) | 4.11<br>(1.01) | 4.32<br>(.93)  | 3.49<br>(1.68) | 4.25<br>(1.11) | 4.07<br>(.79)   | 4.53<br>(.85)  | 5.28***  |
|                |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자주보거나 한국 노래를 자주 듣는다. | 3.58<br>(1.33) | 4.04<br>(1.10) | 3.41<br>(1.42) | 3.22<br>(1.65) | 3.81<br>(1.28) | 2.88<br>(1.15)  | 4.25<br>(1.21) | 16.83*** |
| 부모<br>기대       | 부모님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 2.93<br>(1.20) | 2.89<br>(1.14) | 2.12<br>(1.05) | 3.34<br>(1.41) | 2.53<br>(1.27) | 3.40<br>(1.08)  | 3.04<br>(1.18) | 13.38*** |
|                | 부모님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 3.20<br>(1.32) | 2.72<br>(1.27) | 3.36<br>(1.36) | 3.02<br>(1.56) | 3.28<br>(1.58) | 3.84<br>(.97)   | 3.04<br>(1.17) | 12.32*** |

이상에서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환경은 남미와 러시아 및 CIS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취약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인접해 있고 TV에서 한국방송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체를 통한 접촉이 쉬운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러시아 및 CIS 등 거주국의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한국 관련 직업에 대한 희망 정도가 높았다.

## 5) 한민족 청소년 간 교류 경험

재외동포청소년들 간의 교류 경험은 동포청소년 간에 평상시 만남이나 연락, 동포청소년 단체 사람과의 연락과 활동 경험, 거주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참여 경험, 한국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교류 경험은 평상시 동포청소년들 간의 만남이나 연락(3.2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포청소년 단체 사람들과의 교류(3.06), 한국에서의 동포프로그램 참여 경험(2.87), 거주국에서의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참여 경험(2.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재외동포청소년들 간의 교류 경험은 친구 등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주국이나 한국에서의 동포 청소년 캠프 참여 경험은 적으며, 특히 거주국에서의 캠프나 연수 기회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지역별로 살펴보면, 평상시 동포청소년들 간의 교류 경험은 유럽(3.66)이나 기타 지역(3.60)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데 비해 북미 청소년들(2.85)이 가장 적었으며, 동포청소년 단체 사람들과의 교류 경험도 유럽지역의 청소년들(3.44)이 가장 많은데 비해 북미지역 청소년들(2.49)의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참여 경험은 남미지역 청소년들(3.12)이 가장 많은데 비해, 북미지역(2.25)과 중국지역 청소년들(2.50)이 가장 적었으며,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러시아 및 CIS지역 청소년들(3.44)이 가장 많고, 중국(2.39)이나 기타 지역 청소년들(2.64)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거주국에서의 교류경험은 상대적으로 유럽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북미지역 청소년들의 교류 경험은 가장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 한민족 청소년 간 교류경험

(단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전체             | 중국             | 북미             | 남미             | 유럽             | 러시아 및 CIS      | 기타             | F값      |
|-------------------------------------|----------------|----------------|----------------|----------------|----------------|----------------|----------------|---------|
| 평상시 동포청소년들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한다.           | 3.25<br>(1.31) | 3.38<br>(1.34) | 2.85<br>(1.39) | 3.15<br>(1.62) | 3.66<br>(1.29) | 3.11<br>(1.04) | 3.60<br>(1.52) | 3.28**  |
| 동포청소년 단체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다.     | 3.06<br>(1.30) | 3.25<br>(1.29) | 2.49<br>(1.32) | 2.88<br>(1.55) | 3.44<br>(1.13) | 3.03<br>(1.12) | 3.21<br>(1.39) | 4.35*** |
| 거주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 2.65<br>(1.44) | 2.50<br>(1.45) | 2.25<br>(1.32) | 3.12<br>(1.72) | 2.78<br>(1.52) | 3.01<br>(1.27) | 2.42<br>(1.51) | 4.4***  |
|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 2.87<br>(1.54) | 2.39<br>(1.49) | 2.93<br>(1.62) | 3.20<br>(1.72) | 2.88<br>(1.72) | 3.44<br>(1.27) | 2.64<br>(1.56) | 8.23*** |

## 6) 한국에서의 교육, 문화, 취업활동 참여 욕구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서의 교육, 문화, 취업활동과 관련한 참여 욕구는 한국에서의 연수, 유학, 기업 인턴활동, 한국이나 한국 관련 기업 취업, 다양한 한국문화 경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 한국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았는데, 특히, 한국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참여(4.15)와 다양한 한국문화 경험(4.06)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역별로 참여 욕구를 살펴보면, 한국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에 유럽(4.47), 남미(4.39), 러시아 및 CIS(4.27) 등의 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높았으며, 한국에서의 유학, 한국 기업 인턴활동 및 한국 기업 취업에 대해서는 특히 남미와 러시아 및 CIS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높았고, 북미지역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참여 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한국 문화 경험 활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의 동포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높았으나, 특히, 유럽(4.34), 남미(4.24), 중국(4.22) 등의 동포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 한국에서의 교육, 문화, 취업활동 참여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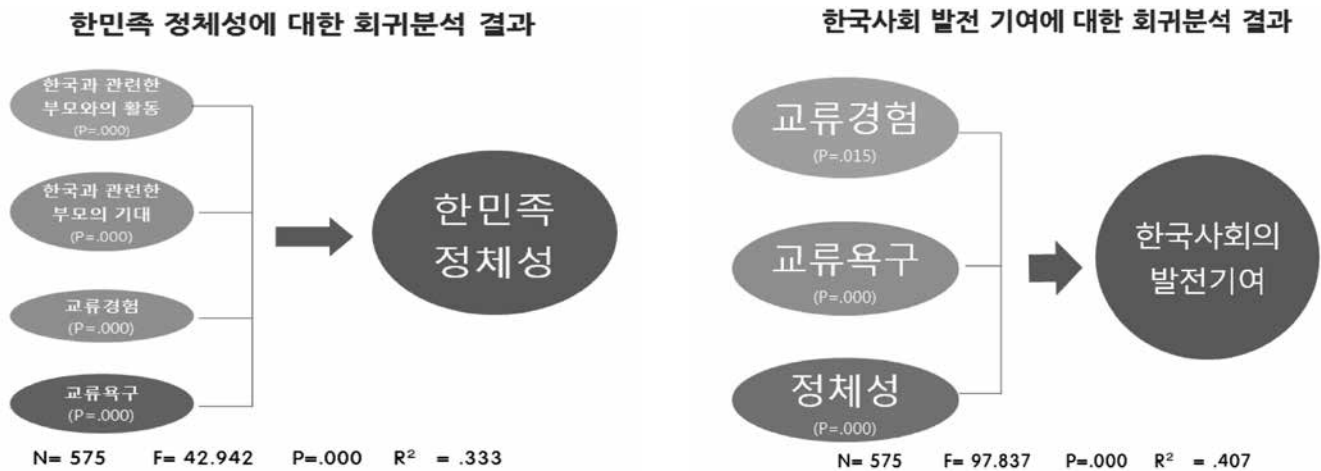
(단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전체             | 중국             | 북미             | 남미             | 유럽             | 러시아 및 CIS      | 기타             | F값       |
|--------------------------------------|----------------|----------------|----------------|----------------|----------------|----------------|----------------|----------|
| 한국에서 청소년과 교류하고 싶다.                   | 4.26<br>(.85)  | 4.23<br>(.94)  | 4.23<br>(.85)  | 4.58<br>(.59)  | 4.42<br>(1.03) | 4.23<br>(.69)  | 4.20<br>(.90)  | 1.28     |
| 한국에서 연수프로그램 참여하고 싶다.                 | 4.15<br>(.98)  | 4.04<br>(1.11) | 3.96<br>(1.02) | 4.39<br>(.89)  | 4.47<br>(.76)  | 4.27<br>(.77)  | 4.11<br>(.99)  | 2.35*    |
|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                        | 3.67<br>(1.25) | 3.52<br>(1.31) | 3.22<br>(1.31) | 4.22<br>(1.17) | 3.53<br>(1.41) | 4.05<br>(.94)  | 3.60<br>(1.21) | 6.48***  |
| 한국이나 한국 관련 기업에서 인턴활동을 하고 싶다.         | 3.75<br>(1.15) | 3.57<br>(1.25) | 3.39<br>(1.25) | 4.15<br>(1.11) | 3.78<br>(1.07) | 4.07<br>(.89)  | 3.79<br>(1.07) | 5.34*    |
| 한국이나 한국관련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             | 3.60<br>(1.24) | 3.44<br>(1.30) | 2.91<br>(1.32) | 4.15<br>(1.13) | 3.53<br>(1.22) | 4.03<br>(.92)  | 3.79<br>(1.10) | 10.61*** |
| 한국의 다양한 문화(역사, K-POP 공연 등)를 경험하고 싶다. | 4.06<br>(1.09) | 4.22<br>(1.10) | 3.91<br>(1.19) | 4.24<br>(1.06) | 4.34<br>(.87)  | 3.79<br>(1.02) | 4.06<br>(1.06) | 3.27**   |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문화의 보급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서의 연수, 교육 및 취업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동포청소년들 간에 참여 욕구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포청소년의 개인적 성향과 더불어 거주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 기회 등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특히 남미와 러시아 및 CIS지역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7)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및 한국사회 발전 기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활동, 한국과 관련한 부모의 기대, 교류경험, 교류욕구, 대학생 대비변수가 한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33.3%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가정에서 부모와 한국어 사용,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드라마나 뉴스 보기 등을 많이 할수록, 부모의 한국 관련 직업과 한국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희망 정도가 높을수록 한민족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포청소년과의 교류 경험과 연수프로그램 참여, 유학, 인턴, 취업, 문화경험 등 한국 관련 교류 욕구가 높을수록 한민족 정체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가정에서의 역할과 동포청소년 간,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 기회가 확대될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공동체 발전의 기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교류경험, 교류욕구, 한민족 정체성이 한국사회발전 기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40.7%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동포청소년 및 대한민국 청소년과의 교류 경험이 많을수록, 한국 관련 교류 욕구가 높을수록,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한국사회 발전의 기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 간, 그리고 한국청소년과의 교류활동과 한민족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 4. 결론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의 조사 결과, 한민족 정체성은 가정에서의 한국과 관련한 활동이나 부모의 기대, 한민족 청소년 간 교류 경험, 한국에서의 교육, 문화, 취업활동 교류 욕구가 영향을 미쳤으며,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대는 한민족 청소년 간 교류 경험, 한국에서의 교육, 문화, 취업활동 교류 욕구, 한민족 정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을 높이고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한민족 청소년 간의 교류활동 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재외동포청소년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한국에 대한 생각이나 한국어 사용, 한국 뉴스 시청 등 부모의 역할은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서의 생활 등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

여 보급하고, 이들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정에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자신의 정체성이나 한민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 초청되는 청소년프로그램이나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수나 캠프 등에 재외동포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에 가족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 대상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하여 재외동포청소년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류프로그램, 한민족체험프로그램 등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은 국가 간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대한민국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청소년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외국 청소년들과의 다양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 프로그램에는 재외동포청소년을 포함하는 경우는 드물다.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만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성가족부 프로그램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외동포청소년들을 미래 한민족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의 협력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한민족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대민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매년 1억 달러를 투자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가 대상에 있어서 일반 청소년뿐만 아니라 의대생, 음악가, 금융전문가 등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적지 탐방, 하이킹, 생태탐방, 역사탐방,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간별로는 10일 이내의 단기간 프로그램에서부터 몇 달 간에 걸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령별, 대상별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로 하여금 한민족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와 연계하는 ‘뿌리찾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에서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와의 결연 등을 통한 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한글학교 등에서 한국 내 지역 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가 실시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과 국내 지역 청소년들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다양한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에 1999년부터 지역별, 주제별로 특성화된 다양한 캠프를 운영하는 ‘뿌리찾기여행’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지역 문화체험과 재외동포와 지역청소년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그리고 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부담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항공료 등 교류 비용의 일부를 기업이 후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경준, 김태기(2015). 미래 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 (15-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인영(1999). 해외동포와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 형성: 현황과 과제, 한민족통합연구소 기념세미나 1999권 1호, 1-22.
- 성경룡, 김인영, 박준식, 손기섭, 이재혁, 전상인, 최태강, 한준(1999). 한민족 네트워크공동체 의식조사. 서울: 한국방송공사, 한림대학교민족통합연구소.
- 윤인진(2005). 재외동포 차세대 현황과 한민족공동체로의 포용방안-재미동포를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제13호, 191~243.
- 윤인진(2013).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재외동포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의 재정립, 민족연구 54권 0호, 4~22.
- 윤인진, 채정민(2007).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연구보고 07-R13-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석인, 임영언(2011). 재일코리안 청소년의 민족정체성 형성요인과 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1호, 525~547.
- 이진영, 박우(2013).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한국의 차세대 재외동포 정책, 민족연구 54권 0호, 22~24.
- 임영언, 김태영(2008). 재일코리안 청소년의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36권 0호, 393~415.
- 재외동포재단(2014a). 2014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 전형권(2004a). 세계의 인교 네트워크 발전과 인도의 재외동포정책: 한국에 주는 함의. 대한정치학회보 12권 2호, 201~228.
- 전형권(2004b). 글로벌 민족네트워크와 각국의 동포정책-인도와 이스라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33권 0호, 191~218.
- 정영훈(2010). 민족정체성, 그리고 한민족의 민족정체성. 민족학연구 9권 0호, 1~30.
- 황혜경(2015). 민족정체성에 따른 재일동포인식에 관한 비교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65집, 293-311.

# 재미한인 디아스포라와 정치력 신장<sup>1</sup>

김재기 교수<sup>2</sup>

전남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뉴욕시립대퀸즈컬리지 교환교수

## 1. 서론

200만 명 규모의 미국한인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1965년 미국의회가 ‘하트셀러법’(Hart-Seller Act)을 제정한 이후이다. 중국과 구소련을 비롯하여 일본지역에 한인사회가 구한말에 시작하여 일제 강점기 대규모 디아스포라를 통해 근대부터 형성된 것과는 달리 미국의 한인사회는 미국의 제도화된 이민정책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미국의 한인사회에서 한인들만의 힘을 응집하여 정치력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 한국정부(외교부)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외교부의 별다른 도움 없이 한인들의 응집된 힘을 통해 버지니아 주에서 동해병기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2014년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는 공립학교 교과서에 ‘일본해’ 단독 표기를 ‘동해’와 병기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일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CA나 NY이 아닌 소규모의 10만 명의 버지니아의 한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동해병기운동은 2014년도 뉴욕 주 상원은 통과되었으나 하원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었고, 2016년에도 뉴욕 주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은 상하원 모두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회기가 끝나 무산되었다<sup>3</sup>. 동해병기 법안 통과는 미국 내 한인사회는 물론 해외 한인들의 공동체적 결합이 각자의 역할과 신뢰구축, 모국의 이득과 관계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미주 한인들의 조직적, 체계적, 전략적 운동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이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한다.

10만명 규모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버지니아 주에서 한인들이 동해병기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력을 보여주었듯이 비교적 규모가 있고 한인들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뉴욕이나 뉴저지를 비롯하여 캘리포니아 등에서도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에 필요한 활동이 필요하다.

## 2. 디아스포라와 모국관계: 유대인의 AIPAC

기존의 디아스포라 접근은 역사학이나 사회학에서 이주의 역사와 정체성 등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는 경향이 많았다. 최근에는 디아스포라 집단에 대하여 정치현상 내지는 정치경제적인 관계로 접근하고 있다. 디아스포라의 배경을 경제적 요인에서 찾는 학자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디아스포라의 발생은 전쟁이나 분쟁과 같은 정치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대한 접근은 주로 전쟁이나 분쟁을 피해 국가를 떠나는 난민 디아스포라(victim and refugee diaspora)에 대한 논의들이 2000년전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현재의 시리아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디아스포라까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새로운 접근으로 디아스포라 집단과 모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강조하는 사회과학적 접근이다.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정치학과 가브리엘 셰퍼교수(Gabriel Sheffer)는 자기가 태어난 모국을 떠난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 주목하면서 이들과 모국 관계(homeland relation), 거주 국가(host country)라는 삼각관계(triangular relationship)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상호간에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활동하고 있는지 규명하고 있다<sup>4</sup>.

1 \*이 글은 2016년 재미한국학교연례회의(덴버)에서 배포될 자료로서 2015년 한국동북아학회에서 발표된 “미국 버지니아의회의 동해병기법과 재미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치활동”의 일부를 대폭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2 김재기, 『세계화시대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와 국가발전』, 한국학술정보, 2006.

3 뉴욕주 하원에서는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 26선거구) 의원이 2016년 1월 발의해 9명의 의원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했으며, 상원에서는 토니 아벨라(독립민주권퍼런스, 11선거구) 의원이 발의하고 스타비스키 의원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했다.

4 Gabriel Sheffer, Diaspora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73-74.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집단 중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백인계로서 독일인, 이탈리아인, 아일랜드인, 영국인 등에 비해 소규모 집단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이 돋보이는 소수계 디아스포라 민족이 유대인, 쿠바인, 아르메니아인 등이다. 특히 150만명 규모의 쿠바인들은 공화당 미국 대통령 후보로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등을 낼 정도로 정치력이 왕성하다. 2015년 미국과 쿠바가 수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대쿠바 금수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도 공화당에서 쿠바인들의 영향력 때문이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집단 중 모국(homeland)의 이슈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치경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이 미국의 유대인들이다. 유대인은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중동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이나 원조 등 금융차관 지원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 모국인 이스라엘의 이익을 대변하며 관철시키고 있다.

미국의 유대인 단체 중 이스라엘과 가장 강력한 연계를 통해 이스라엘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이 1949년에 설립된 AIPAC(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이다. AIPAC의 주요 정치적 로비의 대상은 유대인이 많이 사는 지역의 의원들이고, 특히 이들 중 이스라엘의 안보와 직결되는 중동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방 의원들이 특별 관리 대상이다<sup>5</sup>.

미국의 이러한 중동정책에 대해 최근 미국 내 일부 학자들이 미국의 친이스라엘 중동정책의 이면에는 AIPAC 등의 단체가 강력한 이스라엘 로비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논쟁이 증폭되기도 하였다. John J. Mearsheimer 시카고대학 교수와 Stephen M. Walt 하버드대 교수는 2006년 3월 하버드대 교수 사이트에 '미국외교를 망치는 이스라엘 로비'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스라엘 측의 로비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AIPAC이 언제나 최대 이슈로 삼고 있는 문제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안전과 미국-이스라엘 사이의 특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AIPAC의 의회, 백악관, 언론에 대한 로비도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AIPAC의 정치력은 미국의 각계 유력인사 약 5만5천명으로 구성된 정회원과, 미국의 주요 주마다 구축된 정교한 지부의 활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회를 주 로비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AIPAC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이스라엘 문제나 세계유대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미이스라엘 대사관' 보다 AIPAC을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극과 극의 선상에서 평가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이 미국으로 이민 온 디아스포라 집단으로서 성공했다는 점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 3. 버지니아 주 동해병기법 제정과 한인 정치력 신장

미주한인들의 응집된 정치력으로 이뤄 낸 2014년 버지니아주 동해 병기 법안 채택이 갖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첫 번째로, 미국의 단일표기 입장고수와 한·일 간의 외교 마찰 우려, 일본의 집요한 방해활동, 정부의 미온적 태도, 미국 내 한인단체 간의 네트워크 미비, VA주 양당 대립과 정치역학 구도, 미 의회의 법안 심의제도의 특성 등 제반의 부정적 요인에도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성공요인은 동해병기라는 역사적 당위성을 철저하게 보편적 인권과 공공교육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다. 동해병기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 마찰로 비화되고 미국 내 한인사회 내에 반일 감정이 전제된 정치적 이슈로 확산되었다면 주 의회를 포함한 미국 내 정치권에는 무관심과 기피대상이 되어 이처럼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치밀한 사전계획과 세심한 정보수집, 그리고 분석에 기초한 실행, 긴박 상황에 신속대처를 위한 체계적 자료 관리를 성공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VoKA의 임원진들은 동해병기에 대한 인정적 차원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주 의회 의원들의 학연, 정치적 인맥, 그리고 주요 활동영역과 관심사, 지지기반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해 접근함으로써 동해병기 법안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의회 내 계파 파악과 정치인들의 약점을 전략적으로 공략함으로써 지지그룹을 만들고 VoKA 임원진들의 학연 등 인맥을 통해 지역 정치인은 물론 주지사 후보들에게 동해병기의 당위성을 설명<sup>6</sup>함으로써 우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 점 또한 동해병기 법안 통과에 성공요인이었다.

5 김재기, "미국의 유대인 단체와 AIPAC의 친이스라엘 정치활동: 재미한인단체의 정치세력화", 『대한정치학회』 제14집 제2호, 2006. pp.351-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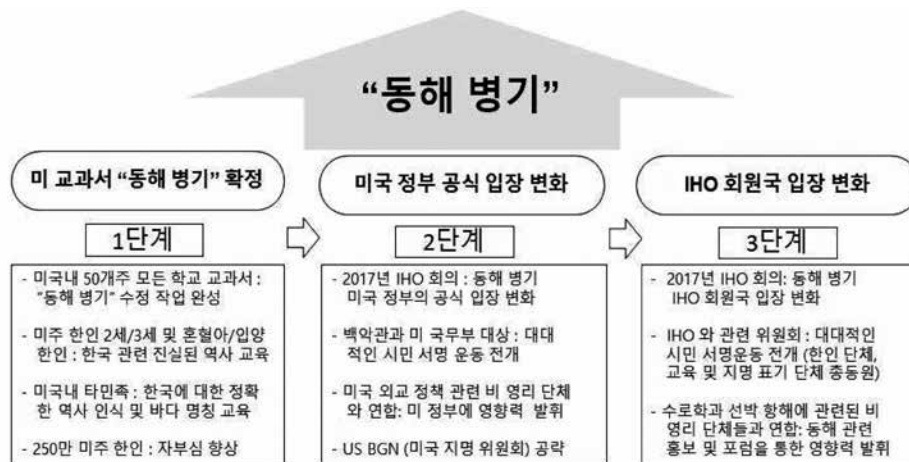
6 피터 김회장 인터뷰, 2014년 9월 29일(전남대 사회대)

세 번째로는 동해병기 법안 채택이 좌초될 위기 때 마다 구해준 것은 한인사회의 결속력과 열정적 참여였다. 이는 곧 10만 이상의 한인 유권자가 정치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으로 커 가고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주지사 후보자들이 한인들의 투표권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동해병기 법안 지지를 선거공약으로, 그것도 문건으로까지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네 번째로 '동해 병기'와 관련해 한·일간 대결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었던 이면에는 한인단체 VoKA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지원활동과 다방면의 홍보활동이 큰 힘이 되었다. VoKA를 비롯한 한인사회는 VA주를 중심으로 인근 MD주,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한인들까지 합세해 본회의, 상임위, 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등 한인의 결집력을 보여줬고 의원 개개인을 성향분석을 기초로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 대응함으로써 입법과정에 유권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일본 측의 방해공작과 의원들의 지지성향 변화를 알리는데 언론사를 적절히 활용<sup>7</sup>하는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동해병기 법안 채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VoKA를 중심으로 한 한인사회가 VA주 의회 정당간 정치역학 구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결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일본의 로비와 정치적 부담을 느낀 맥컬리프 주지사와 민주당이 동해병기 법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공화당은 이에 반발해 법안을 일제히 지지하고 나섰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넘기더라도 감수해야할 정치적 부담 보다는 한인사회는 물론 소수민족 유권자들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계산했다. 주지사가 통과된 법안에 대해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든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VoKA를 비롯한 한인사회는 이러한 양당의 정치 역학구도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법안 채택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또한 버지니아주 정치인들 보다는 민초들인 한인들 중심으로 법안채택을 주도했다는 점과 국민의 뜻을 민주적으로 결집하고, 이를 반영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화된 미국의 민주주의가 뒷받침되었기에 법안통과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sup>8</sup>. 만일 한인 주도의 동해병기 캠페인이 역으로 정치인들이 앞장서도 주도했다면 정 반대의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이는 VA주 동해병기 캠페인과는 대조적인 면으로 재미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은 물론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데 주민 참여를 통한 풀뿌리 정치가 선행되어 한다는 것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번 2014년 버지니아의회의 동해병기법 통과는 미국 한인들의 모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사적인 일이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50개주 모든 학교 교과서에 동해병기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마지막 목표는 동해병기에 대한 IHO 회원국들의 입장 변화를 유도해 2017년 IHO 총회에서 동해병기를 국제사회에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미국정부의 '일본해' 단독표기에 대한 입장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는 버지니아의 한인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미주 전체의 한인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통해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가능하다. 동해의 명칭을 찾는 것은 독도를 지키는 일이다. 독도가 동해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의 방해공작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게는 없는 200만 한인동포사회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볼만한 일이다.

7 피터 김회장 2014년 9월 29일 필자와의 인터뷰(전남대 사회대)에서 VoKA가 확보한 맥컬리프 주지사(당시는 후보자) 지지약속 서명공문과 Washington Post가 소유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일본 대사가 맥컬리프 주지사에게 보낸 협박성 서한을 맞교환해 이를 공개함으로써 한인들의 결집은 물론 공화당원들의 반발에 따른 지지확산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회고했다.

8 피터 김회장 인터뷰, 2014년 9월 29일(전남대 사회대).

## 4.결 론

현재 조직과 재정에 있어서 AIPAC과 같은 유대인 단체들의 정치력에 비교되지 않지만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도 점차 성장하고 있다. 미주한인들은 지역별로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통해 정치력 신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통일운동, 독도문제와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LA와 NY 등에는 제법 규모 있는 한인 타운이 형성되어 한인 경제권이 주목받고 있다. 세탁업이나 네일업을 비롯하여 식품상 등의 스몰비즈니스는 한인을 대표하는 업종이 되었다. 미주 한인들의 자본력과 유통망을 바탕으로 세계한상네트워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력 성장에 비해 정치력은 약한 것이 현실이다.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미국 선거에 많은 수가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수 이민자 집단으로서 한인들의 높은 선거투표율이 바로 정치력이다. 투표를 많이 하는 이민자 집단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이 같은 이슈를 갖고 있는 아시안 이민자집단과 연대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주류사회에서 일을 하는 2,3세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을 비롯하여 금융가도 많은 한인들이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다. 법조계나 회계사 등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잘 훈련시켜 선출직으로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 선출직 한인 정치인>



(자료: 미주중앙일보, 2016년 1월 1일)

미국 시민권자들이 미국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한인들은 한국의 선거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2007년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판정 이후 3회에 걸쳐 재외선거를 치렀지만 투표율은 매우 낮다. 2012년 대통령선거 7.1%, 2012년 국회의원선거 2.5%,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3.2%만 선거에 참여했다.

투표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여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낮은 투표율은 한국정부나 국회가 재외동포들을 정책적 고려 대상에서 미미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높은 투표율은 재외동포와 관련된 다양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각 정당에 재외동포 비례대표 등을 요구하여 미주한인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한국 국회에 보낼 수 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정치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미국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 된 것으로 보인다. 이민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도시에 한인타운이라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한상들과도 교류협력을 통해 네트워킹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 주류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들도 많다. 이제 이들의 역량을 정치적으로 결집시킬 네트워킹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이다.

## 한국의 한국건축에 대한 새로운 이해

김종현

배재대학교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 한옥은 왜 목조로 되었는가?

한옥, 즉 한국건축은 왜 목조로 되었는가? 한국건축을 소개하는 강의 첫 시간에 물어보는 질문이다. 학생들은 어처구니없는 질문에 당혹해 한다. 서양건축의 경우 대부분의 중요건물들은 돌로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극동 아시아의 중요건축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에서 건물이 나무로 되어 있더라도 돌로 된 신전과 같은 건물의 흉내를 내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건물은 익산의 미륵사 탑이나 불국사의 석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돌로 세워져 있더라도 마치 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구법의 흉내를 내고 있다. 오히려 석조건축에서 보여지는 목조 형식의 구성 형식은 목조 결구의 형식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한국건축은 나무로 된 구조체의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1999년 4월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인 봉정사 극락전을 보고 건물이라기보다는 나무로 된 공예품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하였다. 한국건축과 나무와의 관계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 그러나 막상 한국건축이 왜 나무를 주재료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나무는 쉬운 재료가 아니다. 나무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점을 갖고 있다. 우선 물이나 습기에 취약하고, 특히 불에는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4계절의 기후변화를 겪어야 하는 우리 가옥에 있어서 재료의 특성으로만 살펴볼 때 물과 불에 취약한 나무는 적당한 재료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불에 취약했던 나무로 된 건물 밑에 불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자고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이는 한국 사람이 아주 무모했거나, 아니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한 기술을 개발하여야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나무를 고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진1) 부석사 무량수전의 귀공포 - 육중한 지붕을 받고 있는 공포의 결구체계는 나무로 된 구조체의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물과 불에 취약한 나무라는 구조체를 기술적 처리를 통해 극복해낸 우리 조상의 슬기가 들어가 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처음으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물과 불에 취약한 나무라는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기후적 요인에 불리한 나무라는 재료를 그토록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진2) 부석사 안양문 결구체계의 실루엣 선 - 한국건축의 목가구 결구체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석사 안양문 위에서 - 소백산맥의 자락을 형성하고 있는 만석산, 매방산, 대마산, 비봉산 자락들의 중첩된 모습



그림1) 수덕사 대웅전 측면도 - 소꼬리를 닮았다고 하여 불인 우미량이라고 하는 부재를 이용하여 목조의 부드러운 특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수덕사 대웅전의 가구 모습

어떤 학생들은 가공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우리 선조의 가공기술은 탑이나 금속 세공 기술에서 입증한 바가 있다. 지금도 기능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을 보면 가공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또 일반 서민주택만 목조로 되어 있고 궁궐과 사찰 등이 석조로 되어 있다면,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을 지닐 수 있으나 궁궐 역시 목조로 되어 있다. 가공성 때문이라면 궁궐과 사찰 등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가공기술을 실현하여 일반 서민주택과의 차이를 나타내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궁궐이나 사찰 등에서 오히려 목조의 특성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사진3)

봉정사 극락전 -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으로 1972년 해체 수리하면서 공민왕 12년(1363년)에 지붕을 수리했다는 기록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12세기 나 13세기에 건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4) 봉정사 극락전의 처마부분 - 봉정사 극락전의 결구체계는 현존하는 중국의 최고의 목조건축인 당나라 건중(建中)3년(782년)에 축조된 남선사(南禪寺) 대전(大殿)과 유사한 형식이다. 봉정사 극락전의 결구체계는 비슷한 시기의 건축으로 알려진 수덕사 대웅전(1308년)이나 부석사 무량수전(13세기 초)과는 그 구조적 형식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건축은 각각의 고유 성격을 지니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사진5)

불국사 다보탑 (751년 추측):

불국사 다보탑은 목조건축의 결구체계를 석조의 성격에 맞추어 번안한 매우 획기적인 작품이다. 석조에 대한 가공기술을 느낄 수 있다.



사진7)

경천사 10층 석탑



사진8)

원각사지 10층 석탑



사진9)

전남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사진10)

익산 미륵사지석탑

사진7), 사진)8

정교한 10층의 석탑을 통해 가공 기술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탑의 경우에도 돌의 가공을 통해 목조 결구체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있어서 석조탑의 세부 장식은 당시 목조 결구체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사진9), 사진10)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목조건축 기둥의 배흘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한 목조기법을 흉내 내고 있다. 또 기둥을 연결하는 부재인 평방과 창방을 표현하고 있어서 목조탑에서 석조탑으로의 전이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화순의 쌍봉사 철감선사탑은 지붕부위의 기와골과 막새기와 그리고 처마의 서까래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석재가 얼마나 자유롭게 활용되었는지를 느끼게 해준다.

어떤 학생들은 재료를 구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이고, 그 밑에는 많은 화강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히려 쓸 만한 나무를 구하는 것 보다 석재를 구하기가 더 쉽다. 우리나라 지형의 70 %를 차지하고 있는 산이 있지만 건물을 짓기 위한 목재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목재가 충분히 자라기 전에 땔감으로 많이 켜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화강석이 매우 훌륭했고 화강석의 생산량도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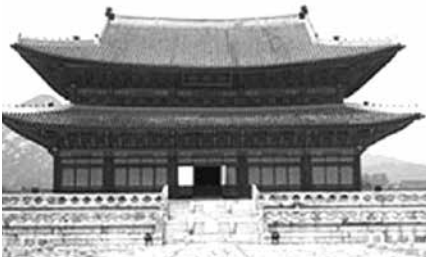


사진11) 경복궁 근정전 :  
가공 기술의 편이성 때문에 목조 지어졌다면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 근정전이 목조로 지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궁궐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가급적 어려운 기술을 활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석축에 나타난 기술력을 통해 볼 때 당시에도 이미 충분히 석조건축을 축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다.



사진12) 부석사 안양문에서 바라 본 우리나라 산의 모습



사진13) 불국사 화강석의 석축 - 우리나라는 돌이 많기 때문에 돌의 가공기술은 매우 뛰어 났다. 또 어떤 학생들은 기후적 요인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기후적 요인이라는 것도 석조로 되어 있다면 불을 이용하기가 쉽고 돌의 냉한 기운 때문에 여름을 지내기가 더 용이할 수 있었다.



사진14) 장인숙 작 자작나무 - 우리의 환경은 아름답지만 건축용 자재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 그렇다면 왜 목조로 그토록 고집했던 것일까?

한국건축에 대한 의문은 여기서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다만 추론해 보건대 나무라는 재료는 땅 위에서 자라면서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재료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생활하기 위한 공간을 감싸는 재료는 사람과 같은 속성을 지닌 재료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다. 사람이 살아가는 실체인 몸과 마음을 담을 공간은 사람과 같이 땅 위에서 숨 쉬며, 자라고, 쇠락하여 썩을 수 있는 살아 있는 재료를 선택했던 것 같다. 산 사람을 위한 공간에 목조가 사용된 것과는 달리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은 석조로 구축된다. 돌은 땅 밑에 있는 재료로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 목조가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면, 석조는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 생명력을 지닌 산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목조가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영원성을 지닌 죽은 사람을 위한 재료로서 석조가 이용된다.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영원성을 지니는 석재를 이용하는 것은 동서양이 비슷하다. 그러나 서양이 삶 자체에 영원성을 부여하기 위해 산사람을 위한 집에서도 석조를 선호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윤회사상을 통해 죽음 자체를 인정하고 자신이 살 집 자체도 영원성을 부여하기보다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을 부여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영원한 집으로서의 서양건축은 그리스·로마 시대,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등 시대마다 독특한 형상을 지니면서 변화해온 반면 죽음을 인정한 우리의 건축은 목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형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이다.

앞에서 언급된 여러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석조로 이루어진 석탑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목조건축의 분위기를 나타내려 하였고 그것도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려 하였던 것이다. 2002년 대전 건축디자인 캠프에는 필란드의 건축가 마라 사르비마키(Marja Sarvimaki) 박사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그녀는 이 강연에서 아주 재미 있는 발표를 해주었다. 그것은 서양의 건축은 일반주택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목재를 이용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다소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부유층에서는 석조건축의 디테일을 목조를 이용하여 표현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석조를 이용하여 목조결구체계를 표현하려고 한 반면 서양에서는 목조를 이용하여 석조의 디테일을 표현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진15)  
부여 능산리 고분 사진



사진16)  
부여 능산리 고분의 측면 모습

사실상 산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서 목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해결해야 할 많은 기술적인 문제를 지니게 되었다. 일단 사람이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과 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하였다. 물과 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목조가 지속적인 생활을 위한 건축으로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던 한국목조건축에는 이렇게 스틸이 넘치는 기술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물과 불 그리고 나무, 서로 상극(相剋)적인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영화보다도 스틸이 있는 것이다.

목조건축에서 물과 불을 다스리는 기술은 온돌과 마루를 통해서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건축의 평면구조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온돌과 마루가 하나의 평면 속에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여름을 나기 위한 구조의 마루와 겨울을 나기 위한 온돌이 하나의 평면 속에 통합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발견이며 위대한 기술적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해서 겨울을 지내기 위한 집과 여름을 지내기 위한 집을 서로 분리해서 별동(別棟)으로 가질 수도 있다. 즉 겨울을 위한 건축과 여름을 위한 건축은 그만큼 많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평면구조는 이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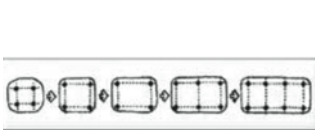


그림2)  
원시목조건축의 평면형 진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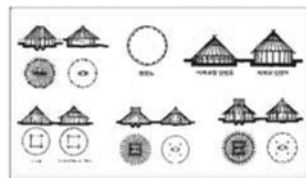


그림3) 다양한 유형의 원시 주거 (김도경 박사 논문 발췌)  
- 목조로 짓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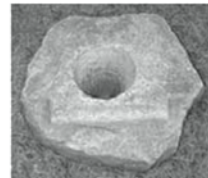


사진17) 국립공주박물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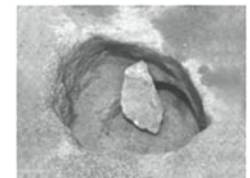


사진18)  
부여 화산의 굴립주 흔적  
-정원에 놓여 있는 초석

불을 끌어들이는 온돌은 지면에 밀착한 시스템이고 지면의 습기를 방지하기 위한 마루 시스템은 가능하면 지면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는 시스템이다. 뿐만 아니라 온돌구조를 갖는 목조 가구의 시스템과 마루를 갖는 가구 시스템은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서로 접근하는 체계가 완벽히 다른 것이다. 두 개의 성격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일본의 건축도 다다미를 갖고 있지만 감히 불을 건축화하여 끌어들이지는 못하고 있다. 목조에 불을 끌어들이는다는 관점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해결시켜주지 못한다면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상극의 이중적인 성격을 통합하려는 노력은 온돌과 마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나타난다. 안채와 사랑채를 분리시킴과 동시에 연결시키려는 시도,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연결과 분리, 음양의 대립과 통합, 들어열개창에 나타난 공간의 확장과 수축 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건축이 목조로 이루어지면서 앞에서 언급한 물과 불에 대한 문제처럼 거창한 기술적 해결보다도 세우는 것 자체에 일단 큰 문제를 갖게 된다. 먼저 나무로 된 기둥을 땅 밑에 박게 되면 나무 밑둥은 썩게 되고 나무 밑둥이 썩게 되면 집이 무너진다. 그래서 기둥의 밑둥은 지상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 기둥의 밑둥은 돌로 된 초석에 의해 힘을 지면에 전달하게 된다. 우리건축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는 방법이 한 순간에 당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발전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초석 밑을 파서 기둥을 박았던 흔적이나 바위를 파서 기둥을 세웠던 부여의 굴립주에 대한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둥이 땅 밑에 박힐 때는 바람이나 옆으로 미는 힘인 횡력(橫力)에 저항할 수 있지만 지상으로 올라올 때는 횡력에는 아주 취약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모든 부재가 서로 연결과 맞춤으로 구성됨으로서 지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가구가 결구되어 세워질 수는 있으나 횡력에 의해 옆으로 밀리게 되어 불안정하게 된다. 이러한 수평이동에 대한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 지붕이 위에서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건축에서 지붕이 전체 입면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건축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되는 지붕선은 이러한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시각적으로 완화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이 있겠지만 한국건축의 지붕선은 이러한 전체적인 유기적 관계에서 해석될 때 그 본질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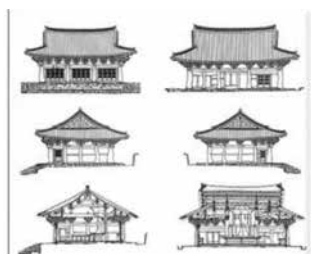


그림4)

안성 청룡사 대웅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 실제로 축조해보거나 그려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국건축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스포츠가 그러하듯이 몸으로 체득을 하면 간결한 논리적 체계에 감탄을 하게 된다.



사진18)

부석사 안양문의 날아갈 듯한 지붕선의 표현 - 지붕선은 그 자체의 멋보다도 한국건축이 갖고 있는 구조적 체계와 함께 이해될 때 더욱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처럼 한국건축이 목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국건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 한글의 특성과 전통시대 한글교육

송 철 의  
국립국어원장

## 1. 서론

한글은 음소문자(자모문자)이면서도 운용상에서 풀어쓰기를 하지 않고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그뿐만 아니라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가 자형상으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문자인데, 자음자와 모음자의 자형이 모아쓰기에 적합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특성도 가진다. 그래서 한글은 문자를 창제할 때에 이미 모아쓰기를 전제로 해서 창제된 문자가 아닌가 추정하기도 한다.

음소문자를 가지고 이처럼 모아쓰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국 원나라 세조 때(13세기) 만들어진 파스와 문자도 음소 문자였고 모아쓰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파스와 문자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문자이다. 그러니까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음소문자 중 모아쓰기를 하는 경우는 한글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글로 한국어를 표기할 때에는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문자교육은 알파벳 등 풀어쓰기를 하는 문자에 대한 문자교육과는 다른 점이 있다. 한글에 대한 문자교육은 자모를 익히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아쓰기 방식까지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한글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한글교육의 교재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쉽고 간편하게 한글 표기법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개발된 한글교육 교재가 ‘반절표’라는 것이었다.

오늘날은 반절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전통시대에는 이 반절표가 한글교육의 중요한 교재이었다. 반절표란 초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된 글자들을 ‘가’행부터 ‘하’행까지 14행으로 배열해 놓고 맨 오른쪽에 받침으로 쓰였던 자음자(8자)를 배열해 놓은 글자표이다. 다음은 그러한 반절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   |   |   |   |   |   |   |   |   |   |   |   |   |   |   |
|---|---|---|---|---|---|---|---|---|---|---|---|---|---|---|
| 하 | 파 | 타 | 카 | 차 | 자 | 아 | 사 | 바 | 마 | 라 | 다 | 나 | 가 | ㄱ |
| 하 | 파 | 타 | 카 | 차 | 자 | 야 | 샤 | 바 | 마 | 랴 | 다 | 냐 | 가 | ㄴ |
| 허 | 퍼 | 터 | 커 | 쳐 | 저 | 어 | 서 | 버 | 머 | 려 | 더 | 너 | 거 | ㄷ |
| 허 | 퍼 | 터 | 커 | 쳐 | 저 | 여 | 셔 | 버 | 머 | 려 | 더 | 너 | 거 | ㄹ |
| 호 | 포 | 토 | 코 | 초 | 조 | 오 | 소 | 보 | 모 | 로 | 도 | 노 | 고 | ㄴ |
| 호 | 포 | 토 | 코 | 초 | 조 | 요 | 쇼 | 보 | 모 | 료 | 도 | 뇨 | 교 | ㅁ |
| 후 | 푸 | 투 | 쿠 | 추 | 주 | 우 | 수 | 부 | 무 | 루 | 두 | 누 | 구 | ㅂ |
| 휴 | 푸 | 투 | 쿠 | 추 | 주 | 유 | 슈 | 부 | 무 | 루 | 두 | 누 | 구 | ㅇ |
| 호 | 포 | 토 | 코 | 초 | 조 | 오 | 소 | 보 | 모 | 로 | 도 | 노 | 고 | ㄴ |
| 히 | 피 | 티 | 키 | 치 | 지 | 이 | 시 | 비 | 미 | 리 | 디 | 니 | 기 | ㄴ |
| 호 | 포 | 토 | 코 | 초 | 조 | 오 | 소 | 보 | 모 | 로 | 도 | 노 | 고 | ㄴ |

[도표1] 8중성 14행 반절표1

1 이 도표에서 제일 오른쪽 줄에 있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 받침으로 쓰였던 자음자이다. 전통시대에는 한글 표기법이 오늘날과 달라서 이 8자만이 받침으로 쓰였다. 나머지 14행의 글자들은 초성자(자음자) 14자와 중성자(모음자) 11자가 결합된 글자들을 차례대로 배열해 놓은 것이다. 이 표를 읽을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가가거거고교구구 / 나나너너노뇨누뉴느니 ……

이 반절표는 한글의 합자법(合字法)과 한글에 의한 국어 표기법을 쉽고 간편하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이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한글 창제 이후 한글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아주 훌륭한 교재이었다. 그런데 이 반절표가 20세기에 들어 서면서 점차 한글교육에서 멀어지더니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한편, 반절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변천되기도 하였는데, 이것 역시 반절표에 의한 한글교육으로써 한글에 의한 국어 표기를 좀더 완벽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반절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반절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2) 반절표에 의한 한글교육은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3) 반절표는 어떤 변천과정을 겪었는가, (4) 20세기 중반 이후에 반절표가 사라지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 2. 반절표의 등장 배경

전통적으로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읽기와 쓰기 교육이었으며 그것의 기초는 해당 문자를 학습시키는 것이었다. 문자를 알아야 글을 읽고 쓸 수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자의 학습을 위해서는 교본이나 교재가 필요했을 것인데, 한글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반절표가 그러한 문자교육 및 문자학습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물론 이 반절표가 한글 창제 직후에 곧바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반절표의 등장 시기가 정확히 언제쯤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해 본다면 늦어도 17세기 중반쯤에는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글이 15세기 중반에 창제되었으니 한글 창제 후 2세기가 지나서의 일이다.

그러면 한글교육의 교재로서 이러한 반절표가 등장하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안병희(200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글자모와 그 결합방식까지를 가장 간단하고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필요성에 가장 잘 부응한 것이 반절표였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반절표의 본문과 받침자를 익히고 받침법을 간단히 익히기만 하면 한글로 된 문장을 읽거나 한글로 문장을 쓰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시대에는 음소적 원리에 의한 표기를 하였기에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반절표와 같은 한글학습의 교재가 나타나게 된 좀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글에 의한 국어 표기가 풀어쓰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음절단위의 모아쓰기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모아쓰기 방식은 표기법상으로도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 독특한 것이지만 문자교육 또는 문자학습에 있어서도 반절표와 같은 교재를 등장시킨 독특한 것이었다. 반절표는 한글자모만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가 아니라 초성자와 중성자의 합자법까지도 익힐 수 있게 만들어진 교재이다. 여기에 받침법을 배우면 음절단위의 모아쓰기 방식도 쉽게 익힐 수 있다.

## 3. 반절표를 활용한 한글교육 방법

전통시대의 한글교육이 반절표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리라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짐작하는 바이지만 실제로 반절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한글교육을 하였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sup>2)</sup>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글교육 방법이나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고 하여 우리가 그것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반절표에 의한 한글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2 이응백(1977:59-60 및 1981:369-370)에서는 반절표(16행 반절표)에 의한 한글 학습의 절차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재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반절표를 익히는 단계

① 받침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를 익힘(명칭 포함)

② 본문 14행(가'행부터 '하'행까지)의 글자들을 익힘

③ '과꺾'행을 익힘

(2) 종성받침 첨가방법 익히는 단계

'가'자[갓자]에 'ㄱ[기역]'하면 [각]하고,……

(3) 'ㅣ'(외이) 첨가방법 익히는 단계

가'자에 'ㅣ[외이]'하면 [개]하고, ……

- (1) (감옥에서) 각 간에 있는 소년들 수십명을 불러내어 한 간을 치우고 가가거겨를 써서 읽히니<sup>3</sup> (중략) 지금 반년이 못 되었는데 국문은 다 잘 읽고 쓰며<sup>4</sup> <신학월보 3:185, 1903년>
- (2)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학생처럼 세종대왕께서 지으신 국문을 기억 니은부터 차례로 배워 지식을 늘리려고 하였다. <대한매일신보 1908.7.18. 논설>
- (3) 기억 니은 본문 배워 <규방가사 ‘망월사친가’>
- (4) 가가거겨 국문 배워 편지 써서 왕래하세 <규방가사 ‘백발가’>
- (5) 셋째 아기도 이제는 많이 컸을 것이니 언문을 외워 두었다가 나에게 보이라 말하시오 <곽주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 17세기 초>

위의 인용문 (1)은 감옥 내에서 수감된 소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고 (2)는 나이 든 사람이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기사이다. (3)은 규방가사 ‘망월사친가’의 일부이고 (4)는 규방가사 ‘백발가’의 일부이다. (5)는 곽주라는 사람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이 인용문들을 통하여 전통시대의 기초 한글교육은 반절표를 익히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글 배우는 것을 흔히 ‘가가거겨’를 배운다고 하거나 ‘기억 니은’을 배운다고도 하는데, 이는 반절표로 한글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천자문을 외우듯이 반절표의 반절합자들(14행 반절의 경우 154자, 16행 반절의 경우 182자)과 받침자 8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이름을<sup>5</sup> 차례로 외웠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인용문 (5)에서 언문을 외운다는 것은 반절표를 외운다는 의미일 것이다. 물론 외우는 과정에서 그 글자들을 써보는 연습도 하였을 것이다. 백두현(2007:183)에서는 <논어언해> 이면지(裏面紙)에 반절표를 연습 삼아 쓴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반절표를 외우면서 그것을 쓰는 연습도 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밖에 <화한창화집(和韓唱和集)> (하)에 보면 일본에 간 우리 통신사 일행과 일본 사람들이 필담(筆談)을 나누는 중에 일본 사람이 우리 통신사 중 한 사람에게 반절표(16행반절표) 전문(全文)을 써 달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써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반절표를 완전히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반절표를 익힌 다음에는 받침법을 배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훈몽자회>의 ‘언문자모’를 통해서도 짐작이 되었던 바인데, ‘언문자모’에서는 초성 ‘ㄱ’과 중성 ‘ㅏ’를 합하면 ‘가’(家자의 음)가 되고, ‘가’자에 종성 ‘ㄱ’을 합하면 ‘각’(各자의 음)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였으나<sup>6</sup>, 반절표로 한글을 배울 때에는 먼저 반절표의 글자들을 익히고 받침자들의 명칭을 외운 뒤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침법을 배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자에 ㄱ(기역) 하면 ‘각’이요, ‘가’자에 ㄴ(니은) 하면 ‘간’이요**

[ 가 + ㄱ → 각      가 + ㄴ → 간 ]

**‘나’자에 ㄱ(기역) 하면 ‘낙’이요, ‘나’자에 ㄴ(니은) 하면 ‘난’이요……**

[ 나 + ㄱ → 낙      나 + ㄴ → 난 ]

받침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웠을 것이라는 사실은 다음의 (6)과 같은 예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6) 말의 규칙과 말소리의 높고 낮은 것은 모르면서 다만 가가 거겨, ‘가’자에 기역하면 ‘각’하고 ‘가’자에 니은하면 ‘간’하는 것으로 편지나 소설을 기록하나 <국문론(경향신문 31호, 1907.5.17)>

3 밑줄은 필자가 친 것이다. 이하 마찬가지다.

4 본고에서 제시하는 모든 인용문의 표기는 편의상 원문대로 하지 않고 현대적 표기로 바꾸었다. 옛글에 익숙지 않은 독자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였다.

5 받침자 8자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기역   니은   디글   리을   미음   비음   시읏   이음

6 以ㄱ(其)爲初聲 以ㅏ(阿)爲中聲 合ㄱㅏ爲字則가 此家字音也 又以ㄱ(役)爲終聲 合가 ㄱ爲字則각 此各字音也 <訓蒙字會 凡例 3>

‘ㅣ (외이)’가<sup>7</sup> 받침자에 추가된 이후에는 팔종성에 해당하는 받침자들의 활용법(종성 받침법)을 익힌 다음에는 이 ‘외이’를 첨가하는 방법을 익혔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가’자에 ㅣ (외이) 하면 ‘개’요, ‘가’자에 ㅣ (외이) 하면 ‘개’요

‘거’자에 ㅣ (외이) 하면 ‘계’요, ‘겨’자에 ㅣ (외이) 하면 ‘계’요

와 같이 반절합자에 외이를 첨가하는 방법을 익혔을 것이다. 리봉운의 《국문정리》에서는 ‘ㅣ (외이) 받침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된소리 표기 방법을 익혔을 것이다. 된소리 표기와 관련하여 리봉운은 ‘옆받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옆받침이란 글자의 왼쪽에 첨가하는 자음자를 말한다.<sup>8</sup> 옆받침으로는 전통적으로 ‘ㅅ’(된시옷)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때의 ‘ㅅ’은 된소리부호와 같은 것이었다.

ㅅ + 가[ka] → ㅅ가[kka]

ㅅ + 다[ta] → ㅅ다[tta]

ㅅ + 바[pa] → ㅅ바[ppa]

그런데 리봉운은 옆받침을 ‘ㅅ’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옆받침은 ‘제몹받침’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국문정리 4ㄴ). 여기서 제몹받침이란 반절합자의 초성자를 반복해서 쓰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가’에 제몹받침을 한다는 것은 ‘가’자의 왼쪽에 ‘가’자의 초성자인 ‘ㄱ’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의 경우에는 ‘ㄷ’을, ‘바’의 경우에는 ‘ㅂ’을 첨가한다.

ㄱ + 가 → 까

ㄷ + 다 → 따

ㅂ + 바 → 뻬

제몹받침을 하면 결과적으로 각자병서가 된다. 된소리를 각자병서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주장은 이미 유희가 《언문지(諺文志)》에서 했던 것인데<sup>9</sup> 리봉운도 그러한 인식을 했던 셈이다.

위의 사실들을 통하여 반절표에 의한 한글교육에서는 된소리를 개별적으로 익히지 않고, 즉 ‘ㄱ’의 된소리는 ‘ㄱㅅ’이고 ‘ㄷ’의 된소리는 ‘ㄷㅅ’이라는 식으로 익히지 않고, ‘가’에 옆받침을 하면 ‘까’요 ‘다’에 옆받침을 하면 ‘따’라는 식으로 익혔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까’는 ‘ㄱ’과 ‘ㅅ’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글자가 아니라 ‘가’에 옆받침을 하여 만들어지는 글자였던 것이다.

#### 4. 반절표의 변천

반절표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최초의 반절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반절표의 출현을 짐작케 하는 최초의 문헌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훈몽자회(訓蒙字會)》이다.<sup>10</sup> 이 《훈몽자회》의 범례 끝에는 ‘언문자모(諺文字母)’라는 것이 실려 있는데<sup>11</sup>, 그 내용을 간추려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외이’를 흔히 ‘뎡이’라고도 불렀다.

8 일반적인 받침, 즉 종성받침은 글자의 밑에 추가한다.

9 故今從雙形爲正理 (언문지 9ㄴ) 여기서 ‘쌍형(雙形)’은 각자병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문장의 의미는 된소리 표기는 각자병서로 하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

10 《훈몽자회》는 최세진이 1527년에 편찬한 아동용 한자(漢字) 학습서이다. 이 책에는 기초 한자 3,360자가 실려 있는데, 각 한자에 대하여 음과 훈을 한글로 제시하고 있다. ㄹ ㅅ ㅅ 의,

## 諺文字母(俗所謂反切二十七字)

## 初聲終聲通用八字(초성종성통용팔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其 尼 池 梨 眉 非 時 異

役 隱 末 乙 音 邑 衣 凝

## 初聲獨用八字(초성독용팔자)

ㅋ ㅌ ㅍ ㅈ ㅊ ㅅ ㅈ ㅇ

箕 治 皮 之 齒 而 伊 屎

## 中聲聲獨用十一字(중성독용십일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ㅢ

阿 也 於 余 吾 要 牛 由 應 伊 思

(不用終聲) (只用中聲) (不用初聲)

## 初中聲合用作字例(초중성합용작자례)

가 가 거 거 고 고 구 구 그 기 ?

한글 창제 후 20세기 초까지는 한글 표기법이 소리나는 대로 적는 표기법을 채택했었기 때문에 초성과 종성에 모두 쓰이는 글자는 8자(초성종성통용팔자)뿐이었다. 나머지 자음자들은 초성으로만 쓰였다(초성독용팔자). 오늘날 우리가 ‘높고, 같고, 젓고’로 적는 것을 전통시대에는 ‘눅고, 갸고, 젓고’와 같이 적었다. 그래서 ‘교, ㅌ, ㅈ’ 등 ‘초성독용팔자’는 종성으로 쓰일 기회가 없었다.

초성과 종성에 모두 쓰이는 글자에 대해서는 초성으로 쓰일 때의 음가와 종성으로 쓰일 때의 음가를 각각 보여주기 위해서 한자 두 자를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ㄱ 其役(기역)’에서 ‘其’(기)는 ‘ㄱ’이 초성으로 쓰일 때의 음가를 보여 주는 것이고 ‘役’(역)은 ‘ㄱ’이 종성으로 쓰일 때의 음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초성독용팔자’의 경우에는 초성으로만 쓰이므로 초성으로 쓰일 때의 음가만 보여 주면 되니까 한자를 한 글자만 보여 주었다. ‘교 皮(피)’, ‘갸 齒(치)’. 위에서 ‘池末’의 ‘末’, ‘時衣’의 ‘衣’, 그리고 ‘箕’는 음으로 읽지 않고 훈으로 읽는다. 즉 ‘末’은 ‘글’으로, ‘衣’는 ‘옷’으로, ‘箕’는 ‘키’로 읽는다. 그리하여 ‘池末’은 ‘디말’이라 읽지 않고 ‘디글’이라 읽으며, ‘時衣’는 ‘시의’라 읽지 않고 ‘시옷’이라 읽는다. ‘箕’는 ‘키’라 읽는다. 이들은 한자의 음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서 훈을 이용한 것이다. 중성은 늘 중성으로만 쓰이니까 역시 그 음가를 한자 한 글자로 보여 주었다.

‘초중성합용작자례’는 ‘ㄱ’과 중성자가 결합된 ‘가 가 거 거 고 고 구 구 그 기 ?’를 예로 제시하고서 초성자와 중성자의 결합방법을 설명하였다(‘각주6’ 참조). 여기서는 편의상 그 설명 부분은 생략하였다.

11 ‘언문자모’는 반절표가 나타나기 전에 사용되었던 한글 학습의 교재이었다. 《훈몽자회》에서는 어린이들이 배우기 쉬운 한글을 먼저 배워서 선생 없이도 스스로 한자를 익힐 수 있게 하기 위해 한글 학습 교재인 ‘언문자모’를 앞에 실었던 것이다. ‘언문자모’는 최세진이 만든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민간에서 사용되던 한글 학습 교재이었다. 《훈몽자회》는 우리가 자모명칭이라고 부르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문헌이다. 其役(기역), 尼隱(니은), 池末(디글), 梨乙(리을), 眉音(미음), 非邑(비읍), 時衣(시옷), 異凝(이응)

이 ‘언문자모’가 반절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최현배(1961)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 언문자모의 ‘초성종성 통용팔자’와<sup>12</sup> ‘초중성합용작자례’에 따라 초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된 글자들을 모두 모아 놓으면 바로 반절표가 된다. 반절표가 ‘언문자모’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아직은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반절표는 ‘언문자모’ 이후에 등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절표는 ‘한글자모’보다는 진일보한 한글교육 교재라 할 수 있다. 한글을 좀더 쉽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자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한글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언문자모’ 이후에 반절표가 등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반절표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알려진 반절표 중 가장 이른 것은 1719년 (숙종 45년) 우리나라 통신사 일행이 일본 사람들에게 적어준 언문서(諺文書)와 ‘조선언문(朝鮮諺文)’이다(안병희(1985/2007:212) 참조).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받침자에 ‘외이’가 들어가 있고 ‘과귀’행이 들어가 있다. 이들은 모두 ‘언문자모’에서는 언급된 바가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반절표의 최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은 아니다.

#### 4.1. 15행반절과 14행반절

‘언문자모’에 의거하여 반절표가 만들어졌다면 그 반절표의 받침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자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절표의 반절합자가 몇 행이었겠느냐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우선 16행설과 15행설이 있을 수 있다. 최세진은 ‘언문자모’에서 반절합자(初中聲合用字例)의 수를 176자라고 하였다. 이는 초성자 16자와<sup>13</sup> 중성자 11자를 곱한 수이다. 이에 따르면 반절표는 16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반절합자가 176자라고 한 바로 뒤에서 최세진은 초성으로서의 ‘ㅇ’은 ‘ㅇ’과 유사하여 속(俗)에서 초성으로는 모두 ‘ㅇ’만 사용한다고 하였다<sup>14</sup>. 이는 이익섭(1992:152)에서 15세기 말에 오면 ‘ㅇ’이 초성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밝힌 사실과 부합한다<sup>15</sup>. 따라서 《훈몽자회》 시기에는 이미 ‘ㅇ’이 초성으로 쓰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ㅇ’이 초성으로 쓰이지 않게 되면 당연히 ‘ㅇ’행이 없어지게 되어 15행 반절이 된다.

이기문(1972: 127)에 따르면 ‘ㄷ’은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에 걸쳐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훈몽자회》를 검토한 결과는 ‘ㄷ’이 상당히 동요되긴 했으나 아직 분명히 존속했음을 느끼게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훈몽자회》 직후에 반절표가 만들어졌다면 거기에는 ‘ㄷ’행이 있었을 것이다. 즉, 그 반절표는 8종성 15행반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ㄷ’은 16세기 후반이 되면 소실된다. 따라서 15행 반절은, 존재했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ㄷ’이 소실되어 ‘ㅌ’행이 없어지면 14행반절이 된다. [도표1]이 바로 14행 반절표이다. 아마도 이 8종성 14행반절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 8종성 14행반절을 반절표의 기본형이라고 하여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 4.2. ‘외이’ 받침의 추가

그러나 이 8종성 14행반절은 그리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우선 이 반절표로는 훈민정음에서 ‘ㅣ’상합자(相合字)라 했던 하향이중모음자들(애 ㅐ ㅑ ㅓ ㅕ ㅗ ㅛ 등)을 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반절표를 활용하여 ‘각’이나 ‘간’과 같은 글자는 만들 수 있지만 ‘개’나 ‘게’와 같은 글자는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반절표를 가지고 한글을 교육하거나 습득하려 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받침자에 ‘ㅣ’ (‘외이’)를 추가하게 되었다. ‘외이’를 받침으로 추가하게 된 것은 이 ‘외이’가 일반적인 ‘이’와는 다르고 일반 받침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반절합자에 결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향이중모음들이 단모음화(單母音化)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이 ‘외이’를 받침으로 인식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12 《훈몽자회》가 편찬될 당시에는 국어에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池’의 음은 ‘지’가 아니라 ‘디’였다(디)지). ‘治’도 이 당시에는 그 음이 ‘티’였다(티)치).

13 반절표의 받침자 8자는 이 ‘초성종성통용팔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4 여기서 16자는 ‘초성종성통용팔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와 ‘초성독용팔자’(ㅋ ㅌ ㅍ ㅊ ㅌ ㅎ ㅓ ㅎ)를 합친 것이다.

15 唯ㅇ之初聲 與ㅇ字音 俗呼相近 故俗用初聲則皆用ㅇ音 <訓蒙字會 범례 3>

원래 이음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꼭지가 있는 이음(ㅇ)이고 다른 하나는 꼭지가 없는 이음(○)이다.

그런데 이 중 꼭지가 있는 이음이 쓰이지 않게 되었다. 꼭지가 있는 이음을 ‘옛이음’이라고 부른다.

|   |   |   |   |   |   |   |   |   |   |   |   |   |   |   |
|---|---|---|---|---|---|---|---|---|---|---|---|---|---|---|
| 하 | 파 | 타 | 카 | 차 | 자 | 아 | 사 | 바 | 마 | 라 | 다 | 나 | 가 | ㄱ |
| 하 | 파 | 타 | 카 | 차 | 자 | 야 | 샤 | 바 | 마 | 랴 | 다 | 냐 | 가 | ㄴ |
| 허 | 퍼 | 터 | 커 | 쳐 | 저 | 어 | 서 | 버 | 머 | 려 | 더 | 너 | 거 | ㄷ |
| 허 | 퍼 | 터 | 커 | 쳐 | 저 | 여 | 셔 | 버 | 머 | 려 | 더 | 녀 | 겨 | ㄹ |
| 호 | 포 | 토 | 코 | 초 | 조 | 오 | 소 | 보 | 모 | 로 | 도 | 노 | 고 | ㅁ |
| 호 | 표 | 토 | 코 | 초 | 조 | 요 | 쇼 | 보 | 모 | 료 | 도 | 뇨 | 교 | ㅂ |
| 후 | 푸 | 투 | 쿠 | 추 | 주 | 우 | 수 | 부 | 무 | 루 | 두 | 누 | 구 | ㅅ |
| 후 | 퓨 | 투 | 큐 | 츄 | 쥬 | 유 | 슈 | 뷰 | 뮤 | 류 | 듀 | 뉴 | 규 | ㅇ |
| 흐 | 프 | 트 | 크 | 츠 | 즈 | 으 | 스 | 브 | 므 | 르 | 드 | 느 | 그 | ㅇ |
| 히 | 피 | 티 | 키 | 치 | 지 | 이 | 시 | 비 | 미 | 리 | 디 | 니 | 기 |   |
| 히 | 피 | 티 | 키 | 치 | 지 | 이 | 시 | 비 | 미 | 리 | 디 | 니 | 기 |   |

[도표2] 9종성 14행 반절표

### 4.3. ‘과귀’행의 추가

받침자에 ‘외이’를 추가하더라도 14행반절표로는 시현할 수 없는 글자들이 있다. ‘과, 귀, 관, 권’과 같은 글자들이 그런 예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절표에 ‘과 귀’행이 추가되었다. 즉, 초성자 14자와<sup>16</sup> 이중모음 ‘과, 귀’가 결합한 28글자가 추가된 것이다. 이 28글자를 배열하는 데에는 최소한 2행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16행 반절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받침자에 ‘외이’가 추가되고 본문에 ‘과 귀’행이 추가된 반절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illegible]

[도표3] 9종성 16행 반절표

16 이기문(1971:58)에서도 ‘ㅇ’(꼭지가 있는 이음)이 16세기에 들어서서는 이미 거의 초성으로는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반절표를 활용하면 ‘관’이라는 글자는 ‘과’자에 ‘ㄴ’ 받침을 하여 만들 수 있고, ‘권’이라는 글자는 ‘귀’자에 ‘ㄴ’ 받침을 하여 만들 있다.

‘과 귀’행이 추가됨으로써 반절표는, 음소적 표기를 하는 한에 있어서는, 기초 한글교육의 완벽한 교재가 되었던 것이다. [도표3]과 같은 16행 반절표의 글자들을 익히고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받침법(종성받침법, 외이받침법, 옆받침법)을 익히면 국어에서 발음되는 모든 음절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꽤’와 같은 복잡한 음절도 반절표에 있는 ‘과’자에 옆받침(제몸받침) ‘ㄱ’을 하여 ‘짜’를 만들고 ‘외이’받침 ‘ㅣ’를 하여 ‘꽤’를 만든 다음, 종성받침 ‘ㄱ’을 하면 되었던 것이다.

ㄱ + 과 → 짜 (옆받침)

짜 + ㅣ → 꽤 (외이받침)

꽤 + ㄱ → 꽤 (종성받침)

그리하여 반절표는 오랫동안 한글교육 또는 한글학습의 교재로 활용되었고, 간단한 방법으로 읽고 쓰기를 배울 수 있는 교재이었기 때문에 한글을 널리 보급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5. 반절표의 소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반절표는 오랫동안 한글교육 또는 한글학습의 훌륭한 교재이었었고 한글보급에 큰 기여도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반절표가 언제부터인가 한글교육, 혹은 국어 교육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대체로 신식교육(서구식교육)이 도입되면서 활용빈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면 국어교육에서 반절표가 사라지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국어교육이 서구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서구식 교육에서는 국어교육이 단어와 문장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문자 및 표기법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성으로 문자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또 반절표의 글자 중에는 기초교육에서 굳이 익힐 필요가 없는 글자들도 적지 않다(가, 누, 마, 무 ... 등). 국어교육이 장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잘 쓰이지 않는 글자들까지 외우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둘째는 한글 표기법이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글 표기법은 주시경 이래 크게 달라졌다. 즉, 음소적 표기에서 형태음소적 표기로 바뀌었다. 형태음소적 표기를 지향하는 새로운 표기법에서는 반절표에 의한 한글 교육이 완전하지 못하다. 형태음소적 표기를 할 경우 전통적인 반절표의 운용으로써는 표기할 수 없는 글자들이 많기 때문이다(젓, 꽃, 엮, 말, 앞, 낱, 잇 ... 등)

셋째는 언어변화로 인해서 반절표의 글자 중에는 배울 필요가 없는(적어도 국어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는) 글자들이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구개음화로 인하여 ‘다 더 도 두 타 터 투 튜’와 같은 글자들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치찰음 다음에서 j계이중모음들이 실현될 수 없게 됨에 따라 한자음이나 국어를 표기하는 데에는 ‘샤 (셔) 쇼 슈 자 (저) 조 주 차 (쳐) 초 추’와 같은 글자들이 필요없게 되었다<sup>17</sup>. 지석영은 1905년(고종 42년, 광무 9년) 7월 8일에 올린 한 상소문에서 ‘현행 언문 14행 154자 중에서 중첩음이 36자요 잃은 음이 36자’라고 하면서 국어 표기법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sup>18</sup>. 이는 결국 이제 반절표가 한글교육의 훌륭한 교재가 아니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반절표의 효용성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래도 신식교육이 도입되던 초기(개화기)에는 새로운 방식의 국어교육 교재와 함께 반절표가 활용되기도 하였고 20세기 중반까지도 속성으로 한글교육을 할 때는 역시 반절표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의 정식 학교교육에서 반절표가 등장한 경우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로써 한글교육 또는 국어 교육에서 반절표는 사라지게 되었다.

17 《훈몽자회》 시기의 초성자 16자에서 ‘ㅇ’과 ‘ㄷ’이 사라져 14자가 되었다.

18 ‘셔,저,쳐’는 ‘이’로 끝나는 용언어간과 ‘어’로 시작되는 어미가 만나서 축약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글자들이다. 마시- + -어 → 마셔, 가지- + -어 → 가져, 다치- + -어 → 다쳐

## 6. 결 론

한글은 음소문자이면서도 풀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아쓰기를 한다는 운용상의 특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문자교육은 알파벳과 같이 풀어쓰기를 하는 문자에 대한 문자교육과는 다른 점이 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자모를 익히는(외우는) 것으로 기본적인 문자교육이 끝나는 셈이지만, 한글의 경우에는 자모를 익힌 다음 모아쓰기 방식도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모아쓰기를 한다는 운용상의 특징을 가지는 한글을 쉽고 간편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반절표이다. 이 반절표는 신식교육(서양식 교육)이 도입되기 전 2~3백년 동안 한글 교육의 교재로 활용되었다. 음소적 표기를 했던 당시에는,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던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 반절표는 한글을 익히는 아주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한글 교육 교재이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러한 반절표에 의한 한글교육(또는 한글학습)과 관련하여 반절표가 등장하게 된 배경, 한글교육의 방법, 반절표의 변천과 그 이유를 밝혀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대 한글교육의 핵심 교재이었던 반절표가 20세기 중반 이후 완전히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반절표가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쉽고 간편하게 한글을 교육(또는 학습)할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은 한글에 의한 국어의 표기법이 모아쓰기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절표는 단순히 한글자모를 익히기 위한 교재가 아니라 합자법 및 표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한 교재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반절표에 의한 한글 교육은 대체로 먼저 16행 반절본문과 받침자를 익혀서 외우고 종성 받침법과 외이받침법(계하향이중모음자 표기), 그리고 옆받침법(된소리 표기)을 익히는 순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대에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거의 모두 반절표를 외우고 있었던 듯하다.

반절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천을 겪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반절표는 8종성 14행 반절표([도표1])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받침자로서 ‘ㅣ (외이)’가 추가되고([도표2]) 본문에 ‘과 귀’행이 추가되는([도표3]) 변천이 있었는데, 이는 반절표에 의한 한글교육으로써 한글에 의한 국어표기를 완전히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받침에 외이가 추가되고 본문에 ‘과, 귀’행이 추가된 ‘9종성 16행 반절표’를 가지면 국어의 음소적 표기법은 완벽하게 익힐 수 있다.

이처럼 한글교육의 효과적인 교재이었던 반절표가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한글교육, 또는 국어교육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요인으로서 신식 교육의 도입에 따라 국어교육 방법이 달라졌다는 점, 국어의 표기법이 음소적 표기에서 형태음소적 표기로 바뀌었다는 점, 음운변화로 인해서 반절표의 효용성이 감소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반절표가 사라지긴 했으나 이 반절표가 전통시대에 한글을 간편하고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교재였다는 점을 부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일반 백성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글은 모아쓰기를 한다는 점에서 알파벳과는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한글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문자교육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창안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 알파벳을 사용하는 문자권에서는 생각할 수도, 생각할 필요도 없는 방법일 것이기 때문이다. 초보자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지금까지 많은 방안들이 제안되기는 했지만, 반절표의 원리도 고려하면서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국어학회 편(1975),  
《국어학자료선집 [V]》, 일조각.
- 김민수(1989), 1  
6행 반절과 언본(諺本)의 판본, 《주시경학보》 3,  
주시경연구소.
- 김윤경(1946),  
《조선문자급어학사(3판, 초판1938)》, 진학출판협회.
- 김병제(1984),  
《조선어학사》,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인호(2005),  
《조선인민의 글자생활사》, 평양:사회과학출판사.
- 리봉운(1897),  
《국문정리》, 경성 모동 국문국.
- 백두현(2001),  
조선시대의 한글보급과 실용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 백두현(2007),  
한글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사람들의 문자생활,  
《서강인문논총》 22, 서강대인문과학연구소.
- 송철의(2009),  
反切表と伝統時代のハングル教育, 『朝鮮半島のことばと社會』 (油谷 幸利先生還暦記念論文集), 京都:明石書店
- 안병희(1985),  
훈민정음 사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 :창제로부터 19세기까지,  
《동방학지》 46·47·48,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안병희(2007)  
에 '훈민정음 사용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재수록).
- 안병희(2000),  
한글의 창제와 보급, 《겨레의 글 한글(도록)》,  
국립중앙박물관. (안병희(2007)에 동일 제목으로 재수록).
- 안병희(2003),  
해례본의 8종성에 대하여, 《국어학》 41, 국어학회. (안병희  
(2007)에 '해례본의 8종성'이라는 제목으로 재수록).
- 안병희(2007),  
《훈민정음연구》, 서울대출판부.
- 이기문(1971),  
《훈몽자회 연구》, 한국문화연구소(서울대).
- 이원식(1984),  
朝鮮通信使に隨行した倭學譯官について, 朝鮮學報 111,  
朝鮮學會(日本).
- 이응백(1977), 한글 구조에 따른 입문기 문자지도,  
《어문연구》 5권 1·2합병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응백(1981),  
국어의 '기본음절표'에 대하여, 《선청어문》 11·12합병호,  
서울대 학교 국어교육학과.
-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현배(1961),  
《한글갈(고친판)》, 정음사. (초판 1941).
- 홍기문(1947),  
《조선문법연구》, 서울신문사.

## 외국어 학습 표준에 따른 프로젝트 기반 교수법의 활용

조혜원

한국어 교수/프로그램 디렉터,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5년 발표된 Modern Language Report에 따르면, 한국어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대학에서의 수업 등록 인원수가 가장 크게 증가 (45%)한 외국어로 나타났다 (Goldberg, Looney & Lusin, 2015). 대학에서 외국어를 듣는 학습자들의 등록 숫자로 볼 때에는 한국어는 아직 14위에 불과했지만 해당 기간에 대학 외국어 수업의 전체 등록 인원수가 6.7 % 감소한 상황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습자의 수가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현상은 대학 외의 다른 교육 기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20년 사이에 미국 서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초, 중, 고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신설되었고, 2013년에 고교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우등생 단체인 Korean Honor Society가 출범하는 등, 초중고교 내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 2013년 자료 (Shin and Lee, 2013)에 따르면 그 당시 1,200여개의 주말학교 및 한국 학교에서도 6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다고 하니, 바야흐로 북미 내에서 한국어 교육은 중흥기를 맞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양적인 팽창 외에 또다른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발전으로 인해 한국어의 효용성이 높아지고, 북미 내에서 한국계 이민 사회가 정착되고 안정됨에 따라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의 구성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거에는 계승어(heritage language)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학습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이제는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 외에도 이민 3세 이상의 영어 모국어 화자,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입양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으로 학습자들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Shin and Lee, 2013; Wang, 2016). 이러한 추세는 한국 학교에서도 반영이 되어 주언어가 영어인 가정 출신의 이민 2, 3 세대 이상의 한인 학생들과 외국계 학생, 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성인 학습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현상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언어적 사회적 배경이 다양해지고 학습 목표 및 수준도 다양해짐에 따라 교사들로서는 한국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수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계승어가 아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외국어 학습 표준(National Standards)에 맞추어 커리큘럼을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지화된 한국어 교육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 미국 내 외국어 교육에서 통용되고 있는 외국어 학습 표준 (National Standards)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교수법의 하나로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학습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수 방법은 계승어(heritage language) 또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배경과 언어 수준, 관심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 미국의 외국어 학습 표준 (National Standards)

우선 미국에서 지난 20년간 통용되고 있는 외국어 학습 표준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을 살펴보자. 1996년에 북미 최대의 외국어 교육 협의회인 ACTFL (the American Council on Teaching Foreign Languages)이 당시 다가오는 21세기의 외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외국어 학습 표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언어 영역을 확장하여 의사소통 (Communication), 문화 (Culture), 연계 (Connection), 비교 (Comparison), 공동체 (Communities)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 외국어 학습자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ACTFL, 1996). 이후, 외국어 학습 표준은 20년 후인 2015년에 “World-Readiness Standards for Learning Languages”로 개정되었다 (ACTFL, 2015). 외국어 학습 표준에 대한 개괄적 내용은 <표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외국어 학습 표준의 다섯 가지 목표 분야

| 5 Cs                         | 교수 목적                                                                                | 세부 목표 분야                                                                                                                                                                                                                                                                                                                                           |
|------------------------------|--------------------------------------------------------------------------------------|----------------------------------------------------------------------------------------------------------------------------------------------------------------------------------------------------------------------------------------------------------------------------------------------------------------------------------------------------|
| (1) 의사소통<br>(Communication): |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목표 언어를 사용하여 효율적이며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 대인 의사 소통(Interpersonal Communication): 대화를 통해 정보, 감정, 의견 등을 전달한다. 말하기, 쓰기, 수화 등을 포함한다.<br>해석적인 의사소통 (Interpretive Communication): 다양한 주제에 대한 말과 글을 분석, 해석하여 이해한다. 듣기, 읽기, 수화 등을 포함한다.<br>발표를 통한 의사소통 (Presentational Communication):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 개념, 의견 등을 청자나 독자에게 전달한다. 말하기, 쓰기, 수화 등을 포함한다.                                                  |
| (2) 문화 (Cultures)            | 문화적인 이해와 문화 능력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 문화적 관점과 관행의 연계 (Relating Cultural Practices to Perspectives): 목표 문화의 관점 (Perspectives)이 그 문화의 문화적 관행 (Practices; 예: 전통 명절, 놀이 문화, 결혼 풍습 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탐구하고 설명하며 숙고한다.<br>문화의 관점과 산물의 연계 (Relating Cultural Products to Perspectives): 목표 문화의 관점 (Perspectives)이 그 문화의 문화적 산물 (Product, 예: 전통 명절 음식, 놀이 도구, 결혼 예물 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탐구하고 설명하며 숙고한다. |
| (3) 연계 (Connections)         | 학문적, 직업적 상황에서 목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 언어 학습을 통해 다른 학문, 지식 분야에 연계하여 해당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다. | 기타 학문 분야로의 연계 (Making Connections): 목표 언어를 학습함으로써 비판적 사고 능력과 독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이를 통해 타 학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강화하며 확장한다.<br>다양한 정보와 관점의 습득 (Acquiring Information and Diverse Perspectives): 목표 언어와 문화를 통해 정보와 다양한 관점을 습득하고 평가한다.                                                                                                                    |
| (4) 비교 (Comparisons)         | 문화적으로 적절한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언어 및 문화를 비교하여 그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함양한다.                        | 언어적 비교 (Language Comparisons): 목표 언어와 모국어를 비교하여 언어의 본질을 탐구, 설명, 이해한다.<br>문화적 비교 (Cultural Comparisons): 목표 문화와 자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적인 개념을 탐구, 설명, 이해한다.                                                                                                                                                                                                    |
| (5) 공동체 (Communities)        | 목표 언어가 사용되는 다국어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 문화능력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하고 교류한다.                                 | 학교와 지구촌 사회 (School and Global Communities): 학교 내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및 지구촌 사회에서 목표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고 협력한다.<br>평생 학습 (Lifelong Learning): 목표 언어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삶을 보다 유익하고 풍부하게 한다. 이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발전 상황을 점검해 본다.                                                                                                                                               |

위의 학습 목표는 외국어 교육이 단순히 문법, 어휘,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의 개별 언어 능력을 키우는 데 있지 않고 언어와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의사소통능력 (communicative competence)을 함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교실 밖에서의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목표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언어 외에도 문화, 연계, 비교, 공동체라는 다섯 가지 영역 (5 Cs)에서의 학습 목표를 세우고 학습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러

한 다섯 가지 영역이 서로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며, 서로 간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문화적인 이해(Culture)를 배제한 원활한 의사 소통 (Communication)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문화적인 이해는 모문화와 목표문화의 비교 분석(Comparison)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문화적인 이해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목표 언어가 소통되는 지역 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Communities), 전문 분야로의 지식을 늘리게 된다 (Connection).

이러한 외국어 표준은 북미 내에서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수화 등의 여러 외국어 및 제 2 언어 교육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학뿐 아니라 중고교의 외국어 및 제 2 언어 교육 표준으로 적용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에서도 미국 내 외국어 중 12번째로 2011년 “한국어 교육 표준 (National Standards for Korean Language (K-16))”을 개발, 발표하였고 2016년에는 한국어 교육 표준에 근거한 대학 교육에서의 curriculum map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어떻게 외국어 학습 표준과 연계 되어 진행될 수 있는지 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프로젝트 기반 학습 (Project Based Learning)

### (1)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정의와 유용성

프로젝트 기반 학습 (Project Based Learning, 이하 PBL)은 PBL은 학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획득한 정보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교수법으로서 그 효용성을 인정 받아 여러 분야의 교수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도 교사 주도가 아닌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 방법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PBL은 외국어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Hedge, 1993). 외국어 교육에서의 PBL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다.

- a. 학습자 중심의 학습 기회 제공: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에 대한 창의적 방법을 찾도록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학습자의 관심 및 만족도를 높이고 학습 동기를 증진한다.
- b. 외국어 학습 표준에 근거한 통합적인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 외국어 학습 표준에 근거하여 학습 목표를 세우고 PBL을 진행하여 학습자들이 5Cs의 표준 분야를 아우르는 언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c. 차별화 교수 (Differentiated instruction)를 제공: 언어 및 문화 배경에서 차이가 나는 학습자들에게 개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배려하여 각자의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d. 디지털 문해성 (literacy) 증진: 디지털 원어민 (Digital Native)인 학습자들이 영상물의 형식으로 결과물을 완성하거나 SNS를 통해 결과물을 전달하는 경우, 학습자들은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문자 언어 외에 디지털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생산, 전달, 이해하는 디지털 문해성 (Digital literacy)을 기를 수 있다.
- e. 과제 수행을 통한 실제적 언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 PBL은 학습자가 실제 상황의 과제 (task) 수행을 통해 기능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따라서 단순한 암기나 연습보다는 이러한 의미 있는 맥락에서 능동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습한 언어를 더욱 오랫동안 기억,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Brown, 2002).

PBL은 학습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학습자들의 외국어 학습을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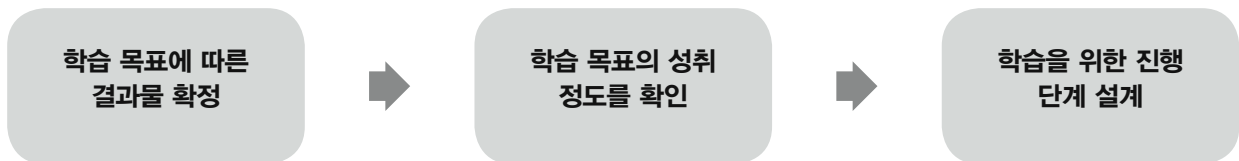
- a. 단계별 스캐폴딩 (Scaffolding)을 통한 장기 학습 모형 제공: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학기에 걸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교사의 피드백에 따라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수정, 개선하여 장기간에 걸쳐 학습을 할 수 있다.
- b. 협동심 및 사회성 함양: 공동 창작물의 경우는 학습자들이 협동하여 과제를 준비함에 따라 협업 능력 및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 c. 창의력 발현의 기회를 제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원하는 주제를 직접 선택하고 창의적으로 언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채집, 전달하게 됨에 따라 학습자들이 독창성과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한다.

f. 이러한 유용성으로 인해 PBL은 내용 중심의 언어 교육, 특수 목적을 위한 언어 교육, 계승어 교육을 위한 언어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Beckett, 2006). 다음으로는 PBL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설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PBL 학습안의 설계: 백워드 설계 모형

PBL을 수업에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학습 목표를 성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PBL의 학습계획안을 세우는 데 백워드 설계 모형 (Backward Design)이 유용하다. 백워드 설계 모형이란 교수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정과제로 도달할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학생들의 결과물을 예상한 뒤, 그에 대한 평가를 생각해 보고 scaffolding을 통해서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단계별 학습 내용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McTighe and Wiggins, 2004, 표 2 참조).

〈표 2〉 백워드 설계 모형



백워드 설계 모형의 장점으로서는 교사가 확실한 교수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진행 단계를 계획함에 따라 보다 시행 착오를 줄이고 학습 목표-평가-수업 내용의 일치도 (alignment)를 높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제를 설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PBL은 실제 학습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급 한국어 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PBL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고급 한국어 반에서의 PBL 사례 적용의 예

### 1) 학습 목표 설정

고급 한국어 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PBL을 소개하기 앞서 우선 고급반의 학습 목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저자가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고급 한국어 반에서는 ACTFL에서 제시한 Oral Proficiency Guidelines (별첨 1 참조)와 외국어 학습 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강의목표:** Students will improve thei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o the intermediate-high level by the ACTFL Guidelines. Upon completion of this course, students will be able to:

#### Interpersonal Communication:

- Be able to describe, narrate, compare and contrast various topics of personal interests as well as topics of current or general interests.
- Be able to express one's opinions with support.
- Be able to express personal worries, give advice, and reject in a polite manner

#### Interpretive Communication:

- Be able to comprehend/summarize main ideas of paragraph-level texts and utterances on the areas of focus.
- Be able to understand cultural background and meanings behind cultural practice and product.

#### Presentational Commun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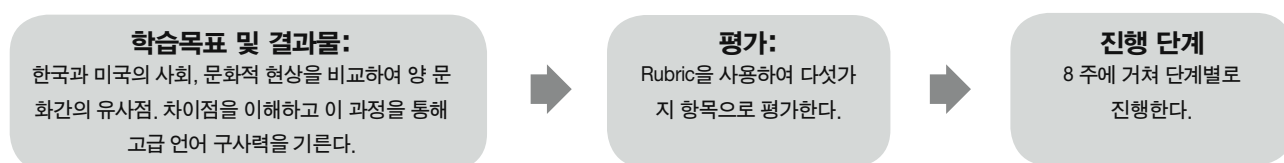
- Be able to describe a topic of one's interests in paragraphs.
- Be able to do oral presentations using data and research material.
- Be able to summarize and paraphrase the texts.
- Be able to produce socio-linguistically appropriate speech/narratives in a given context.

**Comparison:** Be able to compare Korean cultural practices and products with their own.

**Culture:** The practices and products of the following cultural themes will be covered in class - College culture, Personal relationships, Occupations and career, Ways of Communication, Social customs and values, and Korean songs.

학습 목표를 보면 ACTFL에서의 중급-상의 언어 유창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급-상의 경우는 고급의 언어 기능의 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목표 언어 기능에서 고급 기능 (설명, 묘사, 비교, 시사 문제)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학습 목표에 따라 PBL을 적용하여 수업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백워드 설계 모형에 근거하여 <표 3>과 같이 진행하였다.

<표 3> 고급 한국어 반에서의 기말 프로젝트 진행 설계



외국어 표준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의사 소통
  - a. 대인 의사소통: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한국에 관련된 특정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눔
  - b. 해석적 의사소통: 생자료(인터뷰 자료, 신문/방송 기사 자료)를 분석, 이해하고 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습득함
  - c. 발표를 위한 의사소통: 조사한 결과물을 정리하여 격식체를 써서 발표함
2. 문화: 현대 한국 사회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고 그 배경 지식을 습득함
3. 연계: 해당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관련된 사회, 경제, 문화적 분야의 지식을 습득함
4. 비교: 한국과 미국의 문화 현상을 비교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함
5. 공동체: 교실 밖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여 한국인 모국어 화자를 인터뷰함

## 2) 평가 방법 설계

상기의 학습 목표에 따라 발표와 작문 부분에 대해 각각 다섯 가지의 평가 기준 (Rubric)을 제시하였다.

1. 발표 평가 항목: 내용/창의성 (30%), 구성 (20%), 전달력 (20%), 언어 구사력 (20%), 발표 비디오의 완성도 (10%)
2. 작문 평가 항목: 내용/창의성 (30%), 구성 (20%), 문법(20%), 단어와 표현 (20%), 맞춤법 (10%)

## 3) 과제 진행 단계 설계

해당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8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즉 15주 단위로 진행되는 학기제에서 반 학기가 할당된 셈이다. <표 4>에서는 각 진행 단계별로 학습자 및 교사가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또한 단계별로 어떤 학습 표준이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는 시작- 준비 - 제작 - 결과물 공유 - 평가 및 피드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교사는 피드백을 제시하고 학습자는 이를 반영하여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교사에게 전달하여 쌍방간의 의사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 4〉프로젝트 실행 단계

| 단계       | 학습자                                                                                                                                      | 교사                                                                                                     | 5 Cs 목표 적용                                                                                          |
|----------|------------------------------------------------------------------------------------------------------------------------------------------|--------------------------------------------------------------------------------------------------------|-----------------------------------------------------------------------------------------------------|
| 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선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 및 평가 기준 제시, 안내</li> </ul>                                    |                                                                                                     |
| 준비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경 지식 이해를 위해 참고문헌 목록 제출, 자료 수집 및 분석</li> <li>인터뷰 질문 작성, 수정 및 인터뷰 실시</li> <li>인터뷰 결과 요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고 자료, 인터뷰 질문, 스토리 보드 검토 후 조언, 지침 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 (대인, 이해, 발표)</li> <li>4 Cs (문화, 연계, 비교, 공동체)</li> </ul> |
| ↓        |                                                                                                                                          |                                                                                                        |                                                                                                     |
| 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토리 보드 작성, 수정 및 완성</li> <li>슬라이드 쇼 제작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선택</li> <li>슬라이드 쇼 제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속적으로 조언과 지침 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 (발표)</li> <li>4 Cs (문화, 연계, 비교, 공동체)</li> </ul>         |
| ↓        |                                                                                                                                          |                                                                                                        |                                                                                                     |
| 결과물 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 반 블로그에 슬라이드쇼 게재</li> <li>수업 시간에 발표</li> <li>발표 후 교사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작문 제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슬라이드 쇼 시청 및 발표에 대한 평가 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 (대인, 이해, 발표)</li> <li>4 Cs (문화, 연계, 비교, 공동체)</li> </ul> |
| ↓        |                                                                                                                                          |                                                                                                        |                                                                                                     |
| 평가 및 피드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학습자의 프로젝트 감상, 댓글 달기</li> <li>교사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및 피드백 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문에 대한 평가 제공</li> <li>학습자들의 피드백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내용 수정,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 (대인, 이해)</li> <li>4 Cs (문화, 연계, 비교, 공동체)</li> </ul>     |

이와 별도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전달된 프로젝트 지침은 〈별첨 2〉에 제시되어 있다.

#### (4)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다른 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PBL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는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 단원에서는 한국어 고급반에서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지만 PBL은 고급반 외에도 초급, 중급, 최고급 반에서 효과적인 교수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 다음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에 따른 프로젝트의 분류와 실제 학생들이 수행했던 프로젝트의 예이다.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의 분류는 ACTFL (American Council on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에서 제시된 Oral Proficiency 의 지침을 근거로 하였다 (별첨 1 참조)

〈표 5〉 단계별 PBL 적용의 예

| 언어 수준 | 프로젝트 주제                                                                                                                                                                                                                                                                                                                                                                                                                                                                                                                                                                                               | 언어 기능                                                                                              |
|-------|-------------------------------------------------------------------------------------------------------------------------------------------------------------------------------------------------------------------------------------------------------------------------------------------------------------------------------------------------------------------------------------------------------------------------------------------------------------------------------------------------------------------------------------------------------------------------------------------------------|----------------------------------------------------------------------------------------------------|
| 초급    | <p>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소개</li> <li>• 내 방</li> <li>• 우리 학교</li> <li>• 나의 하루</li> </ul> <p>나의 주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가족</li> <li>• 가장 친한 친구</li> </ul>                                                                                                                                                                                                                                                                                                                                                                                        | <p>학습한 언어를 사용하여 배운 단어와 문형을 사용하여 간단한 문장으로 소통함.</p>                                                  |
| 중급    | <p>학교 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한 지침 비디오</li> <li>• 동아리, 특별활동 소개 비디오</li> </ul> <p>안내/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취업을 위한 자기소개 비디오</li> <li>• 내가 좋아하는 ____ (음식, 노래, 가수 등) 소개, 시연</li> <li>• 쿡방과 먹방</li> <li>• 여행 안내 비디오</li> </ul> <p>전통 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명절 및 풍습 소개</li> <li>• 한국의 전통 놀이 소개</li> <li>• 옛날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연극</li> </ul>                                                                                                                                                                    | <p>일상적인 주제나 친숙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문장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함.</p>                                                 |
| 고급    | <p>한인, 한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인 이민사와 우리 가족 이민사</li> <li>• 한인 저명 인사에 대한 조사 및 소개</li> </ul> <p>감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기 드라마/영화 소개 및 감상</li> <li>• 내 인생의 노래 소개 및 감상</li> </ul> <p>한국은 지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패션 동향</li> <li>• 한국의 속어</li> <li>• 한국의 과학 기술</li> <li>• 한국의 데이트 문화</li> <li>• 한국의 놀이 문화</li> </ul> <p>한국과 미국 문화의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머니의 역할과 사랑 (한국 할머니 대 미국 할머니)</li> <li>• 설화 (신데렐라와 콩쥐 팥쥐)</li> <li>• 인물 (이순신 장군과 조지 워싱턴)</li> <li>• 음악 (미국 힙합 음악 대 한국의 힙합 음악)</li> </ul> | <p>문단 단위의 문장으로 해당 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묘사하며 비교할 수 있음. 최근 이슈가 되는 시사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함 (설명, 서사, 시사).</p>    |
| 최고급   | <p>현대 한국 사회의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교육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에 대한 제안</li> <li>• 외모 지상주의와 성형수술</li> <li>• 한류 (한국 드라마, K Pop)의 발전과 진화</li> <li>• 다민족 국가 한국의 현재와 미래</li> </ul>                                                                                                                                                                                                                                                                                                                                                                                                        | <p>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의 추상적이며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설득함. 논리적으로 찬반을 논함. (설명 및 논증)</p> |

### 3. 맺음말

이상과 같이 북미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외국어 학습 표준을 소개하고 이에 근거하여 고안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의 활용 사례를 살펴 보았다. 앞서 제시한 대로 PBL은 각기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과 언어 능력을 보유한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인 한국어 교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외국어 학습 표준”의 5 Cs 를 기반으로 PBL을 진행하게 되면, 교사는 보다 조직적이고 통합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날로 늘어나고 또 인구사회학적, 언어적 배경도 다양해지고 있는 이때, 외국어 학습 표준에 근거한 PBL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용한 교수 방법의 하나로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American Council on Teaching Foreign Languages (2012). ACTFL Proficiency Guidelines. Web. 10 May, 2015 Accessed.
- Beckett, G. (2006). Project-based second language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G.H. Beckett and P.C. Miller (Eds.) Project-based second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3 – 18).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 Brown, H. (2002). English language teaching in the “post-method” era: Toward better diagnosis, treatment, and assessment. In J. C. Richards and W. A. Renandya (Eds.)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An anthology of current practice (9 – 1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dge, T. (1993). “Project work.”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47 (3). 276-277.
- Goldberg, D., Looney, D., and Lusin, N. (2015). Enrollments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in United State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Fall 2013. Modern Language Association, Association of Departments of Foreign Languages. February 2015. Web. 10 May, 2015 Accessed.
- Shin, S. J., & Lee, J. S. (2013). “Expanding capacity, opportunity, and desire to learn Korean as a heritage language.” Heritage Language Journal, 10(3), 357 – 366.
-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1996). Lawrence, KS: Allen Press, Inc.
- Stoller, F. (2006). Establishing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project-based learning in second and foreign language contexts. In G.H. Beckett and P.C. Miller (Eds.) Project-based second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19 – 40).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 Standards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SKLL): A collaborative project of the Korean National Standards Task Force and the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 (2011). Lawrence, KS: Allen Press.
- Special Issue: College Korean Curriculum Inspired by the National Standards (2011).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 19 (2). Penn State University Press.
- The National Standards Collaborative Board. (2015). World-Readiness Standards for Learning Languages. 4th ed. Web. 15 May, 2015 Accessed.
- Wang, H. Introduction: History and evolution of the Korean programs in the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H. Wang (Ed.), Narrative history of Korean programs in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pp. 13-53).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 Wiggins, G. & McTighe, J. (2005). Understanding by design (Expanded 2nd Ed. USA).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별첨 1〉 ACTFL의 Oral Proficiency Guidelines 등급 체계

|     |        |                                                                                                                                                                                                                                                          |
|-----|--------|----------------------------------------------------------------------------------------------------------------------------------------------------------------------------------------------------------------------------------------------------------|
| 최상급 |        | 일반적인 언어구사에 정확성과 유창함을 보이며, 다양한 주제의 대화에 장시간 일관적, 효과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특수 분야에 대한 논의 및 복잡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함에 있어, 논리적인 주장과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 하는 가설을 구조 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추상적인 대상을 표현함에도 논리적 일치성을 유지하며 설명할 수 있다. 소리의 높낮이, 강세, 억양 등 음성 요소들을 적절히 사용해 다양한 상호 작용적 대화전략을 구사한다. |
| 상급  | 상급 - 상 | 시제를 정확히 구사하며 일관되고, 완전한 서술이 가능하다. 가설을 세워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피력 할 수 있다. 추상적, 전문적인 영역의 주제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며, 부족한 어휘는 다른 단어로 바꾸어 말하거나 예를 들어 통해 설명 하는 등의 대화 전략을 자신 있게 구사함으로써 보완한다.                                                                                |
|     | 상급 - 중 | 개인적인 주제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공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다. 모든 시제를 사용함에 어려움이 없고 문단 단위의 대화가 가능하다. 논리적인 서술과 묘사 또한 문단 단위로 표현 가능하며, 일반적이지만 광범위한 어휘를 사용한다.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거나, 혼동하지 않는다.                                                                                        |
|     | 상급 - 하 | 사건을 서술할 때 일관적으로 동사 시제를 관리하고, 사람과 사물을 묘사할 때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한다.<br>적절한 위치에서 접속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장간의 결속력도 높고 문단의 구조를 능숙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능숙도이다.                                                                                   |
| 중급  | 중급 - 상 | 개인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예측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을 만날 때,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곤 한다. 발화량이 많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다.                                                                                                                                                          |
|     | 중급 - 중 | 일상적인 소재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익숙한 상황에서는 문장을 나열하며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다양한 문장 형식이나 어휘를 실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며 상대방이 조금만 배려해주면 오랜 시간 대화가 가능하다.                                                                                                                                      |
|     | 중급 - 하 | 일상적인 소재에서는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대화에 참여하고 선호하는 소재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
| 초급  | 초급 - 상 | 일상적인 대부분의 소재에 대해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개인 정보라면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할 수 있다.                                                                                                                                                                                               |
|     | 초급 - 중 | 이미 암기한 단어나 문장으로 말하기를 할 수 있다.                                                                                                                                                                                                                             |
|     | 초급 - 하 |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외국어 단어를 나열하며 말할 수 있다.                                                                                                                                                                                                                         |

출처: 한국의 OPIc 웹사이트 [http://www.opic.or.kr/opics/servlet/controller.opic.site.about>AboutServlet?p\\_process=move-page-levelOPI&p\\_nav=3\\_2\\_2](http://www.opic.or.kr/opics/servlet/controller.opic.site.about>AboutServlet?p_process=move-page-levelOPI&p_nav=3_2_2)

## 〈별첨 2〉 고급반에서의 프로젝트 지침

### KORN 211 Class Project Guidelines

1. 주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비교해 봅시다.

(예) 한국의 대학 생활과 미국의 대학 생활  
한국의 취업과 미국의 취업  
한국 젊은이의 고민과 미국 젊은이의 고민  
한국의 광고와 미국의 광고



2. 길이: 3-5 분

3. 구성:

- 1) 들어가기: 주제 소개
- 2) 배경 설명: 한국과 미국의 비교
- 3) 인터뷰: 인터뷰 질문, 인터뷰 내용에 대한 요약
- 4) 나의 생각/ 결론

4. 진행 과정

| 할 일                   | 내용                                                                                                            | 마감일           |
|-----------------------|---------------------------------------------------------------------------------------------------------------|---------------|
| 주제 정하기                | Canvas 에 올리세요 (discussion board)                                                                              | 10/19         |
| 자료 목록 내기              | 해당 주제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자료 목록을 제출하세요.                                                                              | 10/26         |
| 인터뷰 질문 내기             | 해당 주제에 대해 5 개 정도의 질문을 만들어서 내세요.                                                                               | 11/2          |
| 인터뷰 하기                | 한국인 한 명, 미국인 한 명을 인터뷰하세요. 인터뷰는 녹음해서 정리하도록 하세요.                                                                | 11/9          |
| 인터뷰 요약 내기             | 인터뷰를 요약해서 내세요.                                                                                                | 11/16         |
| 발표문 (Script) 내기       | Canvas (discussion board)에 올리세요. 교사의 feedback 에 따라 수정하세요.                                                     | 11/23         |
| Slide Show 만들기        | iMovie, MovieMaker, VoiceThread 등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내용을 slideshow 로 만드세요. 음악, caption, 자막 등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영상물을 만들어 봅시다. | 12/7          |
| Slide Show 내기         | 만든 영상물은 웹사이트에 올린 후, Canvas (discussion board)에 링크를 올리세요.                                                      | 12/8<br>12 pm |
| Slide Show 감상 (기말 발표) |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반 친구들의 발표 영상물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 12/8<br>3pm   |
| Final paper           | 발표 내용을 정리해서 Word 파일로 Canvas(discussion board)에 올리세요                                                           | 12/11<br>12pm |

#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학습자 중심 한국어 교재 개발<sup>1</sup>

이해영 (이화여대 한국어과 교수),  
이정란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특임교수)<sup>2</sup>

## 1. 서론

본 연구는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학습자 중심 한국어 교재 개발 기준을 제안하고 이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로 교재를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외에서 출생한 2, 3세대의 경우는 물론 어린 시절 이민을 간 1.5세대 또한, 계승어인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고 계승어 사용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따라서 재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일반 성인을 교육 대상으로 개발된 범용적 한국어 프로그램이나 교재는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다.

한글학교는 재외동포 대상 교육 기관들 중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재외동포 아동들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글학교에는 현장에 맞추어진 교육과정 및 교재 등 전문적인 교육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한글학교가 전 세계에 분포하다 보니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양함은 물론이고 학생 수준, 수업 시수, 교수·학습 환경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범용적인 교육과정이나 교재가 한글학교에 사용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덜 효과적이다.

재외동포용 교재는 국내 전문 교육기관이 대학에 설치되기 이전부터 국외를 중심으로 현장의 필요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하여,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활발하게 개발되어 왔다(이지영, 2004: 511). 그러나 재외동포용 교재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화되었다. 교재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보다도 교재가 먼저 개발된 셈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재외동포용 교재에 대한 논의는 교재 개발 현황에 대한 연구, 교재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교재의 활용에 대한 연구, 교재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연구 등이 대부분이다.

위 연구 중에서 교재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재외동포 교재는 주제, 기능 및 담화 상황이 학습자에게 적합하지 않고, 언어 지식 부문과 과제가 학습자의 상황에 맞지 않으므로, 재외동포 아동이라는 학습자의 특징을 반영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김재욱, 2002; 원진숙·박나리, 2002; 김정숙, 2008; 김윤주, 2010; 2012; 류선숙, 2011; 고명지, 2012; 박혜경, 2014).

위의 선행 연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교포 아동 학습자의 연령에 맞는 교육 내용이 제공되는가의 문제인데, 이는 본고의 핵심 주제인 학습자의 인지적, 연령적 특성에 맞는 학습자 중심 교재 개발의 필요성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이라는 연령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 교재 개발을 위하여 기준 마련과 적용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학습자 중심 교육과 교재 개발

### 2.1. 학습자 중심 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learner centered curriculum)은 학습자와 교사의 협력을 중시하고,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의 결정 과정에 학습자를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다(Nunan, 1995:3-4). 실제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학습 과정에 학습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활용했을 때 교육의 효과가 높았음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Nunan(1995)에서 소개된 연구들을 보면, 덴마크 아동(Dam&Gabrielsen, 1990)과 미국 고등학생들(Heat, 1992)은 물론, 일본인 대학생들(Widdows&Voller, 1991)도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얻었다. 학습자들이 결정하는 교실 주제가 교사가 결정하는 주제보다 활용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Slimani, 1992).

1 이 글은 이종언어학 56호에 실린 본 연구자들의 논문(이정란, 이해영, 2014)을 수정한 것임.

2 이해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정란: 이화여자대학교 특임교수

교육의 전 과정에 학습자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경험, 배경, 흥미, 요구 등에 초점이 놓여야 한다는 것(McCombs & Whisler, 1997)과 일맥상통한다. 교육과정에 이러한 학습자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의 인지 발달적 특징과 상황 맥락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포함하여 이들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까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악된 특징들은 학습자 중심 교재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 아동용 교재 개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외 현지의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다. 국내의 교재 전문가는 현지의 사정을 알기 어렵고,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재외동포 교육을 담당하는 현지 전문가는 교재 개발에 덜 숙달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연령적,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여 학습자 중심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현지의 전문가 집단이 협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협업에 참여하는 현지 전문가는 교수·학습 상황 분석, 요구조사, 집필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시범 사용 및 의견 조사, 현지화된 내용에 대한 타당도 감수, 번역 및 번역 감수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재외동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내의 교재 전문가가 갖추지 못한 현장적 요소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협업 시스템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와 『맞춤한국어(중국어권)』, 『맞춤한국어(독일어권)』<sup>3</sup>의 개발에 활용되었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와 『맞춤한국어(중국어권)』, 『맞춤한국어(독일어권)』에서는 현지 한글학교 교사, 현지 한글학교 협의회 소속 전문가, 현지 대학의 번역 전공 교수 등을 현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고, 이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학습자의 연령적, 인지적 특징과 현지의 지역적 특징들을 교재에 반영할 수 있었다.

## 2.2. 학습자와의 관련성, 현장에의 전이성 및 적용성

전술한 바와 같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내용 선정과 교수 방법 결정 등에 학습자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이러한 특징은 학습자 중심 교재에도 적용이 된다. 이해영(2001: 204)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재의 요건으로 첫째, 학습자의 요구 반영, 둘째, 자기 주도적 학습 유도를 제언하면서 학습자의 요구 반영을 위한 구체적 요인으로 학습자와의 관련성, 현장에의 전이성 및 적용성, 교사에 의한 개작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학습자와의 관련성과 현장에의 전이성 및 적용성 요인은 학습 자료 및 학습 활동이 학습자가 사용하게 될 실제적인 한국어 언어생활과 관련되어 있는지, 실제 한국어 담화 현장에의 전이성 및 적용성이 높은지에 대한 것으로,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의 연령적, 인지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문제도 이와 관련된다. 가령, 인명과 지명의 선택에서부터 주제 선정까지 현지의 상황과 학습자의 관심을 조사하여 반영하고,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가 실제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담화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실제적 발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학습자 중심 교재를 구성하는 데 핵심이 된다.

학습자와의 관련성, 현장에의 전이성 및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그 첫 번째 예는 주제 선정에서 찾을 수 있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의 주제는 한글학교의 학습자 층이 점차 유아·아동에서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실제로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조사하여 이를 교재에 반영하였다. 예를 들면, 재외동포 아동들이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대화 상대자가 가족이나 친지들인 점을 고려하여,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대화 상황을 교재에 다양하게 포함하였다.

두 번째는 활동과 관련된다. 재외동포 아동용 교재는 그들의 인지 수준에 맞으면서 지속적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포함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가령,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에서는 유아 중심의 활동이나 주제 내용에서 벗어나, 아동·청소년에 맞추어 조정되었으며, 역동적인 교실 활동 구성을 도모하였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재 개발 시 주제, 수업 내용, 과제 활동, 인명 및 지명 선정 등의 과정에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 학습자가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교육이 구현되는 교재를 개발할 수 있다. 학습자 중심 교재는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존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이해영, 2001:202), 개인화(personalization)의 가능성을 넓혀 학습 효과의 증대를 가져온다(Cunningsworth, 1995:19).

3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는 2015년도에 개발된 범용 목적의 교재이고 『맞춤한국어(중국어권)』과 『맞춤한국어(독일어권)』은 각각 2012년, 2013년도에 개발된 현지화 교재이다.

### 3. 재외동포 아동용 학습자 중심 교재 개발의 실제

#### 3.1. 언어 지식 부문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및 『맞춤한국어(중국어권)』, 『맞춤한국어(독일어권)』의 언어 지식 부문은 어휘와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휘는 주제 관련 어휘와 각 단원의 신술 어휘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이 또한 학습자들의 연령, 생활 및 관심사와 관련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아래 <그림 1>은 그 예로서, 이 어휘들은 실제 독일 초등학교의 학교 행사를 조사하여 반영한 것이다.



<그림 1> 『맞춤한국어(독일어권)』 3권 4과 어휘

문법은 한 단원에 두 개씩 제시되는데, 예문과 연습 문제로 구성된다. 학습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문법 설명은 지침서에만 포함하였고, 문법의 연습 문제를 구성할 때에도 학습자들이 해당 문법 항목을 실제 사용하게 되는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아래 <그림 2>는 높임법 ‘-(으)시-’와 ‘께서’를 학습하는 내용이다. 이 연습 문제는 재외동포 아동들의 대화 상대자 중 가족 범주의 비율이 가장 높고, 특히 높임법은 친척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담화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실제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제작된 것이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목표 문법을 실제 담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큰아버지 집에 다들 모였습니다. ‘께서’와 ‘-(으)시-’를 이용해 어른들이 무엇을 하는지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Nach langem versammeln sich die Familien im Haus des älteren Onkels väterlicherseits. Vervollständige die Sätze über das, was die Älteren machen, indem du ‘께서’ und ‘-(으)시-’ verwendest.

(1) 할아버지 / 지금 자요 ➡ 할아버지께서 지금 주무세요.

(2) 할머니 / 밥을 먹어요 ➡ 할머니 \_\_\_\_\_.

(3) 큰아버지 / 책을 읽어요 ➡ 큰아버지 \_\_\_\_\_ 책을 \_\_\_\_\_.

(4) 큰어머니와 어머니 /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 큰어머니와 어머니 \_\_\_\_\_ 텔레비전을 \_\_\_\_\_.

(5) 고모와 고모부 / 과일을 먹어요 ➡ 고모와 고모부 \_\_\_\_\_ 과일을 \_\_\_\_\_.

<그림 2> 『맞춤한국어(독일어권)』 4권 7과 문법

In Deutschland sagt man zu Freunden, Verwandten und engen Bekannten „du“. Zu Erwachsenen und Fremden sagt man „Sie“. Auch auf Koreanisch kann man Menschen besonders höflich ansprechen. Wenn Koreaner über das, was eine andere Person macht, besonders höflich reden, benutzen sie die Silbe „시“: aus „옵니다“ wird dann „오십시오“ und aus „입니다“ wird „입니다“.

Es gibt auf Koreanisch noch eine andere Form, sehr höflich zu sprechen. Man benutzt statt der normalen Wörter höflichere Wörter. Man sagt nicht „갑니다“ sondern „주무십니다“. Man sagt nicht „먹습니다“ sondern „잡수십니다“. Man sagt nicht „있습니다“ sondern „계십니다“.

Wenn Koreaner mit Freunden, engen Bekannten oder mit jüngeren Menschen sprechen, dann benutzen sie „반말“. „반말“ ist ungefähr so wie das deutsche Duzen. Man sagt nicht „옵니다“ sondern „와“. Man sagt nicht „입니다“ sondern „임어“.

Man sagt nicht „잡니다“ sondern „자“. Man sagt nicht „먹습니다“ sondern „먹어“.

<그림 3> 『맞춤한국어(독일어권)』 4권 2과 한국어와 독일어의 높임법 차이 설명 부분

언어 지식 부문에서 사회문화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휘>, <문법과 표현>에서 다룬 항목을 <문화>에서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아래 <그림 3>은 한국어와 독일어의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어의 높임법을 어려운 문법 항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독일어와의 비교를 통해 기본적인 차이점을 먼저 인지하게 함으로써 이후 높임법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4.2. 언어 기술 부분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및 『맞춤한국어(중국어권)』, 『맞춤한국어(독일어권)』의 언어 기술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구성되어 있다. 『맞춤한국어(중국어권)』, 『맞춤한국어(독일어권)』의 경우 현지 교사 요구조사 및 교육과정의 시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말하기’와 ‘쓰기’는 매 단원 편성되었고, ‘듣기’와 ‘읽기’는 단원을 번갈아 배치하였다. 반면,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는 범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 단원에 ‘듣고 말하기’와 ‘읽고 쓰기’를 편성하였다.

**듣고 말하기**

① 다음은 준사와 할머니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준사는 왜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까?  
 ①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② 백일장에서 상 받은 것을 말하려고  
 ③ 방학에 할머니 집에 놀러 갈 계획을 말하려고

2. 준사에 대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할머니에 대한 내용을 글로 썼다.  
 ② 방학에 엄마와 함께 할머니 집에 갈 예정이다.  
 ③ 할머니의 가족 사진을 직접 정한 적이 있다.

3. 할머니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고 계시다.  
 ② 젊으셨을 때 시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③ 형편이 어려워 할머니는 양아들 대학에 못 보냈다.

③ 여러분의 식습관에 대해 아래의 표에 메모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                |          |
|----------------|----------|
| 좋아하는 음식        |          |
| 싫어하는 음식        |          |
| 나의 하루 식사       | 점심<br>저녁 |
| 내 식습관의 좋은 점    |          |
| 내 식습관의 고쳐야 할 점 |          |

**보기**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닭가슴살과 복숭아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수를 자주 먹고 채소는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먹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몸에 나쁘기 때문에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과식을 합니다. 과식하는 것과 편식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좋아하는 음식만 많이 먹지 않고 골고루 먹을 것입니다.

먼저, ‘듣기’와 ‘말하기’ 부분을 살펴보면, ‘듣기’는 <그림 4>의 할머니와의 대화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친지와와의 대화, 한국 광고 등 재외동포 아동들이 실제 한국어로 듣게 될 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제성을 높였다. ‘말하기’는 단원의 주제에 따라 양방향 말하기와 일방적 말하기를 적절히 배치하였고, 가족, 친구, 친구와의 대화 상황, 한글학교 수업 상황 등 재외동포 아동들이 실제로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는 담화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자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발표하기’와 같은 공식적 말하기도 포함하였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5-2권 3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4-1권 6과

<그림 4> 듣기와 말하기

**읽고 쓰기**

① 다음을 잘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우주에 외계인이 살고 있을까?



최근 지구와 가장 많은 행성이 발견되어 애스퍼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이 행성은 지구와 비슷해서 인간도 살 수 있다고 한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1천 400광년 떨어져 있다. 이 행성의 나이는 45억 살로 지구보다 젊고, 크기는 지구의 약 10배 정도이다. 지금까지 많은 행성들이 발견되었지만, 이 행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들보다 더 이상적인 행성이라고 생각된다. 가장 비슷한 행성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 행성을 제2의 지구라고 부르고 있다. 이 행성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명체가 살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하고,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지 지구와 비교하여 비교하는 행성이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성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사슬을 찾고 있고 노력하는대로 실제로 외계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행성이 발견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30억년과도 인내가 곧 실현된다. 앞으로의 생활은 기대된다.

\* 1년 400광년 13,254,000,000,000km

1. 이 행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지구보다 크기는 작지만, 나이는 훨씬 젊다.  
 ② 최근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③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읽으면 O, 아니면 X를 표시해 봅시다.  
 ① 생명체가 살려면 물이 있어야 한다. ( )  
 ② 인류는 외계인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 )  
 ③ 이 행성은 지구와 물과 바람이 비슷하게 있다. ( )

3. 생명체가 살 수 있으려면 행성의 환경은 어떠해야 합니까?

③ 여러분이 만조이나 승부가 되어 유나의 이해에 대한 답장을 써 봅시다.

1. 인사말  
 2. 글로일로 약속 시간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의견  
 3. 글로일로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약속하는 것에 대한 의견  
 4. 마무리 말

**주소지**

받는 사람  
 보낸 사람  
 보낸 날짜  
 비고

보통서, 답장, 카드, 편지, 인터넷,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문어 기술 영역인 ‘읽기’와 ‘쓰기’ 또한 <그림 5>의 예와 같이, 실제성과 학습자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였다. ‘읽기’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생활과 흥미를 고려하여 소재를 선정하였고, 일기, 이메일, 견학 보고서, 독서 감상문, 한글 학교 가정통신문, 신문 기사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텍스트로 구성하였다. ‘쓰기’ 또한 편지,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댓글, SNS의 글, 신청서, 보고서 등 다양한 장르의 쓰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사하여 쓰기’와 같은 높은 인지 수준의 활동을 포함하였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5-2권 11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5-1권 12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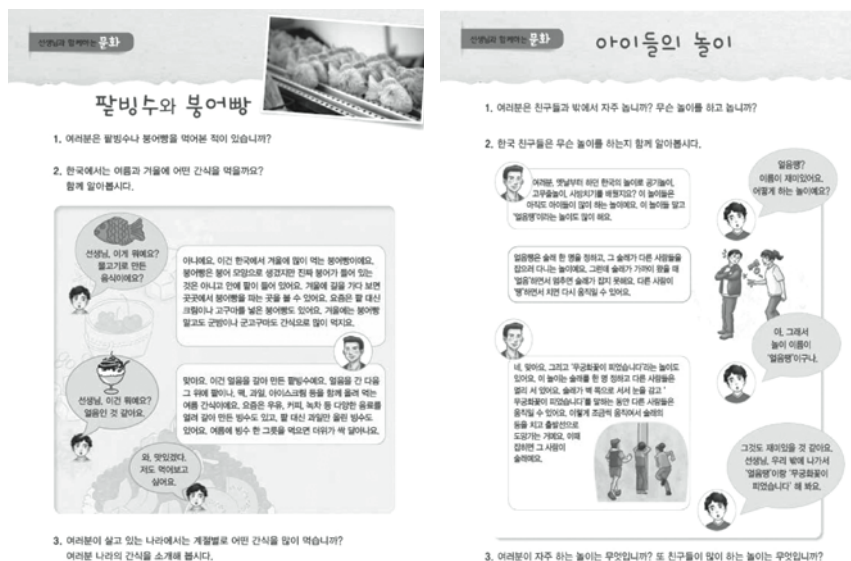
<그림 5> 읽기와 쓰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별 과제 활동을 구성할 때에도 학습자들이 실제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는 맥락과 학습자들의 생활 및 관심사를 반영하여 최대한 실제성 있는 과제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와의 관련성과 현장에서의 전이성 및 적응성을 높이고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4.3. 문화 부문

전술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에게 필요하고 관련성이 높은 주제와 학습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며, 이는 문화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및 『맞춤한국어(중국어권)』과 『맞춤한국어(독일어권)』에서는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련성을 고려한 문화 항목을 선정, 기술하였다.

또한 재외동포 아동용 교재는 문화 내용을 구성, 기술하는 데 있어서도 Seelye(1988)가 언급한 것처럼 문화상호주의적인 관점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한국 문화 전달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태어나서 성장한 현지의 문화와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문화 항목의 선정과 내용의 기술뿐만 아니라 활동을 구성할 때도 반영해야 한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및 『맞춤한국어(중국어권)』과 『맞춤한국어(독일어권)』 개발 시에도 제공된 문화 내용에 비추어 현지의 문화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이나 간단한 활동을 제시하였는데 아래 <그림 6>이 그 예다.



위의 <그림 6>에서 왼쪽 그림은 한국에서 여름과 겨울에 먹는 간식을 소개한 후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나라의 간식을 소개해 보게 하는 활동이고, 오른쪽 그림은 한국의 아동들이 많이 하는 놀이에 대해 알아본 후 자신의 나라의 놀이와 비교해 보게 하는 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재외동포 아동들이 한국 문화와 현지의 문화를 비교하고 이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4-1권 6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4-1권 9과

그림 6) 문화 활동 예시

## 5. 결론

언어교수 이론에 바탕을 둔 좋은 교재는 학습자는 물론 교사에게도 좋은 지침이 된다. 그간 한국어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교재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한국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재를 출판, 지원하고 있다. 교재는 학습자 및 교수·학습 상황에 잘 맞아야 하는데, 특히 재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경우 아동의 연령적 특징, 현지의 지역적 특징, 교수·학습 환경을 반영한 교재, 즉 학습자 중심의 교재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재외동포 아동용 교재 개발의 지침과 이러한 지침을 적용한 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재의 요건으로 학습자와의 관련성, 현장 전이성 및 적용성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및 『맞춤한국어(중국어권)』, 『맞춤한국어(독일어권)』의 실제 개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구현 방안 또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서술한 학습자 중심 재외동포 아동용 교재 개발의 결과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고 개인화의 가능성을 넓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나아가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다양한 재외동포 교재 개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고명지(2012). 재외동포 미취학 아동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가정학습 교재 개발 방안 연구. 부산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주(2012).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용 한국어 교재의 기초 문식성 학습 활동 분석, 〈어문논집〉 66호, 민족어문학회, 237쪽 ~ 264쪽.
- 김재욱(2002).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회화 교재의 구성원리 및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7쪽 ~ 85쪽.
- 김정숙(2008).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초급 1단계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7호, 이중언어학회, 61쪽 ~ 83쪽.
- 류선숙(2011).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모형 개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2014). 주제 중심 접근법 기반의 재외동포 아동용 한국어 교재 개작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55호, 이중언어학회, 111쪽 ~ 131쪽.
- 원진숙·박나리(2002). 영어권 교포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이중언어학〉 20, 이중언어학회, 193쪽 ~ 212쪽.
- 이정란, 이해영(2014).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학습자 중심 교재 개발, 〈이중언어학〉 56, 이중언어학회, 267쪽 ~ 290쪽.
- 이지영(2004). 근현대 한국어 교재의 사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1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503쪽 ~ 541쪽.
- 이해영(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쪽 ~ 232쪽.
- 이해영(2012). 한중 협력을 통한 한국어 교재의 중국 현지화 방안 연구: 중국의 아동청소년 교육 기관인 한글학교 교재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18쪽 ~ 225쪽.
- Cunningsworth, A.(1995). Choosing your coursebook, Oxford: Heinemann.
- Dam, L., & G. Gabrielsen(1988). Developing learner autonomy in a school context, a six-year experiment beginning in the learners' first year of English, In H. Holec(Ed.), Autonomy and self-directed learning: present field of application,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 Heat, S. B.(1992). Literacy skills or literate skills? Considerations for ESL/EFL learners, In D. Nunan(Ed.), Collaborative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ombs, B. L., & Whisler, J. S.(1997). Learner-centered classroom and school,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Nunan, D.(1995). What is learning-centered communication, English teaching, 50(3), 3-15.
- Seelye, H N.(1988).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National Textbook Company.
- Slimani, A.(1992). Evaluation of classroom interaction, In J. C. Alderson and A. Beretta(Eds.), Evaluating second language edu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ddows, S., & P. Voller(1991). PANSI: A survey of ELT needs of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Cross Currents, 18(2).

## 참고 교재

- 이해영·김은애·박기영·방성원·김태진·김현진·이정란(2012). 맞춤한국어(중국어권) 1, 2, 3, 4, 5, 6권.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발간.
- 이해영·김은애·박기영·곽지영·김태진·김현진·이정란(2013). 맞춤한국어(독일어권) 1, 2, 3, 4, 5, 6권.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발간.
- 이해영·박기영·이정란·김은애·장미라·곽지영·김태진·김현진·조남민(2015).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4, 5권.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발간.

#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교실의 수업 대화 분석<sup>1</sup>

- 수업 대화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을 중심으로 -

박기선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1. 들어가며

언어 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학습자가 목표 언어로 정확하고 유창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어 교육 현장의 교사들과 언어 교육 연구자들은 누가 가르치는지, 누가 배우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디에서 가르치는지 등 다양한 변인에 따른 한국어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왔으며 이러한 논의가 축적되어 언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의 심도와 범위는 더욱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학습자에게 목표 언어인 한국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켜주기 위한 한국어 수업 대화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한국어 수업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정도, 즉 학습자의 수업 대화 참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수업 참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한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의 수업 대화 참여를 촉진시키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인지하고 한국어 수업에서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어 수업에서 학습자의 수업 대화 참여를 높이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한국어 수업 현장의 관찰 카메라를 통해 수업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대화 참여자들의 수업 대화를 전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 대화를 분석하였다(박기선:2012a, 2012b, 2016 참조). 그리고 한국어 수업 대화 분석을 통해 대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을 분석<sup>2</sup>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업 대화 양상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학습자는 언제 반응할까?

### (1) 수업의 내용

외국어나 모국어와 같은 인간의 언어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의사소통의 맥락에서는 청자 및 화자와 같은 대화 참여자와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의 화제가 기본적으로 전제된다. 한국어 수업의 의사소통 맥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어 수업의 대화 참여자는 교사와 학습자들이고 이들이 때로는 화자로, 대로는 청자로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에서의 화제는 그날 교육 과정에 따른 수업의 목표와 관련된 주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인 의사소통 맥락에서 대화 참여자가 화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은 가장 진지하게 그리고 활발히 일어나는 것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다. 즉 의사소통 맥락에서 화제는 대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러한 양상은 한국어 수업 대화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다. 다음은 한국어 수업 대화의 예시이다.

1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 수업에서 수업 대화 참여자들 간의 대화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발화를 유도하는 한국어 교사(경력 교사 및 예비 교사)의 발화 내용과 형식에 대한 고찰(박기선: 2012a, 2012b, 2016)을 참조하여 논의를 재구성하였다.

2 한국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대화의 기본 구조가 일반적으로 '시작(Initiate) - 반응(Response) - 평가(Evaluate)/피드백(Feedback)'로 이루어지므로 '교사 - 학생 - 교사'의 삼원적 대화 구조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교사의 발화 중에 수업 대화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상호작용 촉진 요인과 상호작용 방해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박기선, 2016: 64쪽 참조).

(예 1-가)

T : (노래를 하는 동작과 함께 학생들이 알만한 빅뱅 노래 등을 부르며)  
“루저~ 외톨이~ 상처받은 겁쟁이~” 여러분, 이 노래 알아요?

S : 네, 알아요.

T : 누구 노래예요?

S : 빅뱅 노래예요, 빅뱅!

T : 여러분은 빅뱅을 좋아해요?

S : 네, 좋아해요.

T : 미셀 씨는 왜 빅뱅 노래를 좋아해요?

S : 빅뱅 멋있어요!

(예1-나)

T : (학생들을 둘러보며) 여러분, 한국어 공부 어때요?

S : 좋아요. 어려워요.

T : 네, 그래요. 디도 씨,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몇 시에 끝나요? 알아요?

S1 : 네, 알아요.

T : 아! 그래요? 몇 시에 끝나요?

S2 : 4시에 끝나요.

T : 그렇군요!.

(예1-다)

T : 아싸투 씨, 영화를 좋아해요?

S2 : 네, 좋아해요.

T :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S2 : 음...

T : 액션 영화? 로맨틱 코미디?

S2 : 코미디 영화 좋아해요.

T : 아! 그래요?

\*T : 교사, S : 학습자

위 (예1)을 보면 한국어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가 한국어를 취미나 학문 목적으로 학습하는 20대 초반의 다국적 초급 학습자들로 한국의 대중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에 유학을 왔다는 공통점을 활용하여 이들이 공감하는 한국 노래와 가수, 학습 동료로서 공통된 학습 일정, 영화 등을 도입 단계에서 화제로 제시하고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수업의 방법

한국어 수업에서 교사가 학습자의 대답이나 발화에 대해 감탄조의 억양으로 반응하거나 웃음이나 놀람의 표정을 지으며 비언어적인 반응을 적극적으로 할 때 많은 학습자들은 수업 대화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양상을 보이곤 한다. 화자의 발화에 대해 언어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일 경우, 대부분의 화자는 대화 참여 동기가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때 비언어적인 표현은 수업 대화 참여자의 이해를 도울 때에도 매우 유용한데, 특히 한국어 숙달도가 낮은 입문이나 초급 학습자의 경우, 새로운 문형이나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 수준에 맞는 언어적인 설명과 함께 비언어적인 동작이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제시 및 설명은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대화 시 주고 받는 참여자 간의 시선 교류를 통해 수업 대화 참여자 간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어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양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거나 학습자에게 새로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대화 참여자 간의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적절한 비언어적인 양상은 수업 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수업 대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예 2-가)

T : (단어 카드 활용한 형태 연습 단계에서 단어 ‘싸다’ 카드를 가리키며 )

타냐 씨, 어떻게 말해요?

← 시선교류

S1 : 싸지다.

T : 싸지다! 오~ 타냐 씨, 정말 잘해요!

← 감탄

(예2-나)

T : (목표 문형의 의미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울가 씨는 수영 잘해요?

S1 : 아니요. 못해요.

T : 아! 울가 씨는 수영을 못해요.

(손동작으로 X 를 나타내며) 수영을 할 수 없어요.

← 동작

(예2-다)

T : (목표 문형의 의미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선생님은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뛸 수 없어요.

S1 : 선생님! ‘뛸 수’ 뭐예요?

T : (교사는 뛰는 동작으로 ‘뛰다’의 의미를 보이며)

‘뛰다’예요. ‘걷다’보다 어때요?

← 연기/웃음



2-가. 시선 교류



2-나. 손/표정 동작



2-다. 연기

〈그림1〉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비언어적 양상

또한 교사가 학습자의 대답이나 발화를 활용하여 목표 문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실제적인 예문으로 사용하거나 학습자의 대답에 적극적인 칭찬과 강화를 하는 한편, 설명어의 난이도를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와 단순한 문장 구조로 발화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때 학습자가 수업 대화에 참여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가 정상적인 발화 속도를 유지하며 학습자에게 낯설 수 있는 한국어 축약이나 생략 표현 및 비표준어 사용을 통제하고 학습자의 대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의 난이도 조절 및 학습자의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시하여 비계를 제공하면서 수업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업 대화의 양상은 다음 예와 같다.

예 2-라)

T : (그림 카드를 보면서 연습하는 단계에서 그림을 가리키며 )

파벨 씨, 어떻게 말해요?

S1 : 텔레비전을 보면서 운동을 해요.

T : 와우~ 정말 잘했어요!

← 칭찬/강화

(예2-마)

T : (목표 문형의 의미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그림 자료를 보이면서)  
에릭 씨가 영화관에서 무엇을 해요?

S1 : 영화를 봐요.

T : 네, 맞아요. (그림 자료의 팝콘을 가리키며) 그리고...

S2 : 팝콘 먹어요.

T : 맞아요! 영화를 봐요. 그리고 영화볼 때 팝콘도 먹어요.  
두 동작을 같이 해요. 그럴 때 'AVst(으)면서'로 말해요.

SS : 영화를 봐면서 팝콘을 먹어요.

T : 봐면서?

SS : ...

T : 보다? ?

← 비게 제공

아울러 수업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업 대화에서 소외되거나 학업 성취도 조금 낮은 학습자라도 교사는 수시로 시선을 주고 받으며 학습자의 이름을 호명하여 발화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말차례 배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예 2-바)

S1 : (연습의 짝활동 단계에서 S1이 S2 씨에게) 모간 씨, 우체국이 몇 시에 문을 닫는지 알아요?

S2 : 네, 우체국이 몇 시에 문을 닫는지 알아요. 저녁 6시에 문을 닫아요.

T : 잘했어요!

이번에는 모간 씨가 미카엘 씨에게 질문해 볼까요?

← 호명으로 말차례

### (3) 수업의 운영

한국어 수업 중에는 단계별로 수업 보조 도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수업 도중에 흔히 사용하는 단어 카드나 그림 카드, 연습/활용지 등의 보조 자료를 학습자에게 배포하는 중에도 수업 참여자 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는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제시나 설명 단계의 판서 및 연습이나 활용 단계의 연습/활동지를 사용 시에도 학습자의 시선이 문자 중심의 판서(칠판)과 연습/활동지가 아니라 수업 대화 참여자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구어 중심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업의 운영 예는 다음 (예3)과 같다.

(예 3-가)

T : ( 학생들의 대답을 예문으로 판서하면서)

8월에는 더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SS : 추워요.

T : 맞아요! 날씨가 달라졌어요.

(예3-나)

T : (목표 문형의 의미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아래 그림 자료를 보이면서)

1번 그림에서 날씨가 어때요?

SS : 더워요.

T : 네, 맞아요. (2번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는 어때요?



SS : 바람이 불어요.

T : 맞아요! 그래서 날씨가 어때요?

SS : 조금 추워요.

T : 맞아요! (3번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는 어때요?

예3-다)

T : (그림: 단어 카드를 보이면서 단순 문장 만들기 연습을 진행하는 단계)

투이 씨, '잘하다'는 어떻게 말해요?

S1 : 잘하게 되다



T : 네, 맞아요. 마사미 씨는 무엇을 잘하게 되었어요?

S1 : 젓가락을 잘하게 되었어요.

T : 네, 그래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SS : 못해요.



3-가. 판서하며 상호작용



3-나. 자료 보며 상호작용



3-다. 자료 보며 상호작용

〈그림2〉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수업의 운영

이상 한국어 수업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수업 대화 양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수업 대화를 위해서 교사는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 그리고 수업의 운영에서 학습자를 충분히 고려한 수업 내용의 선정과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언어(설명어) 사용과 비언어적 행동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또한 수업의 운영에서도 학습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학습자들과의 시선 교류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 3. 학습자는 언제 침묵할까?

#### (1) 수업의 내용

한국어 수업의 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수업 대화의 내용에서 주요 화제나 소재 등이 학습자와 관련성이 적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운 무의미한 내용의 질문이나 아직 학습하지 않은 문법이나 표현의 질문, 또는 요구 사항이 부정확한 질문들에 침묵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교사가 목표 문형이나 어휘의 의미나 형태 정보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습자들에게 목표 문형의 기본 의미, 형태 정보 및 사용 정보 등이 정확하고 간명하게 제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학습자들은 침묵 반응을 지속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수업 대화의 예는 (예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 4-가)

T : (웃으며 주저하며) 동대문 시장..그 생긴...그 모양이 어때요?

←모호한 질문

(예 4-나)

T : ('좋아지다'를 통해 'DVst어/어지다'의 의미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처음에는 한국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싫었어요. 배우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어를 조금씩 조금씩 배우면서 한국 친구도 사귀고 한국문화도 배우고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어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이런 상황을 말할 때 쓰는 방법이니깐 우리가 알아두면 이럴 때 쓸 수 있을 거예요.

←장황한 설명

(예4-다)

T : 요즘 여러분 주머니 사정이 어때요?

← 모르는 어휘로 질문

SS : ...

T : 용돈이 많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SS : ...

T : 여러분들 사용하는 돈이 책값, 등록금 외에 여러분들이 쓰는 집값이나 아니면 먹을 때 쓰는 음식값이나 이런 돈을 쓸 때 점점점 어때요?

← 관련성 적은 화제

SS : ...

T : 돈이 쓸 수 있는 게 점점점 적어지죠.

SS : ...

T : 그래서 이럴 때는 경제가 뭐예요? '나빠지다'라고 써요.

## (2) 수업의 방법

학습자의 반응을 유발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교사의 비언어적인 양상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다. 도입이나 제시 단계에서 단조로운 억양으로 교사 발화가 이어지고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나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학습자들의 후속 발화도 이어지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한국어 수업 중에 교사의 시선이 학습자에게 향하기 보다 판서를 하면서 칠판을 보거나 먼 곳을 응시하거나 강의안이나 자료를 읽는 경우에 학습자가 침묵을 유발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업 대화 양상의 예는 (예 5)와 같다.

(예 5-가)

T : (목표 문형 설명을 위한 보조 자료 PPT를 향하여 읽으면서) ← 시선 돌리며 침묵

예5-나)

T : 내 생각을 말하는데 음... 내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잘 모를 때 그럴 때도 쓰구, 어~ 상대방한테 부드럽게 말할 때도 써요. (한숨 쉬며 침묵 후) 그러니까 ...

S2 이거 아직 잘 몰라요.

T : 네.(허공 보며 한숨)

← 한숨 쉬며 침묵

(예5-다)

T : '하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SS : ...

T : (학습자가 침묵하자 학생들을 바라보며 교사도 침묵)

← 무표정하게 침묵

S2 : 음...하게 되었어요.

T : 맞아요.



4-가. 시선 돌리며 침묵

4-나. 한숨 쉬며 침묵

4-다. 무표정하게 침묵

〈그림 3〉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비언어적 양상

또한 교사 발화에서 비표준어(어휘, 발음)나 간투사, 생략이나 축약 표현 및 정상 속도보다 빠른 속도의 발화가 빈번하게 나타나거나 목표 문형의 제시나 설명 단계 및 연습 활용 단계에서의 학습자 참여 전 단계에서의 설명어의 난이도가 높고, 문장의 호흡도 상당히 길어서 초급 학습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습자의 침묵 반응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언어 사용 양상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예 5-라)

T : 테레사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부정확한 발음

S1 : 음...(손가락으로 하나와 둘을 표시한다)

T : 아! 디셈버?

←외국어 사용

SS : ...

T : 아~ 1년 쫄쫄 안 됐어요~ 날씨가 변했어요?

←비표준어 사용

S1 : 음?

T : 아엠쏘리.

←외국어 사용

SS : ...

T : 지금 언제 왔느냐를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 한국에 와서 여러분 모하구 지내나 언제 와서 모하구 지내나 그리구 궁금해서 물어 볼려구 했어요.

←비표준어 사용

예5-마)

T : 이 의미는 어...자기가 혼자...어...정확하게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라고 생각...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SS : ...

T : 그 다음에 -는 것 같다와 -은 것 같다의 사용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면 어...는 것 같다는 앞에 동사, 동사 올 때는 동사가 올 때는, 동사가 올 때는 -는 것 같다를 쓰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올 때 -은 것 같다를 써요. 그렇지만 같은 형용사에서도 같은 형용사지만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아...은 것 같다를 사용하지만, 아까... 여기 썼다가 지웠는데... 예쁘다, 좋다 할 때는 같은 형용사이지만, 좋다 하고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은 것 같다를 사용하고 아까 예쁘다에서는 여기 썼었는데요...그래서...어...

←설명이 난이도가 높고 발화 내용이 장황함

아울러 일부 학습자에게만 질문을 하거나 전체 학습자 대상으로 교사 발화가 이어져서 학습자 개개인이 수업 대화에 참여할 동기 부여가 적어져서 침묵이 이어지는 양상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학습자 중에는 발화 기회가 거의 없이 소외된 채 수업에 참여하게 되어 수업 분위기도 매우 침잠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예는 다음 (예 5-바)와 같다.

예 5-바)

T : 한국에서 일하려면 사장님과 만나서 이야기해야 돼요.

네... 그런 걸 인터뷰라고 하는데...

SS : ...

T : 그래서 이야기 하려면 사장님이 물어볼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물어볼 수 있어요.

SS : ...

T : 학생들한테..여러분들한테..그러면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SS : ...

T : 자신의 좋은 점, 나쁜 점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말해 볼래요?

←전체 학습자를 향한 질문

### (3) 수업의 운영

한국어 수업 운영에서 침묵을 유발하는 요인이 단계별로 사용하게 되는 보조 자료 활용 시에 관찰이 되었다.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 자료의 크기나 재질 등의 형식이 학습자가 인지하기에 부적합 경우에 학습자는 침묵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습/활용지를 사용한 활동에서 나타난 문자 정보 중 어휘나 표현에 신정보가 많아서 그날 학습한 목표 문형과 어휘에 대한 연습과 활용보다는 연습/활용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학습자들이 집중하게 되어 수업 대화 중 침묵이 흐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판서 시에도 교사는 판서하고 학습자는 그 내용을 받아 적고 또 그 후에도 교사나 학습자나 판서한 내용이 적힌 칠판을 보면서 읽느라고 한동안 한국어 수업에서 의미있는 상호작용은 없이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가 이어져 학습자들은 침묵하게 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업 대화의 예는 다음 <그림4>와 같다.



가. 보조 자료 크기

나. 보조 자료 재질

다. 어휘 난이도 및 문어 중심 쓰기 활동지

<그림 4>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자료 활용 양상

보조 자료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거나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5-가>의 단어 카드의 경우, 전체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여 형태 변화를 연습하기 위해 제시하는 자료인데 그 크기가 작아서 주어진 단어를 학습자들이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5-나>의 자료는 조명 기구에 반사가 되어 전체 학습자들이 교사가 의도하는 그림이나 사진의 내용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말하기 연습이나 활동을 위한 자료로 배포되는 보조 자료들 중에는 말하기 기능 중심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읽기나 쓰기의 비중이 높아 보이는 형식의 자료들이 학습자에게 제공되곤 한다. 연습이나 활용을 위한 보조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학습자는 구어 활동 중심으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침묵하면서 문자 해독과 쓰기에 골몰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연습과 활동을 위한 보조 자료가 구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문어의 노출은 최소화하면서 수업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입-제시-설명 단계에서 입력된 새로운 목표 문형의 발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연습/활용을 위한 보조 자료에는 목표 문형이나 선수학습 내용 이외의 신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최소화하거나 없어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목표 문형을 위한 연습과 활용의 시간이 그 연습지나 활용지에 수록된 새 어휘나 표현 학습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 4. 나오며

본고에서는 의사소통 신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 수업 대화 자료를 분석하여 수업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양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 수업 중에 나타나는 수업 대화의 양상은 수업의 방법 중 교사의 시범 정도만 공통적으로 나타날 뿐이고 나머지는 상호작용 촉진 요인과 방해 요인이 수업의 내용, 수업의 방법 및 수업의 운영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수업 대화에서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요인은 수업의 목표 문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 눈높이에 맞추어서 화제 및 내용을 선정하고, 또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수업 구성원이 모두 발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 대화 중에 통제된 언어 사용과 비언어적인 행동들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수업 대화에서 상호 작용을 저해하는 요인은 한국어 교사가 목표 문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수업의 화제

나 내용도 학습자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지거나 다소 난이도가 높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자주 보였으며, 교사의 발화에서는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비표준어나 문법용어 등이 자주 나타나곤 하였다. 또한 판서나 연습지 등의 활용 단계에서는 교사나 학습자 모두 문자 정보에 집중하여 한 동안 침묵하는 시간도 자주 보였다. 이러한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으로 인해 학습자의 발화 기회는 거의 없는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가 수업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와 같은 한국어 수업 대화 분석 결과는 한국어 교실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한국어 교실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수업 대화 양상들은 지향하고, 상호작용이 거의 없었던 한국어 교실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수업 대화 양상들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한국어 교사의 바람직한 수업 대화 방안을 교육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재욱 2007. 한국어 수업에서의 교사 발화 연구,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pp.27 ~ 47.
- 박기선 2012a. 한국어 교실의 수업 대화 분석-교사의 상호작용 촉진 방식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8-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51 ~ 79.
- 박기선 2012b. 한국어 교실의 수업 대화 분석-학습자의 침묵 반응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23-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3 ~ 53.
- 박기선 2016. 예비교사의 한국어 수업 대화 분석 연구, 國際地域研究論集7号, 國際地域研究学会, pp.63 ~ 76.
- 박선옥 2003. 한국어 교사의 질문 유형과 기능에 대한 연구-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의 발화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5, 한국화법학회, pp.371 ~ 399.
- 진정란 2014.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사례 분석 연구-사이버대학 교과목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연구 28-2,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연구소, pp.207 ~ 232.
- 진제희 2002. 교실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교사의 역할-스캐폴딩의 관점에서-, 한국어교육 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43 ~ 264.
- 한상미 2001a.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교사말 연구 - 유도 발화 범주의 교사말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23 ~ 253.

〈참고〉 한국어 수업 대화의 상호작용 촉진 요인과 방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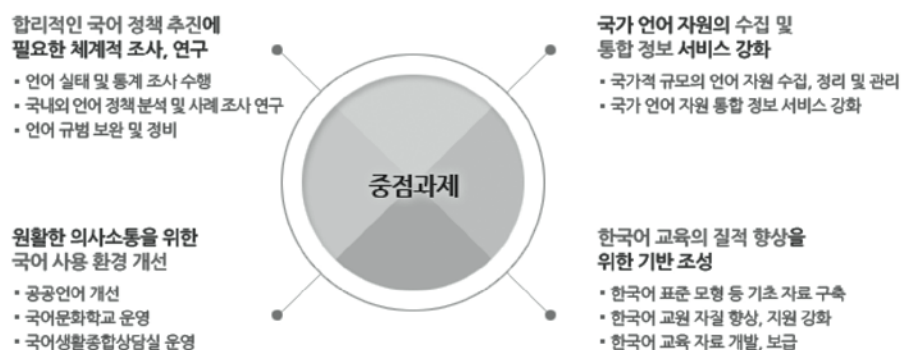
| 대분류       | 소분류                     |                   | 상세 항목                                               | 상호작용<br>촉진 요인 | 상호작용<br>방해 요인 |
|-----------|-------------------------|-------------------|-----------------------------------------------------|---------------|---------------|
| 수업의<br>내용 | 수업의 화제 및<br>내용          |                   | 1) 목표 문형 중심의 화제                                     | 높음            | 낮음            |
|           |                         |                   | 2) 학습자를 고려한 화제                                      | 높음            | 낮음            |
|           |                         |                   | 3) 중복된 화제의 반복                                       | 낮음            | 높음            |
|           |                         |                   | 4) 학습자 관련성이 적은 화제                                   | 낮음            | 높음            |
|           |                         |                   | 5) 무의미한 확인 질문: 기본 단어 확인                             | 낮음            | 높음            |
|           |                         |                   | 6) 대답이 알려진 질문                                       | 낮음            | 높음            |
|           |                         |                   | 7) 대답을 모르는 질문 : 목표 문형/핵심없는<br>질문                    | 낮음            | 높음            |
|           | 목표문형 예<br>대한 교사의<br>이해도 |                   | 1) 기본의미기능                                           | 높음            | 낮음            |
|           |                         |                   | 2) 형태/불규칙 활용/어문규범                                   | 높음            | 낮음            |
|           |                         |                   | 3) 사용 정보                                            | 높음            | 낮음            |
| 수업의<br>방법 | 교사의<br>발화               | (1)<br>비언어적<br>양상 | 1) 억양 : 감탄                                          | 높음            | 낮음            |
|           |                         |                   | 2) 표정 : 웃음, 놀람                                      | 높음            | 낮음            |
|           |                         |                   | 3) 시선(준비도)                                          | 높음            | 낮음            |
|           |                         |                   | 4) 침묵                                               | 낮음            | 높음            |
|           |                         |                   | 5) 동작(연기)                                           | 높음            | 낮음            |
|           |                         | (2)<br>언어적<br>양상  | 1) 학습자 대답을 예문으로 활용                                  | 높음            | 높음            |
|           |                         |                   | 2) 오류 수정을 위한 질문의 변환 및 정보 제<br>공                     | 높음            | 낮음            |
|           |                         |                   | 3) 교사의 시범                                           | 높음            | 높음            |
|           |                         |                   | 4) 생략/축약 표현, 간투사, 비표준어, 영어,<br>전문어                  | 낮음            | 높음            |
|           |                         |                   | 5) 호흡이 긴 설명                                         | 낮음            | 높음            |
|           |                         |                   | 6) 의문사 사용 질문                                        | 높음            | 낮음            |
|           |                         |                   | 7) 칭찬/맞장구: 진정성 있는 소통                                | 높음            | 낮음            |
|           |                         |                   | 8) 정상 발화 속도                                         | 높음            | 낮음            |
|           | 말차례 배분                  |                   | 1) 호명을 통한 말차례 배분                                    | 높음            | 낮음            |
|           |                         |                   | 1-1) 집단을 향한 질문 및 확인                                 | 낮음            | 높음            |
|           |                         |                   | 2) 말차례 배분 순서 조정                                     | 높음            | 낮음            |
| 수업의<br>운영 | 수업의 운영                  |                   | 1) 연습지(쓰기/읽기 중심) 구성                                 | 낮음            | 높음            |
|           |                         |                   | 2) 판서 시 상호작용                                        | 높음            | 낮음            |
|           |                         |                   | 3) 교구 사용 시 상호작용 : 도입:그림, 단어<br>카드, 실제 자료(형식/내<br>용) | 높음            | 낮음            |
|           |                         |                   | 4) 게임 활동                                            | 높음            | 낮음            |
|           |                         |                   | 5) 강의안 숙지도                                          | 높음            | 낮음            |

# 국립국어원 개발 한국어 교육 자료 현황과 활용법

황응주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 1. 머리말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체계적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구이다. 국립국어원은 합리적인 국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적 조사, 연구와 언어 규범 보완 및 정비를 수행하고 국가 언어 자원을 수집하여 통합 정보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언어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며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증대를 위하여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국립국어원 사업의 중점 과제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국립국어원 중점 과제〉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어 교육 기초 연구, 교육 자료(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한국어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한국어교원자격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까지 국립국어원에서 개발된 자료들 중에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자료의 현황을 소개하고 활용법을 제시함으로써 현장 교원들에게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한국어 교육 기초 연구 현황과 활용

### 2.1. 한국어 학습자 언어 자료(말뭉치) 수집 및 활용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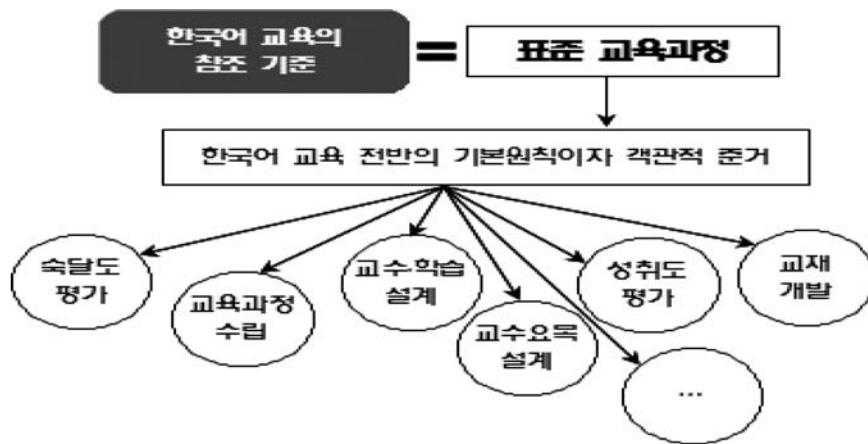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합계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수집 설계 및 시험 구축/가공] | 국내 학습자 [집중 수집]     |                  | [추가 수집 및 구축/가공] |         |       | 문어 160만/<br>구어 40만 목표<br>(문어 160-200만 조정 가능) |
|                    | [수집 설계 및 시험 구축/가공] | 이주민 [집중 수집]      |                 | [구축/가공] |       | 문어 70만/<br>구어 15만 목표<br>(문어 50-70만 조정 가능)    |
|                    |                    | 수집 설계 및 시험 구축/가공 | 국외 학습자 [집중 수집]  | [구축/가공] |       | 문어 70만/<br>구어 15만 목표<br>(문어 50-70만 조정 가능)    |

〈그림 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계획〉

지난 10여 년간 한국어 교육이 양적인 성장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미 언어 교육의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학습자 언어 자료(말뭉치)를 수집하여 학문 연구, 교재 개발, 교수법 개발, 학습자 사전 집필 등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2015년부터 6년간 계획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15년에는 시범적으로 자료를 구축하였고 2016년에는 한국 내의 어학당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주민 대상 언어 자료 수집 설계 및 시험 구축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국외의 학습자 언어 자료도 시범적으로 수집하려고 한다.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자료가 어느 정도 수집되고 가공되면 교육 자료 개발(특히, 교재)과 언어권별 혹은 학습자 단계별 맞춤형 교수법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대규모 언어 자료를 수집하면 그동안 인상적 방법에 의해서 연구되었던 학습자 언어권별로 나타나는 오류 양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오류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수법 등이 개발될 것이다. 2015년에는 문어 30만 어절 구어 5만 어절이 구축되었으며 2016년에는 문어 70만 구어 10만 어절이 구축될 예정이다.

## 2.2.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교육과정 개발



〈그림 3. 표준 교육 과정 모형의 내용〉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교육과정은 <<유럽 공통 참조 모형>>과 같이 한국어 교육의 참조 모형이 없는 상황에서 2010년~2011년에 개발한 것이다.

2010년도의 1단계의 연구에서는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 교육 시간(단위), 등급 범주, 등급별 총괄목표,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목표를 설정하는 연구를 하였다. 2011년 2단계 연구에서는 ‘주제, 어휘, 문법, 발음’ 등 각 세부 분야의 교육 항목을 선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주제: 14개의 대범주 안에 83개의 구체적인 주제 항목 설정
- - 어휘: 초급(1,681개), 중급(3,007개), 고급(6,428개)
- - 문법: 1-2급(100개), 3-4급(150개), 5-6급(200개), 7급(168개)
- - 발음: ‘개별 음수, 음의 연쇄, 음운 현상, 초분절음, 현실 발음’을 대분류로 설정하고 25개의 하위 범주 중분류로 설정, 총 95개의 세부 항목 설정
- - 텍스트: 4개의 대분류에 총 147개의 항목으로 구성, ‘문어’와 ‘구어’로 구분하여 제시
- - 기능/과제: 90개의 기능과 각 기능에 적합한 과제 제시
- - 문화: 7개의 대분류, 23개의 중분류, 55개의 소분류 제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교육과정 모형 개발 연구의 후속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기존에 개발되었던 내용에 대해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어휘 및 문법 등의 내용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개발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단계 7등급의 분류한 것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과 각급 기관에서 실제 적용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등급 체계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 2.3.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연구



〈그림 4. 어휘 내용 개발 검색 화면 해설〉

정보 등이다. 또한 주제 및 발화 상황 범주 목록(초급 38개, 중급 36개, 고급 31개)과 의미 범주 체계를 구축하였다. 검색 서비스는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수 학습 센터(<http://kcenter.korean.go.kr>)에서 제공한다.

### 2.4. 한국어 교육 문법 표현 내용 개발 연구



〈그림 5. 문법 표현 내용 검색 첫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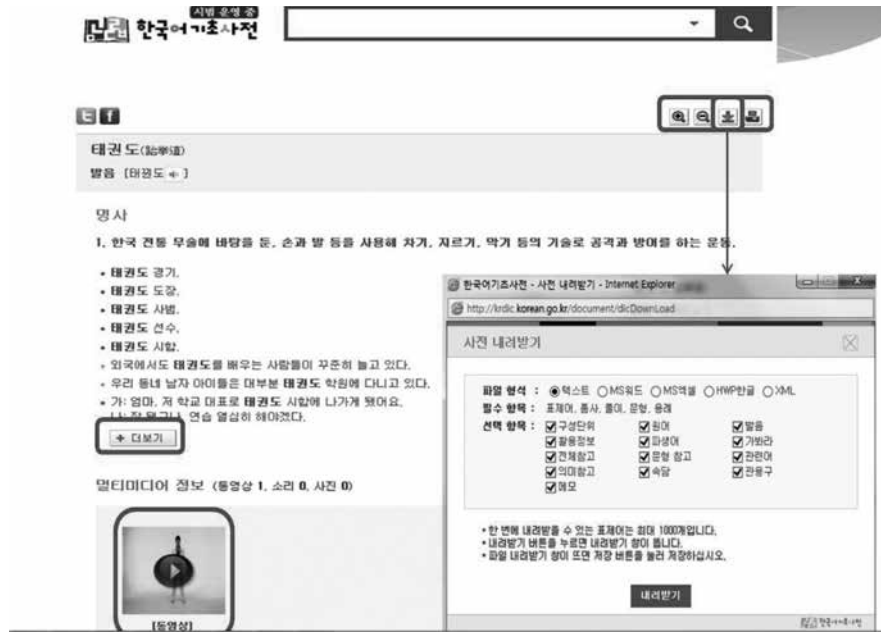


〈그림 6. 문법 표현 내용 검색 화면〉

이 연구는 충실한 문법 교육을 하기 위한 문법 교육 내용을 기술하고 한국어 교육 연구자가 심도 있는 문법 내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문법에 관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사업의 결과물로 초급 91 항목, 중급 113항목의 문법 표현이 기술되었다. 또한 이 결과물은 검색 서비스를 통해 쉽게 자료 활용을 하도록 하였다. 이 내용에 대한 검색 서비스는 한국어 교수 학습 센터(<http://kcenter.korean.go.kr>)에서 제공한다.

### 2.5. 한국어 기초 사전(<http://krdic.korean.go.kr>)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기초 어휘, 학습 정보, 문화 지식 등 다양한 정보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전이다. 한국어 기초사전의 특징으로는 인터넷 최초 한국어 학습 사전으로 한국어 학습에 꼭 필요한 5만 항목 어휘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해하기 쉬운 한국어 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외국인 맞춤형으로 선정된 어휘를 쉽게 풀이하며 멀티미디어 자료로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며, 일상에서 자주 쓰는 구, 문장, 대화 예문을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자세히 찾기 기능을 통해 상세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 한국어 기초 사전 검색 화면〉

### 3.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현황과 활용



〈그림 8. 두근두근 한국어 제공 화면〉

한국어 교육의 선도 기관으로서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였다. 2016년에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자료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드라마, 한국 가요(K-POP), 한국 영화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자료는 한국어 교수 학습 센터(<http://kcenter.korean.go.kr>)에서 제공한다. 개발된 자료 중에서 책자형 교육 자료를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국외 학습자 용으로 〈초급 한국어〉(말하기·듣기·쓰기·읽기)(8개 언어권), 〈중급 한국어〉 1·2(6개 언어권), 〈세종 한국어〉 1·2·3·4·5·6·7·8 등이 개발되었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는 〈알콩달콩 한국어〉,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2·3·4·5·6,

다문화배경 자녀를 대상으로 〈미취학 다문화 유아 방문학습 프로그램〉 1·2·3단계, 중도입국 학생 대상 〈표준한국어〉 교재 및 익힘책 1·2(초·중·고) 이주 노동자 대상 〈아자아자 한국어〉 1·2 등이 개발되었다. 또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로는 국외 학습자용으로 〈두근두근 한국어〉 1-4가 개발되었고,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을 위해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사랑해요 대한민국'〉(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가 개발되었다.

### 4. 한국어교수학습센터(<http://kcenter.korean.go.kr>)

국립국어원은 매년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강의, 워크숍 등의 교육·연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국내외 한국어교육 종사자와 예비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고 스스로 자질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교원들을 위해 한국어 발음 교수법, 한국어 문법 교수법, 한국 문화 활용 교수법 등 온라인 연수를 제공

하고 있으며 자료 나눔터에는 그간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교육과정, 교재, 지침서, 연구 보고서, 연수 자료,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교수 내용 검색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 나눔터와 나눔방을 운영하여 한국어 교육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연수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속적인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였다. 회원 가입을 통해 온라인 연수 등을 받을 수 있는데 학습진도관리 시스템(LMS)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9. 한국어교수학습센터 첫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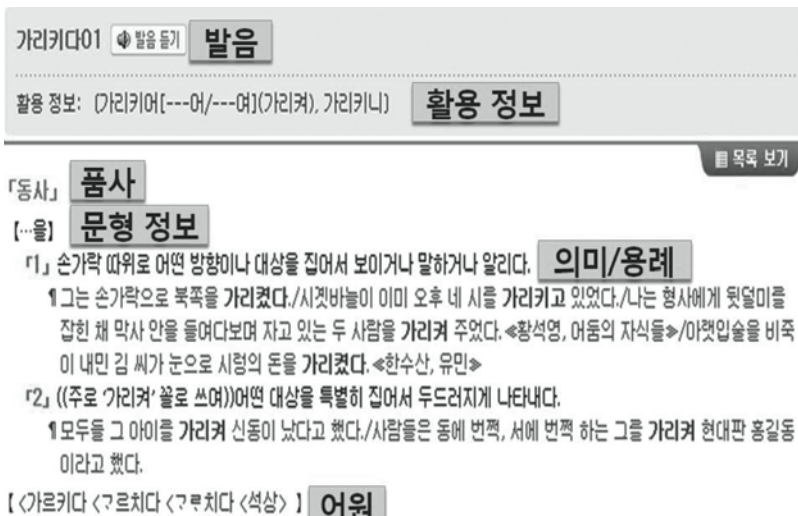


〈그림 10. 온라인 강좌 선택 화면 및 자료 상세 검색 화면〉

## 5. 국립국어원 누리집 활용

### 5.1.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 5.1.1. 사전 읽는 방법



〈그림 11. 가리키다 검색 화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약 51만 개의 단어가 실려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단어의 뜻, 품사, 어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리키다’를 예로 들어 사전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검색 칸에 ‘가리키다’를 넣고 ‘검색’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가리키다’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건을 가리키다’와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르치다’와 관련이 있는 있다. 이 둘은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 01과 02로 나뉜 것이다.

‘가리키다02’는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 가르치다01.”로 되어 있다. 이는 ‘가리키다02’는 ‘가르치다01’로 가라는 뜻으로, ‘학생을 가리키는 선생님’과 같이 쓰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다음으로 ‘가리키다01’을 통해 사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살펴보자.

- 1) 발음: 단어의 발음을 알려준다. ‘가리키다’ 옆에 ‘발음 듣기’를 누르면 그 단어의 발음을 들을 수 있다. 이 ‘발음 듣기’ 정보가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니나, 표기와 발음이 다를 경우 단어 옆에 발음을 제시해 두었다.

안다01 [안 : 따] / 찾다[찾따]

- 2) 활용 정보: 동사나 형용사에 어미가 연결되면 모습이나 발음이 바뀌는데, 이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사전에서는 ‘가리키다’의 어간에 ‘-어’가 연결되면 ‘가리키어’가 되고 이것이 ‘가리켜’로 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리고 ‘가리키어’가 [가리키어]나 [가리키여]로 소리가 난다는 것도 알려 준다. 이와 달리 명사 뒤에 조사가 연결될 때도 소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활용 정보에서 알려 준다.

꽃01 [꽃이[꼬치], 꽃만[꼰-]]

- 3) 품사: 단어의 품사(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등)가 무엇인지 알려 준다. ‘가리키다’의 품사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 4) 문형: 단어가 동사나 형용사일 때 어떤 문장 성분과 함께 쓰이는지 알려 준다. ‘가리키다’의 경우 ‘북쪽을 가리키다, 네 시를 가리키다, 사람을 가리키다’ 등과 같이 반드시 ‘~을’과 함께 쓰이므로, 문형 정보에서 【…을】을 제시하고 있다.
- 5) 뜻풀이와 용례: 사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단어의 뜻과 그 용례를 알려 준다. 실례 뒤에는 그 출전을 밝혔다.
- 6) 어원: 단어가 15~17세기 문헌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알려 준다. 최초로 나타난 형태를 제시하며 그 형태가 바뀌면서 함께 제시한다. ‘가리키다’는 “석보상절”에서 ‘ᄉᆞᆫ치다’로 처음 나타났으며, ‘ᄉᆞᆫ치다’가 ‘ᄉᆞᆫ치다’를 거쳐 ‘가리키다’로 형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5.1.2. 사전 검색 방법

#### ‘인?말’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2건)

##### 인사-말(人事-)

「명사」

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

##### 인삿-말(人事-)

「명사」

→ 인사말.

〈그림 12. 인?말 검색 결과〉

#### ‘인\*말’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6건)

인말이(姻未)

「대명사」

주로 편지글에서, 말하는 이가 이질(姨姪)이나 처조카에게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육인하

인말02(寅末)

「명사」 \*인숙

인시(寅時)의 끝 무렵.

인사-말(人事-)

「명사」

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

인삿-말(人事-)

「명사」

→ 인사말.

인종지말(人種之末)

「명사」

사람의 씨 가운데 가장 못된 것이라는 뜻으로, 태도나 행실이 사람답지 않고 막된 사람을 낮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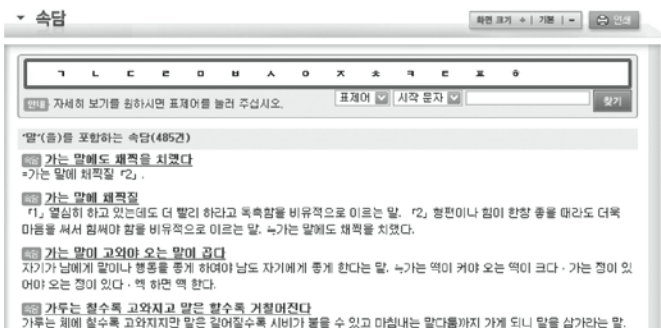
인중지말(人中之末)

「대명사」

〈그림 13. 인\*말 검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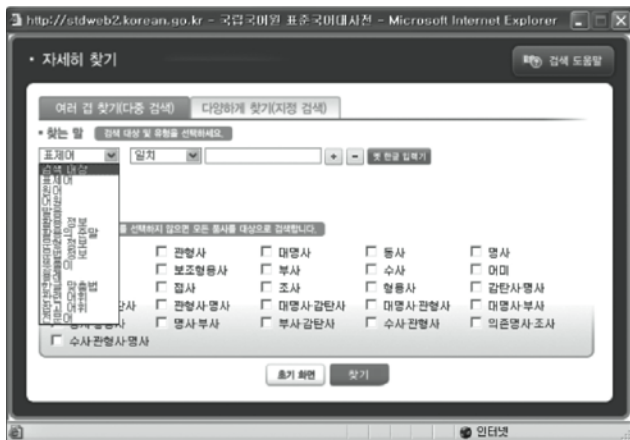
사전을 검색할 때 ‘?(물음표)’와 ‘\*(별표)’를 이용하면 단어를 찾을 때 좀 더 쉽게 단어를 찾을 수 있다. ‘?(물음표)’는 해당 글자를 모를 때 사용할 수 있다. 글자 한 개를 모르면 ‘?’, 글자 두 개를 모르면 ‘??’, 글자 세 개를 모르면 ‘???’처럼 글자 수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와 달리 ‘\*(별표)’는 글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단어들을 찾아준다. 만약 ‘인사말’인지 ‘인삿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인?말’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만약 ‘인\*말’로 검색하면 ‘인’으로 시작하고 ‘말’로 끝나는 모든 단어를 검색한다. 참고로 ‘?’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나 ‘\*’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용구와 속담, 방언 등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속담은 일반적으로 그 속담의 첫 단어를 알아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속담의 일부분만 알아도 찾을 수 있도록 속담 검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4. 속담 출력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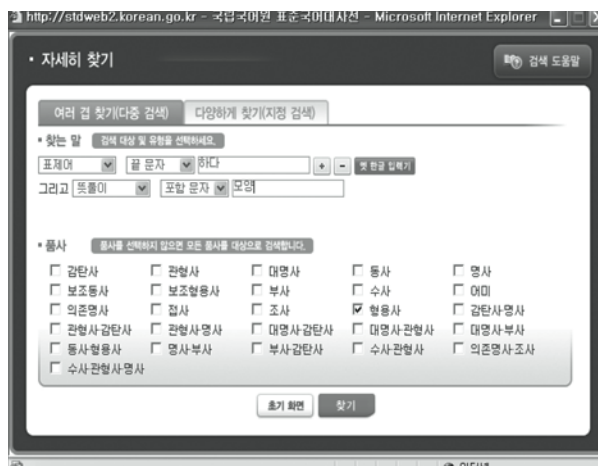
사전 화면 왼쪽에 ‘ 따로 보기 ’ 아래에 ‘관용구, 속담, 방언, 북한어, 고유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속담’을 누르면 속담을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표제어’에 ‘포함 문자’를 선택하고 찾고자 하는 단어를 넣으면 그 단어가 포함된 모든 속담을 찾아 준다. 다음은 ‘말’이 들어간 속담을 검색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용구’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림 15. 자세히 찾기 화면〉

표준국어대사전 화면으로 들어오면 검색 칸 옆에 ‘찾기’ 단추 외에 ‘자세히 찾기’ 단추가 있다. ‘자세히 찾기’란 검색 대상을 달리 하거나 검색 조건을 세분하여 검색하는 기능으로, 이것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세히 찾기’는 표제어뿐만 아니라 원어, 발음, 뜻풀이, 용례 등도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검색 조건도 하나 이상 줄 수 있다. 가령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 중에서 뜻풀이에 ‘모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을 검색할 수 있다.



〈그림 16. 표제어 ‘하다’로 끝나는 말 검색 입력 화면 및 결과 화면〉

검색 대상을 우선 ‘표제어’로 설정하고 다음 조건은 ‘끝 문자’를 선택한 후 검색 칸에 ‘하다’를 입력한다. 이것은 ‘하다’로 끝나는 표제어를 찾으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를 누르면 검색 조건식이 하나 더 나온다. 두 번째 조건식의 검색 대상을 ‘뜻풀이’로 두고 다음 조건을 ‘포함 문자’로 둔 후 검색 칸에 ‘모양’을 넣는다. 이것은 뜻풀이에 ‘모양’이 들어간 단어를 찾으라는 뜻이다. 그리고 품사 중 ‘형용사’를 선택한 후 ‘찾기’를 누르면,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 중 뜻풀이에 ‘모양’이 들어간 단어들이 모두 검색된다.

## 5.2. 어문 규정



〈그림 17. 한글 맞춤법 화면〉

국민의 국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어문 규정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다. 이 네 가지 어문 규정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사전 국어지식’에서 찾을 수 있다.

‘어문 규정’에는 각 어문 규정이 고시된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규정을 찾아 직접 표기해 볼 수도 있지만 ‘용례 찾기’를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 찾기’를 누르고 검색 칸에 원어나 한글 표기를 넣고 ‘찾기’를 누르면 원어의 바른 한글 표기를 알려 준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역시 ‘용례 찾기’를 누르고 검색 칸에 로마자로 표기하고 싶은 말을 넣으면 그 말을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알려 준다.

외래어 표기법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 1유형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이용의 경우, 이용자들은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전체

| 번호    | 원어 표기                   | 한글 표기         | 국명    |
|-------|-------------------------|---------------|-------|
| 58140 | Engisch, Gundula        | 앵글리슈, 군둘라     | 독일    |
| 58139 | Servais, Scott (Daniel) | 서비스, 스콧 (다니엘) | 미국    |
| 58138 | Schwan, Severin         | 슈반, 제베린       | 오스트리아 |
| 58137 | Bréglér, Fabrice        | 브레지예, 파브리스    | 프랑스   |
| 58136 | Loeb, Sébastien         | 로브, 세바스티앵     | 프랑스   |
| 58135 | Dietrich, Guillermo     | 디에트리히, 기예르모   | 아르헨티나 |
| 58134 | Gherman, Natalia        | 게르만, 나탈리아     | 몰도바   |
| 58133 | Asperger's Syndrome     | 아스퍼거 증후군      | -     |
| 58132 | Boca Juniors            | 보카 주니어스       | 아르헨티나 |
| 58131 | River Plate             | 리버 플레이트       | 아르헨티나 |

〈그림 18. 외래어 표기 용례 검색 화면〉

로마자 표기법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 1유형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이용의 경우, 이용자들은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전체

| 번호    | 우리말     | 로마자 표기                                                                   |
|-------|---------|--------------------------------------------------------------------------|
| 12851 | 가경동     | Gagyeong-dong(O) Kagyeong-dong(X) Gakyeong-dong(X) Kagyŏng-dong(X)       |
| 12850 | 가게 해수욕장 | Gagye beach(O) Kagye beach(X)                                            |
| 12849 | 가게      | Gagye(O) Kakyŏ(X) Kagye(X)                                               |
| 12848 | 가곡      | gagok(O) Gagok(X) kagok(X) gakok(X) kakok(X)                             |
| 12847 | 가곡동     | Gagok-dong(O) Kagok-dong(X) Gakok-dong(X) Kakok-dong(X)                  |
| 12846 | 가곡면     | Gagok-myeon(O) Kagok-myeon(X) Gakok-myeon(X) Kakok-myeon(X) Kagok-mŏn(X) |
| 12845 | 가곡비     | Gagyob(O) Gakyob(X) Kagyob(X) Kakyob(X)                                  |
| 12844 | 가금면     | Gageum-myeon(O) Kageum-myeon(X) Gakeum-myeon(X) Kagŏm-mŏn(X)             |
| 12843 | 가나안     | Ganaan(O), Kanaan(X)                                                     |
| 12842 | 가남면     | Ganam-myeon(O) Kanam-myeon(X) Kanim-mŏn(X)                               |

〈그림 19. 로마자 표기 용례 검색 화면〉

### 5.3.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이란 어문 규범이나 어법, 국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문의하는 곳이다. 가령 ‘가십시오’가 맞는지 ‘가십시요’가 맞는지 궁금할 때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에 질문을 남기면 다음날까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 묻고 답하기](#) >
[온라인가나다](#) >
[온라인가나다](#)

---

※본문 어문 규범, 어법, 표준국어대사전 내용 등에 대하여 문의하는 곳입니다.  
 1. 물음 규범의 해석, 사형 문제와 맞춤 현상 등 소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사항을 답변해 드리기 바랍니다.  
 2. 물음에 대한 답변은 국어를 정확하게 다루는 방향으로 작성되며,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3. 답변한 후 받은 답변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4. 국한문 표기, 띄어쓰기, 띄어쓰기 등 불문규칙 내용, 기타 게시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은 글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사전에 건넌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아래에 적은 내용을 참고하여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1.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꼭 작성하십시오.
2.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나 근거 없는 내용을 담은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분이 기재하신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자료를 보려면 무속의 '이전 자료 보기'를 눌러 주십시오.

검색어

로그인

| 번호  | 제목                             | 작성일자         | 답변일자  | 조회 |
|-----|--------------------------------|--------------|-------|----|
| [자] | 한글에 들어오는 공문서에 대해 쓰기 예제         | 2015. 2. 10. | 23419 |    |
| 937 | 보통사 보충학습서 질문                   | 2016. 5. 13. | 1     |    |
| 996 | 앞으로                            | 2016. 5. 13. | 0     |    |
| 995 | 어보'는 순수 한글인가요, 한자어인가요?         | 2016. 5. 13. | 0     |    |
| 994 | Lands의 한글 표기가 한자어인가요? 한자어인가요?  | 2016. 5. 13. | 1     |    |
| 993 | 이 대륙에                          | 2016. 5. 13. | 0     |    |
| 992 | '고려'에 '는' '로'로만 '과' 통일한 언어인가요? | 2016. 5. 13. | 3     |    |

〈그림 20. 온라인 가나다 첫 화면〉

이곳에서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다. 화면 윗부분에 있는 검색 칸에서 ‘질문 제목’이나 ‘질문 내용’을 설정한 후에 ‘가십시오’나 ‘가십시요’를 넣고 검색하면 ‘가십시오/가십시요’와 관련이 있는 질문들이 검색된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답인지 알 수 있다.

이처럼 간단한 질문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안 남기고 직접 전화를 해도 된다. 국립국어원은 ‘가나다 전화(1599-9979)’라는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가나다 전화로 전화해서 국어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 보면 상담원이 바로 답을 알려 준다.(근무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월~금, 09:00 ~12:00, 13:00~18:00, 공휴일 제외)

그리고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에 들어오는 질문을 모아 ‘상담 사례 모음’으로 정리해 놓았다. ‘로서’와 ‘로써’의 차이, ‘들려서/들러서’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있음/있슴’ 중 어느 것이 맞는지부터 부고하는 요령이나 단자 쓰는 법, 세배 인사법 등 국어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제시되어 있다.

최근에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가 발달되어 ‘카카오톡’으로도 질의 응답을 받고 있다. ‘카카오톡’에 ‘우리말365’아이디를 친구 추가하면 국어 생활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림 21. 상담 사례 모음〉



〈그림 22. 카카오톡 상담 화면〉

#### 5.4. 디지털한글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국립국어원은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 자료를 통합하고 관리하고 있다. 한글문화의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글의 탄생과 역사’ 메뉴에는 한글(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보여 준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의 문자 생활에 대해서도 알려 주며, 세계 여러 문자의 역사도 소개한다. ‘아름다운 한글’ 메뉴는 글자의 모양과 관련된 정



〈그림 23. 디지털 한글박물관 화면〉

용 양상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여 준다. 한글의 세계화와 기계화, 국어 정보화 사업을 소개한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어문 규정을 소개하고 남북한 언어도 비교해 놓았다.

‘생활 속 한글’ 메뉴에는 선조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을 주제로 한 한글 관련 문헌을 전시한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한글 문헌과 사회상을 반영한 한글 문헌을 소개한다.

보를 제공한다. 한글의 자형의 변천 과정과 한글 글꼴 개발의 역사를 설명하고, 다양한 글꼴을 보여 준다. 그리고 글꼴 개발 산업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학술 정보관’은 한글 관련 문헌들을 정리한 곳이다. 한글 관련 문헌을 정리하여 원문을 이미지로 제공하고 문헌에 대한 설명을 붙여 놓았다. 그리고 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한글문헌통합정보’를 운영하고 있다.

‘한글과 교육’ 메뉴에는 한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어문 규범과 국어 교육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곳이다. 어문 규정뿐만 아니라 국어 교과서, 국어 관련 교육 자료도 제공된다.

‘한글의 진화와 미래’ 메뉴에 한글의 모습과 사

바로 가기 ‘특별 기획전’에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글날을 기념하여 전시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동영상으로 보는 한글’은 그간 한글을 주제로 방영된 관련 방송 영상을 모아 놓은 것이다.

## 5.5. 우리말 다듬기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비규범적인 말, 외래어 따위를 알기 쉽고 규범적인 상태로 또는 고유어로 바꾸어 쓰도록 권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듬은 말을 ‘순화어’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순화어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그림 24. 순화어 검색화면〉

국립국어원 첫 화면의 ‘사전 국어지식’에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순화어 자료 역시 검색이 가능하다. 가령 순화 대상으로 ‘나시’를 찾으면 ‘나시, 소데나시, 에리나시’ 등이 검색된다. ‘나시’에 들어가면 ‘순화어 및 표준화 용어’에 ‘민소매’가 제시되어 있다. 즉 ‘나시’ 대신 ‘민소매’를 쓰는 것이 우리말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순화어에는 함께 써도 된다는 표시가 있는 말도 있다.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 외래어가 부쩍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젠티리피케이션, 플레이팅, 데모데이, 러닝 개런티, 컴필레이션’ 등등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렵다.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에서는 어려운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과 바꾼 단어를 알리는 일을 한다. 이곳에서는 다듬고 싶은 말을 건의할 수도 있고, 바꿀 단어를 제안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듬을 말을 정할 때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 5.6. 언어 정보 나눔터(<http://ithub.korean.go.kr>)

한국어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예문을 보여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언어 정보 나눔터’를 이용하면 관련 예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말뭉치’ 메뉴에 접근하여 찾기를 누리고 원하는 단어를 찾으면 된다. 또한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자료를 내려받을 수도 있다.



〈그림 25.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첫 화면〉



〈그림 26. 언어 정보 나눔터 화면〉

## 한국어 교육과정의 이해

방성원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교수

### 들어가는 말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와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특징에 맞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교육과정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볼 것이다. 한국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재미 한글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함께 성찰해 보기로 한다.

### 교육과정이란?

#### 1) 개념 및 필요성

‘교육과정(Curriculum)’을 간단히 정의한다면, 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는 교육 목적과 목표, 교육 내용, 교수 학습 방법, 학습 경험,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에 대한 계획까지 포함된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기본 틀을 제공하므로 교육의 실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잘 조직된 교육과정은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준거가 된다. 또한, 교육의 체계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교수법 및 교재 개발의 지침이 된다.

#### 2) 교육과정의 유형

교육과정의 유형은 학습자의 특성 및 학습 목적, 숙달도 등급 등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 (1) 학습자의 특성

학습자의 특성은 교육과정의 목적 및 목표, 내용 및 방법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국 내 대학에 어학 연수로 와 있는 성인 외국인 학습자와 미국의 한글학교에서 공부하는 재미동포 아동은 한국어 사용 상황 및 연령 등의 차이뿐만 아니라, 교육 목표 면에서도 차이를 갖는다. 학습자 집단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한 교육과정 구성이 가능하다.

##### ① 일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 ②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정체성 교육, 세계 시민으로서의 교육

##### ③ 이주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이주 근로자)을 위한 교육과정

- 이민자의 경우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④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 정체성 교육,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⑤ 귀국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 주제 통합, 내용 중심 교육

(2) 학습 목적

한국어 학습의 목적에 따라 일반 목적 교육과정과 특수 목적 교육과정의 구분이 가능하다.

① 일반 목적 교육과정

일상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다양한 목적의 한국어 교육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계한다. 국내 대학 부설 언어 교육 기관의 정규 과정 및 교재는 일반 목적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설계된 경우가 많다.

② 특수 목적 교육과정

전문적 업무 수행, 학문 연구 등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언어 기능을 학습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교육과정이다. 전문 영역에서 필요한 언어뿐만 아니라 내용, 장르에도 초점을 두므로, 일반적으로 중급 이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된다. 최근 들어 뚜렷한 학습 목적을 가진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면서 국내외에서 직업 목적 교육과정과 학문 목적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 숙달도별

국내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숙달도 등급에 따라 6등급 또는 7등급 체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교육 환경, 학습자의 특징에 따라 교육 단계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학습자의 시작 단계와 최종 단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교육과정의 도달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에 따라 교육 과정이 달라진다. 단, 교육 단계를 달리 구성하더라도 숙달도 등급은 표준화된 등급 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해야 할 것이다.

① 6등급: 초급(1, 2급), 중급(3, 4급), 고급(5, 6급)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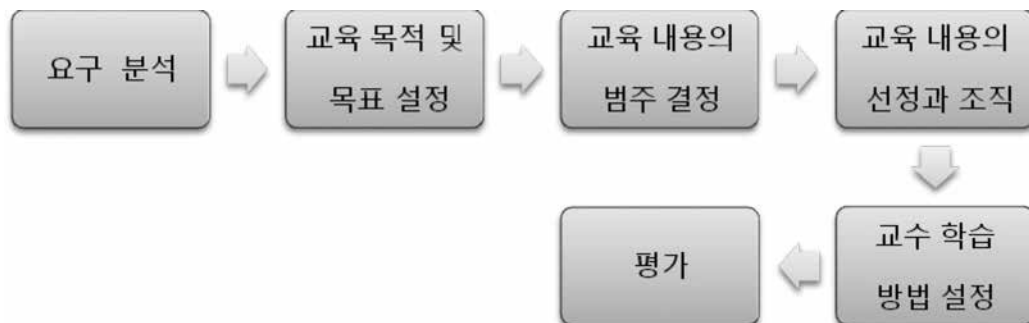
② 7등급: 초급(1, 2급), 중급(3, 4급), 고급(5, 6급)+최상급(7급)

-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등급 체계

## 한국어 교육과정의 몇 가지 쟁점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1〉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



한국어 교육과정이나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교사가 직접 교육 과정, 교재를 개발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교육과정을 교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고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도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쟁점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강의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 중에서 요구 분석, 교육 목적 및 목표 설정, 교수요목 설계, 교수 학습 방법 설정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요구 분석

교수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구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 어떻게 배우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요구의 종류는 객관적 요구와 주관적 요구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요구는 ‘학습자의 연령, 학년, 국적, 모국어, 교육 배경, 숙달도 수준, 학습 경험, 거주 기간’ 등과 같이 관찰 가능한 사실적 정보를 말한다. 주관적 요구는 ‘자신감, 부족감, 중 요시하는 언어 기능,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선호하는 학습 방법’ 등과 같은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요구를 말한다.

요구 분석의 방법으로는 설문 조사, 기존 정보 조사, 인터뷰, 관찰 및 사례 연구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은 설문 조사이다. 교육 현장에서도 교육과정 개발, 교재 개발, 수업 및 강사 평가 등을 위해 설문 조사를 자주 사용한다.

요구 분석의 결과는 교육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하는 데 사용되며, 교육 내용의 선정, 교육 방법의 설계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요구 조사를 통해 학습자가 선호하는 주제, 자주 대화하는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재외동 포 아동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인지적, 연령적 특성 및 지역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이해영·이정란 2014). 아동 및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재미 한글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도 요구 분석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1</sup>

## 2) 교육 목적 및 목표 설정

교육 목적이 교육의 최종적인 도달점에서 이루게 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향점이라면, 교육 목표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지향점이다(김정숙 2002:37).

교육 목적을 기술할 때에는 교육 이념, 교육의 일반적 방향을 제시한다. 즉, 교육과정 이수 후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 \* 한국어 1급의 교육 목적(안경화 2007)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능동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기본 어휘, 문법, 발음, 문장 구조 등에 익숙하게 한다.

교육 목표는 교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달 목표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도달하게 될 수준의 지식, 행동, 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구체적인 학습 결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할 수 있다’ 식의 표현으로 기술하며, ‘~에 대해 학습한다, ~기 위해 준비한다’ 식의 학습 내용을 진술하는 표현을 피하도록 한다. 교육 목표는 명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해야 한다. 즉, 주어진 시간에 달성할 수 있는 결과로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 \*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의 1급 교육 목표

- 총괄목표: 인사하기, 소개하기 등 일상적인 화제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요일, 시간, 장소 등의 기본적인 화제로 구성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구, 절 단위 혹은 짧은 문장 단위의 매우 간단한 문장들을 이해하고 쓸 수 있다. 자신의 생활이 중심이 되는 주변 사물과 장소 등과 관련된 어휘를 이해

1 박해경(2015)은 한글학교 교사와 학습자의 요구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지역의 교사들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학습자들도 동일한 순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에 대한 요구는 ‘일상적 주제’에 대한 요구가 ‘한국에서의 상황과 관련된 주제’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주제’에 대한 요구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양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한국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자발적 동기가 부족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교재에 대한 요구 조사에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자체가 아닌 동화, 만화, 애니메이션, 소설 등 다양한 장르를 접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으며 게임, 노래, 만들기 등 활동을 통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 분석 결과는 교수 학습 방법의 설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자모의 음가, 한국어의 음절 구조, 한국어 기본 문장의 억양을 원어민 화자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재미 한글학교의 아동 및 청소년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의하는 것은 교육 내용의 체제 구성, 교수법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과정 개발의 중요한 쟁점이 된다.<sup>2</sup>

### 3) 교수요목의 설계

#### (1) 교수요목(syllabus)이란?

교수요목이란 교육 내용을 상세화하고 순서를 정하는 일과 관련된 교육과정 활동의 일부이다. 교육 내용을 정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가에 따라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이 달라지게 된다. 언어 교수요목의 종류와 특징, 해당 교수요목의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교수요목의 종류와 특징

| 교수요목       | 특징                | 예                        |
|------------|-------------------|--------------------------|
| 구조 교수요목    | 음운, 문법 등 언어 구조 중심 | 명사문, 자동사문, 타동사문, 과거 등    |
| 상황 교수요목    | 상황, 배경 중심         | 공항, 택시, 호텔, 식당 등         |
| 주제 교수요목    | 등급에 맞는 주제 중심 배열   | 가족, 날씨, 음식, 건강 등         |
| 기술 교수요목    | 학습할 언어 기술 중심의 배열  | 훑어 읽기, 자세히 읽기, 주제문 찾기 등  |
| 개념 교수요목    |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개념 범주 | 거리, 수량, 시간, 질, 위치, 크기 등  |
| 기능 교수요목    | 의사소통 기능 중심        | 소개하기, 요청하기, 제안하기, 동의하기 등 |
| 과제 중심 교수요목 | 실생활 과제 중심         | 입사 면접하기, 신청서 작성하기 등      |
| 혼합 교수요목    | 둘 이상의 교수요목 함께 활용  | 주제-기능-구조 혼합 교수요목         |

#### (2) 교육 내용 범주의 결정

교수요목의 유형에 따라 중점을 두는 내용 범주에 차이가 있다.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내용 범주는 주제와 상황, 의사소통 기능, 과제, 구조 등이다. 단 하나의 내용 범주 중심으로 교수요목을 설계하기보다는 주요 내용 범주를 혼합하여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혼합 교수요목도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는 바에 따라 내용 범주 및 내용 선정의 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가령, 최상위 범주로 '주제'를 설정하고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과제를 설정한 후, 어휘 및 문법, 발음, 문화 교육 내용을 연계할 수 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012년 표준 교육과정'의 총론 및 단계별로 제시된 학습 계획안을 보면, 주제, 문법 및 어휘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범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육 내용 범주가 결정되면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지 설계해야 하는데, 교육 내용의 선정을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의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을 참조할 수 있다.

2 조태린(2014)은 기존에 개발된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육과정(안) 5개를 분석하여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성과를 파악하고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유형 및 언어 사용 환경, 최종 도달 목표 수준 설정, 재외동포 학습자의 정체성 반영, 교수법의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이는 교육과정 개발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다.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에서 ‘주제, 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종류, 기능/과제, 문화’ 범주로 나누어 교육 내용을 등급화하여 제시하였으므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주제가 주로 어떤 등급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표 3〉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의 주제 등급화 예

| 구분 |        | 급  |    |    |    |    |    |    |
|----|--------|----|----|----|----|----|----|----|
| 범주 | 분류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가족 | 가족소개   | ●  |    |    |    |    |    |    |
|    | 집안일    |    | ●  |    |    |    |    |    |
|    | 연애, 결혼 |    |    |    | ●  |    |    |    |

한편,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기 위해서는 배열의 기준이 필요하다. 언어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을 배열하는 전통적인 기준은 난이도와 빈도이다. 난이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의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빈도의 경우에는 고빈도에서 저빈도의 순서로 배열하게 된다. 그 외에 시간적 순서를 배열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쓰기의 경우에는 쓰기 과정의 시간적 순서(브레인스토밍, 초고 쓰기, 교정, 편집)를 고려하여 내용을 배열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는 교육 내용과 배열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나선형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이 권장된다. 동일한 성격의 내용이 학습의 진행에 따라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반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일한 주제도 학습자의 수준이 높아지면 좀 더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급의 ‘쇼핑’ 단원에서 물건 사기, 가격 묻기를 다룬다면, 중급의 ‘쇼핑’ 단원에서는 물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묻거나 구입한 물건에 대한 교환, 환불 등을 다루게 된다. 학습자는 교육 내용의 반복과 심화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4) 교수 학습 방법 설정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교수 학습 방법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네 가지 언어 기능을 통합하여 교수할 것인가, 혹은 그 중 일부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 음성과 문자 중심의 교육은 각각 교수 학습 방법 면에서 차이를 가지므로 언어 기능의 통합, 비중에 대해 지침을 정하고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 모형을 마련하여 교수 학습 지도안, 교사용 지침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김정숙(2002),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와 교재 구성,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김중섭 외(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박혜경(2015), 거시적 접근법 기반의 재외동포 아동용 한국어 교재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심용휴 외(2012),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012년 표준 교육과정,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안경화(2007), 한국어 교육의 연구, 한국문화사.  
 이정란·이혜영(2014),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학습자 중심 한국어 교재 개발, 이종언어학 56, 이종언어학회.  
 조태린(2014), 계승어 교육 측면에서 본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정 분석-총론을 중심으로, 이종언어학 55, 이종언어학회.

#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의 올바른 사용을 중심으로-

항정숙

팰리세이즈팍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사랑한국학교 교감

## 1. 들어가는 말

한국어(韓國語) 교수(敎授)란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한다.<sup>1</sup> 수업을 포함하여 수업의 설계, 개발, 실행, 관리, 평가가 포함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올바른 한국어 교수를 위해서는 외형적(外形的) 측면- 시선관리, 음성, 한국어 능력 등- 과 내면적(內面的) 측면-수업 구성, 학습자 특성 이해, 수업 목표 달성 등- 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한국어 교수의 내면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어 문법의 올바른 사용에 접근하고자 한다.

한국어 문법 교육은 크게 ‘교수 내용’과 ‘교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sup>2</sup> 교수 방법에는 인지 단계, 문형 연습, 자유 문장 작문, 담화 작문, 자유 담화의 방법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문법 수업에는 준비단계, 제시 및 설명 단계, 연습 단계, 사용 단계가 필요하다. 각각의 단계에서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라 하겠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가 1988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제 학습 현장에서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본다. 필자는 교사의 바른 문법지식이 바탕이 될 때 학생들의 올바른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올바른 한국어 문법 지식<sup>3</sup>을 갖고 한국어 학습자에게 바른 한국어 교수(敎授)를 하는 유능한 교사들이 되기를 바란다.

## 2.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개관

한글맞춤법과 표준어는 1988년에 규정되었으며, 외래어 표기법은 1986에 규정되었다. 또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에 개정되었다. 새로 개정된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sup>

### 2.1 한글 맞춤법<sup>5</sup>

#### 2.1.1 제 1장에서는 총칙(1항-3항)을 보여준다.

제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 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 2.1.2 제 2장은 자모에 대하여(4항) 설명한다.

#### 2.1.3 제 3장은 소리에 관한 것(5항-13항)을 다룬다.

된소리/ 구개음화/ ㄷ 소리 받침(뎡저고리)/ 모음(계수, 계시관, 의의)/

두음법칙 ㄴ→ㅇ(여자), ㄹ→ㅇ(양심), ㄹ→ㄴ(노인)/ 겹쳐나는 소리(딱딱)

#### 2.1.4 제 4장은 형태에 관한 것(14항-41항)을 설명한다.

1)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

1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

2 김중섭(2006), 한국어 교육의 정체성과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3 한국어 문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지도에 초점을 맞춘다.

4 김재욱(2006),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5 한글 맞춤법(1988), 문교부 고시 제88-2호

- 2)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3) 모음조화(어미 아/어)에 맞게 적는다.
- 4) 불규칙 용언(르, 스, 흥, ㅂ, ㅅ, ㅈ, ㅊ, ㅌ, ㅍ, 여, 러, 르) 불규칙은 바뀐 대로 적는다.
- 5)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 음/-ㅁ, 이/히)은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 6)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꽃잎, 시커멓다)
- 7) 사이시옷의 표기(30항):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 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나뭇가지, 냇물, 나뭇잎),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 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깃병, 제삿날, 사삿일),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다른 한 자어에 사이시옷은 적지 않음- ‘곶간, 셋방, 숫자, 찻간, 뒷간, 횡수’만 사용)
- 8)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소리나 ‘ㅎ’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멤쌀, 머리카락, 안팎)
- 9) 단어의 끝 모음이나 체언과 조사 등이 줄어드는 경우에 준 대로 적는다.  
(엇저녁-어제저녁, 온갖-온가지, 그건-그것은, 가-가아, 개-개어, 해-하여)

### 2.1.5 제 5장은 띄어쓰기(41항-50항)에 관한 규정이다.

- 1) 조사는 그 앞 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에서부터, 꽃이다)
- 2)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등은 띄어 쓴다. (어느 것, 한 개)
- 3) 수 적을 때 만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 4)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 박동식 박사, 남궁역/남궁 역, 황보지봉/황보 지봉)
- 5)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 전문 용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대한 중학교/대한중학교, 만성 골수 백혈병/만성골수백혈병)
- 6) 보조용언(47항)

### 2.1.6 제 6장은 그 밖의 것(51항-57항)을 따로 묶었다.

- 1) 부사의 끝 음절이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깨끗이, 족히, 솔직히 등)
- 2)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심부름꾼, 판자때기, 빗갈, 팔꿈치)
- 3) 다음 말은 구별하여 적는다.  
가름/갈음, 만드시/만듯이, -러(목적)/-려(의도), -로서(자격)/-로써(수단),  
-므로(이유)/-으로써(수단)

## 2.2 표준어 규정<sup>6</sup>

### 2.2.1 제 1부 표준어 사정 원칙(3장 26항)

#### 2.2.1.1 제 1장 총칙

제 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6 표준어 규정(1988), 문교부 고시 제 85-11호

### 2.2.1.2 제 2장은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3-19항)이다.

#### 1) 자음의 경우

나팔꽃/강낭콩/ 사글세/ 돌/ 셋째/ 수놈

#### 2) 모음의 경우

깡충깡충/ 쌍둥이/ 꽃내기/ 아지랑이/ 미장이/ 미루나무/ 윗니/ 웃돈

#### 3) 준말의 경우

귀찮다/ 무/ 공상떨다/ 수두룩하다/ 일구다/ 저녁노을/ 서투르다

#### 4) 단수 표준어의 경우

꼭두각시/ 쌀 녀 되/ 석 자/ 있습니다/ 없습니다/ 재봉틀/ 천장

#### 5) 복수 표준어의 경우

쇠고기, 소고기/ 네, 예/ 괴다, 고이다/ 쪼다, 쪼이다/

거슴츠레하다, 게슴츠레하다/ 나부랭이, 너부렁이/ 꺼림하다, 껌름하다

### 2.2.1.3 제 3장은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20-26항)이다.

#### 1) 고어의 경우

\*낭→낭떠러지 \*애닭다→애달프다 \*오얏→자두

#### 2) 한자어의 경우

\*목발→지겟다리 \*맞상→검상 \*홀벌→단벌 \*알타리무→총각무

#### 3) 방언의 경우

\*우렁챙이→멍게 \*귓머리→귀밑머리 \*어린순→애순 \*코보→코주부

#### 4) 단수 표준어의 경우

\*-게시리→-게끔 \*까탈스럽다→까다롭다 \*부스럭지→부스러기

\*새벽별→셋별 \*신기스럽다→신기롭다 \*편뜻→언뜻

\*안절부절하다→안절부절못하다

#### 5) 복수 표준어의 경우

가뭇, 가물/ 가없다, 가엾다/ -거리다, -대다/ 녇쿨, 녇쿨/ 고깃간, 푸줏간/

-뜨리다, -트리다/ 모쪼록, 아무쪼록/ 보조개, 볼우물/ -(으)세요, -(으)셔요/

-이에요, 이어요

### 2.2.2 제 2부 표준 발음법(7장 30항): 생략

제 1장 총칙/ 제 2장 자음과 모음/ 제 3장 소리의 길이/ 제 4장 받침의 발음/

제 5장 소리의 동화 / 제 6장 된소리 되기/ 제 7장 소리의 첨가

### 3.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의 올바른 사용

#### 3.1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의 주요 개정 내용<sup>7</sup>

- 1) ‘-읍니다’가 ‘-습니다’로 바뀌었다.  
\*있읍니다→있습니다. \*없읍니다→없습니다.
- 2) ‘-장이’와 ‘-쟁이’를 구분하여 쓴다.  
미장이, 유기장이 등 기술자를 일컬을 때에는 ‘장이’로 욱쟁이, 심술쟁이 등 버릇을 일컬을 때에는 ‘쟁이’로 한다.
- 3) ‘-군’을 ‘-꾼’으로 쓴다.  
\*일군→일꾼, \*농삿군→농사꾼
- 4) ‘-와’를 ‘-워’로 쓴다.  
\*고마와→고마워, \*가까와→가까워  
ㅂ 변칙 용언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어간 말음의 ‘ㅂ’이 ‘우’로 바뀌므로 ‘안타까워, 가까워, 아니꼬워’가 맞다.  
‘굽다’와 ‘돕다’의 경우는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적는다. ‘고와 고왔다’, ‘도와 도왔다’
- 5) 수컷을 이르는 말은 ‘수’로 통일한다.  
수평, 수강아지, 수컷, 수평아리 (예외: 숫양, 숫쥐, 숫염소)
- 6) ‘웃-’, ‘윗-’은 ‘윗-’으로 통일한다.  
‘윗도리, 윗니, 윗목’이 맞다.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쓴다. (위짹, 위층, 위쪽, 위턱)  
아래와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쓴다. (웃돈, 웃어른)
- 7) 성과 이름을 붙여 쓴다.  
\*이 순신→이순신, \*김 구→김구
- 8) 수를 적을 때는 만, 억, 조 단위로 쓴다.  
예) 이억 팔천이백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 9) -요/-오  
말의 마지막에 ‘-시오’는 틀린 사용이다. 반드시 ‘-시오’로 표기하기를 권유한다.  
또는 명령형의 말에는 반드시 ‘-시오’로 표기한다.  
예) \*수고하십시오.(X) 수고하십시오.(O) 수고하세요.(O)  
하지만 연결형은 ‘-요’를 쓴다.  
예)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연필이요, 이것은 공책이다.
- 10) -데로/-대로  
장소를 나타내는 ‘-곳으로’의 의미인 경우에만 ‘데로’로 표기한다.  
예) 부탁하는 데로 해 드리겠습니다.(X) 부탁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O)  
조용한 데로 가서 얘기 합니다.(X) 조용한 대로 가서 얘기 합니다.(O)

7 개정 내용 전체를 다룰 수 없기에 주요 사항들만 선별해 정리한다.

11) ‘-므로’와 ‘-ㅁ으로’

하므로, 되므로, 가므로, 오므로’등과 같이 어간에 붙은 어미이다.

‘-이니까/이기 때문에’와 같은 ‘까닭’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와는 달리 ‘-ㅁ으로’는 명사형 ‘-ㅁ’에 조사 ‘-으로’가 붙은 것으로 ‘-는 것으로’, ‘-는 일로’와 같이 ‘수단, 방법’을 나타낸다.

예) 그는 열심히 공부하므로 성공하겠다.

그는 아침마다 공부함으로 성공을 다졌다.

12) 안/않-

부정하고 싶은 말 앞에는 ‘안’, 부정하고 싶은 말 뒤에서는 ‘않’이 맞는 표기이다. ‘않’은 ‘아니하-’의 준말이다. 즉 ‘안’은 다른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고 ‘않-’은 문장의 서술어로 ‘-지 않-’의 구성으로 주로 쓰인다.

13) -음/-슴

사슴, 가슴 등 명사 이외에는 ‘슴’으로 끝나는 말은 없다. 줄임말은 ‘음’이 맞는 표기이다. 예) 꽃을 보았습니다.

→ \*꽃을 보았슴(X) 꽃을 보았음(O)

14) 되다/돼다

우리말에 ‘돼다’는 없다. ‘돼’는 ‘되어’의 준말이고 ‘됐다’는 ‘되었다’의 준말이다.

예) \*그가 우리 모임의 회장이 돼다.(X) 그가 우리 모임의 회장이 되다.(O)

\*공부를 더 해도 되요?(X) 공부를 더 해도 돼요?(O)

15) 한글 자음 이름

기역/니은/디귤/리을/미음/비읍/시옷/이응/지읒/치읓/키읔/티읕/피읖/히읇

16) ‘-이’와 ‘-히’

‘깨끗이, 똑똑히, 큼직이, 단정히, 반듯이, 가까이’

‘-하다’가 붙는 말은 ‘-히’를, 그렇지 않은 말은 ‘-이’로 쓴다.

예외: 깨끗이, 따뜻이, 너부죽이, 뚜렷이, 지긋이, 큼직이, 반듯이, 느긋이 등

17) \*몇일/며칠

\*오늘은 몇 월 몇 일입니까?(X)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O)

18) ‘더욱이’와 ‘더우기’, ‘일찍이’와 ‘일찍이’

\*더우기(X) 더욱이(O), \*일찌기(X) 일찍이(O)로 구분해 쓴다.

19) ‘-로서’와 ‘-로써’

‘-로서’는 자격격 조사(신분, 지위) ‘-로써’는 기구격 조사(도구, 재료, 방편, 이유)이다.

예) 그는 회사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 회사는 돌로써 지은 건물입니다.

20) ‘-던’과 ‘-든’

‘-던’은 지난 일을 나타낼 때 쓴다. ‘-든’은 조건이나 선택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꿈을 그리든 어린 시절(X) 꿈을 그리던 어린 시절(O),

\*오던 말던 네 마음대로 해라.(X) 오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O)

## 21) '-ㄹ 게'와 'ㄹ 께'

‘할걸, -줄게’ 등과 같은 종결어미는 예사소리로 표기한다.

예) 그 일은 내가 할게. / 일을 조금 더 하다가 갈게.

## 22) ‘아니요’와 ‘아니오’

부정의 ‘아니(감탄사)’에 해요체의 보조사 ‘요’가 결합된 ‘아니요’로 표기한다.

예) \*아니오, 못 가요.(X)    아니요, 못 가요.(O)

3.2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사용 오류의 실제<sup>8</sup>

- 1) \*우쪽 \*좌쪽/ 오른쪽 왼쪽, \*오른측 \*왼측/ 우측 좌측
- 2) \*이른 11시/ 오전 11시
- 3) \*지겟군/지게꾼(직업,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 4) \*숫놈/수놈 \*숫소/수소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양, 염소, 쥐의 경우에만 숫양, 숫염소, 숫쥐로 표기한다)
- 5)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책이오.
- 6) \*적잖은/ 적잖은
- 7) \*솔직이/ 솔직히, \*열심히/ 열심히
- 8) \*생각컨대/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 9) \*섬섬치 않다/ 섬섬하지 않다/ 섬섬지 않다
- 10) \*못치 않다/ 못하지 않다/ 못지 않다
- 11) \*나뭇군/\*나뭇꾼/나무꾼, \*땃갈/때깎, \*빃갈/빃깎,  
\*성갈/성깎, \*콧배기/코빼기, \*발굼치/발꿈치
- 12) \*고민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벗어나려고)
- 13) \*먹는다 영미가 밥을/ \*먹는다 밥을 영미가  
영미가 밥을 먹는다. (주어+목적어+동사)  
밥을 영미가 먹는다. (목적어+주어+동사)
- 14)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나무에 물을 주었다./ 철수에게 물을 주었다.
- 15) \*총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총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16) \*선생님께 돈이 계시다./ 선생님께 돈이 있으시다.
- 17)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은 모험 소설이다. (읽히는)
- 18) \*비상시 이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열리지)
- 19) \*입상자들에게는 상금이 주어집니다. (입상자들에게는 상금을 줍니다.)
- 20) \*거칠은/거친  
‘ㄹ’받침 가진 용언에 관형형 어미가 연결되면 ‘ㄹ’이 탈락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 \*거칠은 들판(X)    거친 들판(O)

8 실제 한국어 수업 현장 및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되는 오류들을 정리해 본다.

\*날으는/ 나는 예) \*하늘을 날으는 비행기(X) 하늘을 나는 비행기(O)

\*같은 배/ 간 배 예) 나는 간 배를 좋아한다.

21) \*금새/금세

‘금세’는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로 적어야 한다.

‘어느새’는 ‘어느 사이에’의 준말이므로 ‘어느새’가 맞다.

22) \*똥/돌

생일이나 주기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돌’로 통일해 쓴다.

23) \*일찌기/일찍이 \*더우기/더욱이 \*오투기/오횇이

24) \*촛점/초점 \*머릿말/머리말 \*전세집/전셋집

전체가 한자어인 경우라면 다음의 말 외에는 ‘ㅅ’을 넣지 않는다.

(곶간, 셋방, 숫자, 텃간, 횡수, 찻간)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에는 ‘ㅅ’을 넣는다. → ‘나뭇가지, 아랫집, 조갯살, 전셋집, 햇수’ 등. 뒷말의 첫 소리가 ‘ㄴ’이나 ‘ㄹ’,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ㄴ’소리가 덧붙여 발음되거나 ‘ㄴ’ 소리가 두 개 겹쳐 발음될 때 ‘ㅅ’을 넣는다. → ‘아랫니, 제삿날, 겹날, 잇몸, 빗물’ 등

25) \*두째 \*세째 \*네째/ 둘째 셋째 넷째(열두째 스물두째)

26) \*미쟁이/미장이 \*멋장이/멋쟁이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

27) 띄어쓰기 유의:

어머니가 서울가서 방을 얻었다. / 어머니가 서울가 서방을 얻었다.

철수가 큰 방에 들어가네? / 철수가 큰 가방에 들어가네?

퐁퐁한 사장 마누라 / 퐁퐁한 사장 마누라

재미있는 책 읽기 / 재미있는 책읽기

### 3.3 혼돈하기 쉬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익히기<sup>9</sup>

1) 얼음/ 어름(두 물건의 끝이 닿은 데)

2) 빛-광(光)이나 색(色)을 나타내는 말

별-햇빛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따뜻하고 밝은 기운(陽)을 나타내는 말

3) 너머/ 넘어

너머- ‘집, 담, 산, 고개 같은 높은 것의 저쪽’을 뜻하는 말

넘어- ‘어떤 물건 위를 지나다’의 의미

4) 비추다/ 비치다/ 비취다

비추다- ‘빛을 나타내는 물체가 다른 물체에 빛을 보내다’의 뜻이다.

비치다- ‘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의 뜻이다.

비취다- ‘비추이다’의 준말로 ‘비추임을 당하다’의 뜻이다.

예)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추었다. 살결이 비치는 옷을 입었다.

9 정호성, 한국어 어문 규범, 한국어 교육학의 이론과 실제 참조

- 5) 반드시- ‘틀림없이 그러하다’의 뜻이다. (예: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듯이- ‘물건의 놓여 있는 모양새가 기울거나 빠뜨어지지 않고 바르다’의 뜻이다. (예: 물건들을 반듯이 놓아라.)
- 6) -(으)로서 (자격: 학생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으)로써 (어미: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  
-(으)므로 (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ㄱ, 음)으로(써) (조사: 그를 믿음으로(써) 그 일을 맡겼다.)
- 7) -던지 (과거 시제: 그렇게 좋던지 옆에 누가 가도 모르더라.)  
-든지 (나열: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 8) 붙이다 (종이에 사진을 붙이다.)/ 부치다 (편지를 부치다.)
- 9) -을/ -를  
모음이나 ㄴ으로 끝나는 명사 다음에는 ‘-을’을 붙여 ‘백분율, 사고율, 모순율, 비율’등으로 쓰고 ㄴ 받침을 제외한 받침 있는 명사 다음에는 ‘-를’을 붙여 ‘도덕률, 황금률, 취업률, 입학률, 합격률’ 등으로 쓰면 된다.
- 10) 띄다 (‘띄우다, 띄이다’의 준말)/ 띠다 (어떤 성질을 일정하게 나타내다)  
예) 어제 편지를 띄었습니다. / 분홍빛을 띤 나뭇잎이 멋있습니다.
- 11) 작다 (‘크다’의 반대말)/ 적다 (‘많다’의 반대말)  
예) 키가 작다./ 사람의 수효가 적다.
- 12) 일체 (모든 것)/ 일절 (전혀)  
예) 안주 일체 무료입니다./ 그는 담배를 일절 피우지 않습니다.
- 13) 부딪치다/ 부딪히다  
57항. ‘부딪치다’는 ‘힘차게 부딪다’의 뜻이고 ‘부딪히다’는 ‘부딪음을 당하다’의 뜻이다. 예) 차와 차다 마주 부딪쳤다. 길을 가다가 건물 벽에 부딪혔다.
- 14) 놀라다/ 놀래다  
‘놀래다’는 ‘놀라다’의 사동사이다. ‘놀래다’는 ‘놀래 주다’의 구성이므로 나는 ‘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깜짝 놀랠’ 수는 없다.
- 15) 늘이다/ 늘리다  
예) 고무줄을 늘이다. (늘이다- ‘힘을 가해 본디의 길이보다 길어지게 하다’)  
실력을 늘리다. (늘리다- ‘늘게 하다’)
- 16) 다르다/ 틀리다  
예) 저 아이는 쌍둥이지만 성격은 아주 (\*틀려/달라).
- 17) 맞추다/ 맞히다/ 마치다  
맞춤법 55, 57항. ‘맞추다’는 ‘기준이나 다른 것에 비교하다’는 의미이고, ‘맞히다’는 ‘적중하다’, ‘마치다’는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끝내다’의 의미이다.  
예) 나는 열 문제 모두를 맞혔다. 내가 쓴 답과 모범 답안을 맞추어 보았다.  
나는 오늘 숙제를 다 마쳤다. 오빠는 새 양복을 맞추었다.  
‘\*옷을 맞추다, \*마춤 양복’등은 ‘\*마추다’를 안 쓰고 ‘맞추다’를 쓰기로 했다.

18) 째/ 채/ 체

‘돼지를 통째로 구웠다’의 경우에는 ‘-째’(접미사)로 쓰고, ‘온 몸이 묶인 채로’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올 때는 ‘채’(의존명사)로 쓴다. ‘체’는 의존 명사로서 ‘아는 체하다’와 같이 쓰인다. ‘\*돼지를 통채로 구웠다.’는 틀린 사용이다.

19) 벌이다/ 벌리다

‘벌이다’는 ‘일을 벌이다’처럼, ‘벌리다’는 ‘다리를 벌리다’처럼 쓰인다.

‘\*잔치를 벌리다’와 ‘\*논쟁을 벌리다’는 잘못 쓰인 예이다.

20) 새우다/ 새다

‘\*밤새다/밤새우다’, ‘새다’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이다.

‘새우다’가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다. ‘밤사이’의 준말인 ‘밤새’는 다르다.

이 경우 ‘밤새 비가 내렸어.’가 맞다.

21) 쫓다/ 쫓다

‘쫓다’는 추상적 행위를 나타낼 때, ‘쫓다’는 구체적 행위를 나타낼 때 쓴다.

예) 명예를 쫓다. 선생님 뜻을 쫓다. / 새를 쫓다. 도둑을 쫓아가다.

22) 젓히다/ 제치다/ 제끼다/ 제키다

‘젓히다’는 ‘속이 겉으로 드러나게 열다’의 뜻이고, ‘제치다’는 ‘어떤 범위나 대상에서 빼다’의 뜻이며, ‘제끼다’는 ‘어떤 일이나 문제를 척척 처리해 넘기다’의 뜻이고, ‘제키다’는 ‘살갗이 조금 다쳐 벗겨지다’의 뜻이다.

예) 형이 대문을 열어 젓히고 들어왔다. 그 사람은 제쳐 놓은 사람이다.

그는 어려운 일을 척척 해 제끼는 유능한 사원이다.

살갗이 좀 제켜서 약을 발랐다.

23) 드러내다/ 들어내다

‘들어내다’는 ‘드러나게 하다’는 뜻이고, ‘들어내다’는 ‘물건을 밖으로 옮기다’의 뜻이다. 예) 마음속을 드러내 보여라. 못 쓸 물건을 밖으로 들어내십시오.

24) \*사겨/\*사구궤/사귀어

‘사귀어’만 맞다. ‘\*언제부터 사겼니?’는 잘못된 표현이다.

25) \*사그러지다/ \*사글어지다/ 사그라지다

‘감정이 사그라지다’만 맞는 표현이다.

26) \*삼가하다/ 삼가다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바르지 못하고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가 맞다. ‘어른 앞에서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가 맞다.

27) \*퍼래지다/ 퍼레지다

‘퍼렇다’에 어미가 결합되어 ‘퍼러니’로 쓰이니 ‘퍼레지다’가 맞다.

28) \*통털어/ 통틀어

‘있는 대로 모두 한데 묶다’의 뜻을 가진 말은 ‘통틀다’이다. 부사로 쓰인다.

29) \*바람/ 바람

표준어 11항. ‘바람’은 ‘바라다’에 명사 형성 접미사 ‘-ㅁ’이 결합한 것이다.

‘\*바래’, ‘\*바래서’, ‘\*바랬다’는 모두 비표준어이다.

예) 돈을 바라서 한 일이 아니야.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30) \*덮히다/ 덮이다

‘덮다, 짚다, 높다’의 사동형은 ‘덮이다, 짚이다, 높다’이다.

‘-히-’는 주로 ‘ㄱ, ㄴㅂ, ㅂ’ 받침을 가진 말과 결합한다.

예) 먹히다, 굶히다, 넓히다, 입히다

31) \*말아라/ 마라

맞춤법 18항. ‘말다’에 ‘-아라’의 명령형 어미가 결합한 ‘말-아라/말-아라’는 ‘마라/마’로 줄어든 형태가 표준어이다. 하지만 ‘-(으)라고’가 결합할 경우에는 ‘말라고’가 된다. 예) 못된 짓은 하지 마라/마. 밤새우지 말란 말이야.

32) \*있슴/있음

‘있음’은 ‘있-’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결합된 것이므로 ‘있음’이 옳다.

예전에 쓰던 ‘\*있읍니다, \*먹읍니다’ 때문에 ‘\*있슴, \*없슴’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이다.

33) \*아뿔튼/아무튼

용언의 활용형 가운데 하나의 형태만이 굳어져서 부사로 쓰이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40항). ‘결단코, 무심코, 요컨대, 하여튼’ 등이 그것이다.

34) \*알맞는/알맞은

‘-는’은 형용사에는 결합할 수 없다. ‘알맞다’는 형용사이므로 ‘알맞은’이 맞다.

35) \*웬지/웬지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웬지’가 맞다. 하지만 “웬 떡이냐” 경우는 ‘어찌 된, 어떠한’을 뜻하는 관형사 ‘웬’을 쓴다. (웬일, 웬만큼, 웬걸)  
예) 가을에는 웬지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여기는 웬 일이세요?

36) \*갈애/ 갈아

‘갈-’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므로 ‘좋을 것 갈아.’가 맞다.

37) \*옛부터/ 예부터

‘옛’은 ‘지나간 때의’라는 뜻이고 ‘예’는 ‘옛적, 오래전’의 뜻으로 구분해 쓴다.

예) 예부터 전해오는 미풍양속입니다. 옛날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38) 기타(자주 틀리는 말)

|            |            |             |
|------------|------------|-------------|
| *성냥개피/성냥개비 | *꼽슬머리/곱슬머리 | *재털이/재떨이    |
| *봉숭화/봉숭아   | *봉숭아뼈/복사뼈  | *머릿말/머리말    |
| *무우/무      | *시원찮다/시원찮다 | *쌍둥이/쌍둥이    |
| *삭월세/사글세   | *오투기/오투이   | *설겅이/설거지    |
| *잔디밭/잔디밭   | *저희나라/우리나라 | *치과/치과      |
| *휴게실/휴게실   | *햇님/해님     | *푸르른 날/푸른 날 |

|            |            |            |
|------------|------------|------------|
| *오랜동안/오랫동안 | *오손도손/오순도순 | *아물든/아무튼   |
| *무릎쓰고/무릅쓰고 | *꺼꾸로/거꾸로   | *넙적하다/넓적하다 |
| *귀멀다/귀먹다   | *강총강총/강충강충 | *낙지볶음/낙지볶음 |
| *우뢰/우레     | *뒷편/뒤편     | *치루었다/치렀다  |
| *계시판/게시판   | *날자/날짜     | *옳바르다/올바르다 |
| *남비/냄비     | *빠국이/빠꾸기   | *육계장/육개장   |

## 4. 외래어 표기법<sup>10</sup>

### 4.1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sup>11</sup>

- 1) 본래 언어의 발음에 가깝게 적는다.
- 2) 국어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4.2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 1)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 2)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예) 콘서트/\*컨서트, 콘텐츠/\*컨텐츠
- 3) 외래어의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적는다.  
예) 커피숍/\*커피쉴, 디스켓/\*디스켈
- 4)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ㄲ, ㄸ, ㅃ)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파리/\*빠리, 카페/\*까페
- 5) ‘ㅈ, ㅊ, ㅊ, ㅊ, ㅈ, ㅈ, ㅈ’를 쓰지 않는다.
- 6)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  
예) 라디오, 오페라, 모델, 바나나, 게놈

### 4.3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 세칙<sup>12</sup>

- 1) 파열음  
예) 로봇/\*로보트, 플루트/\*플룻, 테이프/\*테이프, 케이크/\*케익
- 2) 마찰음과 파찰음  
예) 패밀리/\*웨미리, 페리호/\*웨리오, 대시/\*대쉬, 잉글리시/\*잉글리쉬,  
벤치/\*벤치, 스위치/\*스위취, 주스/\*쥬스, 텔레비전/\*텔레비전, 차트/\*차트
- 3) 모음  
예) 디지털/\*디지털/\*디지털, 터미널/\*터미날, 컬러/\*칼라, 콘서트/\*컨서트,  
컨택트/\*컨택트, 보트/\*보우트, 볼링/\*보울링, 윈도/\*윈도우

10 외래어 표기법(2004), 외래어 표기 용례집 중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 문화체육부 제 2004-11호

11 외래어: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말 / 외래어 표기법: ‘외국어’를 우리말로 표기하는 법

12 홍종민, 정희원(2005),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과 실제, 한인교육연구 23호

## 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기초 문법<sup>13</sup>

### 1) Equational expressions:

(Noun1 은/는) Noun2이에요/예요. (N1=N2)

(Noun1 은/는) Noun2(이/가) 아니예요. (Na=N2)

은/는 is the topic particle. It indicates that the attached noun is the topic described by the subsequent statement. 은 is used when Noun ends in a consonant, and 는 is used when Noun ends in a vowel. 예) 저는 한국사람이에요. 마이클은 미국사람이에요.

N이에요 is used when Noun ends in a consonant, N예요 is used when Noun ends in a vowel. 예) 저는 고등학생이에요. 린다는 제 조카예요.

### 2) Comparing items: 은/는 vs. 도

The particles 은/는 and 도 are used to compare two or more items.

은/는: The items are different or contrastive.

도: The items are parallel.

예) 저는 일학년이에요, 수잔은 3학년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수잔도 한국 사람이에요.

### 3) Verbs vs Adjectives 동사와 형용사

Verbs typically denote action and processes (including mental processes), whereas adjectives typically denote states (size, weight, quality, quantity, shape, appearance, perception, and emotion).

예) Verbs: 먹다, 앓다, 알다, 인사하다, 가다, 오다

Adjective: 좋다, 맛있다 싸다, 재미있다, 많다, 크다

### 4) The structure of predicates: The polite ending – 어요/아요

The structure of predicates consists of a stem and an ending. The polite ending –어요/아요 is the most frequently used form in conversation. It has a number of variations. When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either 아 or 오, -아요 is used. All other stems take -어요. There are exceptions to the above rules. 이다(이에요), 아니다(아니예요), 하다(해요). Vowel contractions may change the ending. (가다-가요, 지내다-지내요, 자다-자요, 싸다-싸요)

예) 학교 식당 음식이 맛있어요. 저는 한국이 좋아요.

The honorific ending –(으)세요

-(으)세요 is an honorific form of –어요/아요. It is a combination of the honorific marker –(으)시 and –어요.

예) 할아버지는 영어 공부를 하세요.

### 5) Subject particle 이/가

The subject particle 이/가 indicates that the word attached to it i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that is, what the predicate is about. Note that when a noun or a pronoun function as a topic or is used for comparison, the particle 은/는 or 도 is used instead of 이/가.

예) 커피가 맛있어요. 학교 도서관이 이층에 있어요.

13 한국어진흥재단, Dynamic Korean 1, KLEAR Textbooks, Integrated Korean Beginning 1 참조

## 6) [Place]에 있어요.

In referring to the location of an object, the locative particle 에 and the existential verb 있다/있어요, not -이다/이에요, must be used.

예) 서울 대학은 서울에 있어요.

## 7) The conjunction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is a conjunction that means 'and'. 그런데 is a conjunction that means 'but'. 그래서 is a conjunction that means 'so'.

예) 우리 학교는 커요. 그리고 학생이 많아요. 우리 학교는 커요. 그런데 운동장이 안 넓어요. 오늘이 제 생일이예요. 그래서 생일파티를 해요.

## 8) Use of 있다/없다 to express possession

-있다 refer to either the existence or the possession of an object or person. In honorific forms, the two different words are used as follows.

예) 저는 사전이 있어요. 저는 사전이 없어요. 부모님은 서울에 계세요.

Expressing possessive relations: N1 (possessor) N2(possessed)

- Possession involves two part, the possessor and the possessed.

예) 우리 아버지, 제 책, 영수 가방

- Possessive particle의, comparable to the English preposition 'of', may be used sometimes, but usually not in conversation, except for limited contexts, mostly when both the possessor and the possessed refer to abstract concepts.

예) 한국의 수도, 오늘의 뉴스, 한국의 대통령, 내, 제

## 9) Joining nouns: N1 하고 N2 'N1 and N2'

The particle 하고, like 'and' in English, is attached to a noun expression and joins it to another noun expression. This particle is usually used in colloquial speech and informal writing. 예) 저는 남동생하고 누나가 있어요.

## 10) The object particle 을/를

The particle 을/를 marks the object of the verb. The basic sentence patterns 'N 이/가 N 을/를 - 어요/아요'. The subjects designate the actors, the ones who do the action, and the objects designate the things that the actors do something to.

예) 철수가 아침을 먹어요. 동생이 친구를 만나요.

Omission of particles

In conversation, however, nominal frequently are marked with any particle at all.

예) Q: 뭐 하세요? A:아침 먹어요.

## 11) The locative particles 에 and 에서

The locative particle 에 is used to indicate where an object exists ([place]에 있어요). What is indicated is a static location and the simple existence of an object. The particle 에 is also used to indicate destination or goal. A different particle, 에서, is used to indicate the location of activity. It refers to a dynamic location,

because the action or activity takes place in that location.

예) 누나는 도서관에 가요.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 수업을 해요.

## 12) Numbers, Noun Counter

Numbers: Korean uses two of numbers, native Korean numbers and Sino-Korean numbers. Some native Korean numbers have two forms,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followed by a counter or used in isolation.

예) 하나-한 (명), 둘-두 (명), 셋-세 (명), 넷-네 (명), 스물-스무 (명)

Noun Counter: When you count, you must use different counters. Nouns are classified into many groups depending on shape or kind.

-With Sino Korean number: 학년, 월/일, 층, 과, 년, 분, 달라(불), 원, 마일

예) 일 학년, 삼 월, 오 층, 육 과, 칠 년, 삼 분, 십 달러, 천 원, 이십 마일

-With native Korean number: 명/사람, 개, 과목, 과, 달, 마리, 시, 시간, 잔, 장

예) 한 명, 다섯 개, 여섯 과목, 한 과, 일곱 달, 여덟 마리, 아홉 시, 열 두 시간

## 13) The negative adverb 안, 못

안 : Negation of a predicate in general is made by putting the negative adverb 안 immediately before the predicate.

예) 가요- 안 가요, 먹어요- 안 먹어요. 와요-안 와요.

Negation of noun + 하다 verbs 'do [noun]' is usually made by putting 안 between the noun and the verb 하다, that is, [noun] 안 하다.

예) 공부해요-공부 안 해요, 연습해요-연습 안 해요, 일해요- 일 안 해요

Some verbs and adjectives have a special negative counterpart.

예) 있다-없다, 이다-아니다, 알다-모르다

못: 'unable, cannot' is used when external circumstances prevent a person from doing something. In contrast, 안 is used for general negation.

예) 어제 바빠서 숙제를 못 했어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생일파티에 못 가요.

## 14) Past events: -었어요/ 았어요

-었/았/ㅆ indicates that event described has already taken place. -았 after a stem ending in 아, 오, and -었 elsewhere, -ㅆ is used when vowel contractions occur as in 갔어요 (from 가았어요). The final ending after -었/았/ㅆ is always -어요, not -아요.

예) 지난 주말에 아주 바빴어요. 친구와 만나서 좋았어요. 점심에 갈비를 먹었어요.

## 15) Irregular predicates in -ㅁ

Some predicates whose stem ends in ㅁ are subject to variation in the stem form. When the following suffix begins with a vowel, ㅁ becomes either 우 or 오.

예) 가깝다- 가까워요, 춥다-추워요, 덥다-더워요, 어렵다-어려워요

For monosyllabic irregular verbs in -ㅁ, such as 돕다 'to help', 곱다 'to be pretty', ㅁ changed to 오.

예) 돕다-도와요, 곱다-고와요

Irregular predicates in -ㄴ

When an adjective or verb stem ending in f is followed by ㄴ, ㅂ, ㅅ, the final ㄷ is omitted. In this case, the vowel - (으) is not inserted. (알+ -으세요-) 아세요)

예) 9시에 문을 여니까 그때 오세요. 학교에서 집까지 멍니다.

맛있는 쿠키를 만드세요.

## 6. 나가는 말

본고에서는 개정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외래어 표기법과 규범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용 오류들을 점검하며 실제 언어 현장에서 많은 규정들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들을 보았다.<sup>14</sup>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기초 문법의 주요 사항들을 영어 설명과 함께 상세히 다루어 보았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특별히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문법 설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은 가능하면 쉽게 만들기 위한 학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모국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꾸준한 연구, 집적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다양한 교재 개발, 교사 양성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sup>15</sup>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에 관한 올바른 문법 지식의 이해를 가지고 학습자 앞에 서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학습자에게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 수혜자(受惠子)와 전달자(傳達者)의 두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언중(言衆)에 의해 그 체계와 성격이 조금씩 변하므로 언어 규범도 그에 맞게 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변화되는 언어 규범을 빠르게 파악하고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사들의 몫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학교의 교사들은 지속적인 개발과 연구를 통해 바른 문법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아무쪼록 혼란스런 언어 학습 현장 속에서 밝은 등불의 역할을 담당하는 훌륭한 한국어 교사들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김재욱(2006),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북피아

김중섭(2006), 한국어 교육의 정체성과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 논문 발표 자료집,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민현식(2004), 한국어의 특징과 맞춤법, 한국어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 한국어세계화재단

박경래(1997), 실용문에 나타난 유형별오류실태분석1, 언어학 제1호, 중원언어학회

박경래(2000), 실용문에 나타난 유형별오류실태분석3, 언어학 제4호, 중원언어학회

박영순(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월인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이지영, 한국어문법 교수법, 한국어 교육학의 이론과 실제, 상명대한국언어문화센터

이희승, 이병희(1995),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정원돈(2005), 문법과 언어교육, 세명대학교

정호성, 한국어 어문 규범, 한국어 교육학의 이론과 실제, 상명대한국언어문화센터

정희원(2002), 국어 어문 규정, AATK 7th Annual Conference, 국립국어원

최용기(2007),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 국립국어원

홍종민, 정희원(2005),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과 실제, 한인교육연구 23호

〈한글 맞춤법〉(1988), 문교부 고시 제88-2호

〈표준어 규정〉(1988), 문교부 고시 제 85-11호

〈외래어 표기법〉(2004), 외래어 표기 용례집 중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 문화체육부 제 2004-11호

KLEAR Textbooks, Integrated Korean Beginning 1, University of Hawaii

Dynamic Korean 1, 한국어진흥재단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2, 커뮤니케이션북스

14 령거스대학 및 한국학교에서 발견한 오류 및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오류들을 모아 정리함.

15 최용기(2007),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전망

## 35년 협의회 연혁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1980년 - 2016년

이광호 정리 및 수정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전이사장

항정숙 기록 및 교정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편집장

## 1980년

12.13. 동부지역 한인학교 대표자 회의가 뉴욕 한국학교(오전) 및 뉴욕시 인천집(오후)에서 개최됨.

임시 의장(주하성), 임시 서기(배윤열)를 선출함. 박천래(일리노이 한국학교 이사장)씨 제안과 이서구씨 수정 동의안

- 준비위원을 구성해 헌장 초안을 작성하여 발기인들에게 통보하며 발기인들의 우편 투표로 헌장을 채택하기로 함.

단, 채택된 헌장은 회장단이 다수결에 의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함. 강경식(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교장) 추가 동의

- 준비위원 9명(뉴욕 지역 4명, D.C. 지역 2명, 아틀란타 지역 1명, 시카고 지역 1명, 보스턴 지역 1명)으로 선정. 만장일치로 통과함.

뉴욕 지역 - 김은형(세종학교), 김석연(버팔로 한글학교), 김치경(체리힐 한인학교), 박태백(스탠튼아일랜드 한인학교), 워싱턴 D.C.

지역 - 주하성(버지니아 한국학교), 배윤열(제일 한국학교), 시카고 지역 - 박천래(일리노이 한국학교), 보스턴 지역 - 강경식(로드아

일랜드 한인학교) 아틀란타 지역 - 서문원(그린스보로 한글학교) 등 선임됨.

서문원씨 동의 - 일반(at large) 준비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선정된 준비위원 9명이 결정, 추가 선정토록 할 것. (2명 이내)

- 통과됨. 정관 (By-law) 작성위원회를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할 것을 채택함. 초안 작성 완료를 81년3월1일까지 하기로 가결함. 허병

렬(뉴욕 한국학교), 백예원(브롱스 한국학교)씨를 위원으로 하자는 뉴욕 지역 위원들의 추천이 채택됨.

준비위원 회의

명칭 : 많은 토론이 있는 후 참석 위원 8명의 투표에 의해 '재미한인학교협의회'로 가결됨.

(재미한국학교협의회 : 3, 재미한인학교협의회 : 4, 재미한글학교협의회 : 1)

임시로 말을 임원을 선출함. 임시 회장 : 주하성, 부회장 : 강경식, 김은형, 총무 : 배윤열

- 박천래씨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고 동지역의 연락 책임 맡기로 함. 상기 회장단

이 초안을 작성하여 준비위원에게 송부,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하기로 함.

## 1981년

4.18. 창립 총회 - Hyatt Hotel (Arlington, VA)

동부지역 한인학교 대표 41명 참가. 강경식씨 사회로 주하성 임시 회장이 경과 보고를 한 후, 헌장을 채택하고 헌장에 의해 이사 13

명을 선출하고, 이사장에 오학근(워싱턴 제일 한국학교 이사장)씨를 선출함.

오학근 이사장 사회로 **회장단 선출**

- 초대 회장 : 주하성, 부회장 : 강경식, 서문원, 백예원, 총무 : 이서구, 감사 : 고일석, 고충흠

사업별 분과위원회 구성, 회원자격 및 회칙 심사위원회 기획 및 홍보위원회, 하계학교 운영위원회, 교육과정, 교육자료 개발위원회,

교육자 연수위원회, 재정위원회, 회비 책정 가결(일년 \$100)

## 1982년

### 4.10. 재미한인학교 교과서 편찬을 위한 Workshop 개최 - Hyatt Hotel (Arlington, VA)

모영기 교육관(동부지역)과 김연수 교육관(서부지역)의 협조로 개최함.

김공언(LA이중언어연구소) - 한국어 교재 개발의 기술적 문제

김덕기(Univ. of Texas) - 재미교포 국어 교육에 관한 몇가지 문제

김석연(SUNY-Buffalo) - 교재 편찬을 위한 조언

박남경(LA한국어교육기관협의회) - 캘리포니아 일본어학원 교과서 분석

방홍규(S.F.이중언어연구소) - 초등반 교재를 통한 한글학교 평가

손예숙(일리노이 한국학교) - 한국어 교재 편찬의 방향

송기중(Univ. of Penn) - 재미동포자녀 한국어 교육 결과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현상

허병렬(뉴욕 한국학교) - 메리와 존을 위한 교육

진교륜(MD주 교육국) - 재미한인2세 교육

강경식 부회장 사회로 재미한인학교협의회(동부)와 한국어교육기관협의회(서부) 합동 회의에서 교과서 편찬위원회 구성함. (동부지역 - 주하성, 강경식, 이서구, 서문원, 송진호, 서부지역 - 노재민, 박남경, 김공언, 방홍규, 전정재)

교과서 편찬위원회 관할하에 교과 과정위원회와 교과서 집필위원회를 구성

교과 과정위원 - 송기중, 박창해, 손예숙, 노재민, 김공언, 박남경

교과서 집필위원 - 허병렬, 김석연, 송기중, 김송희, 박창해, 이경애, 김혜순

교과서 7권을 편찬하기로 하고 집필위원을 결정함.

유치원용 (3-5세) - 김석연                      한국어 I (6-8세) - 허병렬

한국어 II (7-9세) - 허병렬                      한국어 III (8-13세) - 김혜순

한국어 IV (13-18세- 중 고등학생용) - 김석연

한국 역사 (13-18세- 중 고등학생용) - 김석연

음악 (1-6학년)

(서부지역은 지역 또는 개인 사정에 의해 불참함.)

8.18-23 교과서 집필위원들이 Lake Harmony, PA에서 공동 집필 작업

## 1983년

7.8. 뉴욕 가나안 인쇄소(Canaan Printing, Inc.)와 한국어 I, II, III (9,000부) 인쇄 계약과 고려서적과 판매 계약을 함.

11. 한국어 I, II 출판 및 판매 시작

## 1984년

3.23. 위싱턴지역협의회 창립 (초대회장: 엄영일)

11.24.1984년도 정기총회 및 대표자 회의 - Hyatt Hotel (Arlington, VA)

참석자 : 44개 한인학교 대표와 주미대사관 김영춘 교육관 및 지역 교육원장

김영춘 교육관 발표 - 재외국민 교육에 대한 모국 정부의 정책과 계획

현장 개정 - 본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산하에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고 본부 사업의 연속을 위해 특별회원 제도를 둬.

본 협의회 경영, 목적, 전망에 대해 토의함. 공식인 이사회 재활을 위한 이사 선출 및 사업 계획을 추후 서면으로 회원들에게 발송하기로 함.

### 제2대 임원 선출

회장 : 강경식, 부회장 : 서문원, 김치경, 엄영일, 총무 : 이영작, 재무 : 고익곤

## 1985년

1.4. 회장단(강경식, 염영일, 이영작)이 가나안 인쇄소와 고려서적을 방문해 한국어 I, II 재판 출판 및 판매를 다시 교섭 결정함. 한국어 III 출판 촉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함.

### 3. 시카고지역협의회 창립 (초대회장: 김기원)

3.29-30 임원회 소집 - 사업 계획 토의, 총무와 재무를 서로 바꾸어 총무에 고의곤, 재무에 이영작 임명.

4. 한국어 I, II, III 문교부 감수 표시 승인받음.

### 5.11제2회 교사강습회 (장소 : 뉴욕한국학교/Kennedy High School)

강의록 발간

공개수업 - 수업 참관(강사 : 뉴욕 한국학교 교사들)

한국어 회화 지도 방법 - 박창해 박사

상급반 한국어 지도 방법 - 김석연 박사

재미한인학교의 과제 - 김치경 교장

한국어 교육 방법 - 이선근 박사, 박창해

한국 역사 교육 방법 - 오정렬 교장, 백린

한국학교 운영 방법 - 김은자 교장, 허병렬

교과과정 운영 방법 - 김송희 교장, 김석연

한국 음악 교육 방법 - 임성순 교장, 최필남

재미한인학교 뉴욕지역협의회 결성 (사회 : 강경식)

초대 회장에 허병렬 뉴욕 한국학교 교장 선출

이로써 본 협의회 산하에 Washington D.C. 지역협의회, Chicago 지역협의회, 동북부지역협의회가 생겨남.

7.30 한국어 III과 학습문제집 판매 시작

9.29 임원회 소집 - 김영춘 교육관, 류용원 워싱턴 교육원장 참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한 이영작 재무의 후임에 류기창씨를 임명.

11월 총회 및 운영 대표자 연수회를 11월30일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함.

### 11.30 1985년도 정기총회 및 대표자 회의 - Holiday Inn. (E. Elmhurst, NY)

발표문집 발간(1986.6.1): 50개 학교에서 80여명 참석

한인학교의 사명과 목적 - 서문원(그린스보로 한글학교)

한국인의 금지와 2세 교육 - 김유미(일리노이 한국학교)

한국학과 한인 2세 교육 - 전해성(예일 대학교)

한국학교의 발전 전망 - 박희서(한미교육연구소)

한인 2세들의 자아의식과 심리적 발육 - 김승태(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재외국민 교육에 대한 시책과 방침 - 김영춘(주미대사관 교육관)

교재 개발 분과 - 사회 : 강경식

역사 문화 음악 교과과정 분과 - 사회 : 서문원

학교 운영 분과 - 사회 : 염영일, 연사 : 최호택

한국어 교육 방안 분과 - 사회 : 김치경, 연사 : 황보철

### 이사회:

이사장에 주하성 이사를 구두로 선출 (임기 : 1987년8월31일까지)

감사에 이춘재, 정금조 이사를 선출 (임기 : 1987년8월31일까지)

**지역협의회 회장** 워싱턴 지역 : 김일호, 시카고 지역 : 김기원, 동북부 지역 : 허병렬

**선출 이사** 워싱턴지역 : 주하성, 최호택, 시카고지역 : 이춘재, 이부덕, 동북부지역 : 임한익, 임성순, 김석연  
아틀란타지역 : 이준남, 휴스턴지역 : 정금조, 기타지역 : 오계희

결의문 채택(3항)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연혁 (1980.12.13~1985.11.30)에 수록.

---

## 1986년

4.15. 1982년4월10일 교과서 편찬 워크숍에서 구성되었던 위원회를 새로 추천되어 수락한 위원들을 포함하여 재구성함.

4.2. 한국어 II 학습문제집 발행

### 9.6. 1986년도 정기총회 및 대표자 회의 - Hyatt Lincolnwood (Chicago, IL)

발표문집 발간(1987.6.1): 44개 학교에서 67명 참석

재미한인학교 교육의 인식과 참여 - 김치경

저학년의 한국어 교수 방법 - 허병렬

한국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 - 고의곤

2세 자녀들에 대한 한국 역사의 효과적인 교육 방법 - 박진원

뇌의 발달/발전과 언어의 발전을 돕는 교사 - 박창해

한인 2세 교육과 미국사회 진출 - 전신애

한국어 교육 방법 분과 - 사회 : 서문원

한인학교 운영 방안 분과 - 사회 : 강경식

음악 예술 교육 분과 - 염영일

역사 문화 교육 분과 - 사회 : 김치경

### 3대 임원 선출

회장 : 서문원, 부회장 : 김유미, 고의곤, 총무 : 김기봉, 재무 : 김영균

## 1987년

3.21. 임원회에서 총회록 편집 및 차기 총회 일자와 장소를 1987년8월29-30일 양일로 Baltimore나 Washington D.C.에서 하기로 결정. 유기창을 편집 간사로 임명.

8.8. 재미한인학교협의회 회보 창간호 발간(발행인: 서문원, 편집인 : 김유미)

### 8.29-30. 1987년도 정기총회 및 대표자 회의 - Omni International Hotel (Baltimore, MD)

발표문집 발간(1988.4.1): 61개 학교에서 122명 참석

발행 예정인 유치반 교과서 '한국어 첫걸음'의 교수 방법 - 허병렬

한인 2세의 발언 - 이성희(춘원 이광수의 손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 대한 한글 교육의 필요성 - 김석연

말과 거래와 문화 - 이돈성

한인학교와 한국과의 자매 결연 - 이성옥

고운말 쓰기 - 김송희

반편성과 진급 및 졸업 - 이춘재

스프링브룩 한인학교의 이야기 시간(Video를 통하여) - 김기봉

교회 협조를 통한 한국학교 운영 모델 - 장성숙

한국어와 음악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 - 박규영

고학년들에 대한 수업 모델 - 김방실

이민 2세 교육의 비전 - 김상복 목사

**감사패 증정:** 주하성(초대 회장), 강경식(2대 회장), 김영춘 교육관, 허병렬, 김석연 - 교과서 편찬 공로

11.11. '한국어 첫걸음' 출판기념회 (저자 : 허병렬 도안 : 윤현숙), 유치반 교과서 편찬위원장 : 박창해

## 1988년

2. 회보 발간(제2회기-1호)

**8.26-27. 1988년도 정기총회 및 대표자 회의 - La Guardia Mariott (E. Elmhurst, NY)**

주제 : 21세기로 가는 한인 2세 -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4대 임원 선출**

회장 : 허병렬, 부회장: 황보철, 이상오, 정금조, 총무 : 김기봉, 재무 : 이휘자

**이사회**

이사장 : 강경식 총무: 류기창

**지역협의회 회장**

워싱턴지역 : 황보철

중서부지역 : 이상오

동북부지역 : 이선근

선출 이사 - 최경수, 김일호, 이원우, 남영림, 오영자, 김송희, 김숙자, 손정숙, 이광백, 김미원, 김은자, 김치경, 박익현, 장정숙, 지혜정, 최승혜, 조범, 홍두표

감 사 - 김일호, 김치경

12.29. 황보철 부회장이 남가주 한국어교육기관협의회 총회 참석, 앞으로 두 협의회의 교류와 협조 토의

## 1989년

1.13-14. 제2차 임원회에서 한국어, 한국 역사 및 문화 소개, 음악 교육 과정 위원회 발족.

1989년도부터 명칭을 '정기총회 및 대표자 회의'를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로 바꾸기로 함.

3.31. <한인교육연구> 창간호 발행(편집인: 허병렬)

7.10. 법인체 등록 인가 (State of Maryland)

8.20. <한인교육연구> 제2호 발행

**8.25-26. 1989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Hyatt Hotel (Lincolnwoodk, IL)**

주제: 교육 과정 정립으로 효과적인 2세 교육을 하자!

65개 학교에서 127명 참가 (우편으로 미리 등록한 회원 수)

학술대회 프로그램 발간

교과과정 분과 토의

한국어 교육과정 - 최호택

한국 역사 교육과정 - 김기봉

한국 문화 교육과정 - 우영선

예능과 교육과정 - 최일단

시청각 교육자료 연구위원회 - 황보철

시청각 교육자료 전시

세종한국어, Audio Cassettes 1 Set(16 Tapes), Video Cassettes 1 Set(8 Tapes) - 김석연(버팔로 한국학교)

한국어 시청각 교재 - 김은자(뉴저지 한국학교)

한국 역사와 문화 시청각 교재 - 윤순철(뉴저지 한국학교)

**10년 이상 근속 교사 표창**

14년 : 정금조      12년 : 이한식, 김혜선, 지생련      10년 : 김주영, 오화자, 전병희, 김정혜

9.30 캐나다지역협의회 총회 및 교사연수회 참가 - 허병렬 회장 (강사)

10.14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창립 총회(초대 회장 : 김영집) - 강경식, 이상오, 김치경 참가

11.18 남서부지역협의회 창립 총회(초대 회장 : 하인태) - 임원 전원, 강경식 이사장 참가

# 1990년

2.22 <한인교육연구> 제3호 발행

한국어 I, II 개정판 발행

3. IRS 비영리 단체 허가 신청

5. 5월은 '뿌리 교육의 달'이 되기를 바라며 바람직한 행사들을 안내 함.

6.4. 한민국어교육과정 발간 (위원장: 최호택)

8. 예체능과 교육과정 시안, 한민족어 교육과정 초안 발간

<한인교육연구> 제4호 발행

한국어 III 초판 발행

제8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 발간

**8.24-25. 1990년도 제8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Holiday Inn. (Arlington, VA)**

주제 : 한국의 얼을 심는 뿌리교육을 하자.

54개교 대표 100여명과 기타 관계자 260여명

주제 강의

21세기를 향한 한인 2세 지도자 교육 방안 - 진 교륜 박사

한국어 III 편찬 취지와 활용 방법 - 김석연 박사

한국어를 통하여 본 한국의 얼 - 이상억 박사

역사를 통하여 본 한국의 얼 - 박성래 박사

문화 예술을 통하여 본 한국의 얼 - 오현주 선생

한국어와 한글의 독자성 - 이익섭 박사

심포지움 [세계속의 한인 2세 교육]

유럽한인사회 및 2세 교육 현황과 파리 한글학교 - 이극범(유럽)

재일동포 민족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 - 박병윤(일본)

재미한인학교협의회와 동행하는 캐나다지역협의회 역할과 사명 - 손정숙(캐나다)

남가주지역한국학교 현황과 연합회의 역할 - 박연연(미국 서부)

새 개방국 소련, 중국, 동구권 국가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외국민 교육정책 - 금승호 교육관(문교부)

분과별 세미나

통합한국학교 - 현운중, 최경수, 이형석

한민족어 교육과정 - 최호택

예체능 분과 교육과정 - 이선근

역사 문화 교육과정 - 김기봉

교육과정 모델 분과 - 이상오

**감사패 증정** - 서문원 직전 회장, 금승호 교육관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0년 : 이경애

15년 : 김헬렌

10년 : 유숙희, 구인순, 김경숙, 지혜정, 이영희, 이데레사, 김옥두, 김근숙, 박기모, 여정자, 김아미, 고방실, 이선근, 김근순

**5대 임원 선출**

회장 : 황보철, 부회장 : 김기봉, 김일호, 남영림, 총무 : 류기창, 재무 : 이휘자, 편집인 : 허병렬

**지역협의회 회장**

워싱턴지역 : 이한봉      동북부지역 : 김송희      중서부지역 : 최호승

뉴잉글랜드지역 : 김영집      남서부지역 : 하인태      캐나다지역 : 손정숙

10.5-7. 인수인계 및 제1차 임원회 회의록 발간 - 재미한인학교 명단 주소록 수록

11.3. 동남부지역협의회(Atlanta) 창립 (초대 회장 : 김경숙)

11.16. <한인교육연구> 제5호 발행

11.24. 금승호 교육관 이임 및 김명곤 교육관 취임.

11.30. 지역협의회 분할구 및 새 지역협의회 조직 계획

12.14. 서북부지역협의회(Seattle) 창설 가입 (초대 회장 : 김정태)

**1991년**

1.30. 한국어 IV 출판

2.16. 북가주지역협의회(San Francisco) 창립 (초대 회장 : 정희상)

3.3. 하와이지역협의회(Honolulu) 창립 (초대 회장 : 조성천)

3.16. 플로리다지역협의회(Miami) 창립 (초대 회장 : 정대용)

3.29-30. 임원회, 이사회, 교육과정위원회 모임 - Holiday Inn. (Arlington, VA)

4.30. <한인교육연구> 제6호 발행

8. 제9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 발간

**8.23-24. 1991년도 제9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The Double Tree Hotel (Houston, TX)**

해외 한민족의 이상과 성공적 교육 - 박문일 총장 (중국 연변 대학교)

한국 역사를 통하여 본 민족 정기 - 이규태 논설위원 (조선일보)

한국학교 교육의 의의와 체제 - 이남정 교육원장

한국어의 언어학적 평가와 연구 - 강인정 교수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효율적인 한글 교육 방법 - 조인숙 교장

교육과정 연구시안 발표

한민족어 교육과정 - 손정숙

역사 문화 교육과정 - 김기봉

예체능 교육과정 - 진경윤

교육 모델 연구 - 박규영

미주한인학교용 교재 종합평가 - 정희상

2세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우리의 방향 설정 - 김치경

한인학교의 전문적 학습지도 방법 - 김광성

**장기 근속 교사 표창**

15년 : 최경훈, 영스채순

10년 : 김진국, 서정순, 이경이, 이인신, 윤건희, 윤문자, 장성숙, 정영일

**이사회 -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선출**

이사장 : 허병렬, 부이사장 : 김치경, 총무 : 류기창, 감사 : 김숙자, 김송희

11.17. 한국어 첫걸음, 한국어 I, II 연습문제 재판 발행

# 1992년

3.21. 미시간지역협의회(Detroit) 창립 (초대 회장 : 남영림)

3.28. 콜로라도지역협의회(Denver) 창립 (초대 회장 : 선창균)

6.1. 한국어 I, II 개정판 발행, 회보 발간

6.13. IRS 비영리 단체 허가 통보 (규정 Code 509(a)(2))

7.15. Sales Tax Exemption Certificate(State of Maryland) 접수

8.3. 조완규 교육부장관 및 금승호 국제교육국장 워싱턴 방문 환영 간담회

8.12. <한인교육연구> 제7호 발행

8.20.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 발간

- 부록 : 재미한인학교협의회 학교 명단, 한인학교 교사 명단 및 재외국민교육원 초청 교사연수 참가자 명단 (1982년~1992년)

## 1992.8.28-29. 1992년도 제10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BWI Marriott Hotel (Baltimore, MD)

주제 : 재미한인교육 재검토

모국어가 없는 아이 - Dr. Robert Ramsey(Maryland Univ.)

The Second Generation Korean and The Problem of Identity - Dr. Steve Linton(Columbia Univ.)

북미 한인 후세 교육의 방향 - 백웅진 박사(Toronto Univ.)

세계 역사에 도전하는 한민족 - 신알렉세이 박사 (러시아고려인 협회장)

한인 2세를위한 민족 교육의 방향 - 김상원 박사 (국제교육진흥원장)

2세의 발언- David Cho (변호사), Sung Yol Lew (대학생)

분과별 세미나

한국어 초 중급

한국어 고급

문화 역사

재미한인학교용 교육과정

시청각 교육 자료 출품 전시

어린이 노래극 - 토끼전, 나뭇꾼과 선녀 : 씨알 한국학교 (유희자, 김옥자)

한국 역사 소개 - 뉴욕 퀸즈 장로교회 한국학교 (김진화)

학부모 세미나용 - 학부모와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 : 뉴욕 한국학교 (허병렬)

**감사패 증정** - 허병렬 직전 회장

교육부장관 감사장 수여자

- 구기자, 권숙영, 김경숙, 김숙자, 김정혜, 김환, 박태원, 송병옥, 이광호, 이제인, 이화섭, 이휘중, 함혜란

개교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0년 : 남영림

15년 : 오카타리나, 김헬렌

10년 : 곽혜영, 김경자, 김숙자, 김원엽, 박선희, 신선숙, 이기란, 이명혜, 이서희, 이순, 조경숙, 최재귀

## 6대 임원 선출

회장 : 김기봉, 부회장 : 김정오, 이경이, 류기창, 총무 : 이광자, 재무 : 김근순, 편집인 : 허병렬

## 지역협의회 회장

워싱턴지역 : 오영자    중서부지역 : 노승석    남서부지역 : 정금조

콜로라도지역 : 선창균    동북부지역 : 김숙자    동남부지역 : 김경숙

서북미지역 : 김정태    하와이지역 : 조성천    뉴잉글랜드지역 : 김원엽

플로리다지역 : 정대용    북가주지역 : 이경이    미시간지역 : 남영림

## 1993년

4. 예능, 한국 문화 역사 교재 작성

5. 회보 발간(제6회기-1호)

7. 회보 발간(제6회기-2호)

8. <한인교육연구> 제8호 발행

### 8.27-28. 1993년도 제11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Holiday Inn. (Elmhurst, NY)

주제 : 향상하는 한국학교, 성장하는 꿈나무들

한국 전통문화의 성격 - 고병익 박사(전 서울대 총장)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한민족 교육의 방향 - 이현철 박사(Rampo College)

한국어 I, II 지도 지침표 해설 - 허병렬

한국어 III, IV 학습지도 방법 - 김석연

바람직한 교사의 상 - 양정선

말하기 교육 이론 - 이선근

말하기 교육 실습 - 초급 : 이선근, 중급 : 고방실, 고급 : 차영실

문화 역사 교재 사용 보고 - 권현주, 이제인2세 발언/토론

2세가 당면한 문제들 - 서은령, 김종환, 박영미, 홍준, 이연경

시청각 교육 자료 출품 전시

한국 지도 모형, 학습도감, 전래동요 놀이, 민속놀이 모음 - 뉴욕 한국학교

재미있는 우리말 찾기 - 캐나다 런던 한글학교 (손정숙)

서예를 통한 한글 및 문화 교육 - 워싱턴 통합 한인학교 (신선숙)

날씨판 (김옥자), 단어카드(이봉자), 용판을 이용한 그림교재(오정숙) - 캐나다한인학교협의회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뉴욕 한국학교, 시카고 한국학교, 상향 한국학교, 성김안드레아 한글학교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0년 : 김헬렌, 허병렬

15년 : 김은숙, 이승연, 이데레사

10년 : 백영희, 전명자, 김옥현, 이명혜, 김은자, 김현숙, 윤순철, 전현자, 오계희, 김정태, 유은애, 박인애, 홍태기, 김영일, 김옥주, 박명선, 김양자, 한영실, 김현규

10.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 방문 간담회

## 1994년

2.12. 회보 발간(제6회기-3호)

3. 김명곤 교육관 이임(감사패 증정), 김용현 교육관 취임

4.9. 플로리다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지원 - 허병렬, 김기봉, 이상오(강의)

4.. <한인교육연구> 제9호 발행

6.1. 회보 발간(제6회기-4호)

6. The American Asso. Of Teachers of Korean 발기대회 참가, 이사 가입

8. 개정 주소록(Directory) 발간, 협의회 Brochure 발간, <한인교육연구> 제10호 발행

### 8.19-20. 1994년 제12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Radisson Hotel (Chicago, IL)

주제 : 세계화 시대의 2세 교육

세계화 시대의 2세 교육 - 원광호 국회의원

세계화 시대로 향하는 2세에 대한 이해 - 배영 박사

2세 아동 교육 방향 - 전정재 박사

한국 문화의 특성 - 전해성 박사

한국 문화 역사 Workshop - 전해성 박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 명계웅 중서부 회장

학년별 능력별 한민족어 교육 방법 - 최돈기, 조영애, 김경숙, 박규영

한인학교 행정 운영 - 노승석, 허병렬, 최경수, 김홍준

우수한인학교 교육과정 - 이상오

미공립학교 교육지침 - 이광자

민속놀이 및 무용 자료 - 김정오

한국어 회화 교육 교안 작성 - 김근순

시청각 교육 자료 출품 전시

'94년도 캐나다한인학교 연합 학예회 및 체육대회 Video Tape

한국어 교육과정 학년별 시범 지도 지침서 - 토론토 노스욕 한인학교 교사들

음악극 '토끼전' Video Tape, Audio Tape, 극본 - 캐나다 씨알 한국학교

한국 문화 역사 자료집(사진 모음), 한국어 기본 문형 익히기, 학생용 한국 문화(책자), '94-'95 학년도 교과별 학습 주제 - 뉴욕 한국학교

**감사패 증정** - 황보철 직전 회장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5년 : 허병렬

20년 : 김송희, 최필남

15년 : 강화자, 고혜순, 최일단, 김정혜, 박기모, 이영희, 송병옥, 고방실

10년 : 김근선, 김진화, 이길순, 홍춘택, 조성주, 조명순, 이제인, 최영자, 이영복, 이연숙, 나박, 전수경, 이현애, 오금주, 김혜자, 이광자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뉴욕 퀸즈 장로교회 한국학교, 캐나다 씨알 한국학교, 워싱턴 통합 한인학교

**7대 임원 선출**

회장 : 이상오, 부회장 : 함혜란, 김홍준, 장혜경, 총무 : 방정웅, 재무 : 김근순, 편집인 : 허병렬

**지역협의회 회장**

워싱턴지역 : 최호택    중서부지역 : 명계웅    남서부지역 : 김인태

콜로라도지역 : 선창균    동북부지역 : 나박    동남부지역 : 김경숙

서북미지역 : 김홍준    하와이지역 : 조성천    뉴잉글랜드지역 : 함혜란

플로리다지역 : 장혜경    북가주지역 : 유재정    미시간지역 : 김진국

**이사회 총회**

이사장 : 황보철, 부이사장 : 이광자, 총무 : 이경이, 감사 : 남영림, 이광호

선출 이사(18명) - 강경식, 김근순, 김송희, 김숙자, 김영집, 김정오, 남영림, 박규영, 방정웅, 서문원, 이경이, 이광자, 이광호, 이선근, 이화섭, 최경수, 허병렬, 황보철

12. SAT II 한국어 채택위원회(위원장 : 장태한)의 협조 요청으로 12개 지역협의회와 보조를 맞추어 SAT II 한국어 채택을 위한 기금 모금 계획 발표

## 1995년

1.21. NAKS 임원과 미주한국학교연합회 (회장: 이삼량) 임원 연석회의

1.31. 회보 발간(제7회기-1호)

5.21. 회보 발간(제7회기-2호)

6.30. SAT II 한국어 채택을 위한 기금 모금 마무리 지음.(삼성재단에서 전액 \$50만불 기증)

8. 북미주한인학교 명단 발간

8.19. <한인교육연구> 제11호 발행

제13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강의를 발간

**8.25-26 1995년도 제13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미주한국학교연합회와 공동 주최)**

- Omni Angels Hotel (Los Angeles, CA)

주제 : 21세기 지도자는 창의적인 2세 교육으로

21세기를 위한 교육개혁 방향과 해외동포 교육 - 이천수 교육부 차관

광복 50주년 남북언어 비교 : 통일 후의 한민족어 교육을 위한 제언 - 김민수 교수

Korean-American과 2세 교육 : 역사, 자아, 공동체 의식 - 장태한 교수

미주한인사회의 구조와 21세기를 향한 2세 교육의 방향 - 김광정 교수

UN 창설 50주년 기념 : 세계 교육과 변천하는 가치관 - 구삼열 국장

Korean-American 선구자 도산 안창호 : 삶과 가르침 - 김형찬 교수

SAT II 한국어 후속조치와 주말한국학교의 역할 - 김석연 교수

한글 컴퓨터와 효과적인 2세 교육 - 이순무 사장

한국 역사 문화 Workshop - 전해성 교수

재미한인학교협의회 미주한국학교연합회 : 어제, 오늘, 내일 - 강경식, 서문원, 박영연, 정채환

분반 강의 - 한인교육의 현장을 가다

학교 운영 - 조영애, 황명숙, 이형석, 수지오(학급 관리)

모델 수업 - 양아미, 이수정, 한혜정, 김정애, 박규영, 오금주, 박혜숙, 조영미

공작 - 신애리

음악 - 송경현

한글 컴퓨터 - 이순무

한국어 교육과정 - 박남경, 최호택

한미 역사 대조 - 수지오

SAT II 한국어 교육방법 - 김석연

입양아 국제결혼 자녀교육 - 박윤주

시청각 교육자료 출품 전시

허병렬 교직 51주년 기념 - 뉴욕 한국학교 (허병렬)

한국 역사 지도범위 제도 - 캐나다한인학교협의회 (백혜숙)

그림카드를 이용한 문장놀이 - 캐나다한인학교협의회 (이봉자)

자음 모음 조화 - 템파 한국학교 (정은경)

초급반 창의성 있는 말하기 지도 - 런던 한인학교 (손정숙)

한글 지도 모형 - 킬린 한인학교 (이성희)

**공로패 증정** - 김기봉 직전 회장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5년 : 선창균

20년 : 윤정수, 서옥련

15년 : 김근순, 김근숙

10년 : 박애옥, 손정숙, 조영애, 권현주, 김경애, 김호순, 노정수, 유영열, 유정숙, 이경원, 이경희, 전설자, 정은경, 천세련, 최수화

10.27-29 American College Board SAT II Korean Task Force 회의 참석 : 이상오, 방정웅

- 1997년 11월에 실시될 한국어 시험 전반에 관한 정책과 과정 협의

**11.30. SAT II 한국어 연구위원회 구성** - 방정웅, 함혜란, 이광호, 박규영, 이광자(위원장)

중서부지역 : 명계웅    남서부지역 : 김인태    콜로라도지역 : 선창균

동북부지역 : 나박    동남부지역 : 김경숙    서북미지역 : 김홍준

하와이지역 : 조성천    뉴잉글랜드지역 : 함혜란    플로리다지역 : 장혜경

북가주지역 : 유재정    미시간지역 : 김진국

# 1996년

- 1.19. East Rock Institute와 NAKS 역사 문화위원회와 공동사업 추진 결정
- 3.17. 회보 발간(제7회기-3호)
- 3.18. SAT II 한국어진흥재단(이사장 : 정채환)이 미국 고등학교에 한국어반 신설 기금 \$10만불 기증  
- 주미대사관에서 박건우 대사 참석
- 4.8. SAT II 한국어진흥재단이 미국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SAT II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금 \$7만불 기증  
- New York에서 동북부지역협의회 이광호 회장과 임원 참석
- 4.9. <한인교육연구> 제12호 발행
- 6.1. 회보 발간(제7회기-4호)
- 7.8. SAT II 한국어 교과서 출판 협의 - 이상오, 김석연, 이종숙, 허병렬
- 7.27. <한인교육연구> 제13호 발행
- 8. 북미주한인학교 주소록 발간
- 제14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 발간

## 8.8-10. 1996년도 제14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Pacific Lutheran Univ. (Tacoma, WA)

주제 : 2세 교육 창달은 한국 고유문화 전승으로

한국인이 지향하여야 할 가치관과 교포 후세대에 대한 교육 방안 - 이영덕(한국정신문화원장)

한국의 세계화와 해외동포 2세 교육의 정책과 지원 방법 - 김진현(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한국경제의 세계화와 해외동포 2세들의 인력 활용 - 김호일(국회의원, 해외동포문제연구소 이사장)

한국어의 몇가지 언어 문화적 특성과 그 교육 - 김영기 박사(George Washington Univ. 한국어문화센터 소장)

Foreign Language Policy at Secondary Education in America and Acquisition of Korean as Foreign Language in the Tacoma School District - Dr. James Shoemaker

American College Board Educational Testing Service : SAT II Korean Test Development-Status Report - Dr. Brian O'Reilly

SAT II 한국어 후속 조치 -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 이상오 회장, 정채환(SAT II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주말한인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 고등학교의 외국어 학점인정 사례 : MD주 - 이광자 교장

- 대학교의 외국어 필수 학점인정 사례 : UC, CA - 최석호 박사

교육 교과과정 개발 - 이상오, 이마지, 박윤주, 김형찬, Dr. Launius

한국어 이론 - 김석연, 함혜란, 최호택, 이종숙

교수법 - 김인구, 김영기, 유신열, 정영숙, 서용권

학습지도 - 전현자, 이영주, 김능향, 이마지

학습계획 - 김경숙, 박규영, 박은순, 허병렬, 최일단, 최정희, 송종수, 김옥주

교육행정 - 노승석, 윤순철, 이경이, 유재정, 백경숙, 이광자, 윤부원, B. Lao

교육평가 - 김수아, 박화자, 방정웅, 김정태, 이광호, 최석호

한국 역사 문화 특강

Historical Visions of the Korean Family, The Story Telling of Ch'unhyang - Ann Lee, Seung Song

The Korean Family and Success in Traditional Korea - Thomas Lee

Who succeeds? Analysis of Several Case Studies of Civil Officials - Lee And Song

A Korean-American Family Play - Song

Comparative View of Korean Values' Completion of the Play - Song and Lee

시청각 교육자료 출품 전시

한국 문화 교육용 자료, 음악과 리듬 지도용 카드 - 뉴욕 한국학교

## 교육부장관 감사장 수여자

- 이경이, 이광호, 정삼숙, 김홍준, 이종익, 함혜란, 이휘자, 박규영, 김경숙, 최호택, 고상순, 전경원, 김정오, 장동구, 조신숙, 한창선, 전현자, 이종숙, 심운섭, 선창균, 한혜정, 방정웅, 이성희, 이의순, 전병무, 김성원, 김순희, 남영림, 장영춘, 배기교, 이경례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27년 :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25년 : 인디애나폴리스 한글학교

24년 : 몬트리올 한국학교

22년 : 미네소타 한국학교

20년 : 롱아일랜드연합 한국학교, 무궁화 한국학교, 베드포트파크 장로교회 한국학교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5년 : 이경애

20년 : 고방실

15년 : 김경숙, 이경이, 이인신, 서순희, 이희숙

10년 : 구기자, 김순자, 이준영, 장영자, 정복춘, 한영순, 김희숙, 김명자, 김영희, 김철문, 이종숙, 정명림, 정일순, 조신숙, 최명자, 이성희, 황오숙, 최재귀, 신선숙, 양정선, 최인돈, 최옥경, 남호진, Larry Couch

#### 8대 임원 선출

회장 : 최경수, 부회장 : 방정웅, 이광호, 박규영, 총무 : 명계웅, 재무 : 임선자, 편집인 : 허병렬, 기록 간사 : 김정태

지역협의회 회장

워싱턴지역 : 한광수    중서부지역 : 박규영    남서부지역 : 김영렬

콜로라도지역 : 정봉채    동북부지역 : 이광호    동남부지역 : 손창현

서북미지역 : 조영숙    하와이지역 : 이종익    뉴잉글랜드지역 : 함혜란

플로리다지역 : 전경원    북가주지역 : 이경이    미시간지역 : 임화자

12.6-7. 12개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 임원 연석회의 - Washington D.C.

-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1997년11월에 처음으로 실시될 SAT II 한국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1997년4월에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를 미국 전역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결정(담당 - 이광호, SAT II 한국어 담당 부회장)

## 1997년

3.1. 회보 발간(제8회기-1호)

4.5.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설명회(각 지역협의회 단위로 실시)

4.19-20.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SAT II 한국어진흥재단 후원, 미주한국학교연합회 참가.

준비 책임 : 이광호, 나박

출제 : 이선근, 허병렬, 이종숙, 윤순철, 김혜순

평가 : 방정웅

265학교에서 4,815명 응시

6.1. 회보 발간(제8회기-2호)

Kalani High School(Honolulu, HI) 한국어반 개설 지원(\$8,000)

Living Korean for SAT II 초급 독본, 학습본 발행(편집인 : 김석연)

7.27. <한인교육연구> 제14호 발행

8.7. SAT II 한국어 예상 문제집 발행(편집인 : 이광호, 명계웅, 박규영)

8. 제15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발간

#### 8.7-9. 1997년도 제15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Chicago Marriott O'Hare (Chicago, IL)

주제 :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으로서의 2세 교육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는 한민족 교육 - 박영식 박사(전 교육부장관)

한국의 표상적 삼자산(세종 훈민정음 정음사상) - 김석연 박사(세종학연구소 소장)

Korean-American Identity, its Problems and Leadership Qualities :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 Dr. Stephen

---

Linton(Columbia Univ.)

한국어 특강 ‘세계속의 한국어’ - 이익섭 박사(국립국어연구원 원장)

Korean Women's Role Ideals : Past and Present - 전해성 박사(East Rook Institute 이사장)

SAT II Korean Pre-Test 결과 및 Test Development Statues Report - Dr. Brian O'Reielly(Director of SAT II Program)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 이정노 박사(Florida State Univ.)

Image of Korean History - Dr. John Duncan(UCLA)

Panel 토의

Korean-American 2세들에게 적합한 역사 문화교육 방향 제시 및 이들에게 심어야 할 바른 정체성과 지도자적 소양에 관하여 - 전  
신애(Director, Dept. of Labor, ILL), 전해성, John Duncan

중학생 이상 학생들을 위한 한국 역사 문화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특별 Workshop - 전해성

국어문법 맞춤법 - 국립국어연구원

교장연수회(합리적, 효율적인 학교 행정 및 운영) - 김경열 외 4명

역사 문화교육에 포함되는 재미한인이민사 및 Role-Models - 함성택

한국의 가락과 기본 춤시위를 통한 문화 교육 - 김경옥

중급학년 역사 문화시간에 다뤄지는 주요 사건 및 인물과 한국적인 것에 대한 수업자료 토의 - 박소유

CD-Roms 활용의 한국어 교육 - 현대전자연구팀

역사공부와 함께하는 음악교육 - 이선

웅변 지도법 - 박향수

구연동화 지도법 - 이남

듣기 및 말하기 교수법 - 허병렬, 함혜란, 김인구, 박문식, 명계웅

읽기(독해) 지도법 - 박현자, 박명진, 채완

글쓰기 지도법 - 김순자, 이영주

맞춤법 및 경어법 - 임동훈, 양명희

SAT II 한국어 전문교사 양성 강습 - 이광호, 명계웅, 박규영, 방정웅(평가, 분석)

‘Living Korean’ 교과서 사용 방법 - 김석연

시청각 교육자료 전시

1) 저 학년용 한국 문화와 시청각 교육자료(천세련), 학교 글모음(24년간) - 뉴욕 한국학교

2) 눈으로 이해하고 만들면서 글자 익히기 -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 감리교회(이현실)

3)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공산품 - 디트로이트 세종학교(한순정)

4) 몬테소리 이론을 적용한 한국어 교수방안 - 미시시피 Storkville 한국학교(심수잔)

## 정기 이사회

이사장 : 서문원, 부이사장 : 김기봉, 총무 : 조동열

## 감사패 증정

김용현(주미대사관 교육관), 정채환(SAT II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공로패 증정 - 이상오 직전 회장

## 재외국민교육 유공자 교육부 장관 감사장 수여

- 김순자, 신인숙, 심운섭, 최영옥, 이재봉, 전명희, 김미나, 박경미, 남경숙, 조현제, 홍태명, 김정선, 윤선홍, 장보순, 오혜숙, 배광미, 하  
은자, 김영숙, 장문길, 홍기순, 김봉현, 김인기, 안무실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25년 :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20년 : 북부 보스턴 한국학교, YWCA 퀸즈 한국학교, 퀸즈 한인 천주교회 한글학교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5년 : 남영렬

20년 : 임금진, 정삼숙, 오카타리나

15년 : 전수경, 이준영, 고영자, 김근선, 김진국, 이광호, 김숙자, 김진, 이채현, 조인숙, 이화섭, 김소윤

10년 : 차영실, 신용자, 송희철, 장정훈, 김석희, 장동구, 박소유, 이영선, 박희양, 김계송, 김선혜, 정영숙, 배기교, 박은희, 이상수, 하명운, 김명순, 오혜숙, 유재정, 한혜정, 이형천, 성낙준, 김진애, 심수잔, 임덕순, 김경옥, 장종철, 조혜옥, 전명자, 한국지, 윤미중, 공영희, 김환

12.6. 12개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 임원 연석회의 - Atlanta

12.9. Abraham Lincoln High School(Tacoma, WA) 한국어반 개설 지원(\$5,000)

## 1998년

2. 회보 발간(제8회기-3호)

4.18. <한인교육연구> 제15호 발행

4.18-19. 제2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250학교에서 4,643명 응시

SAT II 한국어진흥재단 후원, 미주한국학교연합회와 공동 출제

출제위원 : 이선근(위원장), 김은경, 이종숙, 주신자, 이혜심, 최석호, 방정웅(평가)

6.1. 회보 발간(제8회기-4호)

8.3. Living Korean For SAT II 중급 독본 학습본 발행

8.10.

Baker Middle School(Tacoma, WA) 한국어반 개설 지원(\$5,000)

Lakota Junior Hight School 한국어반 개설 지원(\$5,000)

New Hope Academy(CT) 한국어반 개설 지원(\$5,000)

New Eden Academy(MD) 한국어반 개설 지원(\$5,000)

Geroge Washington High School 한국어반 개설 지원(\$5,000)

8.11. 제16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발간

### 8.13-15. 1998년 제16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Atlanta Airport Marriott Hotel (GA)

주제 : 차세대 한국어 교육의 최대 효과는 교육과정의 표준화로부터

미주 한민족 차세대의 정체성 및 가치관 - Dr. Robert Ramsey

제1회 SAT II Korean Subject Test 결과 보고 및 Test Development-Status for '98 Test - Mr. Brian O'Reielly(SAT Program Director)

제2회 SAT II 모의고사 경과 및 결과 보고 : 이광호, 방정웅 부회장

한국 역사 및 문화 교육 표준화를 위한 교재 연구 보고 - 이상오 직전 회장

이중문화 속의 자녀 교육 - 전해성 교수

한국 문화에 표현된 한국인의 정신 및 마음 - Dr. Bruce Fulton

인터넷을 활용하는 한국 역사 문화 교육 - 황재기 학장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이중언어, 이중문화 배경의 중요성 - 민병갑 교수

SAT II 한국어 준비반 전문교사 양성 Workshop - 이선근, 이종숙, 김은경, 김석연

역사 문화 교재 연구팀의 발표(4학년-12학년용 : 역사 문화 교육 자료) - 전해성, Ann Song Baldwin

다양한 게임을 통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법 - 백경숙

노래와 율동을 통한 효과적인 수업진행 방법 - 이의순, 한인선

글쓰기 지도법 - 이영주, 김동식, 천세련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 전현자, 박명진, 허병렬

한국어 맞춤법 특강 -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 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수업 방법 - 정영희, 한미숙, 부영주

한국학교 Internet Homepage Design - 김정선

아동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2세 교육 - 정삼숙, 강용진

Korean-American 청소년을 위한 문학과 문화 역사 교수법 - 조은미

신문 해독을 돕기 위한 기초 한자 교수법 - 김정호

남북한 언어 비교 - 백지숙

역사 문화 교육과 병행하는 한국 무용 수업 시범 - 지태숙

춘극, 연극으로 하는 국어 공부 - 김경옥, 조향숙

교장 세미나 - 김경렬, 허병렬, 정원팔, 유재정, 남영림, 윤순철, 김경숙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한 퀴즈대회 운영 방법 - 이재봉

어휘력 향상을 위한 낱말 맞추기대회 시범 - 김은경

한국학교 행정 전산화를 위한 멀티 미디어 활용 - 나혜영

시청각 교육자료 전시

뮤지컬 '심청, 뉴욕에 오다' - 뉴욕 한국학교

Flash Card 이용 문자형태로 익히기 - 상향교육봉사원 한국학교(김정자)

한국어를 가장 쉽게 배우려면? 그림을 이용한 한국어 습득 - 북 버지니아 통합학교(김소윤)

**감사패 증정**- SAT II 한국어진흥재단(이사장 : 이삼량)이, 이광호 부회장(SAT II 한국어 담당)에게

**재외국민 교육유공자 교육부 장관 감사장 수여**

- 최은영, 서순희, 진이보스, 박호설, 나복희, 김화경, 서진희, 곽상준, 김현규, 김계송, 이승은, 설규원, 마봉옥, 이남희, 송정화, 이기현, 선우인호, 임윤용, 김인태, 이영자, 조은미, 손상숙, 임선자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25년 : 뉴욕 한국학교, 상향 한국학교

20년 : 뉴욕 진아 한국학교,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롱아일랜드 연합 한국학교

**장기 근속 교사 표창**

30년 : 허병렬

20년 : 송병옥, 지생련

15년 : 신선숙, 양정선, 천세련, 윤순철, 전현자

10년 : 김영록, 문혜원, 신의숙, 양민숙, 강미중, 박경혜, 방영희, 한인애, 이정옥, 한혜정, 심운섭, 박귀수

**9대 임원 선출**

회장 : 방정웅, 부회장 : 이광자, 임선자, 손창현, 총무 : 장동구, 재무 : 심운섭, 편집인 : 허병렬

**지역협의회 회장**

워싱턴지역 : 한광수

중서부지역 : 박규영

남서부지역 : 엄진용

콜로라도지역 : 정봉채

동북부지역 : 이광호

동남부지역 : 손창현

서북미지역 : 백경숙

하와이지역 : 이종익

뉴잉글랜드지역 : 최한길

플로리다지역 : 서진희

북가주지역 : 박경미

미시간지역 : 강용진

선출 이사(17명)

- 서문원, 박의현, 김근순, 이종숙, 임금진, 윤순철, 강경식, 함혜란, 남영림, 이상오, 황보철, 이휘자, 이광자, 이경이, 김정오, 김정태, 조동렬

감사 : 김정태, 이휘자

12.5-6.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 임원 연석회의 - Dalls, TX

## 1999년

1. 회보 발간(제9회기-1호)

4.17-18. 제3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222학교에서 3,633명 응시

준비위원장 : 이광자(SAT II 한국어 담당 부회장)

출제위원 : 이선근(위원장), 이광호, 조상련, 유순나, 소명선, 박혜숙, 방정웅(평가)

- 4.26. 인터넷 웹페이지 개발 - CD Tek과 계약
5. 회보 발간(제9회기-2호), NAKS 안내 Brochure 발간
6. 미국 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지원  
 Los Angeles High School(LA) - \$8,000  
 Granada Hills High School(LA) - \$5,000  
 John F. Kennedy High School(LA) - \$5,000
- 7.15. 미국 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지원  
 Federal Way School District(WA) - \$30,000  
 Fairfax High School - \$5,000
- 7.17. 한국어1권~4권 재판 발행  
 <한인교육연구> 제16호 발행  
 제17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발간
- 7.29-31. 1999년 제17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Harvey Hotel (Irving, TX)
- 주제 : 한국 고유의 창조성 재발견
- 한국인의 창조성과 그 현대적 의미 - 김상일 박사 (한신 대학교)
- 재외동포 교육지원 방향 - 유명규 (재외동포재단 교육부장)
- 한글 창제의 민족 문화사적 의미 - 심재기 박사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 이민자 철학과 민족 정체성 교육 - 윤인진 박사 (고려 대학교), 이종문 회장
- SAT II 한국어 특강 - 조상련, 이선근, 이광호
- 역사 문화 특강 - 노영찬, 박운순, 김기봉, 정광현, 박규영
- 국어의 문법 - 허철구
- 한국어 회화 지도법 - 이선근, 김근순, 안귀원
- 표준어와 표준발음 - 정희원
- 글짓기 지도 - 홍현이
- 협력학습을 활용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수 전략 - 이성은
- 쉽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 이경원
- 학습원리에 입각한 균형잡힌 한국어 교수법을 위하여 - 오계희
- 학생 중심의 고급 한국어 교육-Portfolio 방식 - 이해경
- 미국 공립학교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한국어 지도 - 임금진
- 그리기와 만들기를 통한 한국어 교육 - 장은경
- 한글 구조의 역사 및 수학적 고찰 - 김기항
- 한국의 전통 및 종교 - 노영찬
- 신라 과학기술의 비밀 - 함인영
- 슬라이드를 통한 한국의 역사 문화 교육 - 박운순
- 한국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민속공예 - 한순정
- 월남전쟁과 현대 한국사 - 박규영
- 문학을 통한 한국 문화와 역사 지도 - 조은미
- 서예 지도 - 최일단
- 한국무용 - 지태숙
- 탈춤추기 - 김경옥
- 동기유발의 이론과 실제 - 강용진
- 효과적 학습지도를 위한 아동발달 심리 이해 - 박화자
- Montessori 교육 방법을 이용한 수업 운영 - 정인애
- 구연동화의 실제 지도 방법 - 최희윤

인형극을 통한 유치반 지도 방법 - 이해연

고등반 학생 지도와 졸업반 지도 - 선우인호

한국학교의 한자교육 - 허병렬

효과적인 학급운영 방법 - 정삼숙

미국 중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사가 되는 길 - 구은희

재외동포 가상 모국체험 공간 - 신경오

교장 세미나 - 이광자

이민 1.5세 공개 토론 - 김대성, 조화영, 한종대

교육 자료 전시

한국학교의 문화교육을 돕는 자료, 한자교육 실천안 - 허병렬

**감사패 증정**- 최경수 직전 회장, 황보철 직전 이사장, 이삼량 SAT II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교육부장관 감사장 수상자:**

- 라성주, 최경숙, 육춘강, 신용창, 황병화, 이영주, 김정근, 김옥주, 이현주, 정숙자, 김석림, 윤태선, 김혜병, 오금옥, 황성미, 이주연, 김영호, 임춘수, 김대영, 유영진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25년 : 그린스보로 한글학교, 실리콘밸리 한국학교

20년 : 무궁화 한국학교, 롱아일랜드 장로교회 한국학교, 킬린 한국학교, 남부 뉴저지 한국학교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5년 : 최필남

20년 : 김주영, 최일단

15년 : 조영애, 김경애, 김혜자, 오금주, 유재정, 정복춘, 천취자, 조혜옥

10년 : 조동호, 이우향, 한미자, 유선, 이형천, 강신옥, 이현주, 김정자, 신용자, 장정훈, 장옥선, 장인숙, 성옥폴링, 권순주, 마봉옥, 장명옥, 조정자, 권현주, 유영진

12. 회보 발간(제9회기-3호)

## 2000년

1.29-30.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 임원 연석회의 - San Francisco, CA

4.29-30. 제4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204학교에서 3,310명 응시

출제위원 - 이선근, 김은경, 이종숙, 조상련, 박남경, 임혜경, 방정웅(평가)

5. 회보 발간(제9회기-4호)

5.24. Michael Yang, NetGeo회장 - CNET 주식 5000주 기증

- 교과서 개발 및 출판, Web 개발을 위함 : 당시 시가 5,000 x \$24.50 = \$122,500

Michael Yang Fund Committee 구성(이사회)

- 위원 : 이상오, 방정웅, 조동렬, 심운섭(재무/간사)

6. 한국어 VI, VII재판 발행

7. 이민 역사 및 한국 역사 문화 교과 단원(Module) 발간

7.17. <한인교육연구> 제17호 발행

제18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발간

**8.3-5. 2000년도 제18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Clarion Hotel (San Francisco, CA)**

주제 : 새 역사를 창조하는 교육 공동체

새 역사를 맞는 우리 자녀들이 가야할 길 - 신호범 박사(워싱턴주 상원의원)

표준어와 문화어의 비교 - 문양수 박사(서울대 어학연구소장)

훈민정음의 창제정신과 생성철학, 그리고 창제 이후의 역사인식 - 김석득 박사(한글학회 부회장)

SAT II 한국어 특강 - 이선근, 박남경, 조상련, 이광자, 허영주  
 역사 문화 특강 - 심운섭, 장태한, 노영찬, 김형찬, 정광현, 박온순, 신호범, Jacqueline Pak  
 한국어 문법 - 권재일, 김석득  
 초급반의 효과적인 한글 자모의 지도 - 전현자  
 몬테소리 교구를 이용한 유치반 한국어 교육 - 양승호  
 고학년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 이라미  
 한국어 회화 교수법 - 김근순  
 글짓기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 이재상  
 문학을 통한 한국어 교육 - 강희원  
 재미한인들의 역사의 의미와 활용 - 김형찬  
 Korean-American과 이민 공동체 - 장태한  
 한국의 온돌이 미국 건축에 미친 영향 - 민명기  
 어린이들을 위한 무용학습 방안 - 전설자  
 한국 무용 지도(소고놀이) - 정선자  
 비협조적이고 행동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도할까? - 김익창, 그레이스김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과정 중심의 쓰기 전략 - 이성은  
 영아반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 - 김현정  
 시청각 교재의 유형과 활용 - 김희선  
 Listening Comprehension의 향상을 위한 Video 교재의 중요성 - 김경국  
 학급신문 만들기 - 이영주  
 동화 읽어주기 동화구연 - 이상금, 홍정림  
 효과적인 수업 운영에 필요한 노래와 율동 - 정인애  
 한국어 교과서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 허병렬  
 날씨 - 심계숙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려는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학교 운영 방법 - 조현만, 조은미  
 컴퓨터 활용 방안 인터넷 - 김파울, 조산구  
 우수한 교사로서의 자세 및 지도 방향 - 이광자  
 미국학교 교육방법을 활용한 테마 중심의 한국어 교육 - 조상련  
 고등반 모델 수업 - 선우인호  
 교장 세미나 - 김경열  
 교육 자료 전시  
 한국문화 역사 지형 : 뉴욕 YWCA 한국학교

**감사패 증정** - Michael Yang(NetGeo Inc., Chariman)

#### 교육부장관 감사장 수상자

- 장옥선, 김동원, 박준일, 장은영, 정해천, 전소영, 한순정, 장정훈, 이경희, 허남자, 고묘희, 김경국, 강경희, 남일, 김재완, 이남, 김순애, 배수일, 김리사, 홍성희, 정원팔, 송춘성, 주옥임, 최장식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30년 : 워싱턴 통합 한인학교, 하와이 한인 사회학교

25년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0년 : 갈보리 무궁화 한국학교, 시카고 제일 연합감리교회 한국학교,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한글학교,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 장기 근속 표창

30년 : 김경열, 이경애

25년 : 윤정수

20년 : 김근숙, 김석희, 임영숙, 신선숙, 윤순철, 김근순

15년 : 리성주, 김계송, 이경희, 윤주태, 연문자, 장동구, 장영자, 정대용, 전설자, 유영열, 이경원

10년 : 안무실, 이명숙, 유신열, 고령영숙, 김순애, 정경애, 김원배, 정영희, 이남, 조은미, 권옥순, 유화자, 강순애, 오혜숙, 양재일, 이영란, 이승은, 이은림, 권순우, 이윤주, 송유옥, 박무희, 이문희, 이인애, 조윤옥, 심수목, 정선미, 고상순, 소아미

## 10대 임원 선출

회장 : 임선자, 부회장 : 김정태, 김근순, 강용진, 총무 : 심운섭, 재무 : 심수목, 편집인 : 허병렬

지역협의회 회장

|             |             |              |               |              |
|-------------|-------------|--------------|---------------|--------------|
| 워싱턴지역 : 김경열 | 중서부지역 : 최화섭 | 남서부지역 : 윤현중  | 하와이지역 : 손애자   | 동북부지역 : 김근순  |
| 동남부지역 : 정삼숙 | 서북미지역 : 이민노 | 콜로라도지역 : 최영웅 | 뉴잉글랜드지역 : 최한길 | 플로리다지역 : 정대용 |
| 북가주지역 : 권옥순 | 미시간지역 : 강용진 |              |               |              |

## 이사회 총회

이사장 : 이상오

부이사장 : 김홍준

총무 : 남경숙

선출 이사 : 1년 임기 - 이광자, 이종숙, 윤순철, 함혜란, 박규영, 정원팔

2년 임기 - 남영림, 장동구, 조동열, 이종익, 명계웅, 임금진

3년 임기 - 강화자, 유영미, 이형천, 이미옥, 남경숙, 김홍준, 서진희

선출 이사는 1회만 연임할 수 있고 연 회비는 \$300로 한다.

9.30. 동중부지역협의회(PA, DE, S. NJ) 창립(초대 회장 : 김정근)

11.11. 이민사 교과서 편집위원 구성

12. 회보 발간(제10회기-1호)

# 2001년

1.3.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 임원 연석회의 - Arlington, VA

4.21-22. 제5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187학교에서 3, 254명 응시

준비위원장 : 김 근순(SAT II 한국어 담당 부회장)

출제위원: 이선근, 김광자, 이종숙, 조상련, 김금옥, 박남경, 방정웅 (평가)

5. 회보 발간(제10회기-2호)

7.17. 한국어 첫걸음 개정판 출판

SAT II 한국어 예상문제집 발행 (편집인 : 이선근)

7. <한인교육연구> 제18호 발행

제19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및 강의를 발간

## 7.26-28. 2001년도 제19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Hyatt Regency Crystal City (Arlington, VA)

주제 : 새 천년의 한인학교

새 천년의 한인학교 - 앤젤라오 변호사

한글의 개성 - 이익섭 박사(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

SAT II 한국어 Workshop - 이선근, 이광자, 이종숙, 조상련

역사 문화 Workshop - 심운섭, 전혜성, 장태한, 최상준, 노영찬, Ross King, 김형찬

한글 맞춤법의 이해 - 이익섭

한국어의 소리와 맞춤법 어휘 교육 - 추미호

재미있는 한국어 교육 - 서용권  
 한국어 회화 교수 방법(발음 교정 중심 & 문형 연습 중심) - 이선근  
 비 정규 한국학교를 통한 한국어 교육 : 숲 속의 호수 - Ross King  
 한국어의 어미 한국어의 의문법 - 채완  
 글짓기 지도 - 신지혜  
 ESL의 원리를 이용한 한국어 지도 방안 - 심용휴  
 컴퓨터를 이용한 한국어 지도 방안 - 백은주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 차광순  
 붓글씨와 동양화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 신선숙  
 거문고와 한국 음악 - Esther Kim  
 한국 문학 작품과 문화 교육 - Heinz Insu Fenki  
 한국 무용 지도 - 전설자  
 매듭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 - 한순정  
 노래와 율동을 통한 수업 - 이의순  
 복합 문화, 해외 한인사회의 표준 한국어 연관성 - Ross King  
 재미있는 재미한인 인물 이야기 - 김형찬  
 세계 속의 한민족과 코리안 아메리칸의 사명 - 전해성, 장태한  
 Many Faces of Identity - 김원정  
 Round Table(7개반) - 강용진  
 새 천년의 한인학교 - 전신애, 강용진, 최인호, Michelle Rhee

**감사패 증정:** 방정웅 직전 회장, 서문원 직전 이사장, 정석구 주미대사관 교육관, 신영균 SAT II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감사장 수상자:** 이종문, 양민정, 이성욱, 최한길, 김수라, 이은태, 윤병남, 배기교, 강대희, 고가현자, 최석원, 정민호, 심용휴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25년 : 그린스보로 한국학교, 롱아일랜드 연합 한국학교, 샌엔토니오 한인학교

20년 :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콩코드 한국학교, 몬트레이 한국학교, 휴스턴 한인학교, 뉴올리언즈 한국학교, 달라스 한인학교, 힐로 하와이 한국어학교, 사모아 한글학교, 아틀란타 한국학교, 트라이앵글 한국학교, 오레곤 한국학교, 뉴욕 한빛 교회 한글학교, 워싱턴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5년 : 정삼숙, 최일단

20년 : 이의순, 김경숙, 강화자, 이해옥, 김진, 이인신

15년 : 백남숙, 박귀수, 김미경, 이광백, 정해천, 조신숙, 황오숙, 조종건, 김영희

10년 : 김혜병, 송해순, 우메리, 전명희, 정영로, 이연희, 김혜식, 장은영, 이근청, 최성신, 한순정, 이소영, 김정근, 김수경, 홍경애, 진재숙, 이광숙, 백종미, 장인렬, 김현경, 김봉현

12. 회보 발간(제10회기-3호)

## 2002년

2.16.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 임원 연석회의 - Philadelphia

4.27-28. 제6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211학교에서 3,750명 응시

출제위원 : 이선근, 박시원, 이광자, 이종숙, 이혜심, 임태혁, 방정웅(평가)

6. 회보 발간(제10회기-4호)

7. 한국어 I, II, V 교재 재판 출판

NAKS Brochure 발간

---

<한인교육연구> 제20호 발행(19호와 합본)

제20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및 강의를 발간

**7.18-20. 2002년도 제20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Hyatt Regency (Philadelphia, PA)**

주제 : 새 시대를 여는 교사

재외동포는 한민족의 자산 : 한민족 공동체 전략과 2세 교육 - 이광규 교수

지구촌 시대의 한민족 교육 철학과 방략 - 김신일 박사

한국어 문법의 특징 - 남기심 박사(국립국어연구원 원장)

지구촌 한민족 정체성 개발 심포지움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세계화 시대의 한민족의 정체성과 리더쉽 - 윤경로 박사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 본 한국인의 정체성 - 최준식 박사

21세기의 새로운 한국인의 상 - 김종순 박사

한국어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 박갑수 교수

한민족의 정체성 : 어제, 오늘, 내일 (종합) - 김신일 박사

재미한인교육진흥재단 창립총회 개최

SAT II 한국어 Workshop - 이선근, 이광자, 이종숙, 김근순, 방정웅

역사 문화 Workshop - 심운섭, Wayne Patterson, 이정식, 김형찬, 장태한

한국어의 어휘 한글 맞춤법 - 조남호

게임(ORDA)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 신경자

실생활에 필요한 말하기 연습 - 박온순

ESL 원리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 심용휴

재외동포 청소년 사이버 한국어 강좌 - 최정순

‘숲속의 호수’에서의 한국어 지도 방안 - 심은숙

한국어 문법 - 남 기심

한국 고전문학 지도 - 유영대

수화를 통한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 이의순

21세기의 한국어 교육 - 유명미

임문기의 한국어 교육 프로젝트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 박혜숙

효율적인 한국어 수업을 위한 교재구성 및 지도방안 - 박택

한국어 인증시험을 통한 지도 기준 - 이진호

효과적인 읽기 지도 - 신지혜

시청각 자료(영화)를 이용한 한국어 지도 - 이향순

도산과 재미교포사회에 준 그의 영향 - 김형찬

21세기 코리안 아메리칸의 역할과 한국학교 - 장태한

미국 속의 한인 이민 : 현대 한국 역사와의 연관성 - Wayne Patterson

이민사 교과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중급 및 초급 교과서 - 심운섭

이론과 실기를 함께 하는 문화 예술 교육 - 박소유

한국의 소리 - Esther Kim

한국 무용 - 지태숙

전산화를 통한 한국 전통문화 2세 교육 - 이영희

한국 전통문화와 판소리 - 유영대

한국 음악 - 진재숙

NAKS 출판 한국어 교과서 활용 방안 - 허병렬

세계속의 한민족 교육 - 임삼균(과테말라), 김무선(멕시코), 황유복(중국), 강영신(온두라스)

미국 공립학교 시설 사용에 관한 포럼 - 이광자

Shadow Box 만들기 - Theresa 한

Round Table - 강용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사장 : 서영훈)이 후원금 전달 (\$50,000)

####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감사장 수상자

장우진, 김경열, 김금숙, 이교연, 오금주, 이근청, 김현경, 변천우, 손애자, 황오숙, 김남석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30년 : 앤아버 한국학교,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25년 : 퀸즈 한인 천주교회 한국학교, 퀸즈 장로교회 한국학교

20년 : 원광 한국학교, 볼티모어 새싹 한국학교, 필라 제일 한국학교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35년 : 허병렬

30년 : 남영림

25년 : 오카타리나

20년 : 김정혜, 이령화, 김근선, 신선숙, 전수경, 이경이

15년 : 박소유, 이영선, 김경옥, 김진화, 배기교, 이인애, 김옥경, 주옥임, 레리코치, 장영자, 김광일, 신의숙, 노승석, 나복희, 최영숙, 채정민

10년 : 백은주, 백은옥, 이희만, 이우황, 신정혜, 배정화, 양승효, 박성민, 장선경, 옥경화, 유정선, 최정윤, 김경순, 윤문자, 김정자, 한숙영, 최윤수, 나경애, 최은영, 남학선, 박동순, 김금숙, 이주연, 허선미, 박수진, 이진선, 조미혜, 김용순, 남경숙, 허준영, 정숙자, 김석림, 정정자, 홍수연, 양남수, 김태훈, 최정화, 오금옥, 정소희, 김리사, 민명기, 이명은

#### 11대 임원 선출

회장 : 이광호

부회장 : 장동구, 남경숙, 심운섭, 총무 : 김정근, 재무 : 이경이, 편집인 : 이영주, 간사 : 이민노

#### 13개 지역협의회 회장

서북미지역 : 민명기    동북부지역 : 윤병남    워싱턴지역 : 이인애  
하와이지역 : 함영숙    동중부지역 : 김정근    뉴잉글랜드지역 : 이주연  
북가주지역 : 정해천    중서부지역 : 전명희    플로리다지역 : 김금숙  
동남부지역 : 정삼숙    남서부지역 : 손창현    미시간지역 : 심용휴

콜로리다지역 : 이시형

선출 이사

1년 임기(2001.9~2002.8) - 남영림, 장동구, 조동열, 이종익, 명계웅, 이경희

2년 임기(2001.9~2003.8) - 강화자, 이형천, 이미옥, 남경숙, 김홍준, 서진희

3년 임기(2001.9~2004.8) - 이광자, 윤병남, 이광호, 최한길, 최호승, 정원팔, 전수경

이사 선출(2002.9~2005.8) - 박경혜, 정영로, 이종익, 이경희, 김태훈, 권옥순, 이휘자

감사 - 정원팔, 이휘자

10. 코리안 아메리칸의 발자취(The Korean American Journey) 발행 (편집인: 심운섭)

11.9. 플로리다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이영주, 황현주, 이광호

## 2003년

1.15. 회보 발간(제11회기-1호)

2.1-2.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 임원 연석회의 - New York

각 지역협의회에서 추천된 우수 교사로 교사연수담당 상설 강사진을 구성해 각 지역 교사연수를 지원하기로 결의함.

3.15.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안승순, 이광호

4.26-27. 제7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209학교에서 3,509명 응시

준비위원장 : 남경숙

5.10. 회보 발간(제11회기-2호)

5.12.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교사 초청 간담회(New York)

6.6.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이력서철 발간

7.8. <한인교육연구> 제21호 발행(편집인: 이영주)

7.14. 제21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및 강의록 발간

**7.23-25. 2003년도 이민100주년 기념 제21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Hyatt Regency Hotel (Waikiki, HI)**

주제 : 다가올 100년과 차세대 교육

Orpheus Revisited - 신일희 박사(계명 대학교 총장)

세계를 향한 우리의 첫걸음 - 김창원 회장(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

한국 선비정신의 뿌리와 날개 - 이동희 박사 (서경 대학교 석좌교수)

1.5세 2세가 바라는 한국어 교육 - 김석영 변호사(1.5세)

SAT II 한국어 Workshop - 이선근, 이종숙, 남경숙, 방정웅

역사 문화 Workshop

하와이 이민사와 한국학교의 발자취 - 최영호

Moral Hazard 시대의 선비정신과 Leadership - 이동희

토론 ( 이민사 교과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발자취' 사용 경험 - 심운섭

시사를 통한 한국어 교육 - 한범희

학생 활동 중심의 초급 한국어 교육 - 안순승

퍼즐 낱말놀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 김정희

한국어 문법 특강 - 남기심

초급 한국어 수업 구성 방안 - 전종보

유치부 및 기초반 한글지도 - 이승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 김정숙

인터넷으로 배우는 한국어 - 이주영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특강 - 김희진

몬테소리 방법을 통한 한국어 교육 - 전호경

Computer를 중심으로 한 과제 중심 한국어 - 주혜리

ESL 교육 방법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 심용휴

쉽고 재미있는 한글 맞춤법 동요 - 김혜서

아동 교육 심리와 학습 진전 - 이진화

아동 지능발달에 입각한 학습지도 - 정삼숙

Mind Map을 이용한 효과적인 학습 - 정선미, 오세웅

한국 종이문화 전통과 계승 신나는 종이접기 놀이 - 한국종이접기협회(노영혜 회장 및 회원)

미술과 공작을 통한 유치부 교육 - 안리자

2세들에게 맞는 연극과 동화구연 - 최희윤

한국학교 어린이 무용 학습 방안 - 전설자

한국 전통음악의 우수성과 사물놀이 - 김에스더

하와이 토요 한국학교 교육과정 및 모형 - 김수아

효과적인 한국학교 운영 방법 - 심수목

NAKS 한국어 교과서 지도 및 사용법 - 허병렬

NAKS의 새 방향과 어제, 오늘, 내일 - 강경식 2대 회장 외 전 회장단

1.5세 2세가 바라는 한국학교 - 배재령 외 1.5세 교사들

미주 한인 교육의 방향 - 김왕복 교육관 외 각 지역 교육원장

**공로패 증정** - 임선자 직전 회장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감사장 수상자**

- 이선길, 한순용, 원재권, 이덕균, 전수경, 강용진, 최미영, 이민노, 이내원, 심형란, 신현주, 함영숙, 심수목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30년 : 뉴욕 한국학교, 상항 한국학교

25년 : 달라스 한인학교, 킬린 한국학교, 뉴저지 연합장로교회 한국학교, 뉴욕 YWCA 한국학교, 콩코드 한국학교, 로드아일랜드 한인 학교, 무궁화 한국학교, 콜럼버스 한국학교

20년 : 뉴욕 브로드웨이 한국학교, 뉴욕 로체스터 한국학교, 뉴저지 한국학교, 후러싱 제일교회 한국문화학교, 리치몬드 침례교회 한국학교, 산호세 제일교회 한국학교, 벅스카운티 한국학교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5년 : 송병옥

20년 : 백병주, 천취자, 이인신, 천세련, 전현자, 김경자, 김옥현, 김경숙, 여명자, 이희숙, 김소윤, 고영자

15년 : 이형천, 백종미, 이광숙, 장인렬, 한인애, 권옥순, 이정옥, 한명순, 전명희

10년 : 김이선, 이미경, 정미숙, 정미자, 조선옥, 손정희, 김금자, 김동현, 김이령, 김명희, 김정혜, 남충자, 백정화, 임봉선, 임옥경, 임은애, 홍영숙, 홍태명, 구은주, 김미, 최미영, 김숙완, 백지현, 안무실, 오숙자, 윤석영, 이영숙, 황수경, 김예영, 조점순, 윤혜순, 한정희, 신인숙, 이승숙, 신현주, 임삼균

차세대 교사위원회 구성 - 배재령 위원장 선출

이사회

이사장 : 최경수, 총무 : 심형란

모금 결산액 - \$15,553.67

3년 임기 이사 선출 (2003.9 ~ 2006.8): 정숙자, 오금옥, 이형천, 조사임, 김홍준, 신현주, 심형란

8.1.교과서 한국어 (재판 인쇄)

8.23. 중서부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최희윤

8.28. 대한민국 국회교육분과위원(위원장 : 윤영탁 의원) 대표단 9명 본 협의회 방문 : 환영 및 간담회

9.27. 콜로라도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안리자

10.25. 남서부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김정희, 이선근

11.1. 미시간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이선근

11.8. 플로리다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김근순, 전호경

12.5. 재외동포재단 이광규 이사장 본 협의회 방문 및 간담회

## 2004년

1.2. 회보 발간(제11회기-3호)

1.3.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전현자, 황현주

2.7-8.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 임원 연석회의 - Atlanta, GA

3.4. 허병렬 뉴욕한국학교 교장(제4대 회장) 제12회 KBS 해외동포상 수상 - 사회봉사부문

3.20. 워싱턴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천세련, 이광호

4.3. 미시간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김정희

4.24-25. 제8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209학교에서 3,761명 응시

출제위원 : 이선근, 조신숙, 태미경, 임태혁, 소영선, 방정웅(평가)

5.1. 회보 발간(제11회기-4호)

6.12. 북가주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조은미, 김혜서

6.26. 동북부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백은주, 전현자, 허병렬

7. <한인교육연구> 제22호 발행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연혁 정리(1980.12~2004.7) - 편집인 : 이광호  
- NAKS 23년의 간추린 역사를 <한인교육연구> 22호 부록으로 출판  
제22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및 강의를 발간  
한국어 (재판 발행)

**7.22-24. 2004년 제22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Atlanta Marriott (Gwinnett Place, GA)**

주제 :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의 확립

주제 강연 <이순신의 재발견과 한인 교육>

이수성 전 국무총리(전 서울 대학교 총장)

남기심 박사(국립국어연구원 원장)

이내원 이사(워싱턴 통합 한인학교)

성인숙 소장(통일정책연구소)

Dr. 송효섭(1.5세)

일본 및 몽골한국학교 교과과정 및 운영 - 김용만, 강영숙

멕시코 한인이민사를 통해 본 한국근대사 - 정광현

해외 한인동포 역사의 의미와 문화적 해석 - 김성규, 함성택

SAT II 한국어 특강

한국어 독해력과 듣기 부문 - 이선근

한국어 문법, 관용구 부문 - 조신숙

한국어 문법 - 남기심(국립국어연구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 이운영(국립국어연구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 - 김정숙(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 발행 교과서의 효과적인 지도법 - 국제교육진흥원

성공적인 중급 한국어 교육 - 주형미

컴퓨터를 활용하는 한국어 교육 - 백은주

한국어 집중 교육을 한 교과 과정 개발 - 심은숙, 이승연

Mind Map으로 한국어 잡기 - 정선미

학습교안 작성법 - 전현자

한국어 회화 교육 - 김근순

노래로 부르는 한국어 - 김혜서

재미있는 유치반 한국어 교육 - 안리자

알고보면 간단한 문법 교육 - 김수희

신나는 읽기수업 - 심정균

우리민족의 전통 사상과 예의 - 최영갑(성균관 대학교)

이중 문화속의 한국 역사 교육 전략 - 안미숙

한국의 전통차 - 이근수

한국 음악의 우수성과 사물놀이 - 김에스더

예술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 - 박소유

효과적인 문제아동 지도법 - 조은미

효과적인 학습지도를 위한 발달 심리의 이해 - 방화자

감성지능과 학습발달 - 안중식

활동영역별 유아 언어지도의 이론과 실제 - 변진영

이중 문화속에서 건강한 자아의 정체성 형성과 발달 - 조수진

바람직한 한국학교 운영과 관리 - 전수경

한국학교 행정 및 운영 - 허낭자

차세대의 한국학교 교육 - 배재령

21세기 NAKS의 새 방향 - 이광호, 최경수

토론 - 미주한국학교 교육 과정

토론 - 미주한국학교 지원 방향 - 미주교육원장

**감사패 증정** - 김왕복 주미대사관 교육관

**공로패 증정** - 이상오 직전 이사장

**대통령 표창** - 임선자 직전 회장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감사장 표창:**

정정자, 김종윤, 이계희, 안종식, 이복선, 박대진, 박무희, 정미자, 김응서, 김정수, 김옥현, 이시형, 강상철

**개교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30년 : 미네소타 한국학교, 실리콘 밸리 한국학교, 그린스보로 한국학교

25년 : 산호세 한국학교,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갈보리 한국학교, 트라이앵글 한국학교, 갈보리 무궁화 한국학교

20년 : 올림피아 한국학교, 오레곤 한국학교, 대건 한국학교, 하이랜드 한국학교, 렉싱턴 한국학교,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토요한인 학교, 뉴저지 한국학교, 뉴욕 웨체스터 한국학교, 앵커리 한글학교, 벨엘 한국학교, 뉴욕 한민 한국학교

**장기 근속 교사 표창**

30년 : 정길봉, 윤정수, 정삼숙, 최필남

25년 : 김근순

20년 : 김미경, 배영열, 함해란, 오금주

15년 : 성옥폴링, 박무희, 조영숙, 한선, 최승집, 심운섭, 박승애, 공영희, 문혜원, 이덕희, 박경혜, 조은미

10년 : 임영미, 강주선, 황인수, 황한나, Michael Augsburg, 유우정, 육춘강, 박향수, 권정아, 김영란, 김종윤, 김숙, 유남옥, 이미셀, 이미숙, 호선희, 박해란, 남종자, 허남자, 정황현, 이상현, 노명진, 김인숙, 박호성, 황정숙, 이정은 김순배, 계지홍, 박현경, 김미경, 박은혜, 송선미, 방화자, 한진숙, 김복숙, 박덕순, 원정희, 민미란, 남일

교육 자료 전시

9. 24-26. 업무 인수인계 회의, Washington, DC

## 2005년

1. 31. <회보> 제12권 1호 발행: 이영주 편집장

3. 15. 재미한인학교협의회 홈페이지 개통([www.naks.org](http://www.naks.org))

NAKS E-News 창간호 발송

7. <한인교육연구> 제23호 발행

제23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및 강의를 발간

**7. 21-23. 제23회 교육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Hyatt Regency Houston Airport (Houston, TX)**

주제: “차세대를 위한 올바른 정체성과 지도자 교육”

동시 개최: 제1회 전 미국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시사포럼: 민족정체성을 위한 동북아 정세 교육포럼

후 원: 교육인적자원부 · 재외동포재단 · 주미대사관 · 주휴스턴총영사관

문화특강 한국 종이문화의 전통 계승과 새로운 창조 - 한국종이접기협회 노영혜 명예회장

종이접기 교습 / 종이접기박사 자격증 과정 실습(한국종이접기협회 자격증부여) - 한국종이접기협회 강사진

문화특강 한국의 차: 정신과 표상 - 경희사이버대학교 이근수 부총장

역사특강 일본의 역사왜곡과 동북아의 평화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도현 교수

민속공연: 한국민속/창작무용공연 - 강원대학교 유옥재 교수/창작무용단

기조강연 세계화 시대의 보편적 가치와 한민족의 정체성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서영훈 이사장

주제강연 한국어의 특징 - 국립국어연구원 남기심 원장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역사와 문화 교육(조원석 국방외국어대학) 유치반 대상 한국어 교습법(이경애)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한글 기초(윤선미) 초급반 대상 한국어 교습법(신애리) 종이접기(종이접기협회)  
 2세들이 알아야 할 조선조의 문화와 사회(Dr. Kawashima) 문학을 통한 한국어 지도(안 진) 유치반 교육 장점만 배워가기(최신일)  
 한국어, 한국문화 잡기(정선미) 종이접기(종이접기협회)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어교육(김한샘 국립국어원)  
 Preparation을 위한 고급반 수업(정인숙) 재미있게 가르치는 한글 기초학습법(김지영) 노래를 통한 한글맞춤법교육(김혜서)  
 중급 한국어의 영역별 교수방법(김정선)  
 특강: 남상용 박사 (미시간 주립대학교 한국학설립추진위원장)  
 주제강연 재미 한인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방안- 한국어세계화재단 박영순 이사장  
 온라인 시연강의: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 온라인 시연 - 경희사이버대학교 방성원 교수  
 주제포럼: 민족정체성을 위한 동북아정세 교육 포럼 (동북아의 정세와 평화 · 일본 역사왜곡 · 독도문제 · 중국과 고구려역사)  
 Panel: 양미강 위원장, 한도현 교수, 양재성 교수  
 초급 한국어 교재 제작의 실제(전종보 국제교육진흥원) 통일문제의 이해(양재성 통일교육원) SATII 한국어 교육(조신숙)  
 전통음악 교육 사물놀이 장단(정유진) 음악을 이용한 한국어 교수법(구은희 국제문화대학)  
 한글을 통해 서재필 Mentorship 심어 주기(정홍택 서재필기념재단) 한자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서영희 국제교육진흥원)  
 시청각자료로 배우는 한국문화 유산(천세련) 한국학교의 역사교습법(강용진 Eastern Michigan U.)  
 Thinking Maps 이용한 한국어 교수법(Dr. Suzie Oh) 한국어 철자법 교육방안(김정숙 한국어세계화재단)  
 한중일 역사전쟁: 화해를 위한 모색(양미강)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한국어교육(정의철)  
 우리 자녀들의 정신건강(김은희) 한국무용의 기본 전수(유옥재 강원대)

**감사패 증정 :** 이광호 직전 회장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감사장 표창:**

차승남, 황인갑, 차승순, 김진모, 강남옥, 김혜서, 이현희, 정봉순, 김대용, 이시원, 차선희, 조사임, 남상용, 이태영

**개교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30년 : 워싱턴 통합한인학교, 하와이한인사회학교

25년 : 빛내리 한글학교, 달라스 한국학교, 은혜한국학교, 남부뉴저지한국학교, 로체스터 한국학교

20년 : 아틀란타 한국학교, 상항기독교한국학교, 잭슨빌 침례교회한국학교,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한국학교, 하와이 무량사 한글학교, 나일스 한국학교, 에리자비스 한국학교, 한마음 한국학교

**장기 근속 교사 표창**

35년 : 최영호, 김경열, 이경애 30년 : 최일단, 정삼숙 25년 : 김주영, 지생련, 백병주

20년 : 김석희, 김경옥, 전설자, 오화자, 이상무, 이경희, 이현희, 장동구

15년 : 심수목, 정선미, 이은림, 박수진, 정경애, 김순애, 선우 인호, 백정화, 배정화, 이우항, 이승은, 이명숙, 김리사, 미아게 하마꼬, 이문희

10년 : 강숙희, 이은주, 오기창, 황우정, 강상인, 정혜경, 김승희, 광성희, 김혜옥, 박인자, 임영숙, 김남석, 김대영, 김정선, 금외주, 윤미영, 김연희, 허해경, 이애경, 명정호, 신금순, 김미희, 고승복, 강주영, 전소영, 김채영, 윤영란, 박정연, 오영주, 임혜자, 지정란

교육 자료 전시

## 2006년

4.19-20. 제10회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전국 실시 (221학교에서 3,992명 응시)

7.20. <한인교육연구> 제23호 발행, 제24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강의록 발간

**7.20-22. 제24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장소: Hyatt Regency Tech Center, Denver, CO,**

주제: 세계속의 한류문화와 창조적인 정체성 교육

기조강연: 한글은 가장 이상적인 낱소리 글자 - 김계곤 한글학회회장

세계속의 한류문화와 창조적인 정체성교육 - 최기호 교수

한국의 정치사와 세종대왕의 리더십 - 정윤재 교수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과 우리 종이의 창조적 교육정책

전통한지와 한지 공예체험 -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  
 겨레그림(민화) 한지 부채수업 - 임지금  
 한류문화 속에서의 전통녹차의 미학 - 이근수 교수  
 어린이 조기교육 - 김윤선  
 놀이를 통한 한국어 수업 - 조진숙  
 노래를 통한 한국어 교육 - 김은애  
 한국어 수업 - 초급: 이은철, 중급: 신성자  
 한글교육의 효과적인 접근방법 (초급) - 이승숙  
 화닉스와 몬테소리 교육방법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입문) - 김인숙  
 몬테소리 교육방법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초/중급) - 이은미  
 통합적 학습방법을 통한 한국어 수업 (중급) - 박진민  
 어휘향상을 위한 수업 (중급) - 고영주  
 6하 원칙을 이용한 단계별 문장만들기 (초/중급) - 김승희  
 SATII 한국어 수업 - 정삼숙  
 차세대 한국어 교육 - 황정숙  
 한글맞춤법의 적용 - 김혜서  
 이중언어 학습자를 위한 Technology 활용 - 박 영  
 미주 한인 문학의 정체성 - 명계웅  
 한국어 특징 - 최용기  
 한국 언어문화 교육 - 이길원  
 한국어 어휘의 의미 관계 - 김문호  
 세계속의 한국 - 조원석  
 전통음악, 봉산탈춤 - 김은하  
 연극 및 구연동화 - 김지영  
 동양화 (사군자) 지도법 - 유영진  
 차세대의 한국학교 교육 (토론)  
 한류문화와 사이버 교육의 접촉 - 경희사이버 대학교  
 차세대 리더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 김진형  
 제2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참가자 15명: 13개 지역대표 및 해외2명  
 최우수상: 조윤정 (미시간 협의회 - 꿈을 심는 농부)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감사장 수상자**

- 김영희, 함정택, 조사임, 이선우, 이경애, 이은미, 김승희, 장이렬, 이인애, 박영실, 황우정, 문혜원, 오승호  
 개교 20주년 이상 한국학교  
 30년 - 뉴잉글랜드한국학교  
 25년 - 새크라멘토한국학교, 아틀란타한국학교, 새싹한국학교  
 20년 - 아틀란타 제일한국학교, 하트포드한국학교

#### **장기근속 교사 표창**

30년 - 김 진  
 25년 - 김석희, 손숙영, 이인신  
 20년 - 권옥순, 김영희, 박귀수, 장인렬, 정태천, 조진숙, 황오숙  
 15년 - 김미경, 김미수, 김혜병, 나계선, 문성록, 송해순, 유경숙, 이근형, 이미연, 조미혜, 최진선, Paul Favreau  
 10년 - 권태화, 김민정, 김은이, 김인숙, 김인애, 김정순, 노정희, 박경옥, 박선휘, 박윤경, 박현진, 서경주, 신성자, 심은정, 심혜승, 오소영, 유경화, 유미옥, 윤미아, 윤미자, 이경애, 이교연, 이시원, 이지혜, 정경용, 정옥희, 조미경, 진수연, 차문석, 한순용, 함범석, 허경숙

## 제24차 정기총회 - 제13대 임원 선출

총회장: 김정근, 부회장: 전수경, 권옥순, 이민노, 사무총장: 남일, 재 무: 심형란, 편집장: 심수목  
간사: 오선미 (홍보), 김진형 (웹마스터)

### 지역협의회 회장

|               |               |               |
|---------------|---------------|---------------|
| 서북미 협의회 - 오세영 | 뉴잉글랜드협의회 - 남일 | 동남부협의회 - 김수라  |
| 동중부협의회 - 이교연  | 동북부협의회 - 이승은  | 북가주협의회 - 최미영  |
| 남서부협의회 - 김동수  | 워싱턴협의회 - 김대영  | 중서부협의회 - 차승남  |
| 미시간협의회 - 심용휴  | 하와이협의회 - 팽현규  | 플로리다협의회 - 신현주 |
| 콜로라도협의회 - 이시형 |               |               |

### 이사회 총회: 제9대 이사장 선출

이사장: 김홍준, 부이사장: 이내원, 총무: 오금옥

3년 선출 이사

|           |          |           |          |
|-----------|----------|-----------|----------|
| 정해천(북가주)  | 오금옥(동남부) | 임승희(남서부)  | 함성택(중서부) |
| 김금숙(플로리다) | 김홍준(서북미) | 조사회(콜로라도) |          |

2년 임기이사 보선 - 문홍택(워싱턴)

1년 임기 이사 보선 - 이경희 (동북부)

## 2007년

2.17.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전국 임원, 이사회 임원 연석회의 - 필라델피아, 펜실바니아

7.4.21-22. 제11회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전국실시 (담당: 전수경 부회장), 214학교에서 4,000여명 응시,

7. 회보 제13권 1호 발간

7.8. <한인교육연구> 제25회 발행, 제25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강의록 발간

**8.2-4. 제25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580명 참석, 장소: Hyatt Regency Dearborn Hotel, MI

주제: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과 교사의 역할

기조강연: 박건우 경희사이버대학교 총장

이광규 교수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성공 - 차인홍 교수

독도문제 바른 이해, 바른 대응 - 최홍배교수

사물놀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 에스더 김

EBS 교육방송 콘텐츠의 활용가치와 그 방안 - 류현위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출제 및 평가 - 출제 및 평가위원

제1회 입양인 민족교육 - 21세기 한민족의 나아갈 길 - 신호범 위원

아이들이 지루하다고요? 천만에요 (기초) - 배한현

엄마 한국학교 가고 싶어요! - 김현희

이야기로 배우는 초급한국어 - 이성희

카드교육을 통한 학습지도 - 김성희

감각을 통한 체험학습 (유치) - 최덕희

효과적인한국어 교수법 (중급) - 김정균

중.고급반 글짓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활동 - 박선헌

미국학교 학습방법을 이용한 한국어 학급 - 배재형

한국어 교육 - 김옥순

인터넷 한국어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 최은규

효과 만점 수업이 재미 없을 수 있나? - 윤미자

창작표현 활동을 통한 한글 교육 - 신명숙  
 수업 구성 단계에 따른 한국어 교육 - 김재욱  
 교육 두뇌를 알고 기질을 알아야 교육 지킨다 - 권말순  
 열매 맺는 SATII 한국어 수업 - 박은경  
 선생님! 저도 시인이 되고 싶어요 - 김용환  
 제2 언어 습득이론과 한국어 교수활동 - 전미현  
 사용을 위한 문법교육의 원리와 실제 - 방성원  
 사이버를 통한 한국어 교육 - 진정란  
 어휘 교육 - 채보경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 이병규  
 iPod 세대를 위한 교육방법 및 리더쉽 - 최신일  
 공립학교 한국어 학점 인정과 한국어 신설 - 이광자  
 한국역사 및 문화교육 - 김주경  
 길과 믿음 - 정용철  
 한복과 전통인사예절 - 조연홍  
 글로벌 시대의 한국역사교육 - 김옥향  
 한국과 중국, 일본 '차' 문화의 이해 - 이근수

**공로패 증정:** 손창현 직전회장, 최경수 직전이사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감사장 수상자:**

류호생, 윤미아, 송해순, 배영열, 강숙희, 김원구, 장병진, 박귀수, 김 진, 김 현, 최윤수, 현규, 신옥연

**개교 20주년 이상 된 한인학교 표창**

35년 -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앤아버 한국학교  
 30년 - 시카고한국학교, 북부보스턴한국학교, 휴스턴한인학교, 킬린한국학교, 퀸즈한인천주교회한국학교,  
 롱아일랜드 연합한국학교, 그린스보로한국학교  
 25년 - 필라델피아 제일한국학교, 로체스터한국학교, 갈보리 무궁화한국학교, 요크 한국인 학교, 아이타스한국학교  
 20년 - 열린문 한국학교, 뉴비전한국학교, 산호세 제일교회한국학교, 필라델피아한국학교  
 포트워스 한인학교, 뉴저지한국학교, 한빛한글학교, 성김대건 한국학교

**장기근속 교사 표창**

40년 - 허병렬  
 30년 - 오카나리나  
 25년 - 이경이, 전수경, 이의순, 김근선, 윤은자, 박순애, 변재원  
 15년 - 김금자, 김미령, 이희만, 홍태영, 강숙희, 김진선, 김혜수, 박천유, 김헬렌  
 10년 - 곽현자, 김애경, 김창근, 윤현주, 김재숙, 심형란, 조진숙, 배재령, 김선비, 한숙영, 오미정, 이미숙, 이승희, 김윤희, 문혜은,  
 이수경, 주재연

제3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참가자 17명: 13개 지역협회 대표 및 해외 4명)

대상: 이재진 (북가주지역협의회) - 세상을 섬기는 세계 이장

**제25차 이사회 총회 및 정기총회**

현장개정 - NAKS회장을 총회장으로,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개정

회계년도 변경 - 9월1일 - 익년8월31일을 7월1일-익년6월30일로 개정

중서부지역 협의회를 분리하여 중남부지역협의회(인디애나, 캔터키, 오하이오주)를 신설하기로 함  
 (임시회장: 김용순)

선출이사 (3년임기) 선출 (Class of 2010)

이내원 (워싱턴), 이광호 (동북부), 함혜란 (뉴잉글랜드), 김성진 (중남부), 이호순 (플로리다)

정삼숙 (동남부), 심상연 (서북미), 홍태명 (동북부)

---

## 2008년

3.29-30. 제12회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전국실시,  
187 학교에서 3,077명 응시, SATII 한국어 예상문제집 재판인쇄 2,000부

5.10. 회보발행 제13권 1호

7.17. 제26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강의를 발행

**7.17-19. 제26차 한국학교 국제교육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장소: Sheraton Framingham Hotel, MA,**

주제: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 교사의 역할-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다중의 시대, 언어소통 기획 - 이상규 국립국어원 원장

놀이와 활동을 통한 한국어 지도 (기초) - 손현숙

초급한국어교수법: 말하기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 이해영

초급한국어 학습자 가르치기 - 이해영

효과적인 재활용과 확장활동의 예시 (초급) - 유주영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일과계획 및 운영방법 (기초) - 박선애

몬테소리교수법과 화닉스교육의 상승효과 (기초) - 김인숙

초급 및 이중언어반을 위한 ESL교육방식 - 최정화

한글 맞춤법의 실질적 적용 (중급) - 김정선

기초한자를 활용한 중급한국어 학습 - 박명희

기초한글교육 빠르고 쉽게 (4학년이상) - 황정숙

중급반의 효율적인 학습전략과 응용자료물 활용법 소개 - 김지영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과제중심 수업 (고급) - 박선희

노래로 배우는SATII 한국어 - 김혜서

학습도구를 이용한 어휘력 향상의 효과 - 이명진

한국어 교육의 실제 / 어휘교육에 대하여 - 조현용

한국어와 언어생활 - 이승재

특별활동을 통한 한글교육 - 정은애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수행평가의 종류와 활용방법 - 유솔아

한국어 사용과 Family Communication Pattern의 상호관계 - 전홍식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동기와 원리 - 최기호

한국학교의 역사교육과 교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 박찬미

세계 온라인 백과사전의 이순신 - 왜곡된 기술을 말한다 - 이내원

전통문화교육으로 문화정체성 키우기 - 김연정

우리 멋 한지공예 색지상자 만들기 - 최광숙

창의성을 키우는 종이접기 교육 - 한기순

중급한국어에서의 문화의 역할과 Cultural Literacy - 김정연

교장 및 학교운영자를 위한 Workshop - 이광호

사람을 얻기 위해 - 김영순

24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참가자 18명 (14개 지역대표 및 회외4명)

대상: 갈지연 (뉴질랜드) - 우리의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음식외교관

제2회 입양인 교육

주제: Korean Adopte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 Culture

Panelists: Seiwoong Uh, Kim Park Nelson, Maija Brown, Jennifer Kwon Dobbs, Hangtae Cho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감사장 수상자:**

고은자, 박경혜, 김동수, 이마리아, 김정수, 윤미자, 유선, 허준영, 김인숙, 이종은, 정운혜, 고영란, 유동란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인학교 표창**

35년: 뉴욕한국학교, 상향한국학교

30년: 무궁화한국학교, 롱아일랜드 연합한국학교, 산호세한국학교, 일리야나한국학교,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롱아일랜드 한인교회한국학교

25년: 제일연합감리교회한국학교, 뉴욕브로드웨이한국학교, 벅스카운티한국학교, 산호세 제일교회한국학교, 상향 기독교 한국 학교, 필라델피아한국학교, 달라스 한인학교 (달라스 캠퍼스, 갈랜드 캠퍼스)

20년: 달라스 한인학교 (케를튼 캠퍼스), 타코마한국학교, 보스톤한국학교, 헤브론한국학교, 게인스빌한국학교, 보스톤천주교한국학교

**장기근속 교사 표창**

30년: 김정수 25년: 천세련, 허권 20년: 장종철, 황희영, 이정옥, 영숙고령, 전명희, 김영선, 문혜원

15년: 이민노, 이명숙, 이영숙, 윤미자, 최미영, 현광순, 오영주, 박정연, 허준영, 권순우, 강말희, 김혜병, 정미숙, 이미경, 한숙영, 김금숙, 박동순, 신현주, 방정웅, 김대영, 신동환, 이은용, 이복란, 황정숙

10년: 이은경, 김보경, 안소현, 이선우, 한종은, 남혜영, 김호순, 심용휴, 오갑수, 송진영, 정연미, 윤경화, 인명희, 백지숙, 장중혁, 김정자, 장애신, 이신경, 이애숙, 백은옥

**제26차 정기총회 - 제14대 임원선출**

총회장: 이민노, 부회장: 김대영, 신현주, 남일, 사무총장: 정용철, 재무: 심형란, 편집장: 윤미자

간사: 오선미(홍보), 고은자(교육), 김진형(대외협력), 이지훈(웹관리)

이사회: 신임이사(3년임기) 선출 (Class of 2011)

손창현(남부), 조신숙(북가주), 문홍택(워싱턴), 심용휴(미시간), 전명희(중서부)

평현규(하와이), 심운섭(동북부), 김에스더(서북미), 전수경(동중부)

**지역협의회회장**

동남부 협의회 - 김수라

워싱턴 협의회 - 황오숙

뉴잉글랜드 협의회 - 오인식

플로리다 협의회 - 신현주

북가주 협의회 - 최미영

하와이 협의회 - 손애자

동북부 협의회 - 허남자

중서부 협의회 - 강상인

남서부 협의회 - 엄재윤

동중부 협의회 - 강남옥

콜로라도 협의회 - 조사임

미시간 협의회 - 강용진

서북미 협의회 - 최기선

중남부 협의회 - 김용순

**8.1. NAKS와 국립국어연구원 간 상호업무협정서 체결**

11.21-23.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전국임원, 이사회임원 연석회의 (Orlando, FL)

**2009년****1.8. NAKS와 (주)대교미주법인 간 상호업무협정서 체결**

3.12. 방화로 전소된 국보제1호 송례문 복원 성금전달, 문화유산국민 신탁측에 \$12,700

3.21-22. 제13회SATIII 한국어 모의고사 전국동시 실시 (담당: 김대영부회장), 207학교에서 2,972응시

4.10. 한국어 6재판 1,000권 인쇄

7.23. <한인교육연구> 제26호 발행, 제27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강의를 발행

**7.23-25. 제27차 한국학 교육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장소: Rosen Center Hotel, Orlando, FL,**

주제: 한민족 정체성 확립과 세계를 향한 인재교육

기조강연: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전용의 필요성 - 김승곤 한글학회 회장

한국어 교육과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 - 송향근 이중언어학회 회장

소수계 2세들의 정치, 사회적 아이덴티티 - 김동석 소장

국립국제연구원 Talk Program 소개 - 이택용 팀장

‘가나다’가 아니라 ‘아아어어’부터 (기초) - 이윤경  
 ‘나야 야, 한글!’ (유치) - 조은영  
 성장에 따른 학습에 도움주는 접근방법 (초급) - 김지영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재만들기 (기초) - 김인애  
 유치방의 효과적인 교재 활용과 적용 - 이희진  
 미술교육을 통한 창의력 개발 (초급) - 김기희  
 효과적인 기초/초급 학습방법 - 이경애  
 SATII 한국어반 지도는 이렇게 - 신에스더  
 효과적인 교수 및 교과적인 교수방법 (중. 고급) - 이영희  
 중급과정 한국어 교육의 실제적인 교육방법 - 육옥영  
 중급학생을 위한 수업활동과 자료개발 - 오보미  
 쓰기능력 향상을 위한 예상기법 활용 - 권순희  
 전통가락과 음악컨텐츠를 이용한 말하기 - 박지연  
 영화클립을 이용한 한국어 수업 - 이현규/이범  
 어문 규정 (1), (2) - 정호성  
 한국학교 연극의 방법 / 교육적인 효과 - 허병렬  
 우리 말의 말 접대법 - 김승곤  
 사진을 활용한 문형(문법) 교육 - 이현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 송향근  
 다양하고 복잡한 문형과 문법으로의 초대 - 원운경  
 전뇌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교육 - 설인숙  
 Wonderful Korean! It's Easy! - 김혜순  
 다양한 수업활동을 통한 효과적인 접근 - 황정숙  
 재미 가득, 흥미가득, 함께하는 즐거운 한글공부 - 윤주영  
 노래와 카드를 이용한 기초반 교육 - 김정희  
 유아를 위한 미술 치료과정 노하우 - 이유경  
 인성교육을 위한 말하기, 듣기 교육방안 - 권순희  
 고학년 교사들을 위한 현장경험 교수법 - 최춘자  
 한국전통무용 - 김에스더  
 2세대들에게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리기 - 박기태  
 영상교육을 통한 효과적인 역사교육 - 이 법  
 재미동포교육과 북한 이해 - 박기련  
 재미한인이 전개한 역사구현 운동의 의의 - 류승렬  
 보람과 성공을 부르는 종이접기 교육 - 한기선  
 통합두뇌개발 종이접기 놀이 - 신명숙  
 한국인의 우수성과 미래의 리더쉽 - 한재숙  
 주정부로부터 한국학교 인증받기 - 정삼숙  
 한국의 역사와 문화 - 2세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리자 - 박기태 반크사이버외교사절단 단장  
 우수한 우리종이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창조력을 위한 전략 -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  
 한민족 네트워크와 국가 브랜드 사업 - 이영주 한민족센터 기획팀장  
 차 덕 - 차로 얻는 놀라운 효능과 5미 - 이근수 교수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상의 미 - 이영희 미래문화 이사장  
 제5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18명 참가 (14개 지역대표 및 해외4명)  
 대상: 최지원 (남서부지역협의회) - 동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수의사

제3회 입양인 민족교육

Panelists: 김한국, Mrs. Kroeger, Annie Kroeger (소연), 김상호, 김인숙, 신현주

**공로패 증정: 김정근 직전총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문화 공로 표창장 수상자:** 이광호, 손창현, 김정근, 이민노

**국립국어원 원장 표창장 수상자**

김수라, 김대영, 남일, 신련주, 최미영, 손애자, 허낭자, 강상인, 엄재윤, 강남옥, 조사임, 김용순, 강용진, 최기선, 신옥연

**개교 20주년 이상 한인학교 표창**

30년 - 휴스턴 한인학교, 영락 한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트라이앵글한국학교, 갈보리 무궁화한국학교, 남부 뉴저지 한국학교

25년 - 뉴욕 한인한국학교, 뉴저지한국학교, 대건한국학교, 후러싱 제일교회 한국문화학교,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한국학교

20년 - 이스트베이 침례교회한국학교,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 한글학교, 천주교 산호세한국학교,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 한국학교, 영생한국학교,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한국학교

**장기근속교사 표창장 수상자**

35년 - 최필남, 김 진

30년 - 김근순

25년 - 배영렬, 이광호, 이희숙, 강신옥

20년 - 심운섭, 강숙희, 김윤수, 나경애, 유경숙, 이영준, 유 선

15년 - 유보은, 방화자, 최정화, 윤미아, 오금옥, 임은애, 이종숙, 허낭자, 백미아, 김은숙,

원수옥, 강남옥, 오미정, 김복숙, 임영숙, 황수경, 이승숙, 김대영, 황정숙, 김인숙, 김은진, 이지혜, 양재일

10년 - 장경선, 홍영옥, 임지현, 김정원, 장영숙, 윤정옥, 심승재, 이희옥, 임은천, 박기용,

심정균, 한애경, 황현주, 하금실, 김미선, 신경애, 엄정은, 김현미, 손용주, 고수지,

강옥향, 한광호, 하은자, 이선영, 이건영, 백금숙, 이선이, 김정애, 이희진, 김양선, 김미라

**이사회 총회 - 제10대 이사장 선출**

이사장 - 이내원, 부이사장 - 김수라, 총무이사 - 이호순

3년임기이사 선출 (Class of 2012)

정동구(북가주), 김수라(동남부), 김현길(워싱턴), 윤찬기(콜로라도), 우성관(중서부), 서영완(플로리다), 박귀수(서북미), 문성록(동중부)

8.19. 연합뉴스와 상호업무협정 체결, 열린 사이버 대학교와 산학협정 체결

10.9. 제28회 세종문화상 민족문화부문 단체상 (제4094호) 수상 - 상금 3천만원

11.21.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 임원, 이사회 임원 연석회의 - Seattle, WA

## 2010년

3.19-21 제14회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전국동시 실시 - 192학교에서 2,632명 응시

5.10. 회보 제14권 2호 발간

7.20. <한인교육연구> 제27호 발행, 제28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강의를 발간

**7.22-24. 제28차 한국학 국제교육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장소: Hyatt Regency Bellevue, WA,**

주제: 한국어/한국문화의 세계화와 한국학교 교사 전문성 향상

기조강연: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 - 이어령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

주제강연: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의 세계화 - 최기호 울산바타르대학총장

특강: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 김성규회장

제14회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평가 - 김대영 부회장 / 방정웅 위원장

우수한 우리 종이문화의 세계화와 문화 창조력을 위한 전략(3) - 노영혜 종이 문화재단 이사장

미국의 유대인 교육이 재외동포 교육에 주는 시사점 - 강성봉 편집국장

재외한국학교 지도자들을 위한 21세기 리더십 개발 - 주재은 박사 / 최익선 교수

한국학교에서의 국악놀이 마당: 김희진 전 국악놀이 연구소 팀장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국말과 글은 쉽지 않아요 - 이승숙  
 초급학습자를 위한 재미있는 교수법 - 김선정  
 아동초급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듣기 교수법 - 김선정  
 아동초급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쓰기 교수법 - 김선정  
 기초반에서 다루는 한국어와 한글의 특징 - 김진홍  
 기초과정 시청각교재를 활용한 재미있고 효과적인 한글교육 - 이유경  
 초급과정 모범수업 및 교수법 - 김명희  
 중급반 이상 학급에서 효과적인 글쓰기 지도 - 김선휘  
 SATII 한국어 교육 - 임태혁  
 효과적인 중급반 수업을 다양한 활동의 예 - 윤주영  
 중급 학습자를 위한 어휘와 문법 교수법 - 이해영  
 중급 학습자를 위한 말하기, 듣기 교수법 - 이해영  
 중급 학습자를 위한 읽기, 쓰기 교수법 - 이해영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및 문법교육 방법 - 김종섭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쓰기 교육방법 - 김종섭  
 노래와 수화를 통한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 이의순  
 얼씨구 한국어 지도 - 황세희  
 Craft와 교구를 이용한 한국어 지도 - 변연경  
 다문화사회 학습자를 위한 놀이 활용 한국어 수업 방안 - 임미성  
 통합교육을 통한 실제적인 한국어 교육 - 장미영  
 이중문화 가정의 자녀 어떻게 가르쳐야하나 - 황정숙  
 한국어 교사와 유머 활동, 의사소통교육 연구 - 이길원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적인 수업방법 - 김영선  
 한국어 맞춤법의 효율적인 한국어 수업 - 송향근  
 시조를 활용한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 - 임선규  
 종이접기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 김정자  
 동포2세를 위한 역사, 문화교재 '한국을 찾아라!' - 최미영  
 2세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제적인 한국역사, 문화교육 -정은경  
 한국학교에서의 국악놀이마당 - 김희진  
 종이접기 창조의 세계 - 송 석  
 전래놀이를 통한 문화교육 - 전설자  
 통합 두뇌개발 종이접기 놀이 - 엔지 문  
 우리아이의 죄를 알고 재능을 알아야 성공시킨다 - 권말순  
 교사들이 알아야 할 아동의 심리와 교육이론 - 강용진  
 글러벌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학교의 역할과 과제 - 주재은 / 최익선  
 고학년 반에서의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방법 및 예화 - 남상엄  
 한국학교교사의 자기 반 경영 선생님 CEO - 오금옥  
 동양사상에서 본 몸과 생명, 장수의 비결 - 이근수  
 꿈꾸는 아이 - 꿈을 키워주는 교사 - 인현미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보인다 - 김용환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중연구 프로그램  
 김재옥교수 - 국어학 개론, 문법교육론 1. 2., 한국어문법론 1. 2.  
 조현용교수 - 국어한개론 2, 한국어교수법 1.2., 한국어어휘론 1. 2.

송향근교수 -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어문규범 1.2.3.

제6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17명 참가 (14개 지역 대표 및 해외 3명)

대상: 이경미 (하와이지역협의회) - 나의 꿈은 고아원 원장님

제4회 한국계 성인 입양인 민족대회

주제: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뿌리는?/Who am I? What is My Identify?)

Panelists: 신호범박사, Hollee McGinnis, Tara Vanderwoude, Ardis Hendrix, 김인숙

**공로패 증정:** 김홍준 직전 이사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감사장 수상자:**

김영순, 오카타리나, 김신희, 이승숙, 김명숙, 김은혜, 윤찬기, 정다운, 정은경, 이미숙, 윤선미, 변재원

**개교20주년 이상된 한인학교 표창**

40년 - 워싱턴 통합한국학교 MD Campus, 하와이한인사회학교

35년 - 실리콘밸리한국학교, 타코마한국학교

30년 - 무궁화한국학교, 빛내리한국학교, 제일연합한국학교, 갈보리무궁화한국학교,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사모아한글학교, 로체스터한국학교

25년 - 타코마새생명한국학교, 리치몬드침례교회한국학교, 벤쿠버통합한국학교, 에리자베스한국학교, 무량사한글학교, 포틀랜드제일침례교회한국학교

20년 - 한인제일침례교회한글학교, 데이비스한국학교, 과테말라한국학교

**장기근속교사 표창장 수상자**

40년 - 이경애

30년 - 강화자, 백병주, 이의순,

25년 - 장동구, 정해천, 조신숙, 황희연

20년 - 권순우, 김리사, 도정숙, 민명기, 심수복, 이문희, 호선희, 홍태영

15년 - 곽현자, 김남석, 김미란, 김미희, 김민정, 김순란, 김채영, 백지숙, 성옥폴링, 유경화, 유문자, 유미옥, 윤영란, 이애경, 임영숙, 지정란, 한혜정, 황우정

10년 - 고영란, 권성타, 김경희, 김선경, 김선화, 김연정, 김영란, 김영순, 김효진, 남궁령, 박계옥, 박규흠, 박미영, 박진민, 박희정, 서수민, 서지혜, 송은주, 유경숙, 유명순, 이미영, 이미현, 이민정, 이순희, 이인영, 이현주, 이혜연, 임현찬, 정용철, 주춘옥, 천경주, 최장희, 허화진, 홍현이

**정기총회 - 제15대 임원 선출**

총회장: 심용휴, 부회장: 강상인, 강남옥, 최미영, 사무총장: 남상업, 재무: 오금옥, 편집장: 김인숙

간사: 심정균(홍보), 김에스더(문화), 이현진(웹)

지역협의회 회장

남서부협의회 - 정은애      뉴잉글랜드협의회 - 오인식

동남부협의회 - 김옥현      동북부협의회 - 고은자

동중부협의회 - 강남옥      미시간협의회 - 강용진

북가주협의회 - 최미영      서북미협의회 - 노옥남

워싱턴협의회 - 황오숙      중서부협의회 - 강상인

중남부협의회 - 김용순      콜로라도협의회 - 이시형

플로리다협의회 - 김 현      하와이협의회 - 손애자

**이사회 총회**

3년 임기 이사 선출 (Class of 2013)

이광호(동북부), 이호순(플로리다), 심상연(서북미), 강화자(동남부), 홍태명(동북부), 안승훈(중남부), 김대영(워싱턴), 남 일(뉴잉글랜드)

1년 임기 이사 보선 (Class of 2011)

이문형(워싱턴), 정다운(서북미), 오준석(미시간)

이내원이사장 선출이사 임기만료

- 헌장 제16조 다항에 의한 후임이사장 선출은 헌장제18조에 의해 선출하기로 함.

제11대 이사장 선출

이사장: 이광호, 부이사장: 장동구, 총부이사: 이호순

## 2011년

2. 11-12 지역협의회 회장, 집행부 임원 및 이사회 임원 연석회의

장소: Hayatt Regency San Francisco Ariport, CA

3.10 회보 제 15-1호 발행

3. 18-20 제 5회 SAT II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173개 학교에서 2,398명 응시

5.11 일본 쓰나미 이재민 구호 성금 (\$6,500) 주미일본대사관에 전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간담회 - 주미한국대사관

7.14 한인교육연구지 제 28호 발행

- 부록으로 NAKS 연혁 재정리(1980.12-2011.7 작성자: 이광호)

7.14 제 29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과 강의를 발행

### **7.14-16 제 29차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창립 30주년 기념)**

장소: Hayatt Regency San Francisco Ariport, CA

주제: 교육과정 확립과 교사 전문성을 향한 도약

기조강연: 이배용 국가 브랜드 위원회위원장

특강: 한국어 정책과 한국어 교육 - 권재일 박사

우리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윤경로 박사

전통 지혜지접기를 활용한 종이접기 창작 세계 -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

인재로 키우는 종이접기 영재교실 - 영재교육협회 강명옥 회장

30주년 심포지엄NAKS의 현재- 심용휴 재미한국학교협의회 15대 총회장

한국학교의 추억 및 NAKS 미래에 대한 제언 - 강지아 한국학교 졸업생

NAKS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및 교육과정 - 조성대 교수

NAKS의 미래를 위한 교육 생태계의 구축 - 김경근 교수

분반강의 (한국어):

미디어를 이용한 수준별 한국어 문화 교수법 - 전상이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모국어 활용에 관하여 - 김태성

언어학습 전략 사용을 통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학습법 - 박선애

한국어 어휘 교육: 의미망을 활용한 이야기 하기 - 신현숙

고양이를 부탁해 - 서경숙

재미와 교육이 넘쳐나는 한국학교 디자인하기 - 최신일

동북부협의회 한국어 교과과정 - 박찬미, 안순승, 이명진

영어권 교재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과 듣기 교육 - 이해영

인터넷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 임병준

한글학교 교육과정 - 김정숙

SAT II 한국어 - 방정웅, 강남옥

빅맥 신드롬 신세대를 위한 멀티미디어 한국어 발음 교육 프로그램 - 조덕현

초급 학습자의 화용 발달을 위한 교수 방안 - 정지영

말하기 수업 방안 - 임병준

National Standards for Koreana Language Learning and 5C - 조성대

시조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 엄선규  
 한민족 교육령의 동인과 그 승화 - 김경근  
 시조 1, 2 - 마크 피터슨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한 컴퓨터반 - 강주언  
 분반강의 (문화/역사)  
 역사수업의 준비와 진행 -강옥향  
 즐거운 한국의 역사와 문화 - 김혜서  
 UCC 작품활동 한국 역사와 문화 교육 방안의 모색 - 류승렬, 정정숙  
 풍속화에 나타난 한국의 전통놀이 - 전송배  
 마음 속에 새겨질 조상들의 정신, 독립운동 - 김현주  
 한국 민요 - 김오택  
 한국적인 주제와 다양한 재료 및 기법을 통한 미술활동 - 김성경  
 뮤지컬 동요와 동요를 통한 한글 발음 교정 - 배영란  
 종이접기로 배우는 재미있는 한글 공부 - 김정자  
 정있게, 색다르게, 그리고 즐리지 않게 진행하는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모음 - 오정선미  
 종이문화재단- 온 가족이 함께하는 종이문화 - 하진희  
 백범 김구와 리더십 교육 - 이성윤  
 종이문화재단 - 감성 쏙! 창의 쏙! - 강명옥  
 왜곡된 상고사의 고찰 - 이문형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중연구 프로그램:  
 방성원(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문법 교수론 1. 2. 한국어 교수법 1. 2.  
 김정숙(고려대학교): 한국어 문법론 1. 2.  
 이해영(이화여자대학교): 화용론 1. 2.  
 이승재 언어정보팀장: 한국어 어문규범 1. 2. 한국학 개론 1.2.  
 제 1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백범상: 정안젤라)  
 제 1회 한국 역사 문화 교사 퀴즈대회  
 제 5회 입양아 한인교육 심포지엄  
 주제: 한인 입양아를 위한 다양한 한인교육 프로그램 소개  
 Panelists: 김에스더, 김선미, 이현진, 이은재, 김인숙  
 제 7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6명 참가자 중 해외 2명, 국내 4명 (콰테말라, 콜로라도, 뉴잉글랜드, 뉴질랜드, 북가주, 워싱턴)  
**공포패 증정:** 이민노 직전 총회장, 이내원 직전 이사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감사장 수상자:**  
 김명희, 안성란, 최연식, 김정자, 김윤희, 강정인, 김미경, 한희영, 김선미, 남상엽, 배순영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인학교 표창**  
 40년: 앤아이버한국학교  
 35년:스태튼아일랜드한국학교, 킬린한국학교  
 30년: 뉴올리언즈한국학교, 콩코드한국학교, 벅스카운티한국학교, 디트로이트한국문화학교, 애틀랜타한국학교, 잭슨빌토요한국학교  
 25년: 클리블랜드한국학교, 리하이벨리한국학교, 빛의나라한국학교, 뉴저지연합장로교회한국학교, 성김대건한국학교,  
 델라웨어한국학교  
 20년: 포코노한국학교,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한국학교, 사랑한국학교, 트론티한국학교, 소노마카운티한국학교, 북가주세종  
 한국학교

## 장기근속교사 표창장 수상자

45년: 허병렬

35년: 정삼숙

25년: 이광숙, 황오숙, 전설자

20년: 문성록, 선우인호, 오정선미, 김정미, 송지은, 장은영, 김용순

15년: 김정자, 서경주, 박원교, 박현지, 강혜옥, 조은재, 김진명, 김윤희, 심정균, 신성자, 오소영, 유명숙

10년: 이소연, 박미정, 신혜경, 강옥향, 박성심, 전숙희, 신종해, 안순승, 김수미, 이인경, 박동진, 양현숙, 김인숙, 윤은남, 정혜숙, 한희영, 안명혜, 이정현, 황현식, 이주연, 유명희, 유명렬, 박윤정

12. 1 회보 제 15-2호 발행

## 2012년

2. 11-12 지역협의회 회장, 집행부 임원 및 이사회 임원 연석회의

장소: Hyatt Regency Reston, VA

3. 23-25 제 16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179개 학교에서 2,235명 응시

4. 1 회보 제 15-3호 발행

6.7 상설강사 목록 발행

7.26 회보 제 15-4호 발행 (NAKS 30년 기념 화보)

7.26 표준교과과정 발행

7.26 한인교육연구 제 29호 발행

7.26 제 30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과 강의록 발행

### 7.26-7.29 제 30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장소: Hyatt Regency Reston, VA

주제: NAKS 학술대회 30년의 교육적 성과와 미래의 방향

기조 강연: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한국학교의 역할 -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강: 글로벌 시대의 교육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 수지오 박사

일기예보를 활용한 어휘 및 문법의 효과적 교수 방안 - 송향근

수업준비 시간은 절반으로, 교육효과는 두배로? - 정안넬라

배짱이 학생(?)과 개미 교사의 토요 데이트 - 황희연

한국학교 교사의 역할과 책임 - 변수용

이륙을 순탄하게: 가장 쉬운 한글 기초 읽기 지도법 - 이창남

딸 바보와 만들어 보는 이야기 대회 - 석재혁

재미있게 공부하는 맞춤형 수업 - 염혜정

화용론으로의 초대 - 이해영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 - 이현주

한국어 능력시험의 이해와 발전 방향 - 안정현

비교문화로서 한국 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 연구 - 설인숙

미국에서 자라나는 2세 및 입양아들에게 미치는 전통문화예술 교육과 활용 방법 - 최지연

자아정체성 및 사회 정서 발달의 중요성 - 황은진

고정관념이란 옷을 벗자, 역사 공부를 위해서! - 방진호

한국어 교사의 특성과 자질 - 이관식

이중언어 과정의 재미있는 한국어 수업 만들기 - 안은숙

선생님, 이런 수업 어때요? - 김정선

Make Your Own Wave :한류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분석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수법 - 신미나

재미교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읽기 텍스트 활용 방안 - 정미경  
 한국 교과서에 실린 만화 이야기 - 황중환  
 과제(Task) 중심 학습 활동과 활동지 제작 - 조은영  
 초짜 교사들을 위한 학생 다루기 대작전 - 송아리  
 파워포인트 전자책을 활용한 한글 교육 - 박용준  
 종이접기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 한기선  
 한국어 어문 규정 - 김세중  
 제 3의 아이들: 내가 어디에 속하고 나를 어떻게 표현하지? - 정정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 류선숙  
 영어 화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 변우영  
 한국을 재미있게 알리자 - 김호산  
 훈민정음의 체계 및 제작 원리 - 육효창  
 SP 2-3 교실에서의 한국어 능력 평가 - 이정희  
 한국 문화 삼천년 비밀을 나도 과학적으로 풀어본다 - 이충시  
 즐겁고 행복한 종이접기 놀이 - 유진선  
 30년간의 한글교육 경험으로 알기쉽게 가르치는 노하우 - 김소윤  
 NAKS 표준교과과정(1) 제시 및 활용을 위하여:  
 입문, 기초, 초급 - 이승숙, 오승연, 이명진  
 NAKS 표준교과과정(2) 제시 및 활용을 위하여:  
 중급, 고급 - 오정선미, 강주언  
 세미나: 한국문화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조현용  
 교장 세미나: 움직이는 한국학교 - 한희영 팀  
 함께 성장하는 한국학교 - 각 한국학교 교장  
 한국어 3급 교원양성 과정 및 자격 시험 - 송향근, 육효창  
 낙스의 과거, 현재, 미래 - 전, 현직 총회장, 이사장, 지역협의회 회장  
 재외동포이사장과의 만남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중연수 (한국어 3급 교원 양성)  
 한국어 문화 교육론 - 김세중 교수  
 한국어 말하기 교육론 - 이해영 교수  
 한국어 음운론 - 송향근 교수  
 한국어 스기 교육론 - 조태린 교수  
 한국어 어휘 교육론 - 이관식 교수  
 한국어 발음 교육론 - 육효창 교수  
 한국교육 정책론 - 조태린 교수  
 한국어의 어제와 오늘 - 김세중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 단장  
 미국의 한반도 정책 - 이채진 교수  
 한국학교 입양아 교육 - Steve Morrison  
 제 16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평가 - 방정웅 평가위원장  
 우수한 우리의 종이 문화, 종이접기 세계화 전략 -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  
 전통 고깔접기를 활용한 창작품의 세계, 인재로 키우는 종이접기 영재교실 - 강명옥 회장 외  
 제 8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 참가자 8명 (동영상 예선 심사 통과자)  
 제 2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백범상: 류예주 - 북가주협의회)  
 제 2회 한국 역사, 문화 교사 퀴즈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교육유공자 표창: 김홍준 전 이사장**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감사장 수상자

엄재윤, 김희몽, 서문원, 이현규, 한광호, 조정복, 황희연, 노옥남, 이영미, 이영준, 이점숙, 서영완, 구정희

## 개교 20주년 이상 한국학교 표창 (개교 35년 이상은 재외동포재단 상)

40년: 디트로이트세종학교, 퀸즈한인교회한글성경학교

35년: 북부보스턴한국학교, 성바오로정하상한국학교, 뉴잉글랜드한국학교

30년: 오레곤한국학교, 뉴욕원광한국학교, 산호세제이교회한국학교, 달라스한국학교, 캔사스시티한국학교, 뉴올리언즈한국학교, 로 드아일랜드한국학교

25년: 보스톤천주교한국학교, 아이타스카한국학교, 뉴비전한국학교, 포트워스한국학교, 블랙스버그한글학교

20년: 무궁화한국학교, 성김대건한국학교(북가주), 버몬트한국학교, 세미한한국학교

## 장기근속 교사 표창장 수상자 (장기 근속 25년 이상은 재외동포재단 상)

35년: 박승애, 오키타리나

30년: 이경이, 전수경

25년: 나경애, 박귀수, 이종숙, 장인렬

20년: 김경옥, 김근자, 김민정, 명정호, 민미란, 배정화, 백은옥, 송해순, 양보은, 이지혜, 정미숙, 조영애, 최미영, 한숙영

15년: 강명화, 김선미, 김숙희, 남궁령, 남혜영, 명성진, 윤미영, 윤수연, 윤은남, 이경애, 이연미, 이영미, 이영복, 이은경, 이희진, 장인숙

10년: 곽미숙, 김경아, 김경섭, 김봉구, 김성미, 김애경, 김은혜, 김태자, 류인숙, 문경숙, 서진섭, 안정옥, 유은수, 이명원, 이복선, 이영희, 이인숙, 이치정, 이해영, 이희성, 임성수, 임종각, 전선, 최명주, 최지애, 최진하, 팽현규, 홍미선, 홍소영, 홍영자, 황문옥

## 정기 이사회 결의 사항

선출이사 수 재조정 - 지난 4년 (2009-2012)동안 지역협의회가 NAKS에 납부한 회비에 근거하여 학교 수 순위를 정하여 3명 (3협의회), 2명 (5협의회), 1명(6협의회)을 발표하고 시행하다.

3명 - 동북부, 동남부, 워싱턴

2명 - 서북미, 북가주, 남서부, 플로리다, 동중부

1명 - 중서부, 미시간, 중남부, 뉴잉글랜드, 하와이, 콜로라도

## 제 30차 정기총회 - 제 16대 임원 선출

총회장: 강용진

부회장: 문윤희, 선우인호, 강남옥

사무총장: 김선미(전반기)

재무: 송지은(전반기), 한순용(후반기)

간사: 노옥남 (교육), 김금자 (홍보), 이정현 (일반-전반기)

## 지역협의회 회장

남서부: 김윤희      뉴잉글랜드: 윤미자      동남부: 선우인호

동북부: 문윤희      동중부: 한광호      미시간: 오준석

북가주: 이정옥      서북미: 정다운      워싱턴: 이승민

중남부: 김용순      중서부: 명계웅      콜로라도: 유미순

플로리다: 김현      하와이: 손애자

8/31-9/2 집행부 임원과 지역협의회 회장 회의 (장소: 시카고)

## 2013년

1/11- 1/13 지역협의회 회장, 집행부 임원 및 이사회 임원 연석회의 (장소: Atlanta, GA)

3/15-3/17 제 17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171개 학교에서 2, 263명 응시

7.18-19 정기 이사회 - 제 11대 이사장 선출

이사장: 장동구      부이사장: 김대영      총무이사: 김미경

7.18 제 31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강의록 발행

### 7.18-20 제 31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장소: Hilton Hawaiian Village, Hawaii

주제: 이민 110년과 한국학교

특강: 손호민 교수, 민현식 교수, 김준길 교수, 이덕희 환경계획가

스터디코리언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 김재욱

외국어 학습 기준과 그 함의 - 공동관

게임으로 한국어를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 - 남금희

광고 매체를 활용한 한자와 한자 어휘의 효과적 교수 - 한연성

한국어 어휘에서 일기까지 - 최영환

한국어 발음의 이해 - 전상이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트라이앵글 교육 - 김경선

한국어 문법 - 조사와 어미의 용법 - 남기심

한국 영화를 이용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 전상이

다양한 외국어 교수법과 방법론 및 한국어 교수법 - 공동관

시 교육의 이론과 실제 - 김정우

재미동포 아동의 특성과 한국어 학습동기 부여 방안 - 이정희

누리세종학당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 최영민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법: 심리학적 접근 - 송용주

현장 학습과 창작 활동을 통해 얻는 교육 효과 - 김소윤

유치반 교육 과정 설정과 교재 개발 및 활용 - 최희정, 이해영

초급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한국어 문법 교수 - 육효창

영어권 화자를 위한 한자 교육 방법 - 김동민

한국어 어휘 교육의 실제 - 조현용

한국어 읽기 교수법 - 김재욱

온라인 한국어 교육 콘텐츠 - 남은경

함께 하는 역사 학습 (뉴저지한국학교 역사문화 연구회) - 황현주

Smart Lesson Planning - 이지은

대화분석을 바탕으로 한 말하기 교수법 - 박미정

통합발달 창조교육, 즐거운 종이접기 놀이학교 - 한기선

라운드테이블

-강영순 교육부 국제협력관과의 대화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의 대화

-송향근 세종학당 이사장과의 대화

-이기봉 교육관과의 대화

-한국학교 운영: 남일

-기금 조성: 이광호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중연수

한국어 문법론: 육효창 교수

한국어학 개론: 조현용 교수

한국어 교수법: 이정희 교수

어문 규범: 정희원 교수

화용론: 최영환 교수

목요일 특강

컴퓨터 워크숍 - 수업용 이미지 편집 및 활용 - 박미정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평가분석과 학습활용 - 방정웅  
 우수한 우리의 종이문화, 종이접기 세계화 전략 - 노영혜  
 한글로 배우는 종이접기 - 강명옥  
 판소리란 무엇인가? - 임진택  
 제9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 각 지역협의회 대표 14명 발표  
 모든 참가자 에게 리더십 프로그램 진행  
 제 3회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대회 시상 (백범상: 김정환-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공로패 증정:** 심용휴 직전 총회장

####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상자

허화진, 추은경, 오준석, 김경옥, 정미숙, 방명옥, 박은경, 구교성, 이현경, 유경화, 김경선

#### 개교 20주년 이상 한국학교 표창

40년: 상향한국학교, 뉴욕한국학교, 하와이한인사회학교  
 35년: 빛내리한글학교, 칼라마주한국학교, 사모아한글학교, 맨해튼한국학교, 리하이벨리한국학교, 필라임마누엘한국학교, 앵커리지 한국학교, 잭슨빌제일침례교회 아띠한국학교, 대건한국학교  
 25년: 보스톤한국학교, 제일한국학교, 워싱턴지혜한국학교, 열린문한국학교  
 20년: 필라한인연합교회 연합한국학교, 톨리도한국학교, 성김대건한국학교, 비버튼한국학교, 올랜도푸른동한국학교, 솔미한국학교, 가나안한국학교

#### 장기근속 교사 표창장 수상자:

40년: 김진 30년: 김소윤  
 25년: 김영선, 이정옥, 데이빗 김, 영숙고령  
 20년: 김미령, 김윤희, 김혜병, 허정열, 현광순, 박동순, 신현주, 이현희, 이미숙, 유경화, 박안젤라, 이윤향  
 15년: 홍승희, 최장희, 서지혜, 인명희, 한종은, 추성희, 이승민, 이현애, 이호순, 김옥심, 황우정  
 10년: 김신근, 정재원, 김은아, 이은경, 홍미경, 이은경, 윤재영, 김현, 김윤영, 이윤정, 홍혜정, 이근옥, 안희경, 오재원, 조경선, 구애란, 김현정, 이나경, 한연성, 김아영, 김미애, 진주연, 이승연, 김세환, 오정례, 이찬임, 이종은, 김춘자, 케티스즈키, 이진숙

## 2014 년

‘바른 한국어’를 사용한 플립러닝 - 김정은  
 2.15-16 지역협의회 회장, 집행부 임원 및 이사회 임원 연석회의  
 장소: Indianapolis, IN  
 제 18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147개교에서 2,046명 응시  
 2014 7.3 제 32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강의를 발행

#### 7. 3- 7. 5 제 32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장소: JW Marriott Hotel, Indianapolis, IN  
 주제: 봉사과 전문성 (Volunteerism & Professionalism)  
 주제 강연: 공감과 소통의 동반 성장 - 정운찬 동반경제성장연구소 이사장(제 40대 국무총리)  
 목요일 특강:  
 시조와 시조 지도에 대해서 - 마크 피터슨 교수  
 톡톡 흥미진진, 생각과 마음을 키우는 한국어 수업 - 강용철 교사  
 국어의 특수 구문 - 남기심 교수  
 분반 강의  
 Korean - American 청소년의 정신 건강 - 김영신

맞춤형 한국 역사 - 문화 교육 - 최미영 외  
 미국 내 한국학교 교사들의 오류 피드백 의식과 활용 - 신혜영  
 한국학교 교사들이 알아야 할 한국어 교과과정 - taltdals  
 ‘아 야 어 여’에서 프리젠테이션까지 - 김태웅  
 한국어 교육용 부교재 제작과 활용 - 김재욱  
 국어교수법과 수업사례 - 강용철  
 Teacher's Role in learning Community - 김묘영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교안 작성법 - 초급을 중심으로- 강주언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빨리 한글 배우기 - 권준희  
 마술과 함께 하는 신나는 한글 수업: 학습동기 중심 - 김택수  
 읽기 교재 구성론 - 최영환  
 생태학과 인간발달 관계: 환경과 문화, 교육의 연관성 - 양유진  
 한국어 교과서 이해와 활용 방법 - 심상민  
 흥미를 유발하는 한국어 수업 교실을 만들자! - 나경애  
 한글공부 이렇게 했어요- 이중모음 수업 발표 - 김미경  
 재미 한인 문학에 담겨있는 전통문화와 역사 - 한지은, 명계웅  
 즐거운 한국어 수업을 위한 31가지 교실활동 - 전하나  
 교육평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성공사례 - 유은현  
 종이접기 북아트 수업지도안 - 한기선  
 이야기 마술을 통한 즐거운 한글 수업: 한국 문화, 한국사 중심 - 김택수  
 우리학교에서 바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한글교육 워크숍 - 유은현  
 유치원 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Mr. Froebel에 대한 회고 - 박용준  
 비전공자 교사의 한국 역사와 문화 가르치기 - 최연미  
 컴퓨터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 이경희  
 신나는 글쓰기, 살아있는 글쓰기 - 이윤경  
 미시간협의회 역사문화 교안 개발 - 김선미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 설인숙  
 우리 아이 자존감 향상시키기 - 장정은  
 한국학교의 교수자 여건 및 전문성 확보 방안 연구 - 신혜영  
 전통 책 제본 및 응용 - 권준희, 구희경  
 스터디코리언 학습지도안 공모전 수상자 발표 1&2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보고 및 패널토의  
 라운드테이블  
 -정운찬 전 총리와의 대화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의 대화  
 -강용철 선생님과과의 대화  
 -시조 지도에 관해서: 피터슨 교수와의 대화  
 -교육관, 교육원장들과의 대화  
 -김택수 선생님과과의 대화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중연수  
 김선철(국립국어원) - 한국어 어문규범의 이해 및 실제, 한국어 음운론과 발음교육  
 최경환(경인교대) - 한국어 이해교육론, 한국어 이해교육의 실제,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어 문법교육의 실제  
 김재욱(외국어대)- 한국어 표현교육론 (말하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듣기 교육이 이론과 실제)  
 한국 문화 이해 (한국인의 가치관과 정서)

제 10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 각 지역협의회 대표 14명 발표

제 4회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시상식 (백범상: 김진하 - 북가주협의회)

### 공로패 증정: 이광호 직전 이사장

####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상자:

김미숙, 김세환, 김정숙, 박동순, 박윤정, 오은현, 추성희, 유미옥, 윤제인, 장인숙, 조은재, 한송희

#### 국립국어원 원장 표창장 수상자:

고영란, 문윤희, 선우인호, 오준석, 윤미자, 장은영, 한광호

#### 개교 20년 이상 한글/한국학교 표창

40년: 그린스보로한국학교

35년: 클리블랜드 한인중앙장로교회한국학교, 콜럼버스한국학교, 롱아일랜드한국학교, 로드아일랜드한인학교, 갈보리무궁화한국학교, 트라이앵글한국학교, 데이튼한국학교

30년: 웨이트빌한국학교, 베다니한국문화학교, 렉싱턴한국학교, 클리블랜드한국학교, 맨해튼한국학교, 리치몬드교회한국학교, 인디애나주블루밍턴한국학교, 뱌엘한국학교

25년: 신시내티한인장로교회한국학교, 한소망한국학교, 어스틴한국학교, 퍼듀한인장로교회한국학교, 보스톤천주교한국학교, 포코노한국학교, 영생한국학교

20년: 셋별한국학교, 북알라바마한국학교, 루이빌한국학교, 토피카한국학교, 몬트레이한국학교

#### 장기 근속 교사 표창장 수상자

30년: 이광호, 이명진, 최영옥

25년: 문혜원, 문성록, 유경숙, 나경애, 김옥경

20년: 남일, 정운혜, 황정숙, 서미숙, 강남옥, 이승숙, 이경은, 김금숙

15년: 윤정옥, 심승재, 박희정, 김귀희, 한애경, 황현주, 박기용, 이신경, 김정선, 송경옥, 조은재, 노정희, 심은정

10년: 강혜정, 김선희, 윤경희, 신은경, 정재희, 김미희, 김윤주, 이명진, 이희경, 서수인, 홍지애, 강현정, 안희경, 정인경, 노옥남, 김미선, 정동순, 육옥영, 조남은, 원희영, 김윤저, 임수진

제32회 정기총회

#### 17대 임원 선출

총회장: 최미영

부회장: 김정자, 김인숙, 이승민

사무총장: 오정선미

재무: 유미순

편집: 황정숙

간사: 한희영(교육), 권예순(홍보), 김원구 (웹마스터)

#### 지역협의회 회장

남서부: 이순희    뉴잉글랜드: 한순용    동남부: 선우인호

동북부: 김경옥    동중부: 설인숙    미시간: 오준석

북가주: 장은영    서북미: 고영란    워싱턴: 한연성

중남부: 김명숙    중서부: 명계웅    콜로라도: 유미순

플로리다: 김현    하와이: 손애자

#### 이사회 임원 및 선출이사

이사장: 장동구    부이사장: 김대영    총무이사: 김미경    직전 이사장: 이광호

2015년 8월 31일 임기 만료 선출 이사: 김태훈, 김옥현, 홍승희, 이시형, 추성희, 장동구, 신현주

2016년 8월 31일 임기 만료 선출 이사: 남일, 김대영, 안승훈, 김미경, 황현주, 고은자

2017년 8월 31일 임기 만료 선출 이사: 심운섭, 이승숙, 김선미, 송지은, 김사비나

## 2015년

### 1.17 홍보 브로셔 발행

1.17-18 2015년 1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서부지역) - 강의록 발행

장소: Hayatt Regency San Francisco, CA

주제: 차세대 교사의 현황과 과제

참가자: 교사 17명 및 관련자

### 1. 20 NAKS 홍보용 브로셔 발간

1. 23-24 지역협의회장, 집행부 임원 및 이사회 임원 연석 회의

장소: Orlando, FL

3. 20- 22 제 19회 SAT Subject Test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165개 학교에서 2,000명 응시

3. 31 '미국 정규학교에서의 한국 역사 문화 교육 실태 조사 및 향후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책자 발행

4. 6 회보 제 17-1호 발행

5. 23 헌장 제 9조 (정권 및 제명) 에 의거 이사회에서 강용진 제 16대 총회장 징계안 투표 결과 제명으로 가결되어 공포함.

7. 1 상설강사 목록집 발행

7.15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교운영 서식집 발행

7. 15 <한인교육연구> (Journal of Korean -American Education) 발행 - 통권 제30호

특집: 광복 70주년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 교육방향 모색

7.15 제 33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과 강의록 발행

### 7.16 - 18 제 33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장소 : Teaneck Marriote Hotel, Teaneck, NJ

주제: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

기조강연: 하형록 Tim Haahs & Associates 회장

특강: 스테디코리안 콘텐츠 이용 설명 -재외동포재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재외동포의 할 일 - 박기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단장

분반강의

뮤지컬로 배우는 한국어 (송지은)

한국어의 특징 (정희원)

눈높이가 맞아야 교실이 산다 (오승연)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 (김동희)

한국 역사 문화 교육 실태 조사 및 향후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윤제인 외)

The Pitfalls of Teaching Multicultural Education (아그네스 안)

한 시간 안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 학교 교사 되기 (최연미)

식민사관과 동북공정, 그리고 한국고대사 (김현숙)

한국어 교원을 위한 어문 규정의 이해 (이유원)

한국학교에서의 효과적인 문화 교육 방안 (이현구, 백승희)

자존감이 쑥쑥!! 마음발을 일궈내는 작업으로 (이미애)

재미있게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한국 근대사와 이민역사 공부 (오세웅 외)

2014 년 여름의 기억 - 고조선과 세 나라 이야기 (박찬미)

재미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 (정희원)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곳 - 독도특강 (신순식)

역사문화교재, '한국을 찾아라', '한국을 알자' 교수법과 활용사례 (김현주 외)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 (최은규)

교장 세미나: 한국학교 운영방안 및 토의

언어 정체성 향상을 위한 한국학교 말하기 교육론 (지현숙)

코리안 아메리칸 학생들의 건강한 바이컬처 (안은영)

젊은 세대 한인의 민족 정체성 형성 (민병갑)  
 다섯 빛깔, 독도 이야기 (김은희)  
 재미한인 소설 작품을 통한 한국 전통문화 (명계웅)  
 베짖이 학생과 배짖이 교사의 하루 (황희연)  
 한국 문화 교육 자료 개발과 활용 (배재원)  
 학습 단계별 교구를 이용한 한글 기초반 수업 활동 (김은정)  
 열 수업 안 부러운 비빔밥 프리젠테이션 (이유정)  
 한국학교가 품어야 할 또 하나의 한국인 (고은아)  
 오감충족~ 즐기며 배우는 문화 예술 (천세련)  
 한국어의 변화와 한국어 교육 방안 (조현용)  
 영화, 드라마를 이용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 (강주언)  
 생생하게 배우는 한국 역사 문화 (이윤경)  
 분단과 광복의 70 년 독도를 만나다 (김경희)  
 다섯 빛깔, 독도 이야기 (김은희)  
 우리 선생님이 만든 한글 책은 재미있어요! (박소미)  
 한국 차의 미학 - 우리 차에 대한 궁금증 (이근수)  
 라운드테이블  
 하형록 기조 강사와의 만남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의 만남  
 교육관과 함께하는 좌담회  
 NAKS 의 과거, 현재, 미래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중연수  
 한국어의 특징 (정희원 교수)  
 창의적인 학습 지도안 (박찬영 교수)  
 효과적인 학급운영 (조은미 교수)  
 한국(한글)학교 교수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평가론 (지현숙 교수)  
 한국어 교원을 위한 어문규정의 이해 (이유원 교수)  
 한국역사, 문화 스토리텔링 & 한국 바로 알리기 (이정애, 김보경 강사)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적 고찰 (이원우 강사)  
 우리 문화의 우수성:금속 활자 발명국, 코리아 (황정하 박사)

#### 목요특강

제 19회 SAT II 한국어 전국 모의고사 평가 및 영역별 출제 설명과 시험준비 전략  
 방정웅 위원장 및 위원, 김인숙 부회장  
 제 11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 지역협의회 대표 13명 중 3명이 발표  
 발표자 3명 주미대사상: 박세웅, 이윤재, 조승연  
 제 5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백범상: 황지원 (동북부협의회)  
 제 2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백범상: 김수현 교사 (동중부협의회)

####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상자

임지현, 김현정, 김상일, 김정미, 석수진, 전미경, 임현찬, 안승훈, 정지연, 이승연, 김현경, 김배선  
 • 개교 20주년 이상 한글/한국학교 표창

40년: 뉴잉글랜드한국학교, 실리콘밸리한국학교, 타코마한국학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공로패)

30년: 게인스빌한국학교, 달라스한국학교, 캐롤튼 제1캠퍼스, 성남요한한인천주교회한글학교, 신시내티한인장로교회한글학교, 에리자베스한국학교, 콩코드한국학교, 타코마제일한국학교

20년: 멤피스세종한국학교, 볼더한글학교, 스타튼반석한국학교, 아가페참빛한글학교, 아이에아한인문화학교, 아콜라한국문화학교, 영락한글학교, 우리한국학교, 탐파통합한국학교, 트랜톤한국학교, 하상한국학교, 호놀룰루한인문화학교

**장기근속교사 표창장 수상자**

40년: 윤정수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공로패)

30년: 장동구, 조신숙, 천세련, 황희연(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공로패)

25년: 권순우, 김정미, 심수목, 이연희, 홍태명

20년: 김대영, 김미라, 김미희, 김영선, 김인숙, 김정선, 김정자, 방화자, 수경박스, 유미옥, 윤제인, 이승민, 이애경, 이현경, 장인숙, 전미경, 정광현, 주민정, 허남자, 황정숙

15년: 고영란, 김경희, 김선화, 김순, 김순미, 김순희, 김신희, 김인숙, 김정애, 박미정, 신인철, 오승연, 오정례, 육옥영, 이순희, 이지민, 이현경, 임지현, 임현찬, 정혜선, 최정현, 허화진

10년: 강희갑, 권선주, 김경진, 김배선, 김선영, 김샌디, 김수진, 김아영, 김영미, 김은주, 김현경, 김(손)현숙, 나진영, 노정애, 박명희, 박유리, 박은경, 박은주, 박종권, 박현숙, 방진호, 손혜진, 송미령, 송아리, 신정희, 오성복, 오은정, 원은경, 유미선, 윤동숙, 이경수, 이경희, 이미애, 이은선, 이은영, 이지연, 이화영, 임선영, 임순희, 임연성, 임윤경,, 임은경, 임은천, 정광미, 조상안, 조성녀, 조은주, 진경애, 한은영

**국립국어원장 공로패:** 김경옥, 김태훈, 정광현, 최연미, 추성희, 한순용, 홍승희

**국립국제교육원장 공로패:** 강주언, 고영란, 명계웅, 선우인호, 유미순, 장은영

**직지상:** 김현주, 박은경, 윤제인, 김선미, 김경옥, 유미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표창:** 신현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공로패:** 김용순

**양해각서 체결:** 경상북도, 청주고인쇄박물관

10.29. NAKS 이사회 주관 기금모금 만찬회 개최

장소: 팰리스 식당 Annandale, VA

모금액: \$19,349.72

사용처: 차세대 교육 발전을 위한 교재 발간--> SAT Subject Test Korean 문제집 발간

**10.31-11.1. 제 2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 (동부지역 중심) - 강의록 발행**

장소: Courtyard Arlington Crystal City 주제: 차세대 교사의 현황과 과제 (참가교사: 19명, 임원 및 관련자)

11.2. 제 1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 대상: 노지영 (서북미협의회)

**2016년**

1.15 홍보 브로셔 발행

1.30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백서 (NAKS 35 Yearsof History) 발행 (편집: 최미영, 권예순, 황정숙)

1.30-31. 지역협의회 회장, 집행부 임원, 이사회 임원 연석회의 장소: Renaissance Denver Stapleton Hotel, CO

3.18-20. 제 20회 SAT Subject Test Korean (SAT II) 모의고사 실시 : 168개 학교에서 2,196명 응시

4.1. 회보 제 17-2호 발행

5.3. 양해각서 체결: 예뻐한복

6.8. 양해각서 체결: 독도재단

7.1. 표준평가문항집 발행 (Standardized Tests for Koreana Schools)

7.1. SAT Subject Test Korean 한국어 시험 준비서 발행 (2012-2015년 실제 모의고사 포함)

7.14. 한인교육연구(Journal of Korean- American Education) 발행 - 통권 제 31호

7.14. 제 34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학술대회 강의록 발행

7.14. 역사문화캠프 워크북 발행

7.14. 운영자 초청 워크숍 강의록 발행

**7.14-16. 제 34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장소: Renaissance Denver Stapleton Hotel, CO 주제: 소통과 공감의 열린 한국어 교육

동시개최: 집중연수회(7.13-14), 운영자 초청 워크숍(7.13-14),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역사문화 캠프,

한국문화체험관 오픈

기조 강연: 전현 교수 전체 강연: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동북아평화와 역사문제 (이현주)

문화간 의사 소통과 말하기 교육 (이해영) 재미한인 이민의 역사와 한국계 미국인 (장세윤)

자료로 본 한글의 역사 (박준호) 아동발달과 교육 (김태련)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보수 및 복원공사를 통해 본 역사적 의미' (김종헌)  
 20회 SAT 한국어 모의고사 평가 및 특강  
 나는 한국인도 아닌데, 왜 한국사를 배워야 하는 건가요? (심원섭)  
 Using linguistics to teach Korean vowel pronunciation (정소영)  
 동아시아사의 이해 (이장욱) 한국어평가, 무엇을 어떻게? (김재욱)  
 한국건축에 대한 새로운 이해 (김종헌) 노래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한국어 발음 교육 (육효창)  
 자료로 본 한글의 역사 (박준호)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교육자용 자료 (유자희, 루스랜잘)  
 "염소 4만원" 뮤직비디오 만들기 (권정)  
 소통하며 나누는 표준평가 문항집 (NAKS) 활용방안  
 Blended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in 21st Century (Elena Paul)  
 백범의 발자취를 따라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 (김수현)  
 살아있는 역사 교육을 위한 교실 수업사례 (우주연)  
 네 언어영역을 통합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대화 학습 활동 계획하기 (김상복)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 속으로 - 흥미진진 역사수업 (강성숙)  
 한글 속 이야기, 이야기 속 우리문화 (통합예술교육 컨설팅그룹 고래)  
 한국어, 문화를 말하다(조현웅) 시대변화와 교육 (김태련) 읽기 교육의 실제 및 원리 (이정란)  
 차 한 잔에 담겨있는 재미있는 한국이야기 (김재남) 노래로 배우는 시간 (송은경)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이정란) 살아 움직이는 역사문화 놀이터 (김지선, 최경선)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의 진실 (조우동)  
 소통하며 나누는 표준평가 문항집 (NAKS) 활용방안  
 한국어문법 어떻게 가르칠까? (방성원)  
 한글은 재미가 있다 (서재적)  
 웹을 이용한 멀티미디어는 MVP (김은영)  
 SAT한국어 시험을 위한 성공적인 수업방법 (강주언)  
 한국어 발음 교육의 이론과 실제 - 음절, 음운 현상, 억양 (박기영)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황정하)  
 한국학교 성인반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문법 연습 활동 (안은영)  
 한국어평가, 무엇을 어떻게? (김재욱)  
 살아있는 역사 교육을 위한 교실 수업사례 (우주연)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재미 한국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정실)  
 국립국어원 개발 한국어 교육 자료 현황과 활용법 (황용주)  
 다중지능 활동을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활동  
 - 2016 맞춤 한국어 (영어권) 교재를 중심으로 (이미혜)  
 미래 지향적인 열린 참여형 한국어 교육 방법 (한인손)  
 특별강의: 한글 속 이야기, 이야기 속 우리문화 (고래), 살아 움직이는 역사문화 놀이터  
 라운드테이블:  
 교육관 및 정부기관과의 만남  
 나스의 발전을 위한 만남

**집중연수회:**  
 한국어와 한글 (송철의 원장)  
 학습 지도안과 수업설계 (이해영 교수)  
 한국어 평가론 (김재욱 교수)  
 한국어 교육과정 (방성원 교수)  
 한국어 수업을 위한 발음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기영 교수)  
 효과적인 학급 경영 (김상복 교수)  
 국립국어원 개발 한국어 교육 자료 현황과 활용법 (황용주 연구관)  
 우리나라 독립운동 관련 한국 근현대사 (장세윤 실장)  
 자료로 본 한글의 역사 (박준호 연구위원)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보수 및 복원을 통해본 역사적 의미 (김종헌 전문위원)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표창장 수상 학교:

##### 개교 20주년 이상 한글/한국학교 표창

40년: 킬린한국학교, 뉴헤이븐한국학교, 스탠포아일랜드한인학교, 사모아 한글학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표창장)

30년: 어스틴 한국학교, 포트워스한국학교, 우스터한국학교, 웨잇빌한국학교, 성김대건한국학교, 델라웨어 한국학교, 와싱턴 세종 한국학교, 제일연합한국학교, 갈보리한국학교, 잭슨빌제일침례교회 아띠한국학교

20년: 어스틴한인장로교회 토요한국학교, 보스톤장로교회 한국학교, 그린랜드 한국학교, 퀸지한국학교, 성김대건 천주교회, 대철한국학교, 베다니한국학교, 프린스턴한국학교, 마린카운티 한국학교, 시애틀 벨뷰 통합 한국학교-시애틀 캠퍼스

##### 장기근속교사 표창장 수상자

35년: 이희숙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표창장)

30년: 심운섭, 이영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표창장)

25년: 방정웅, 명정호, 선우인호, 오정선미, 이현희

20년: 김숙희, 송진명, 최정화, 김미경, 김여원, 문혜은, 박선혜, 신성자, 원혜경, 이경애

15년: 김애경, 박순영, 박윤정, 홍미선, 김영순, 송미경, 안순지, 조진태, 양현숙, 강봉희, 백영숙, 이명원, 이정현, 이주연, 정영숙, 최혜숙, 한연성, 이주현, 진주연

10년: 김지영, 박수진, 박정림, 이상훈, 최정은, 현은정, 김진숙, 박소미, 염혜정, 김진영, 엄선규, 윤경윤, 한 송희, 송향화, 박준림, 최은정, 최지혜, 최 혜원, 김미경, 김영미, 방샘, 지수경, 김숙아, 노지현, 박주연, 소선주, 안향미, 이미희, 김진희, 명란경, 최현희

#####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표창장 수상자: 장동구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표창장 수상자: 김대영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공로패: 항보철, 감사패: 동북부지역협의회

대한민국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상자: 권예순, 길병도, 박지애, 송미령, 정광현, 정안젤라, 오미정, 이희숙, 고영란, 김선화, 윤한나, 김지민, 유미순, 이현희, 김옥심

국립국어원 원장 표창 수상자: 김명숙, 김미경, 나(윤)현주, 박은경, 박찬미, 백승희, 설인숙, 이현규, 한연성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표창장 수상자: 고은자, 김미경, 김정자, 이승민, 한희영, 황정숙, 황현주, 유미순

직지상 수상자: 오정선미, 권예순, 송아리, 원은경, 송은경, 최경선

<최종 작성일: 2016년 6월 25 일>

#### 연혁 작성의 내용 및 원칙

<편집자 주>

1. 중요 사항을 연대순으로 기록

2. 본 협의회가 발행한 모든 출판물을 기록

예) 한국어 교과서, 역사/문화 교과서 및 단원 (Module), <한인교육연구>지, 교육과정, SAT(II) 한국어 문제집, 회보,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및 강의록, 홍보용 안내 책자, 주소록

3. 대표자회의,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장소, 날짜, 주제, 참가 인원

주제강의와 특강 제목과 강사 이름 (학위와 직위 기록), 분과 강의 제목과 강사 이름, Workshop-SATII 한국어, 역사/문화 (학위와 직위생략)

교육자료 전시품은 제출 학교와 교사 이름 기록

4. NAKS가 증정한 감사패, 공로패

NAKS 임원이 타 기관으로 부터 받은 감사패, 공로패, 교육부 장관 감사장 수상자, 개교20년 이상된 학교 명단

장기 근속 교사 표창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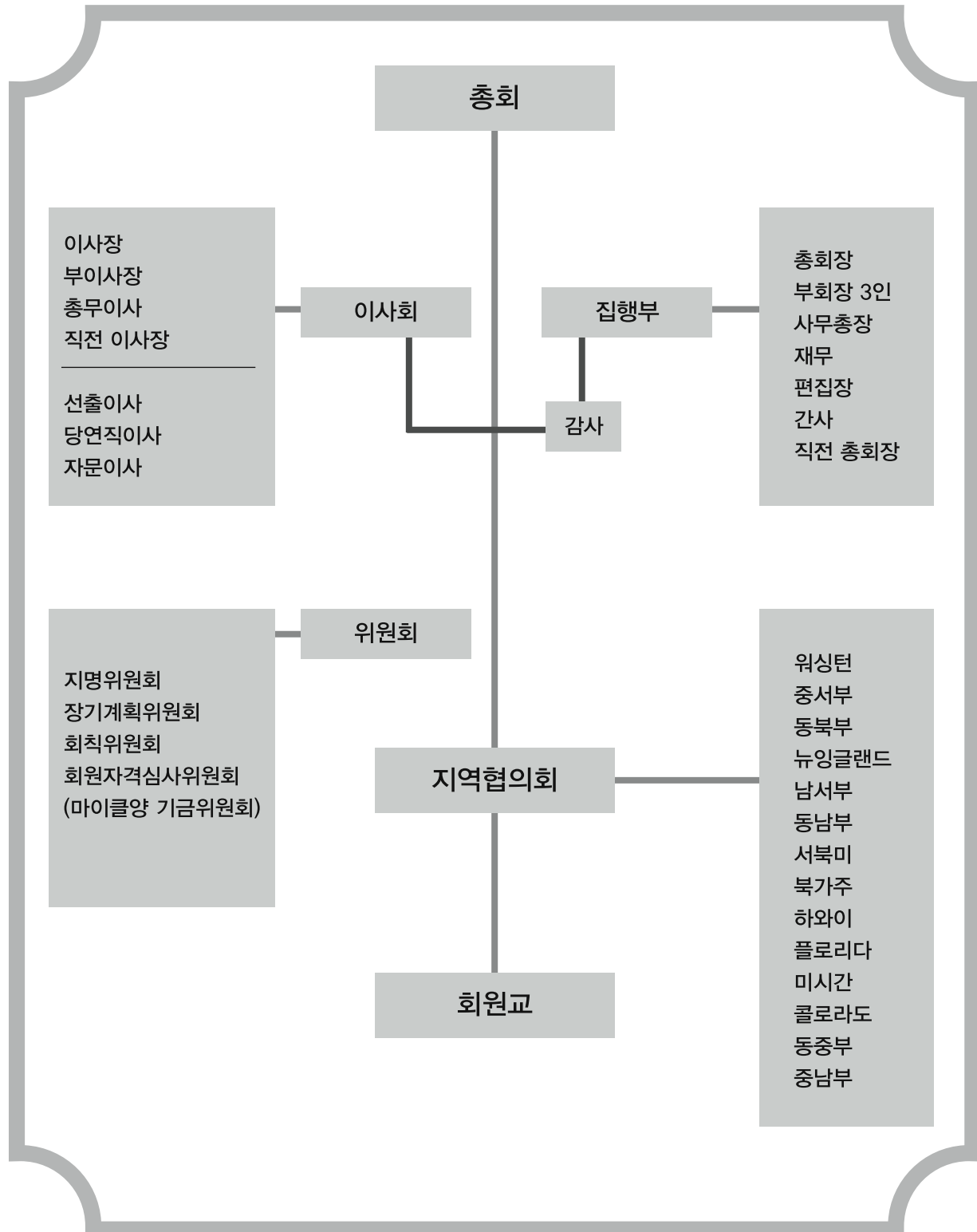
5. 회장단 및 임원 명단, 지역협의회 회장 명단, 이사장 및 이사회 임원 명단, 선출이사 및 감사 명단은 신임회장이 선출되는 해에 기록 (격년)

6. 본협의회에 후원금을 기증한 개인이나 단체 (1만불 이상) - 한국정부 지원금은 기록하지 않음 (매년 결산서에 기록됨)

7. 사업, 행사, 회의 등은 중요한 것을 골라 기록

연혁 초안은 모든 전직 회장들이 검토하였고 검토된 초안은 다시 현 17대 임원진에서 보완하였음. 과거 35년간의 업적을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교육 방향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위함. 이광호 전 이사장의 재정리와 검토 및 17대 편집장의 기록 및 수정과 편집으로 재구성함.

# NAKS 조직도



## NAKS 및 14 지역협의회 창립 연혁

| 번호 | 협의회 명칭        | 창립일          | 도시                | 초대 회장 |
|----|---------------|--------------|-------------------|-------|
| 1  |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창립  | 1981. 04. 18 | Washington D.C.   | 주하성   |
| 2  | 워싱턴지역협의회 창립   | 1984. 03. 23 | Washington D.C.   | 염영일   |
| 3  | 중서부지역협의회 창립   | 1985. 03.    | Chicago, IL       | 김기원   |
| 4  | 동북부지역협의회 창립   | 1985. 05. 11 | New York, NY      | 허병렬   |
| 5  |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창립 | 1989. 10. 14 | Boston, MA        | 김영집   |
| 6  | 남서부지역협의회 창립   | 1989. 11. 18 | Houston, TX       | 하인태   |
| 7  | 동남부지역협의회 창립   | 1990. 11. 03 | Atlanta, GA       | 김경숙   |
| 8  | 서북미지역협의회 창립   | 1991. 03. 01 | Seattle, WA       | 오계희   |
| 9  | 북가주지역협의회 창립   | 1991. 03. 02 | San Francisco, CA | 정희상   |
| 10 | 하와이지역협의회 창립   | 1991. 03. 03 | Honolulu, HI      | 조성천   |
| 11 | 플로리다지역협의회 창립  | 1991. 03. 16 | Miami, FL         | 정대용   |
| 12 | 미시간지역협의회 창립   | 1992. 03. 21 | Detroit, MI       | 남영림   |
| 13 | 콜로라도지역협의회 창립  | 1992. 03. 28 | Denver, CO        | 선창균   |
| 14 | 동중부지역협의회 창립   | 2000. 09. 30 | Philadelphia, PA  | 김정근   |
| 15 | 중남부지역협의회 창립   | 2007. 10. 13 | Indianapolis, IN  | 김용순   |

## 역대 이사회 임원

| 순위  | 이사장 | 임기                   | 부이사장         | 총무이사         | 감사                 |
|-----|-----|----------------------|--------------|--------------|--------------------|
| 초대  | 오학근 | 1981년 4월 ~ 1982년     |              |              | 고일석, 고충흠           |
| 2대  | 주하성 | 1984년 11월 ~ 1987년 8월 |              |              | 이춘재, 정금조           |
| 3대  | 강경식 | 1988년 9월 ~ 1991년 8월  |              | 류기창          | 김일호, 김치경           |
| 4대  | 허병렬 | 1991년 9월 ~ 1994년 8월  | 김치경<br>(김은자) | 류기창<br>(김은자) | 김숙자, 김송희           |
| 5대  | 황보철 | 1994년 9월 ~ 1997년 8월  | 이광자          | 이경이          | 김근순, 김정오           |
| 6대  | 서문원 | 1997년 9월 ~ 2000년 8월  | 김기봉<br>(임금진) | 조동렬<br>(김근순) | 김정태, 이휘자           |
| 7대  | 이상오 | 2000년 9월 ~ 2003년 8월  | 김홍준          | 남경숙          | 남영림, 이광호           |
| 8대  | 최경수 | 2003년 9월 ~ 2006년 8월  | 정원팔          | 심형란          | 이광자, 이휘자, 이내원      |
| 9대  | 김홍준 | 2006년 9월 ~ 2009년 8월  | 이내원          | 오금옥          | 홍태명, 조신숙, 정삼숙      |
| 10대 | 이내원 | 2009년 9월 ~ 2010년 8월  | 김수라          | 이호순          | 심상연, 홍태명           |
| 11대 | 이광호 | 2010년 9월 ~ 2013년 8월  | 장동구          | 이호순          | 문성록, 허남자, 김대영, 심형란 |
| 12대 | 장동구 | 2013년 9월 ~ 현재        | 김대영          | 김미경          | 신현주, 심운섭, 홍승희      |

## 역대 협의회 임원진

| 순위   | 년 대             | 회장                        | 부회장                | 총무<br>사무총장 | 재무               | 편집인 | 간사                   |
|------|-----------------|---------------------------|--------------------|------------|------------------|-----|----------------------|
| 제1대  | 1981.4~1984.10  | 주하성<br>Harold Chu         | 강경식<br>서문원<br>백예원  | 이서구        |                  |     |                      |
| 제2대  | 1984.11~1986.8  | 강경식<br>Kyung Sik Kang     | 서문원<br>김치경<br>염영일  | 이영장        | 고익곤              |     |                      |
| 제3대  | 1986.9~1988.8   | 서문원<br>Moon Won Suh       | 고익곤<br>김유미         | 김기봉        | 김영균              | 류기창 |                      |
| 제 4대 | 1988.9.~1990.8  | 허병렬<br>Grace Huh          | 황보철<br>이상오<br>정금조  | 김기봉        | 이휘자              |     |                      |
| 제5대  | 1990.9~1992.8   | 황보철<br>Charles C. Hwangbo | 남영림<br>김기봉<br>김일호  | 류기창        | 이휘자              | 허병렬 |                      |
| 제6대  | 1992. 9~1994.8  | 김기봉<br>Kibong Kim         | 김정오<br>이경이<br>류기창  | 이광자        | 김근순              | 허병렬 |                      |
| 제7대  | 1994. 9~1996.8  | 이상오<br>Sang-O Rhee        | 함혜란<br>김홍준<br>장혜경  | 방정웅        | 이휘자              | 허병렬 |                      |
| 제8대  | 1996.9~1998.8   | 최경수<br>Kyungsoo Choi      | 방정웅<br>이광호<br>박규영  | 명계웅        | 임선자              | 허병렬 | 김정태<br>(기록)          |
| 제9대  | 1998.9~2000.8   | 방정웅<br>Jung Woong Bang    | 이광자<br>임선자<br>손창현  | 장동구        | 심운섭              | 허병렬 |                      |
| 제10대 | 2000.9~2002.8   | 임선자<br>Suncha Lim Lee     | 김정태<br>김근순<br>강용진  | 심운섭        | 심수목              | 허병렬 |                      |
| 제11대 | 2002.9~2004.8   | 이광호<br>Kwang-Ho lee       | 장동구<br>남경숙<br>심운섭  | 김정근        | 이경이              | 이영주 | 이민노                  |
| 제12대 | 2004. 9~2006.8  | 손창현<br>Chang Hyun Son     | 정삼숙<br>심용휴<br>김정근  | 이민노        | 권옥순              | 이영주 | 손애자<br>최희윤<br>심수목    |
| 제13대 | 2006. 9~2008.8  | 김정근<br>JungKeun Gim       | 전수경<br>권옥순<br>이민노  | 남일         | 심형란              | 심수목 | 오선미<br>김진형           |
| 제14대 | 2008. 9~2010. 8 | 이민노<br>Paul M. Yi         | 김대영<br>신현주<br>남일   | 정용철        | 심형란              | 윤미자 | 오선미<br>고은자<br>엄재윤    |
| 제15대 | 2010.9~2012.8   | 심용휴<br>John Y. Shim       | 강상인<br>강남옥<br>최미영  | 남상엽        | 오금옥              | 김인숙 | 심정균<br>김에스터<br>이현진   |
| 제16대 | 2012.9~2014.8   | 강용진<br>Yongjin Kang       | 강남옥<br>문윤희<br>선우인호 | 김선미(전)     | 송지은(전)<br>한순용(후) |     | 노옥남<br>김금자<br>이정현(전) |
| 제17대 | 2014.9~2016.8   | 최미영<br>Miyoung Kim        | 김정자<br>김인숙<br>이승민  | 오정선미       | 유미순              | 황정숙 | 한희영<br>권예순<br>김원구    |

## 역대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지

| 회차   | 연도   | 날짜              | 개최 도시           | 개최지 지역<br>협의회      | 주제                         | 장소                    |
|------|------|-----------------|-----------------|--------------------|----------------------------|-----------------------|
| 제1회  | 1981 | 4월 (창립<br>총회)   | Arlington, VA   | 워싱턴                | N/A                        | Hyatt Hotel           |
| 제2회  | 1984 | 11월             | Arlington, VA   | 워싱턴                | N/A                        | Hyatt Hotel           |
| 제3회  | 1985 | 11월 30일         | New York, NY    | 동북부                | N/A                        | Holiday Inn           |
| 제4회  | 1986 | 9월 06일          | Chicago, IL     | 중서부                | N/A                        | Hyatt Lincolnwood     |
| 제5회  | 1987 | 8월 30일          | Baltimore, MD   | 워싱턴                | N/A                        | Omni Int'l Hotel      |
| 제6회  | 1988 | 8월 27일          | New York, NY    | 동북부                | 21세기로 가는 한인 2세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 Marriott Hotel        |
| 제7회  | 1989 | 8월 25일<br>~ 26일 | Chicago, IL     | 중서부                | 교육과정 정립으로 효과적인 2세교육을 하자    | Hyatt Hotel           |
| 제8회  | 1990 | 8월 24일<br>~ 25일 | Arlington, VA   | 워싱턴                | 한국의 얼을 심는 뿌리교육을 하자         | Holiday Inn           |
| 제9회  | 1991 | 8월 23일<br>~ 24일 | Houston, TX     | 남서부                | 한민족의 얼을 심는 뿌리교육을 하자        | Double Tree Hotel     |
| 제10회 | 1992 | 8월 28일<br>~ 29일 | Baltimore, MD   | 워싱턴                | 재미한인교육 재검토                 | BWI Marriott          |
| 제11회 | 1993 | 8월 27일<br>~ 28일 | New York, NY    | 동북부                | 향상하는 한국학교, 성장하는 꿈나무들       | Holiday Inn           |
| 제12회 | 1994 | 8월 19일<br>~ 20일 | Chicago, IL     | 중서부                | 세계화 시대의 2세교육               | Radisson Hotel        |
| 제13회 | 1995 | 8월 25일<br>~ 26일 | Los Angeles, CA | 미주한국학교협의회와<br>공동주최 | 21세기 지도자는 창의적인 2세교육으로      | Omni Angeles Hotel    |
| 제14회 | 1996 | 8월 09일<br>~ 10일 | Seattle, WA     | 서북미                | 2세 교육창달은 한국 고유문화 전승으로      | Pacific Lutheran Univ |
| 제15회 | 1997 | 8월 07일<br>~ 09일 | Chicago, IL     | 중서부                |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으로서의 2세 교육 | Chicago Marriott      |

|      |      |                 |                      |       |                                    |                                    |
|------|------|-----------------|----------------------|-------|------------------------------------|------------------------------------|
| 제16회 | 1998 | 8월 13일<br>~ 15일 | Atlanta, GA          | 동남부   | 차세대 한국어 교육의 최대효과는 교육과정의<br>표준화로부터  | Atlanta Airport Marriott           |
| 제17회 | 1999 | 7월 29일<br>~ 31일 | Dallas, TX           | 남서부   | 한국 교육의 창조성 재발견                     | Harvey Hotel                       |
| 제18회 | 2000 | 8월 03일<br>~ 05일 | San Francisco,<br>CA | 북가주   | 새 역사를 창조하는 교육 공동체                  | Clarion Hotel                      |
| 제19회 | 2001 | 7월 23일<br>~ 25일 | Arlington, VA        | 워싱턴   | 새천년의 한인학교                          | Hyatt Regency Crystal<br>City      |
| 제20회 | 2002 | 7월 18일<br>~ 20일 | Philadelphia,<br>PA  | 동중부   | 새 시대를 여는 교사                        | Hyatt Regency                      |
| 제21회 | 2003 | 7월 23일<br>~ 25일 | Honolulu, HI         | 하와이   | 다가올 100년과 차세대 교육                   | Hyatt Regency                      |
| 제22회 | 2004 | 7월 22일<br>~ 24일 | Atlanta, GA          | 동남부   |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의 확립                    | Atlanta Marriott<br>Gwinnett Place |
| 제23회 | 2005 | 7월 21일<br>~ 23일 | Houston, TX          | 남서부   | 차세대를 위한 올바른 정체성과 지도자 교육            | Hyatt Regency Houston<br>Airport   |
| 제24회 | 2006 | 7월 20일<br>~ 22일 | Denver, CO           | 콜로라도  | 세계속의 한류 문화와 창조적인 정체성 교육            | Hyatt Regency Tech<br>Center       |
| 제25회 | 2007 | 8월 02일<br>~ 04일 | Detroit, MI          | 미시간   |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과 교사의 역할             | Hyatt Regency Dearborn             |
| 제26회 | 2008 | 7월 17일<br>~ 19일 | Boston, MA           | 뉴잉글랜드 |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 교사의 역할                 | Sheraton Framingham<br>Hotel       |
| 제27회 | 2009 | 7월 22일<br>~ 24일 | Orlando, FL          | 플로리다  | 한민족 정체성 확립과 세계를 향한 인재교육            | Rosen Center Hotel                 |
| 제28회 | 2010 | 7월 22일<br>~ 24일 | Seattle, WA          | 서북미   | 한국어,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한국학교 교사 전<br>문성 향상 | Hyatt Regency                      |
| 제29회 | 2011 | 7월 14일<br>~ 16일 | San Francisco,<br>CA | 북가주   | 교과과정 확립과 전문성을 향한 도약                | Hyatt Regency                      |
| 제30회 | 2012 | 7월 24일<br>~ 26일 | Reston, VA           | 워싱턴   | 학술대회 30년의 교육적 성과와 미래의 방향           | Hyatt Regency Reston               |
| 제31회 | 2013 | 7월 18일<br>~ 20일 | Honolulu, HI         | 하와이   | 이민 110년과 한국학교                      | Hilton Hawaiian Village            |
| 제32회 | 2014 | 7월 03일<br>~ 05일 | Indianapolis,<br>IN  | 중남부   | 봉사와 전문성                            | JW Marriott Hotel                  |
| 제33회 | 2015 | 7월 16일<br>~ 18일 | Teaneck, NY          | 동북부   |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                 | Teaneck Marriott<br>Hotel          |

## 편집후기

‘미국에 날아온 민들레 사랑’ 라는 권두시로 한인교육연구지의 출간을 축하해 주신 시인 김송희님께 감사를 드린다. 시인은 재미한국학교동북부협의회 고문으로, 전직 회장으로 오랜 시간을 한국어 교육에 몸담으심으로 한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시인의 따뜻한 시어를 통해 역동하는 사랑을 배운다.

전남대 정치학과 교수이자 뉴욕시립대 교환교수이신 김재기 교수님의 최근 논문에서는 ‘재미한인 디아스포라와 정치적 신장’ 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미주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는 미국 선거에 많은 수가 등록 및 투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 곳곳의 한상들과도 교류협력을 통해 네트워킹도 진행, 미국 주류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들도 많기에 이제 이들의 역량을 정치적으로 결집시킬 네트워킹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과제를 받은 느낌이다.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글을 주신 김경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글을 보면,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의 조사 결과, 한민족 정체성은 가정에서의 한국과 관련한 활동이나 부모의 기대, 한민족 청소년간 교류 경험, 한국에서의 교육, 문화, 취업활동 교류 욕구가 영향을 미쳤으며,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대는 한민족 청소년간 교류 경험, 한국에서의 교육, 문화, 취업활동 교류 욕구, 한민족 정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을 높이고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한민족 청소년 간의 교류활동 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할 일이 많다.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으로 계신 김종언 배재대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도 한국 건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다. 목조 한옥에 대해 김 교수님의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무라는 재료는 땅 위에서 자라면서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재료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 사람이 생활하기 위한 공간을 감싸는 재료는 사람과 같은 속성을 지닌 재료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다.’ 우리 한민족의 자긍심을 느낀다.

송철의 국립국어원장님의 ‘한글의 특성과 전통시대 한글교육’ 에서는 한글교육의 효과적인 교재이었던 반절표를 소개한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반절표가 한글교육, 또는 국어교육에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이 반절표가 전통시대에 한글을 간편하고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교재였다 한다. 한글은 모으쓰기를 한다는 점에서 알파벳과는 다르기에 우리는 한글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나름의 독자적인 문자교육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창안해 내야 한다. 초보자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 반절표의 원리도 고려하면서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신선함이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조혜원 교수님의 ‘외국어 학습 표준에 따른 프로젝트 기반 교수법의 활용’ 에서는 북미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외국어 학습 표준을 소개하고 이에 근거하여 고안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의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외국어 학습 표준”의 5 Cs를 기반으로 PBL을 진행하게 되면, 교사는 보다 조직적이고 통합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한국 학교에도 프로젝트 기반 교수법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용한 교수 방법의 하나로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새롭고 신선한 교수방법의 제안이다.

이해영 교수님과 이정란 교수님의 ‘재외동포 여동을 위한 학습자 중심 한국어 교재 개발’에 관한 글을 받을 수 있어 기쁘다. 본고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재외동포 여동용 교재 개발의 지침과 이러한 지침을 적용한 바를 제시한다. 재외동

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경우 아동의 연령적 특징, 언어의 지역적 특징, 교수·학습 환경을 반영한 교재, 즉 학습자 중심의 교재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학습자 중심의 효과적인 한국어 교재들의 개발과 발전을 기대한다.

사이버한국외대 박기선 교수님 논고에서는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교실의 수업 대화를 분석한다, 수업 대화에서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요인은 수업의 목표 문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 눈높이에 맞추어서 화제 및 내용을 선정하고, 또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수업 구성원이 모두 발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 대화 중 통제된 언어 사용과 비언어적인 행동들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의사소통의 키는 역시 학습자 눈높이 맞추기임을 배운다.

황용주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님의 글에서는 국립국어원 개발 한국어 교육 자료 현황과 활용법을 제시한다. 이 글은 최근까지 국립국어원에서 개발된 자료들 중에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의 현황을 소개하고 활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방성원 교수님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이해’ 논고에서는 교육과정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본다. 한국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재미 한글/한국학교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와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고 학습자의 특징에 맞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숙지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펠리세이즈팍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황정숙은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교육에서의 기초 문법을 정리해 제시한다. 개정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주요 내용, 외래어 표기법과 규범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용 오류들을 점검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기초 문법의 주요 사항들을 영어 설명과 함께 다룬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반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문법 설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권말부록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연혁〉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신 이광호 전이사장님의 맘의 결정체라 하겠다. 협의회 17대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연혁들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기록하는 일도 내게는 큰 특권이였다. 1881년 창립된 본 협의회 역사가 벌써 35년이 되었다. 그간 35년의 역사를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우리 협의회로서도 보람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 본 한인교육연구지는 제 31호가 된다. 16대 임기의 2013년과 2014년에는 한인교육연구지가 책자로 발간이 되지 않았기에, 17대의 2015년 한인교육연구지가 제 30호가 되고, 본 2016년 한인교육연구지가 제 31호가 됨을 명백히 명시한다. 다시 한 번 한인교육연구지를 위해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집필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17대 편집장 **황정숙**



Ewha Womans University

# EWHA LANGUAGE CENTER

Since 1962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Program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은 지난 28년간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교재, 교수법 등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국내 최고의 한국어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최고의 교수진과 최고의 교재 그리고 섬세한 학생관리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만의 자랑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은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모인 다양한 연령의 남녀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시작하십시오.

입학절차 안내 및  
상담문의

홈페이지 <http://elc.ewha.ac.kr>  
메일 [kfi@ewha.ac.kr](mailto:kfi@ewha.ac.kr)

한국어로 여는 세상,  
이화에서 시작하십시오!

## 집중과정 : 10주 코스

수업시간: 월~금 09:10~13:00(오전반)  
14:00~17:50(오후반)

[일정]

| 학기        | 기간                            | 분반시험          | 오전반 등록마감      | 오후반 등록마감      |
|-----------|-------------------------------|---------------|---------------|---------------|
| 2016 가을학기 | 2016.09.08(목) ~ 2016.11.22(화) | 2016.09.05(월) | 2016.08.22(월) | 2016.08.29(월) |
| 2016 겨울학기 | 2016.12.13(화) ~ 2017.02.24(금) | 2016.12.08(목) | 2016.11.22(화) | 2016.11.29(화) |
| 2017 봄학기  | 2017.03.10(금) ~ 2017.05.19(금) | 2017.03.07(화) | 2017.02.20(월) | 2017.02.27(월) |
| 2017 여름학기 | 2017.06.13(화) ~ 2017.08.22(화) | 2017.06.08(목) | 2017.05.22(월) | 2017.05.29(월) |

[일정]

## 단기과정 : 3주 코스

| 학기            | 기간                            | 수업시간        | 분반시험          | 등록마감          |
|---------------|-------------------------------|-------------|---------------|---------------|
| 2016 겨울1차(1월) | 2017.01.04(수) ~ 2017.01.20(금) | 14:00~17:50 | 2017.01.03(화) | 2016.12.20(화) |
| 2016 겨울2차(2월) | 2017.02.01(수) ~ 2017.02.17(금) | 14:00~17:50 | 2017.01.31(화) | 2017.01.17(화) |
| 2017 봄1차(3월)  | 2017.03.07(화) ~ 2017.03.23(목) | 14:00~17:50 | 2017.03.06(월) | 2017.02.20(월) |
| 2017 봄2차(4월)  | 2017.03.29(수) ~ 2017.04.14(금) | 14:00~17:50 | 2017.03.28(화) | 2017.03.14(화) |
| 2017 여름1차(7월) | 2017.06.28(수) ~ 2017.07.14(금) | 14:00~17:50 | 2017.06.27(화) | 2017.06.13(화) |
| 2017 여름2차(8월) | 2017.08.03(목) ~ 2017.08.22(화) | 14:00~17:50 | 2017.08.01(화) | 2017.07.17(월) |
| 2017 여름3차(9월) | 2017.08.29(화) ~ 2017.09.14(목) | 14:00~17:50 | 2017.08.28(월) | 2017.08.14(월) |



9 791195 790418  
ISBN 979-11-957904-1-8